

2015년 대전광역시 청소년 실태조사

— 학생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기수, 조학래, 유선아



2015년 대전광역시 청소년 실태조사

— 학생청소년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김기수(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조학래(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선아(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위촉연구원)

연구보조원

조정하(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보조원)

자문위원

남미애(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은정(대전광역시청소년위캔센터 수련지원팀장)

민은정(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원유정(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 교육복지사)

이익선(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팀장)

이정미(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교육복지사)

정선영(대전광역시청소년드림인센터 소장)

조연희(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교육복지사)

황성미(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문화센터 사업부장)

.. 차례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5
제2장 조사개요	7
제1절 조사개요	7
1. 조사대상	7
2. 조사방법	7
3. 조사기간	7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8
제2절 조사 내용	9
제3절 표본설계	12
1. 표본설계의 기본방향	12
2. 모집단의 정의	12
3. 모집단 분석	12
4. 표본의 크기	20
5. 표본배분 및 표본추출	20
제3장 청소년실태조사 분석 결과	23
제1절 일반적 특성	23
제2절 건강	25
1. 수면시간	25
2. 아침 식습관	27
3. 운동	28

4. 주관적 건강상태	31
5. 스트레스	33
6. 정서 상태	44
제3절 사회·문화	63
1. 참여	63
2. 청소년 활동 및 시설 이용 경험	78
3. 미디어·인터넷	96
제4절 가정생활	99
1. 부모와 함께한 시간	99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	102
3. 가정생활 만족도	106
제5절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108
1. 학교생활 만족도	108
2. 학교 친구관계	114
3. 교사와의 관계	117
4. 학업성취도	119
5. 희망교육수준	121
6. 사교육	124
7. 방과 후 활동	126
제6절 문제행동 및 예방교육 경험	138
1. 문제행동	138
2. 예방교육 경험	147
제7절 진로	157
1. 향후 진로 계획	157
2. 진로 관련 부모님과의 대화 정도	159
3.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0
4.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	174
5. 장래 희망직업	181
6. 아르바이트 경험	182

제8절 인권 및 인생관	184
1.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184
2. 차별 경험률	190
3. 인권 태도	195
4. 인생관	198
 제4장 결론 및 제언	 20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05
1. 학생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205
2. 건강	205
3. 사회·문화	207
4. 가정생활	209
5.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210
6. 문제행동 및 예방교육 경험	212
7. 진로	213
8. 인권 및 인생관	214
제2절 제언	216
1. 청소년 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216
2. 청소년 사회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217
3. 가족관계 및 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219
4. 방과 후 동아리활동 활성화	221
5. 문제행동의 조기개입과 구체적인 자살 예방 대책 마련	222
6.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내실화	225
7. 청소년 단체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과학적인 청소년정책 체계 구축	226
 ○ 참고문헌	 229
 ○ 부록: 조사표	 231

• • 표 차례 • •

〈표 2-2- 1〉 2015년 대전광역시 청소년실태조사 조사 내용	10
〈표 2-3- 1〉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학교 수	13
〈표 2-3- 2〉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학급 수	14
〈표 2-3- 3〉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생 수: 학년, 성	15
〈표 2-3- 4〉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별 중·고등학생 수: 자치구, 성	16
〈표 2-3- 5〉 대전광역시 동구 학생 수	18
〈표 2-3- 6〉 대전광역시 중구 학생 수	18
〈표 2-3- 7〉 대전광역시 서구 학생 수	19
〈표 2-3-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생 수	19
〈표 2-3- 9〉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수	20
〈표 2-3-10〉 중·고등학교 표본 배분	21
〈표 2-3-11〉 중학교 표본 배분	21
〈표 2-3-12〉 고등학교 표본 배분	21
〈표 3-1-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4
〈표 3-2- 1〉 수면	26
〈표 3-2- 2〉 아침 식습관	27
〈표 3-2- 3〉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 참여 여부 및 활동시간	29
〈표 3-2- 4〉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신체활동의 종류	30
〈표 3-2- 5〉 주관적 건강상태	32
〈표 3-2- 6〉 학업문제(성적 등)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3
〈표 3-2- 7〉 가정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5
〈표 3-2- 8〉 또래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6
〈표 3-2- 9〉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7
〈표 3-2-10〉 외모(신체조건)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9
〈표 3-2-11〉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0
〈표 3-2-12〉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종합)	41

〈표 3-2-13〉 고민상담자	43
〈표 3-2-14〉 나는 사는 게 즐겁다	44
〈표 3-2-15〉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45
〈표 3-2-16〉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47
〈표 3-2-17〉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48
〈표 3-2-18〉 나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49
〈표 3-2-19〉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50
〈표 3-2-20〉 나는 사회적 규범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행동하고 결정한다	52
〈표 3-2-21〉 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53
〈표 3-2-22〉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54
〈표 3-2-23〉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5
〈표 3-2-24〉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56
〈표 3-2-25〉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58
〈표 3-2-26〉 나는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59
〈표 3-2-27〉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	60
〈표 3-2-28〉 나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62
〈표 3-3- 1〉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	64
〈표 3-3- 2〉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	65
〈표 3-3- 3〉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함	66
〈표 3-3- 4〉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67
〈표 3-3- 5〉 청소년정책이나 수립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69
〈표 3-3- 6〉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 참여도	70
〈표 3-3- 7〉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 참여도	71
〈표 3-3- 8〉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 참여도	73
〈표 3-3- 9〉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참여도	74
〈표 3-3-10〉 청소년정책이나 수립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참여도	76
〈표 3-3-11〉 청소년 참여 영역의 필요도와 참여도(종합)	77
〈표 3-3-12〉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79
〈표 3-3-13〉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81

〈표 3-3-14〉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2순위)	83
〈표 3-3-15〉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종합)	85
〈표 3-3-16〉 청소년활동 참여 경로	86
〈표 3-3-17〉 청소년활동 참여 이유	88
〈표 3-3-18〉 청소년활동 참여 만족도	89
〈표 3-3-19〉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동아리	91
〈표 3-3-20〉 시설 이용 경험	93
〈표 3-3-21〉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 인지도	95
〈표 3-3-22〉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경험	96
〈표 3-3-23〉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시간	98
〈표 3-4- 1〉 주중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	100
〈표 3-4- 2〉 주중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101
〈표 3-4- 3〉 학교나 학원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103
〈표 3-4- 4〉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104
〈표 3-4- 5〉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	105
〈표 3-4- 6〉 내 친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	106
〈표 3-4- 7〉 나는 현재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107
〈표 3-5- 1〉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109
〈표 3-5- 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10
〈표 3-5- 3〉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111
〈표 3-5- 4〉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112
〈표 3-5- 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은 만족스럽다	114
〈표 3-5- 6〉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115
〈표 3-5- 7〉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116
〈표 3-5- 8〉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17
〈표 3-5- 9〉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18
〈표 3-5-10〉 학업성적	120
〈표 3-5-11〉 학생청소년 본인의 희망교육수준	121
〈표 3-5-12〉 부모님 또는 양육자의 희망교육수준	123

〈표 3-5-13〉 사교육 경험 및 시간	125
〈표 3-5-14〉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정도	126
〈표 3-5-15〉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 활동(1순위)	128
〈표 3-5-16〉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 활동(2순위)	130
〈표 3-5-17〉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 활동(종합)	131
〈표 3-5-18〉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 활동(1순위)	133
〈표 3-5-19〉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 활동(2순위)	135
〈표 3-5-20〉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 활동(종합)	137
〈표 3-6- 1〉 흡연 경험	139
〈표 3-6- 2〉 음주 경험	140
〈표 3-6- 3〉 무단결석 경험	141
〈표 3-6- 4〉 가출 경험	143
〈표 3-6- 5〉 성관계 경험	144
〈표 3-6- 6〉 자살생각 경험(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	145
〈표 3-6- 7〉 문제행동 경험 정도(종합)	146
〈표 3-6- 8〉 인권교육 경험	148
〈표 3-6- 9〉 성교육 경험	149
〈표 3-6-10〉 다문화교육 경험	151
〈표 3-6-11〉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	152
〈표 3-6-12〉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경험	153
〈표 3-6-13〉 자살예방교육(생명존중교육) 경험	154
〈표 3-6-14〉 흡연·음주·약물예방교육 경험	155
〈표 3-6-15〉 최근 1년 동안 예방교육경험(종합)	156
〈표 3-7- 1〉 향후 진로계획	158
〈표 3-7- 2〉 향후 진로관련 부모님과의 대화 정도	159
〈표 3-7- 3〉 ‘진로와 직업’ 과목의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1
〈표 3-7- 4〉 현장학습이나 견학의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2
〈표 3-7- 5〉 상담교사의 상담 중심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4
〈표 3-7- 6〉 진로관련 검사의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5

〈표 3-7- 7〉 인터넷 또는 동영상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7
〈표 3-7- 8〉 소집단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8
〈표 3-7- 9〉 초청강연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70
〈표 3-7-10〉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71
〈표 3-7-11〉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종합)	173
〈표 3-7-12〉 진로박람회의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	174
〈표 3-7-13〉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도움 정도	176
〈표 3-7-14〉 산업체의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도움 정도	178
〈표 3-7-15〉 대학 실시 견학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도움 정도	179
〈표 3-7-16〉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종합)	180
〈표 3-7-17〉 장래희망 직업 결정 여부	182
〈표 3-7-18〉 아르바이트 경험	183
〈표 3-8- 1〉 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184
〈표 3-8- 2〉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86
〈표 3-8- 3〉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187
〈표 3-8- 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188
〈표 3-8- 5〉 인권의식(종합)	189
〈표 3-8- 6〉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90
〈표 3-8- 7〉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91
〈표 3-8- 8〉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93
〈표 3-8- 9〉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94
〈표 3-8-10〉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성, 빈부)	195
〈표 3-8-11〉 나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196
〈표 3-8-12〉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197
〈표 3-8-13〉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198
〈표 3-8-14〉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199
〈표 3-8-15〉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201
〈표 3-8-16〉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202
〈표 3-8-17〉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3

.. 그림 차례 ..

[그림 3-2- 1] 수면	26
[그림 3-2- 2] 아침 식습관	28
[그림 3-2- 3] 운동 또는 신체활동 참여 여부	29
[그림 3-2- 4] 운동 또는 신체활동 시간	29
[그림 3-2- 5]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신체활동의 종류	31
[그림 3-2- 6] 주관적 건강상태	32
[그림 3-2- 7] 학업문제(성적 등)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4
[그림 3-2- 8] 가정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5
[그림 3-2- 9] 또래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6
[그림 3-2-10]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8
[그림 3-2-11] 외모(신체조건)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9
[그림 3-2-12]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1
[그림 3-2-13]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종합)	42
[그림 3-2-14] 고민상담자	43
[그림 3-2-15] 나는 사는 게 즐겁다	45
[그림 3-2-16]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46
[그림 3-2-17]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47
[그림 3-2-18]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48
[그림 3-2-19] 나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50
[그림 3-2-20]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51
[그림 3-2-21] 나는 사회적 규범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행동하고 결정한다	52
[그림 3-2-22] 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53
[그림 3-2-23]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54
[그림 3-2-24]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6
[그림 3-2-25]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57
[그림 3-2-26]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58

[그림 3-2-27] 나는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60
[그림 3-2-28]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	61
[그림 3-2-29] 나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62
[그림 3-3- 1]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	64
[그림 3-3- 2]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	65
[그림 3-3- 3]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함	67
[그림 3-3- 4]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68
[그림 3-3- 5] 청소년정책이나 수립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69
[그림 3-3- 6]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 참여도	71
[그림 3-3- 7]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 참여도	72
[그림 3-3- 8]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 참여도	73
[그림 3-3- 9]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참여도	75
[그림 3-3-10] 청소년정책이나 수립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참여도	76
[그림 3-3-11] 청소년 참여 영역의 필요도와 참여도(종합)	77
[그림 3-3-12]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80
[그림 3-3-13]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82
[그림 3-3-14]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2순위)	84
[그림 3-3-15]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종합)	85
[그림 3-3-16] 청소년활동 참여 경로	87
[그림 3-3-17] 청소년활동 참여 이유	88
[그림 3-3-18] 청소년활동 참여 만족도	90
[그림 3-3-19]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동아리	92
[그림 3-3-20] 시설 이용 경험	94
[그림 3-3-21]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 인지도	95
[그림 3-3-22]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경험	96
[그림 3-3-23]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시간	98
[그림 3-4- 1] 주중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	100
[그림 3-4- 2] 주중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102
[그림 3-4- 3] 학교나 학원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103

[그림 3-4- 4]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104
[그림 3-4- 5]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	105
[그림 3-4- 6] 내 친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	106
[그림 3-4- 7] 나는 현재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107
[그림 3-5- 1]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109
[그림 3-5- 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10
[그림 3-5- 3]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112
[그림 3-5- 4]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113
[그림 3-5- 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은 만족스럽다	114
[그림 3-5- 6]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115
[그림 3-5- 7]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116
[그림 3-5- 8]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18
[그림 3-5- 9]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19
[그림 3-5-10] 학업성적	120
[그림 3-5-11] 학생청소년 본인의 희망교육수준	122
[그림 3-5-12] 부모님 또는 양육자의 희망교육수준	123
[그림 3-5-13] 사교육 경험 있음	125
[그림 3-5-14] 사교육 일주일 평균 시간	125
[그림 3-5-15]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정도	127
[그림 3-5-16]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 활동(1순위)	129
[그림 3-5-17]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 활동(2순위)	131
[그림 3-5-18]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 활동(종합)	132
[그림 3-5-19]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 활동(1순위)	134
[그림 3-5-20]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 활동(2순위)	136
[그림 3-5-21]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 활동(종합)	137
[그림 3-6- 1] 흡연 경험	139
[그림 3-6- 2] 음주 경험	140
[그림 3-6- 3] 무단결석 경험	142
[그림 3-6- 4] 가출 경험	143

[그림 3-6- 5] 성관계 경험	144
[그림 3-6- 6] 자살생각 경험(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	146
[그림 3-6- 7] 문제행동 경험 정도(종합)	147
[그림 3-6- 8] 인권교육 경험	148
[그림 3-6- 9] 성교육 경험	150
[그림 3-6-10] 다문화교육 경험	151
[그림 3-6-11]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	152
[그림 3-6-12]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경험	153
[그림 3-6-13] 자살예방교육(생명존중교육) 경험	154
[그림 3-6-14] 흡연·음주·약물예방교육 경험	155
[그림 3-6-15] 최근 1년 동안 예방교육경험(종합)	156
[그림 3-7- 1] 향후 진로계획	158
[그림 3-7- 2] 향후 진로관련 부모님과의 대화 정도	160
[그림 3-7- 3] '진로와 직업' 과목의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1
[그림 3-7- 4] 현장학습이나 견학의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3
[그림 3-7- 5] 상담선생님의 상담 중심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4
[그림 3-7- 6] 진로관련 검사의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6
[그림 3-7- 7] 인터넷 또는 동영상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7
[그림 3-7- 8] 소집단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69
[그림 3-7- 9] 초청강연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70
[그림 3-7-10]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72
[그림 3-7-11]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종합)	173
[그림 3-7-12] 진로박람회의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	175
[그림 3-7-13]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도움 정도	177
[그림 3-7-14] 산업체의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도움 정도	178
[그림 3-7-15] 대학 실시 견학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도움 정도	180
[그림 3-7-16]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종합)	181
[그림 3-7-17] 장래희망 직업 결정 여부	182
[그림 3-7-18] 아르바이트 경험	183

[그림 3-8- 1] 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185
[그림 3-8- 2]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86
[그림 3-8- 3]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187
[그림 3-8- 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188
[그림 3-8- 5] 인권의식(종합)	189
[그림 3-8- 6]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91
[그림 3-8- 7]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92
[그림 3-8- 8]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93
[그림 3-8- 9]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94
[그림 3-8-10] 성차별 경험	195
[그림 3-8-11] 빈부차별 경험	195
[그림 3-8-12] 나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196
[그림 3-8-13]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197
[그림 3-8-14]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199
[그림 3-8-15]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00
[그림 3-8-16]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201
[그림 3-8-17]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202
[그림 3-8-18]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3

요 약

1. 조사의 목적 및 조사개요

□ 청소년실태조사의 목적

-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이해 없이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효율적인 집행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함
- 이번 청소년 실태조사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 및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청소년실태조사의 개요

- 주요 조사내용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 사회·문화, 가정생활,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문제행동 및 예방교육 경험, 진로, 인권 및 인생관 등 7개 영역 28개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 조사대상은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과정상의 어려움으로 고등학교 3학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청소년의 성(남, 여)과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본추출 하였으며, 5개 자치구의 중·고등학교 학생 수를 고려하여 중학교 23개교 650명, 고등학교 17개교 481명, 총 1,131명을 조사하였음

II. 주요 조사결과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 조사완료한 1,129명의 학생청소년은 성별로는 남학생 49.7%, 여학생 50.3%이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57.4%, 고등학생이 42.6%임
- 거주지역은 서구(36.0%), 유성구(23.8%), 중구(14.9%), 동구(13.6%), 대덕구(11.7%)의 순임
- 종교가 없는 학생청소년은 53.2%,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청소년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와의 동거형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85.3%이고, 나머지 14.7%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건강

□ 수면시간

- 학생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주중 6시간 52분, 주말 8시간 37분이며, 이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비하여 대전광역시 학생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약간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7시간 10분)이 여학생(6시간 35분)보다, 중학생(7시간 28분)이 고등학생(6시간 3분)보다 많고, 주말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비슷하나, 중학생(8시간 54분)이 고등학생(8시간 14분)보다 많음

□ 아침 식습관

- 학생청소년의 4명 중 1명 정도(24.6%)는 아침 식사를 전혀 먹지 않거나 먹지 않는 편으로 나타남.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비율은 학생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운동

-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 참여 여부는 학생청소년 4명 중 3명 정도(77.0%)는 참여하였고, 일주일 동안 평균 활동시간은 4.3시간으로 나타남. 참여율은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비슷한 결과이지만, 평균 활동시간(3.3시간)은 1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학생청소년 4명 중 1명 정도인 23.0%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음

- 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 참여도와 활동시간은 남학생(80.6%, 5.2시간)이 여학생(73.5%, 3.2시간)보다, 중학생(81.0%, 5.0시간)이 고등학생(71.6%, 3.2시간)보다 많음
-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신체활동으로는 구기운동(56.9%), 등산·조깅·산책(53.0%), 줄넘기(41.4%), 자전거(3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남학생과 중학생은 구기운동을, 여학생과 고등학생은 등산·조깅·산책을 더 선호함

□ 주관적 건강상태

-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학생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84.5%)은 건강한 것으로 응답함. 남학생과 여학생은 비슷하나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스트레스

- 학생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은 학업문제(64.9%),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54.3%), 외모(신체조건) 문제(32.9%), 또래와의 관계 문제(19.5%), 가정불화 문제(11.3%), 경제적인 문제(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지만 외모(신체조건) 문제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조금 높음
-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학생(73.3%)이 남학생(56.3%)보다, 고등학생(73.7%)이 중학생(58.3%)보다 높음. 진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학생(64.3%)이 남학생(44.1%)보다, 고등학생(69.4%)이 중학생(43.0%)보다 높음

□ 고민거리 상담자

- 학생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인 42.0%는 자신의 고민거리 대화 상대자가 친구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30.4%)로 나타남. 그러나 학생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인 9.1%는 대화 상대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11.1%)이 고등학생(6.4%)보다 높게 나타남

□ 정서상태(행복감, 대인관계, 자율적 역량, 자아존중감, 우울)

- 학생청소년의 정서상태를 행복감, 대인관계, 자율적 역량, 자아존중감, 우울 등으로 살펴본 결과, 학생청소년들은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행복감은 남학생과 중학생이 여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대체로 높으며, 대인관계는 남학생과 고등학생이 여학생과 중학생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 자율적 역량은 성별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아울러 모든 영역에서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비하여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3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나는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응답이 54.3%,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는 응답이 61.4%, ‘나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2.6%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 청소년 2명 중 1명은 각각의 질문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결과에 비하여 대전광역시 학생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울 수준에 대한 각각의 질문에 여학생(각각 62.8%, 68.6%, 64.9%)이 남학생(각각 45.9%, 54.2%, 40.2%)보다, 고등학생(각각 63.8%, 69.4%, 61.7%)이 중학생(각각 47.2%, 55.4%, 4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사회·문화

□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과 참여도

- 학생청소년은 5개 사회참여 영역의 필요성을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88.2%),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83.6%), 청소년끼리 여가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활동(82.5%), 청소년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77.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이나 수립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70.4%)의 순으로 높게 인식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여학생과 고등학생이 남학생과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청소년은 5개 사회참여 영역의 참여도는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60.9%), 청소년끼리 여가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활동(41.4%), 청소년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26.3%),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23.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이나 수립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16.0%)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2014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비하여 대전광역시 학생청소년의 참여도가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아울러 5개 사회참여 영역의 참여도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청소년 활동 및 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 활동 10개 영역의 참여 경험률은 문화/예술활동 영역(64.4%), 직업/진로활동 영역(56.1%), 자원봉사활동 영역(50.4%), 건강/보건활동 영역(4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 활동 10개 영역 모두에서 여학생의 참여 경험률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은 과학/정보활동, 국제교류활동, 건강/보건활동, 환경보존활동 등에 많이 참여한 반면에 고등학생은 모험/개척활동, 자원봉사활동, 직업/진로활동, 자기계발활동 등에 많이 참여함
- 청소년 활동 10개 영역 중에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 영역은 문화/예술활동 영역(38.5%), 직업/진로활동 영역(15.8%), 모험/개척활동 영역(15.7%), 과학/정보활동 영역(8.8%)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 영역은 남학생은 문화/예술활동, 모험/개척활동의 순으로, 여학생은 문화/예술활동, 직업/진로활동의 순으로 나타남. 중학생은 문화/예술활동, 모험/개척활동, 직업/진로활동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문화/예술활동, 직업/진로활동, 모험/개척활동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 활동 참여 경로는 학교 교사의 권유로 참여하는 경우(32.0%)가 가장 많고, 부모 및 가족의 권유(31.0%), 친구나 선배의 권유(2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권유를 통해 참여함
- 참여 경로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학생은 부모 및 가족, 교사, 친구나 선배 등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교사, 친구나 선배, 부모 및 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 활동 참여 이유는 10명 중 5명 정도인 45.3%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참여하며,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14.4%),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 활동 참여 만족도는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5명 정도인 54.9%는 만족하고 있으며, 나머지 45.1%는 보통이거나 불만족임

- 학생청소년의 5명 중 1명 정도인 17.9%는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 10명 중 3명 정도인 29.1%는 사이버단체나 동아리에, 3명 중 1명 정도인 36.8%는 기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 학생청소년이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률은 공연시설(74.6%), 도서관(62.7%), 수목원 등(50.2%), 전시시설(49.6%), 청소년수련관 등(46.6%), 유스호스텔(24.2%), 사회복지관(2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 인지도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65.5%), 청소년국제교류활동(30.5%), 청소년어울림마당(24.9%), 청소년참여활동(24.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17.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미디어와 인터넷

- 학생청소년의 최근 1년간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경험률은 휴대전화 사용(90.0%), 인터넷 게임(79.4%), 인터넷(75.1%)의 순으로 나타남
- 남학생은 인터넷 게임(89.9%)의 이용 경험률이 높음, 여학생은 인터넷(82.2%)과 전화통화(94.2%)의 이용 경험률이 높음. 중학생은 인터넷 게임(85.6%), 고등학생은 인터넷(82.0%) 이용 경험률이 높음
-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시간은 주중에는 인터넷 게임(1시간 53분), 인터넷(1시간 48분), 휴대전화사용(1시간 7분)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말에는 인터넷 게임(3시간 1분), 인터넷(2시간 52분), 휴대전화 사용(1시간 33분) 등의 순으로 나타남

4. 가정생활

□ 부모와 함께한 시간(대화시간 포함)

- 주중에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학생청소년 2명 중 1명 정도인 50.2%는 1시간 미만으로 나타났고, 3명 중 1명 정도인 34.9%는 1시간 이상 함께한 것으로 나타남.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많음
- 주중에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학생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인 41.8%는 1시간 미만으로 나타났고, 2명 중 1명 정도인 49.2%는 1시간 이상 함께한 것으로 나타남.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많음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

- 학생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인 8.4%는 ‘학교나 학원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학생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인 11.2%는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아울러 학생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인 13.2%는 ‘부모님은 나의 친한 친구들을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 가정생활 만족도

-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청소년 10명 중 9명 정도인 86.8%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학생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인 13.3%는 만족하지 않음

5.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 학교생활 만족도

- 학업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학생청소년 3명 중 2명 정도인 64.9%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응답하였고, 학생청소년 3명 중 2명인 66.7%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학교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학생청소년 3명 중 2명 정도인 60.7%는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이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 한다’는 응답은 53.4%임
-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학생청소년 5명 중 4명 정도인 78.9%는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학생(82.1%)이 여학생(75.8%)보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81.4%)이 고등학생(75.6%)보다 만족도가 높음

□ 학교 친구관계

- 학생청소년의 대부분인 92.1%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고 응답하였고, 학생청소년 4명 중 3명 정도인 75.7%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고 응답하였음

□ 교사와의 관계

-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9명 정도인 87.8%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학생청소년 5명 중 3명 정도인 60.2%만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고 응답하였음

□ 학업성취도

- 학생청소년 3명 중 1명 정도인 33.8%는 자신의 학업성적을 우수하다고 평가하였고, 반면에 5명 중 2명 정도인 38.6%는 자신의 학업성적을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결과에 비하여 대전광역시 학생청소년은 자신들의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임을 알 수 있음

□ 희망 교육수준

- 학생 당사자의 희망 교육수준은 10명 중 8명 정도인 80.9%는 대학교(4년제) 이상까지 교육받기를 희망하며, 부모(양육자)가 갖고 있는 희망 교육수준은 10명 중 9명 정도인 87.8%는 대학교(4년제) 이상까지의 교육수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희망수준이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

- 최근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은 학생청소년 10명 중 7명 정도인 73.9%이며, 이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주당 사교육 시간은 7시간 12분으로 전국 평균인 9시간 30분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 경험률은 여학생(80.1%)이 남학생(67.4%)보다, 중학생(76.3%)이 고등학생(70.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주당 사교육 시간은 남학생(7시간 52분)이 여학생(6시간 41분)보다, 중학생(8시간 3분)이 고등학생(5시간 59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방과 후 활동

-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경우는 학생청소년 3명 중 1명 정도인 34.5%이며, 특히 거의 매일 혼자 있는 경우도 13.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학교급별로는 일주일에 1일 이상 혼자 있는 경우는 중학생(40.6%)이 고등학생(26.2%)보다 많음
- 평일 저녁식사 이전의 주된 활동은 학생청소년 4명 중 1명 정도인 24.6%는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학원이나 과외(20.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평일 저녁식사 이전의 주된 활동은 성별로는 남학생은 집에서 인터넷(28.7%), 여학생은 방과 후 학교(23.6%)가 가장 많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집에서 인터넷(30.3%), 고등학생은 방과 후 학교(34.2%)가 가장 많음

- 평일 저녁식사 이후의 주된 활동은 학생청소년 4명 중 1명 정도인 25.4%는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집에서 공부(21.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평일 저녁식사 이후의 주된 활동은 성별로는 남학생은 집에서 인터넷(29.2%), 여학생은 학교 자율학습(27.1%)이 가장 많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집에서 인터넷(32.6%), 고등학생은 학교 자율학습(45.6%)이 가장 많음

6. 문제행동 및 예방교육 경험

□ 문제행동

- 학생청소년에게 흡연, 음주 등 6가지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문제행동 경험률은 자살생각(1년) 16.2%, 술 마시기(일주일) 6.6%, 담배 피우기(일주일) 5.8%, 무단결석 4.2%, 가출 3.0%, 성관계 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등은 남학생과 고등학생이 여학생과 중학생보다 경험률이 높으나, 자살생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비슷함

□ 예방교육 경험

- 최근 1년간 문제행동 예방과 관련된 교육 경험률은 학교폭력예방교육(92.7%), 성교육(85.6%), 자살예방교육(81.7%), 흡연·음주·약물 예방교육(81.4%),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81.2%), 인권교육(55.4%), 다문화교육(48.8%)의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권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경험률이 낮음
- 예방교육의 횟수가 3회 이상의 주기적인 교육 경험은 학교폭력예방교육(38.1%), 성교육(25.8%),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22.9%), 흡연·음주·약물 예방교육(22.5%), 자살예방교육(20.0%) 등의 순이며, 인권교육(12.9%)과 다문화교육(11.2%)은 상대적으로 교육 횟수가 적음

7. 진로

□ 향후 진로 계획

- 학생 청소년 2명 중 1명인 53.2%는 상급학교 진학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3명 중 1명 정도인 31.2%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비하여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비율은 남학생(34.1%)이 여학생(28.4%)보다, 중학생(39.0%)이 고등학생(2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 학생청소년에게 8가지 유형의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률은 진로와 직업과목을 통한 진로교육(82.8%),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80.8%),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76.1%), 인터넷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한 진로교육(71.2%), 상담교사의 상담 중심 진로교육(66.7%),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66.7%),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66.6%), 저명인사나 선배 초청강연을 통한 진로교육(65.3%)의 순으로 나타남
- 진로교육 8가지 유형에 대한 경험률은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진로교육의 8가지 유형에 따른 도움 정도는 적게는 38.7%에서 많게는 54.7%로 나타나 진로교육 유형에 따라 도움 정도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 아울러 도움 정도는 학생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8가지 유형별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

- 학생청소년에게 4가지 유형의 진로체험에 대한 경험 및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진로체험 경험률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51.7%), 진로박람회(47.6%),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견학 프로그램(45.3%),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41.1%)의 순으로 나타남
- 진로체험의 유형에 따른 도움 정도는 적게는 24.1%~30.7%로 나타나 진로체험 유형에 따라 도움 정도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

□ 장래 희망 직업 및 아르바이트 경험

- 학생청소년 3명 중 2명 정도인 65.4%는 자신의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34.6%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학생청소년의 16.2%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남학생(20.6%)이 여학생(11.9%)보다, 고등학생(24.7%)이 중학생(9.9%)보다 경험률이 높음

8. 인권 및 인생관

□ 인권의식

- 학생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차별금지(94.9%), 표현의 권리(93.2%), 평등의 권리(93.1%), 사회참여의 권리(80.3%) 등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남
- 인권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차별경험

- 학생청소년의 성차별(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피해경험은 20.4%, 가해경험은 17.1%로 나타났고, 빈부차별(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 피해경험은 2.8%, 가해경험은 2.8%로 나타남
- 특히 성차별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남

□ 인생관

- 학생청소년 4명 중 3명 정도인 73.7%는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생청소년 3명 중 2명 정도인 64.5%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함. 결혼관은 남학생(75.1%)이 여학생(54.0%)보다, 중학생(69.5%)이 고등학생(57.8%)보다 높게 나타남
- 학생청소년 5명 중 4명인 82.3%는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응답함. 학생청소년 대부분인 95.4%는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학생청소년 5명 중 4명 정도인 77.8%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함

III. 제언

- 조사결과에 기초해볼 때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건강, 사회 참여 및 활동, 가족환경, 방과 후 보호 및 활동, 다양한 문제행동, 진로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수행이 요구됨을 제안하였음
 - 청소년 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 가족관계 및 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 방과 후 동아리활동 활성화
 - 문제행동의 조기개입과 구체적인 자살 예방 대책 마련
 -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내실화

- 아울러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과학적인 청소년 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신체·심리·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발달과 경험은 성인기 이후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동시에 현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집단이기도 하므로 현재 청소년이 어떻게 성장·발달해 나가는가에 대한 탐색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청소년기는 긍정적인 변화와 동시에 부정적인 변화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특징적 발달양상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기를 서로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다. 신체적 발달측면에서는 제2의 성장급등기(second growth spurt), 성적 성숙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사춘기(puberty)라 불린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심리적 이유기(psychological weaning), 정서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질풍노도의 시기(storm and stress period)라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제2의 반항기(second opposition period)이지만, 여전히 어린이도 성인도 아닌 주변인(marginal man)에 머물러 있는 특징적인 발달의 양상을 보인다(권중돈, 2014). 또한 청소년기는 제2의 탄생기, 부적응 시기, 제2의 반항기, 고민과 고통의 시기, 초조 불안의 갈등 시기, 행동의 중용이 없는 시기, 질풍노도와 같은 어려운 시기라고 불린다(양석호, 1991).

이렇듯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청소년 당사자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겪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정보화·글로벌화·네트워크화 등의 거시적인 환경과 가족·학교·지역·사회 등의 미시적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발달과업들을 달성하며 미래의 역량 있는 차세대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달리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성인처럼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기보다는 환경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홍봉선·남미애, 2010).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사회환경은 청소년에게 친화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의 사회환경이 결코 청소년에게 친화적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을 것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중장기 미래사회 환경 예측과 관련된 연구(이경상 등, 2014)에서,

앞으로의 사회환경이 청소년에게 친화적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사회 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양극화 사회와 위험 증가,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저 신뢰사회와 갈등증가, 다문화 포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직접적으로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다양한 미래사회의 환경변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의 변화로 청소년기가 길어지면서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역할 구조에 흡수되지 못함으로써 갖는 소외감, 사회적·심리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약받음으로써 갖는 좌절감과 불만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개인별 직업과 사회적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이 시기 동안 겪는 청소년의 욕구와 갈등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김성이 등, 2010).

따라서 청소년에게 친화적이지 못한 미래 환경에 대비하고, 청소년 당사자와 사회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의 변화 양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마련되어야 하므로, 청소년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과 청소년정책 수행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청소년 실태 기초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 실태에 대한 전국 데이터는 여러 측면에서 구축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점으로 인해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조사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시행되며,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가치관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2년 주기로 시행되며, 향후에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통합하여 조사될 예정이다.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시행되며, 조사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19세미만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비행, 가출, 학교 부적응 등)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문화 변화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통합하여 조사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성장·발달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권리신장 및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중고등학생의 건강행태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건강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정책의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청소년활동 참가실태조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 조사는 대전지역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분석이 필요하나 사례수의 부족 등 통계적으로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대전광역시에도 전국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경험은 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0년과 2012년에 ‘대전 청소년생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조사에서는 대전광역시 5개 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27개교 재학생 2,312명과 아동복지법상 취약위기청소년과 소년법상 비행청소년, 학교 밖 및 기타 청소년 등은 대안학교, 직업학교, 시설학교 등에 소속해 있는 청소년 347명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위기평정척도(한국청소년상담원, 2010)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기 보다는 대전지역 청소년들이 처한 위기상황, 위기요소와 수준 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다른 연구인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는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대전지역 거주 청소년(14~19세) 1,134명(중고등학생 788명,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3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주말 및 공휴일 등 여가시간을 이용한 청소년활동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특성의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실태조사’는 2013년에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전광역시와 함께 수행하였으며,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대전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14~19세의 대전지역 청소년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 실태와 관련된 다양한 전국 조사와 대전광역시에서 이루어진 청소년과 관련된 몇몇 조사가 있지만, 이 모든 조사연구들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

거나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 파악이 아닌 특정한 문제나 욕구 파악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청소년실태조사는 대전광역시 청소년 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 및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거주 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실태 및 욕구 등을 파악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 청소년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지역 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연구는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청소년을 규정하는 연령은 개별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24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대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층은 제외하였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은 제외하였다. 이는 조사기간, 조사비용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학생청소년으로 제한하였고, 초등학생은 발달특성상 중·고등학생과 같은 지표와 방법으로 조사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2013년에 대전광역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올해 전국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청소년 중심의 실태조사이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문화, 가정생활, 학교 및 방과 후 활동, 문제행동 및 예방교육 경험, 진로, 인권 및 인생관 등의 생활 전반과 청소년의 가치관, 인권의식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였다.

둘째,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청소년의 주요 특성인 성별,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과 대전광역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구별로 분석하여 청소년의 특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전국조사와 비교분석하여 현재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생활실태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 정책 및 대전광역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효과적인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전국 청소년과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생활실태 비교를 통해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관련 연구기관의 선행연구를 주로 검토하였고, 전국조사와 이번 조사와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의 검토를 위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등의 전국조사를 검토하였다. 또한 대전광역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대전광역시 청소년생활실태조사,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

사, 학교 밖 청소년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아동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대전광역시 교육청 그리고 대전광역시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2) 설문조사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전국 청소년의 수준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4)의 조사내용과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2015년 대전광역시 청소년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으로 1,100명을 목표로 표본추출하였다. 2014년 대전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성별, 학교급별, 학년별 특성을 파악하였고,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적 분포를 확인하였다.

학교당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전수조사하였다. 조사는 선정된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조사표를 우편발송하여, 담임교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은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다시 담임교사가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앞서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이번 대전광역시 청소년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목적 등을 안내하고, 조사내용과 방법 등을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 안내 하였다.

3) 전문가 자문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실태조사이므로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부터 현재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실태, 복지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번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과 조사에 포함될 내용 및 구성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에는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동부 및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전문가, 대전광역시 청소년기관 중 수련시설, 이용시설, 생활시설 등의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청소년실태조사 결과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전광역시의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서면자문을 통해 내용의 보완을 실시하였다.

제2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본 실태조사는 대전광역시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및 대전광역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고등학교 3학년은 조사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본 실태조사는 1,100명을 목표표본으로 하여 청소년의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과 성별, 자치구를 층화하여 추출하였다.

2. 조사방법

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담임교사가 조사표를 배부하고, 청소년 당사자가 자기 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표에 응답하였으며, 이를 다시 담임교사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담임교사가 취합하여 반송우편을 통해 대전복지재단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아울러 조사대상 학교섭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표본추출된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17개교 등 총 50개교에 공문 및 협조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후에 대전복지재단에서 공문 및 협조안내문, 설문지, 답례품 등을 발송하였다.

3. 조사기간

청소년실태조사는 2015년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하였다.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관리자가 조사표의 응답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조사항목 중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부실 기재한 문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조사계획에 따른 철저한 조사수행과 자료수집 및 검수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사례 수는 1,129명이며, 이를 모두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드북에 따라 부호화한 후 자료입력원을 통해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자료입력원은 대전복지재단 연구의 자료입력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SPSS 통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입력하였다. 자료입력이 완료된 후 입력에러 확인, 아이디 오류 확인, 범주 에러 확인, 로직 에러 확인, 산식 에러 확인 등의 자료 확인 작업을 통해 최종 데이터 클리닝을 완료하였다.

본 실태조사 보고서는 조사결과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빈도, 백분율, 평균 및 교차분석 중심의 기술통계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분석은 기본적으로 성별,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 지역(5개 자치구)에 따른 차이에 관심을 두고 실시하였다. 문항분석에 있어 관련성이 없는 ‘비해당’과 ‘무응답’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승수 적용결과 반올림에 의하여 백분율이 100.0을 약간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도 ‘계’에서는 100.0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실태조사의 조사결과를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등과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제2절 조사 내용

본 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영역을 건강, 사회·문화, 가정생활,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문제행동 및 예방교육 경험, 진로, 인권 및 인생관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는 대전광역시 청소년과 전국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비교하고자 각 영역의 세부 조사 내용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등의 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청소년관련 단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조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역은 크게 7개 영역, 28개 세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건강 영역에서는 수면, 아침 식습관,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서 등 6개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참여, 청소년 활동 및 시설이용 경험, 단체 또는 동아리활동, 청소년시설 이용경험, 프로그램 인지도, 미디어·인터넷 등 6개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 관심, 가정생활만족도 등 3개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영역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성적, 사교육, 희망 교육 수준, 방과 후 활동 등의 5개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문제행동 및 예방교육 경험은 비행, 예방교육 경험 등 2개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진로 영역에서는 향후 진로계획, 진로교육 및 체험 경험, 희망직업, 아르바이트 경험 등의 4개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 및 인생관 영역에서는 차별경험, 인권태도, 인생관 등 3개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2-2-1〉 2015년 대전광역시 청소년 실태조사 조사 내용

영역	세부영역	문항	지표 출처	비고
건강	수면	평소 기상 및 취침 시간(평일, 휴일)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식습관	아침 식사 습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운동	지난 1주일간 운동이나 야외활동 여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운동이나 야외활동 시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최근 1년 신체활동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수준 평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스트레스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관계, 경제문제, 외모(신체) 문제, 진로불안 등의 스트레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고민거리 상담자(처)	고민거리 상담자(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정서	행복감, 대인관계, 자율적 역량, 자아존중감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우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사회문화	참여	경제활동, 봉사활동, 문화활동, 참여활동, 정책참여활동 등의 필요도, 참여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개인활동 및 시설이용경험	문화예술활동, 과학정보활동, 모험개척활동, 자원봉사활동, 직업진로활동, 정책참여활동, 국제교류활동, 건강보건활동, 자기개발활동, 환경보존활동 등의 참여경험, 횟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참여경로, 참여이유, 참여만족도,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1,2순위) 등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단체 또는 동아리활동	가입 청소년 시설 단체(참여경험, 횟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가입 사이버단체(참여경험, 횟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기타 단체(참여경험, 횟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도서관, 공연시설, 전시시설, 사회복지관, 수목원 등의 이용경험 및 횟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프로그램 인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등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미디어,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게임, 전화통화 등 이용 여부 및 시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2-2-1〉 2015년 대전광역시 청소년 실태조사 조사 내용(계속)

영역	세부영역	문항	지표 출처	비고
가정생활	부모님과 의 관계	대화시간(아버지, 어머니)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부모 관심	낮은 귀가, 건강, 학교생활, 친구 등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가정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학교생활만족도	학습활동, 대인관계, 학교환경 등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교성적	주관적 성적평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교육	사교육 경험 및 시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희망교육수준	본인의 희망교육수준, 부모님의 희망교육수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보내는 일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방과 후 주된 활동(1, 2순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문제행동 및 예방교육 경험	비행	담배, 술, 무단결석, 집단 따돌림, 돈이나 물품 뺏기, 가출,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	건강행태온라인조사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살생각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예방교육경험	인권교육, 성교육, 다문화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약물예방교육 등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진로	진로계획	향후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 진로 계획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진로교육 및 체험 경험	진로교육(8개영역)경험, 도움정도 진로체험(4개영역)경험, 도움정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희망직업	희망직업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인권 및 인생관	인권의식	인권의식 인권태도(공동체의의식, 다문화수용성)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차별경험	차별경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인생관	가치관	청소년가치관조사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 생년월일, 학년 및 학교급, 종교, 거주 지역, 부모 와의 동거형태 등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제3절 표본설계

1. 표본설계의 기본방향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청소년의 변화추이를 예측하여 청소년 정책 수립의 자료를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신뢰성 높은 통계량 생산을 위해 표본의 크기는 청소년의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 및 학년, 성별, 5개 자치구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적정표본수를 산정하였다. 조사의 목표집단은 2015년 4월 1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표본 표집틀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2014년 대전교육통계연보 자료에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약 11만 명이다. 표본 규모는 1% 정도인 1,100명으로 학교급 및 학년(중·고등학교,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성별, 5개 자치구별로 층화하여 청소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모집단의 정의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 88개교에 재학 중인 56,765명, 고등학교 62개교에 재학 중인 40,593명(1, 2학년)의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이를 조사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3. 모집단 분석

청소년실태조사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학교급 및 학년, 성별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대전광역시 각 자치구별 모집단을 분석하였다. 2014년 대전교육통계연보(대전광역시교육청, 2014a)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수는 총 150개교로 남자학교 27개교(18.0%), 여자학교 21개교(14.0%), 공학학교 102개교(68.0%)이며, 전체 150개교 중 중학교가 88개교(58.7%), 고등학교가 62개교(41.3%)이다. 전체 150개교 중 동구 21개교(14.0%), 중구 28개교(18.7%), 서구 46개교(30.7%), 유성구 38개교(25.3%), 대덕구 17개교(11.3%)이다.

중학교 전체 88개교 중 남자학교 11개교(12.5%), 여자학교 9개교(10.2%), 공학학교 68개교(77.3%)이며, 자치구별로는 동구 12개교(13.6%), 중구 14개교(15.9%), 서구 29개교(33.0%), 유성구 21개교(23.9%), 대덕구 12개교(13.6%)이다. 고등학교 전체 62개교 중 남자학교 16개교(25.8%), 여자학교 12개교(19.4%), 공학학교 34개교(54.8%)이며, 자치구별로는 동구 9개교(14.5%), 중구 14개교(22.6%), 서구 17개교(27.4%), 유성구 17개교(27.4%), 대덕구 5개교(8.1%)이다.

〈표 2-3-1〉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학교 수

(단위: 개)

구분		계	남자학교	여자학교	공학학교
전체	계	150	27	21	102
	동구	21	8	4	9
	중구	28	11	12	5
	서구	46	5	4	37
	유성구	38	1	1	36
	대덕구	17	2	0	15
중학교	계	88	11	9	68
	동구	12	4	2	6
	중구	14	5	6	3
	서구	29	1	1	27
	유성구	21	0	0	21
	대덕구	12	1	0	11
고등학교	계	62	16	12	34
	동구	9	4	2	3
	중구	14	6	6	2
	서구	17	4	3	10
	유성구	17	1	1	15
	대덕구	5	1	0	4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학급 수는 총 3,672개 학급으로 중학교가 1,805개 학급(49.2%), 고등학교가 1,867개 학급(50.8%)이다. 전체 중·고등학교 학급 수 중 동구 501개 학급(13.6%), 중구 716개 학급(19.5%), 서구 1,188개 학급(32.4%), 유성구 857개

학급(23.3%), 대덕구 410개 학급(11.2%)이다.

자치구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급 수는 동구는 중학교 220개 학급(43.9%), 고등학교 281개 학급(56.1%), 중구는 중학교 267개 학급(37.3%), 고등학교 449개 학급(62.7%), 서구는 중학교 665개 학급(56.0%), 고등학교 523개 학급(44.0%), 유성구는 중학교 396개 학급(46.2%), 고등학교 461개 학급(53.8%), 대덕구는 중학교 257개 학급(62.7%), 고등학교 153개 학급(37.3%)이다.

중학교 학급 수는 총 1,805개 학급 중 자치구별로는 동구 220개 학급(12.2%), 중구 267개 학급(14.8%), 서구 665개 학급(36.8%), 유성구 396개 학급(21.9%), 대덕구 257개 학급(14.2%)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557개 학급(30.9%), 2학년 592개 학급(32.8%), 3학년 588개 학급(32.6%), 특수학급이 68개 학급(3.8%)이다.

고등학교 학급 수는 총 1,867개 학급 중 자치구별로는 동구 281개 학급(15.1%), 중구 449개 학급(24.0%), 서구 523개 학급(28.0%), 유성구 461개 학급(24.7%), 대덕구 153개 학급(8.2%)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606개 학급(32.5%), 2학년이 607개 학급(32.5%), 3학년이 608개 학급(32.6%), 특수학급이 46개 학급(2.5%)이다.

〈표 2-3-2〉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학급 수

(단위: 개)

구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3,672	501	716	1,188	857	410
중학교	계	1,805	220	267	665	396	257
	1학년	557	67	83	205	123	79
	2학년	592	72	87	219	133	81
	3학년	588	70	87	220	126	85
	특수학급 수	68	11	10	21	14	12
고등학교	계	1,867	281	449	523	461	153
	1학년	606	90	145	169	153	49
	2학년	607	92	146	169	151	49
	3학년	608	92	149	173	145	49
	특수학급 수	46	7	9	12	12	6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총 117,774명으로 중학생이 56,765명(48.2%), 고등학생이 61,009명(51.8%)이다.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은 61,515명(52.2%), 여학생은 56,259명(47.8%)이다. 전체 중학생 56,765명 중 남학생이 29,644명(52.2%), 여학생은 27,121명(47.8%)이며, 전체 고등학생 61,009명 중 남학생은 31,871명(52.2%), 여학생은 29,138명(47.8%)이다. 아울러 전체 남학생 61,515명 중 중학생은 29,644명(48.2%), 고등학생은 31,871명(51.8%)이며, 전체 여학생 56,259명 중 중학생은 27,121명(48.2%), 고등학생은 29,138명(51.8%)이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전체 중학생 중 1학년 17,581명(31.0%), 2학년 19,807명(34.9%), 3학년 19,377명(34.1%)이며, 전체 고등학생 중 1학년 20,332명(33.3%), 2학년 20,261명(33.2%), 3학년 20,416명(33.5%)이다.

〈표 2-3-3〉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생 수: 학년, 성

(단위: 명)

구분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계	117,774	56,765	61,009
	남	61,515	29,644	31,871
	여	56,259	27,121	29,138
1학년	계	37,913	17,581	20,332
	남	19,884	9,235	10,649
	여	18,029	8,346	9,683
2학년	계	40,068	19,807	20,261
	남	20,799	10,262	10,537
	여	19,269	9,545	9,724
3학년	계	39,793	19,377	20,416
	남	20,832	10,147	10,685
	여	18,961	9,230	9,731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별 중·고등학생 수는 전체 중·고등학생 117,774명 중 동구 15,521명(13.2%), 중구 23,187명(19.7%), 서구 39,046명(33.2%), 유성구 27,607명(23.4%), 대덕구 12,413명(10.5%)이다. 중학생의 경우 전체 중학생 56,765명 중 동구 6,680명(11.8%), 중구 8,298명(14.6%), 서구 21,317명(37.6%), 유성구 12,639명(22.3%), 대

덕구 7,831명(13.8%)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고등학생 61,009명 중 동구 8,841명(14.5%), 중구 14,889명(24.4%), 서구 17,729명(29.1%), 유성구 14,968명(24.5%), 대덕구 4,582명(7.5%)이다.

자치구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중학생이 48.2%, 고등학생이 51.8%이며, 동구는 중학생이 43.0%, 고등학생이 57.0%, 중구는 중학생이 35.8%, 고등학생이 64.2%, 서구는 중학생이 54.6%, 고등학생이 45.4%, 유성구는 중학생이 45.8%, 고등학생이 54.2%, 대덕구는 중학생이 63.1%, 고등학생이 36.9%이다.

〈표 2-3-4〉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별 중·고등학생 수: 자치구, 성

(단위: 명)

구분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계	117,774	56,765	61,009
	남	61,515	29,644	31,871
	여	56,259	27,121	29,138
동구	계	15,521	6,680	8,841
	남	9,279	4,053	5,226
	여	6,242	2,627	3,615
중구	계	23,187	8,298	14,889
	남	11,308	3,669	7,639
	여	11,879	4,629	7,250
서구	계	39,046	21,317	17,729
	남	19,436	11,106	8,330
	여	19,610	10,211	9,399
유성구	계	27,607	12,639	14,968
	남	14,694	6,612	8,082
	여	12,913	6,027	6,886
대덕구	계	12,413	7,831	4,582
	남	6,798	4,204	2,594
	여	5,615	3,627	1,988

대전광역시 동구의 학생 수는 15,521명으로 중학생이 6,680명(43.0%), 고등학생이 8,841명(57.0%)이며, 동구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은 9,279명(59.8%), 여학생은 6,242명(40.2%)이다. 중학생 중 남학생은 4,053명(60.7%), 여학생은 2,627명(39.3%)이며, 고등학생 중 남학생은 5,226명(59.1%), 여학생은 3,615명(40.9%)이다.

대전광역시 중구의 학생 수는 23,187명으로 중학생이 8,298명(35.8%), 고등학생이 14,889명(64.2%)이다. 중구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은 11,308명(48.8%), 여학생은 11,879명(51.2%)이다. 중학생 중 남학생은 3,669명(44.2%), 여학생은 4,629명(55.8%)이며, 고등학생 중 남학생은 7,639명(51.3%), 여학생은 7,250명(48.7%)이다.

대전광역시 서구의 학생 수는 39,046명으로 중학생이 21,317명(54.6%), 고등학생이 17,729명(45.4%)이며, 서구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은 19,436명(49.8%), 여학생은 19,610명(50.2%)이다. 중학생 중 남학생은 11,106명(52.1%), 여학생은 10,211명(47.9%)이며, 고등학생 중 남학생은 8,330명(47.0%), 여학생은 9,399명(53.0%)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학생 수는 27,607명으로 중학생이 12,639명(45.8%), 고등학생이 14,968명(54.2%)이며, 유성구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은 14,694명(53.2%), 여학생은 12,913명(46.8%)이다. 중학생 중 남학생은 6,612명(52.3%), 여학생은 6,027명(47.7%)이며, 고등학생 중 남학생은 8,082명(54.0%), 여학생은 6,886명(46.0%)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학생 수는 12,413명으로 중학생이 7,831명(63.1%), 고등학생이 4,582명(36.9%)이며, 대덕구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은 6,798명(54.8%), 여학생은 5,615명(45.2%)이다. 중학생 중 남학생은 4,204명(53.7%), 여학생은 3,627명(46.3%)이며, 고등학생 중 남학생은 2,594명(56.6%), 여학생은 1,988명(43.4%)이다.

〈표 2-3-5〉 대전광역시 동구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계	15,521	6,680	8,841
	남	9,279	4,053	5,226
	여	6,242	2,627	3,615
1학년	계	4,918	2,068	2,850
	남	2,973	1,287	1,686
	여	1,945	781	1,164
2학년	계	5,301	2,334	2,967
	남	3,120	1,375	1,745
	여	2,181	959	1,222
3학년	계	5,302	2,278	3,024
	남	3,186	1,391	1,795
	여	2,116	887	1,229

〈표 2-3-6〉 대전광역시 중구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계	23,187	8,298	14,889
	남	11,308	3,669	7,639
	여	11,879	4,629	7,250
1학년	계	7,564	2,612	4,952
	남	3,685	1,150	2,535
	여	3,879	1,462	2,417
2학년	계	7,781	2,880	4,901
	남	3,771	1,263	2,508
	여	4,010	1,617	2,393
3학년	계	7,842	2,806	5,036
	남	3,852	1,256	2,596
	여	3,990	1,550	2,440

〈표 2-3-7〉 대전광역시 서구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계	39,046	21,317	17,729
	남	19,436	11,106	8,330
	여	19,610	10,211	9,399
1학년	계	12,414	6,520	5,894
	남	6,198	3,429	2,769
	여	6,216	3,091	3,125
2학년	계	13,274	7,438	5,836
	남	6,611	3,850	2,761
	여	6,663	3,588	3,075
3학년	계	13,358	7,359	5,999
	남	6,627	3,827	2,800
	여	6,731	3,532	3,199

〈표 2-3-8〉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계	27,607	12,639	14,968
	남	14,694	6,612	8,082
	여	12,913	6,027	6,886
1학년	계	9,134	4,006	5,128
	남	4,922	2,116	2,806
	여	4,212	1,890	2,322
2학년	계	9,520	4,473	5,047
	남	5,016	2,341	2,675
	여	4,504	2,132	2,372
3학년	계	8,953	4,160	4,793
	남	4,756	2,155	2,601
	여	4,197	2,005	2,192

〈표 2-3-9〉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계	12,413	7,831	4,582
	남	6,798	4,204	2,594
	여	5,615	3,627	1,988
1학년	계	3,883	2,375	1,508
	남	2,106	1,253	853
	여	1,777	1,122	655
2학년	계	4,192	2,682	1,510
	남	2,281	1,433	848
	여	1,911	1,249	662
3학년	계	4,338	2,774	1,564
	남	2,411	1,518	893
	여	1,927	1,256	671

4. 표본의 크기

본 조사의 표본설계는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을 층화하고, 성별과 자치구를 2차 층화함으로써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학교급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조사기간과 소요비용의 제한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전체 표본크기를 1,100명 수준으로 정한 후에 각 학교급 및 학년별로 학생 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5. 표본배분 및 표본추출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학교급별 표본에서 배분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층화계통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성별과 자치구를 내재적 층화변수로 사용하였다. 전체 표본 1,100명 중 남학생이 574명, 여학생이 526명이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641명, 고등학생이 459명이다. 이를 자치구별로는 동구 141명, 중구 205명, 서구 373명, 유성구 258명, 대덕구 123명이다. 이를 학교급별로 나누어 표본 배분을 살펴보면 다음 〈표 2-3-10〉, 〈표 2-3-11〉, 〈표 2-3-12〉와 같다.

〈표 2-3-10〉 중고등학교 표본 배분

(단위: 명)

구분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체	1,100	574	526	641	335	306	459	239	219
동구	141	85	57	75	46	30	66	39	27
중구	205	98	107	94	41	52	111	57	54
서구	373	188	185	241	125	115	133	62	70
유성구	258	137	121	143	75	68	115	62	53
대덕구	123	67	56	88	47	41	34	19	15

〈표 2-3-11〉 중학교 표본 배분

(단위: 명)

구분	전체			중1			중2			중3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체	641	335	306	199	104	94	224	116	108	219	115	104
동구	75	46	30	23	15	9	26	16	11	26	16	10
중구	94	41	52	30	13	17	33	14	18	32	14	18
서구	241	125	115	74	39	35	84	43	41	83	43	40
유성구	143	75	68	45	24	21	51	26	24	47	24	23
대덕구	88	47	41	27	14	13	30	16	14	31	17	14

〈표 2-3-12〉 고등학교 표본 배분

(단위: 명)

구분	전체			고1			고2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체	459	239	219	230	120	109	229	119	110
동구	66	39	27	32	19	13	34	20	14
중구	111	57	54	56	29	27	55	28	27
서구	133	62	70	67	31	35	66	31	35
유성구	115	62	53	58	32	26	57	30	27
대덕구	34	19	15	17	10	7	17	10	7

제3장 청소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제1절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49.7%(561명), 여자 50.3%(567명)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은 12세부터 18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13세 이하가 17.1%(193명), 14세 19.3%(217명), 15세 22.9%(258명), 16세 20.4%(229명), 17세 이상은 20.3%(228명)로 각각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57.4%(648명), 고등학생이 42.6%(481명)로 중학생이 14.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생은 중1 29.0%(188명), 중2 32.9%(213명), 중3 38.1%(247명), 고등학생은 고1 47.6%(229명), 고2 52.4%(252명)이다.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기독교)가 28.5%(320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불교 10.5%(118명), 천주교(가톨릭) 6.9%(77명), 기타 1.0%(11명)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경우도 53.2%(598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36.0%(40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유성구 23.8%(268명), 중구 14.9%(167명), 동구 13.6%(153명), 대덕구 11.7%(131명)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형태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85.3%(958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하고만 함께 사는 경우는 8.0%(90명), 아버지하고만 함께 사는 경우는 4.3%(48명),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도 2.4%(27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561	49.7
	여자	567	50.3
	전체	1,128	100.0
연령	12세	6	0.5
	13세	187	16.6
	14세	217	19.3
	15세	258	22.9
	16세	229	20.4
	17세	219	19.5
	18세	9	0.8
	전체	1,125	100.0
학교급 및 학년	중학교	648	57.4
	중1	188	29.0
	중2	213	32.9
	중3	247	38.1
	고등학교	481	42.6
	고1	229	47.6
	고2	252	52.4
	전체	1,129	100.0
종교	없다	598	53.2
	개신교(기독교)	320	28.5
	천주교(가톨릭)	77	6.9
	불교	118	10.5
	기타	11	1.0
	전체	1,124	100.0
거주지	동구	153	13.6
	중구	167	14.9
	서구	405	36.0
	유성구	268	23.8
	대덕구	131	11.7
	전체	1,124	100.0
부모님과 동거형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살고 있음	958	85.3
	아버지하고만 함께 살고 있음	48	4.3
	어머니하고만 함께 살고 있음	90	8.0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살고 있지 않음	27	2.4
	전체	1,123	100.0

제2절 건강

본 절에서는 학생청소년의 건강실태를 수면, 아침 식습관,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서 상태의 6개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 대전 학생청소년의 전반적 건강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전국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세부영역을 성별, 학교급, 구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대전지역 학생청소년의 건강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면시간

대전 학생청소년들의 수면과 관련하여 본 조사에서 주중과 주말의 취침 및 기상 시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표 3-2-1>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은 주중에는 평균적으로 자정을 넘겨 오전 0시 1분에 잠자리에 들었으며, 오전 6시 53분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에도 오전 0시 33분에 취침하였고, 오전 9시 10분에 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각은 주중과 주말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약 2시간 20분 정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수면 시간의 경우에는 주중 수면시간은 평균 6시간 52분이었고, 주말에는 8시간 37분으로 나타나 대전 학생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주말에 잠을 더 많이 자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은 주중에는 평균적으로 오후 11시 46분에 잠자리에 들었으며, 오전 7시 13분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약간 늦게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에는 자정을 넘겨 오전 0시 14분에 취침하였고, 오전 9시 4분에 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각은 주중과 주말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일어나는 시각은 약 1시간 50분 정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수면 시간의 경우에는 주중 수면시간은 평균 7시간 27분이었고, 주말에는 8시간 50분 정도로 나타났다. 이처럼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주중이나 주말의 수면시간이 약간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의 수면시간을 성별로 보면 주중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0분 이상 더 자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말에는 남학생(8시간 35분)과 여학생(8시간 39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주중과 주말의 수면시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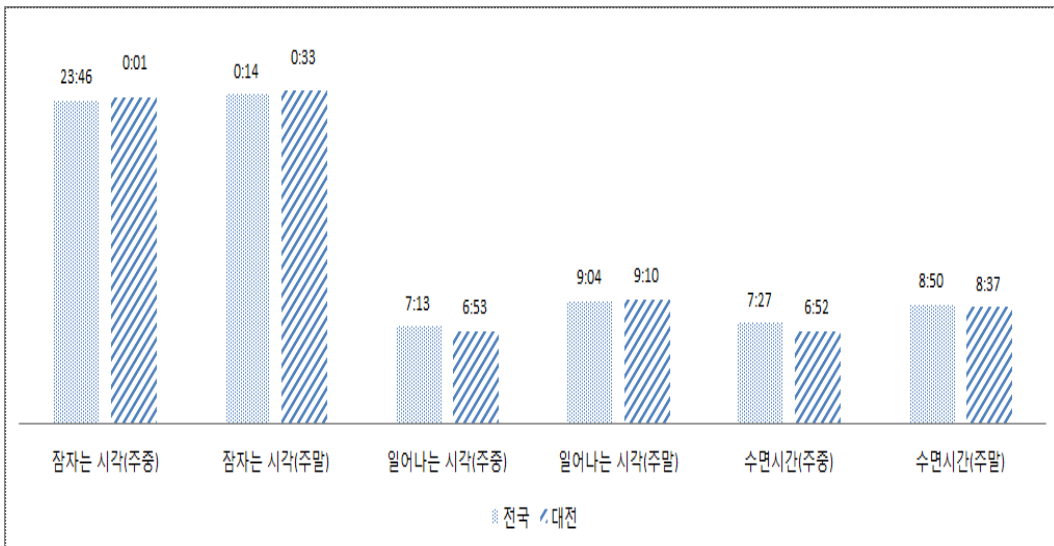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동구가 상대적으로 주중(7시간 8분)이나 주말(8시간 47분) 모두 잠을 더 많이 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수면

(단위: 시각, 시간)

구분		잠자는 시각(주중)	잠자는 시각(주말)	일어나는 시각(주중)	일어나는 시각(주말)	수면시간(주중)	수면시간(주말)
전국		23:46	24:14	7:13	9:04	7:27	8:50
대전		24:01	24:33	6:53	9:10	6:52	8:37
성별	남자	23:50	24:23	7:00	8:58	7:10	8:35
	여자	24:11	24:43	6:46	9:22	6:35	8:39
학교급	중학교	23:34	24:11	7:02	9:05	7:28	8:54
	고등학교	24:38	25:02	6:41	9:16	6:03	8:14
구	동구	23:50	24:46	6:58	9:33	7:08	8:47
	중구	23:55	24:24	6:43	8:50	6:48	8:26
	서구	24:03	24:35	6:59	9:20	6:56	8:45
	유성구	24:05	24:37	6:53	9:11	6:48	8:34
	대덕구	24:06	24:29	6:46	8:51	6:40	8:22

[그림 3-2-1] 수면



2. 아침 식습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침 식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들이 아침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3-2-2>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4명 중 1명 정도인 24.6%(전혀 9.1%+대체로 15.5%)는 아침식사를 전혀 먹지 않거나 대체로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결식현황과 영양상태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아침을 전혀 먹지 않거나 대체로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23.7%(전혀 7.7%+대체로 16.0%)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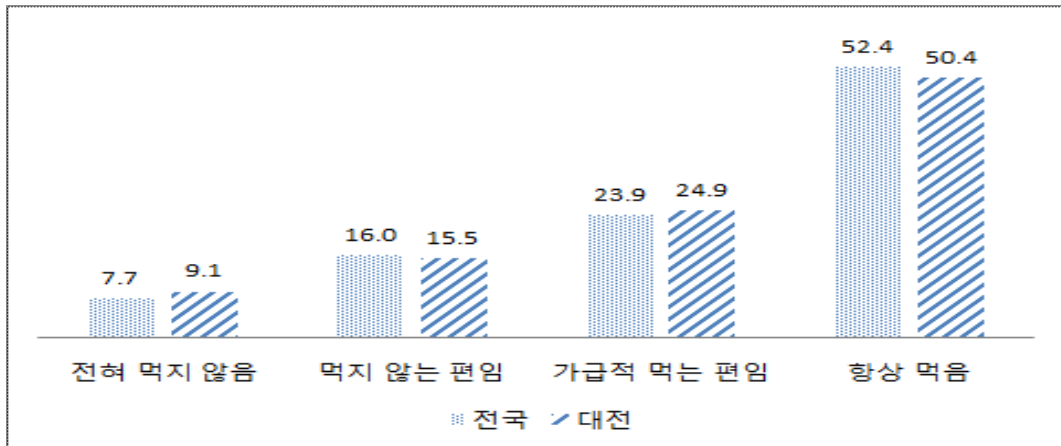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는 여학생(25.6%)이 남학생(23.8%)보다, 중학생(25.5%)이 고등학생(23.5%)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대덕구(36.7%)와 중구(26.3%)가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2> 아침 식습관

(단위: %)

구분		전혀 먹지 않음	먹지 않는 편임	가급적 먹는 편임	항상 먹음
전국		7.7	16.0	23.9	52.4
대전		9.1	15.5	24.9	50.4
성별	남자	10.3	13.5	25.0	51.3
	여자	8.0	17.6	24.7	49.7
학교급	중학교	9.5	16.0	25.7	48.8
	고등학교	8.6	14.9	23.9	52.6
구	동구	5.9	16.8	22.7	54.6
	중구	10.4	15.9	23.8	50.0
	서구	8.8	12.5	21.6	57.1
	유성구	9.3	14.6	31.7	44.4
	대덕구	12.5	24.2	25.0	38.3

[그림 3-2-2] 아침 식습관



3. 운동

1) 신체활동의 참여 여부 및 활동시간

청소년기에 운동이나 신체활동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정기적으로 배우는 운동 포함)이나 신체활동의 참여 여부 및 활동시간을 질문한 결과는 <표 3-2-3>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7명 이상인 77.0%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이나 야외 신체활동에 참여하였고, 이들의 일주일 동안 평균 활동시간은 4.3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의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이나 야외 신체활동에 참여한 경우(76.1%)와 거의 비슷하였지만, 평균 활동시간(3.3시간)은 1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동이나 신체활동에서 대전 학생청소년들의 평균 활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주일 동안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학생청소년(23.0%)의 참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의 운동이나 야외 신체활동 참여율은 남학생(80.6%)이 여학생(73.5%)보다, 중학생(81.0%)이 고등학생(7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대덕구(81.4%)가 신체활동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동구(74.1%)와 중구(74.4%)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시간을 보면, 남학생(5.2시간)이 여학생(3.2시간)보다, 중학생(5.0시간)이 고등학생(3.2시간)보다 2시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서구(4.7시간)와 대덕구(4.7시간)가 활동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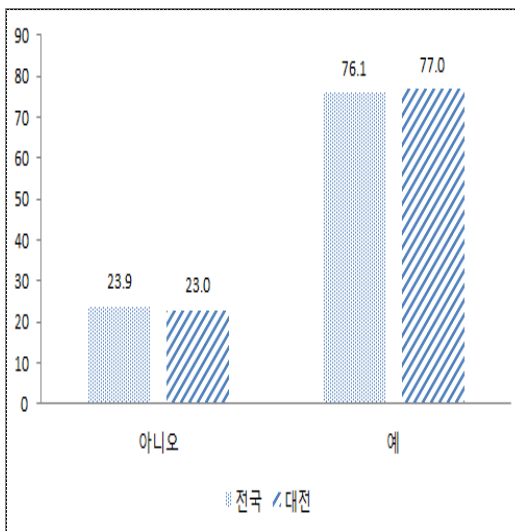
이런 결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덕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참여시간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2-3〉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 참여 여부 및 활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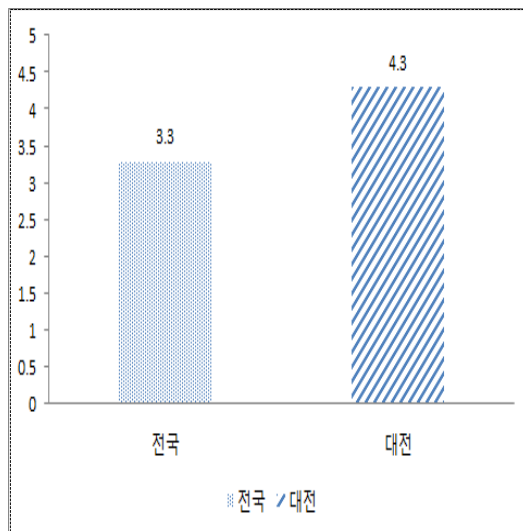
(단위: %, 시간)

구분		아니오	예	활동시간
전국		23.9	76.1	3.3
대전		23.0	77.0	4.3
성별	남자	19.4	80.6	5.2
	여자	26.5	73.5	3.2
학교급	중학교	19.0	81.0	5.0
	고등학교	28.4	71.6	3.2
구	동구	25.9	74.1	4.0
	중구	25.6	74.4	3.9
	서구	23.2	76.8	4.7
	유성구	21.2	78.8	3.9
	대덕구	18.6	81.4	4.7

[그림 3-2-3] 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 참여 여부



[그림 3-2-4] 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 시간



2) 참여한 신체활동의 종류

최근 1년 동안 청소년들이 참여한 신체활동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3-2-4>와 같다. 최근 1년 동안 대전 학생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신체활동으로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구기운동(56.9%)과 등산, 조깅, 산책 등(53.0%)의 비교적 가벼운 운동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줄넘기(41.4%)와 자전거(37.2%) 등으로 나타나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비교적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신체활동은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구기운동(25.6%)과 등산, 조깅, 산책 등(22.6%)의 비교적 가벼운 운동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줄넘기(17.6%)와 자전거(17.5%)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순서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2-4>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신체활동의 종류

(단위: %)

구분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구기운동	등산, 조깅, 산책	줄넘기	수영	기타
전국		2.8	17.5	25.6	22.6	17.6	4.6	9.3
대전(복수 응답)		4.2	37.2	56.9	53.0	41.4	11.8	21.6
성별	남자	2.4	45.9	77.3	42.1	27.6	12.2	20.7
	여자	6.0	28.3	36.6	63.7	55.2	11.6	22.6
학교급	중학교	6.0	42.0	60.7	50.6	43.3	12.2	19.3
	고등학교	1.7	30.7	51.8	56.2	38.9	11.4	24.7
구	동구	3.8	25.9	48.1	65.9	41.1	22.7	16.8
	중구	3.1	31.5	61.5	42.6	38.3	8.0	28.4
	서구	3.3	41.4	60.8	52.3	39.8	10.4	19.9
	유성구	5.6	41.8	54.9	54.1	41.0	11.6	22.0
	대덕구	5.6	38.7	56.9	46.8	51.6	5.6	24.2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신체활동으로 남학생의 10명 중 7명 이상은 구기운동(77.3%)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자전거(45.9%), 등산, 조깅, 산책 등(42.1%)을 선호하였다. 반면에 여학생은 등산, 조깅, 산책(63.7%)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줄넘기(55.2%), 구기운동(36.6%)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참여하

는 신체활동의 종류가 다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성역할과 함께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의 주된 목적이 주로 체중 조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은 구기운동(60.7%)을 가장 선호하였고, 이어서 등산, 조깅, 산책 등(50.6%), 줄넘기(43.3%), 자전거(4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등학생은 등산, 조깅, 산책(56.2%)을 가장 선호하였고, 이어서 구기운동(51.8%), 줄넘기(38.9%), 자전거(30.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순서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구별로 보면, 동구(65.9%)는 등산, 조깅, 산책을 가장 선호한 반면, 다른 구는 구기운동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신체활동의 종류



4. 주관적 건강상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5>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들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4.5%(매우 22.4%+약간 62.1%)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자신의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5.5%(매우 1.3%+약간 1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건강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84.5%(매우 20.8%+약간 63.7%)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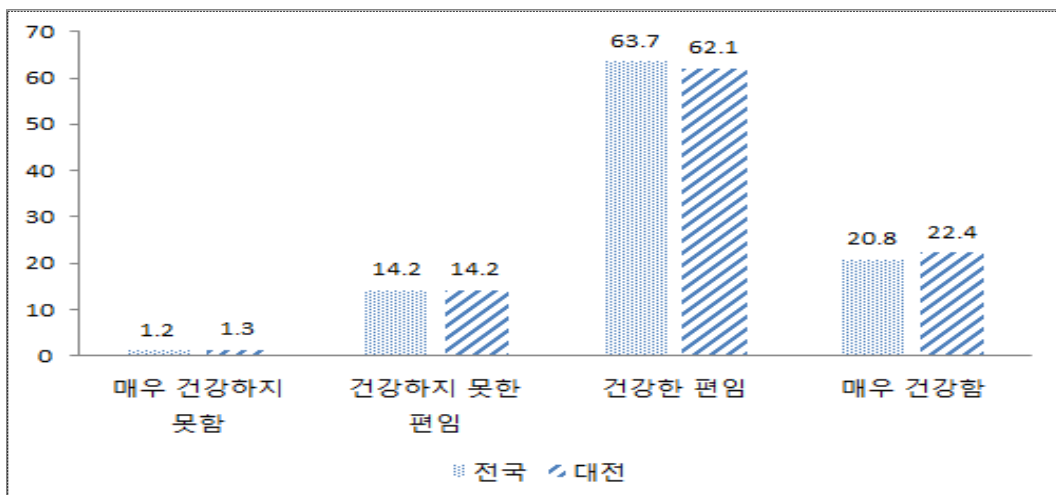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들 중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 (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84.9%)과 여학생(84.2%)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생(86.9%)이 고등학생(81.3%)보다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서구(86.6%)와 동구(86.4%)에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유성구(81.0%)와 중구(83.1%)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구분		매우 건강하지 못함	건강하지 못한 편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전국		1.2	14.2	63.7	20.8
대전		1.3	14.2	62.1	22.4
성별	남자	0.9	14.2	57.3	27.6
	여자	1.6	14.2	66.8	17.4
학교급	중학교	0.6	12.4	62.3	24.6
	고등학교	2.1	16.6	61.9	19.4
구	동구	1.1	12.5	64.7	21.7
	중구	2.5	14.4	65.0	18.1
	서구	0.5	12.9	64.2	22.4
	유성구	1.5	17.5	58.2	22.8
	대덕구	1.6	13.2	57.4	27.9

[그림 3-2-6] 주관적 건강상태



5. 스트레스

청소년기는 본질적으로 급격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을 느끼며, 사소한 자극에도 과격한 행동을 하기 쉽고,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후유증이 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현실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이 느끼는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6가지 영역으로 질문하였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대화상대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1) 학업문제

최근 1년 동안 학업문제(성적 등)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6>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인 64.9%(매우 15.1%+약간 49.8%)는 학업문제(성적 등)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학업문제(성적 등)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67.2%(매우 24.4%+약간 42.8%)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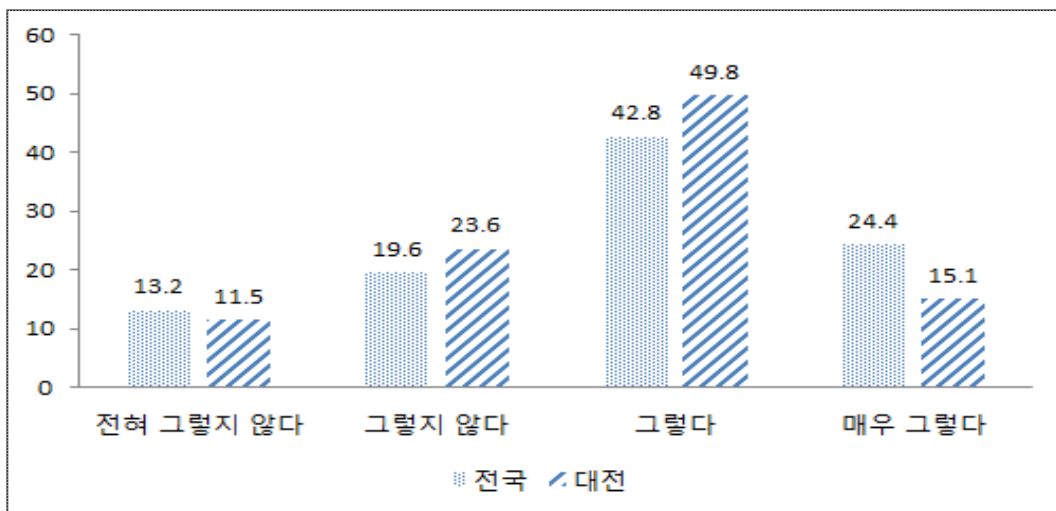
<표 3-2-6> 학업문제(성적 등)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13.2	19.6	42.8	24.4
대전		11.5	23.6	49.8	15.1
성별	남자	16.2	27.5	44.8	11.5
	여자	6.9	19.8	54.7	18.6
학교급	중학교	13.5	28.1	46.3	12.0
	고등학교	8.8	17.5	54.5	19.2
구	동구	9.7	19.5	57.3	13.5
	중구	12.8	18.9	44.5	23.8
	서구	9.1	25.3	53.6	12.0
	유성구	11.2	26.0	47.2	15.6
	대덕구	20.2	25.6	40.3	14.0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매우+약간)고 응답한 여학생(73.3%)이 남학생(56.3%)보다 거의 17%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73.7%)이 중학생(58.3%)보다 15%p 이상 높은 것은 대학교 입시에 따른 공부 부담과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취업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구별로 보면,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동구(70.8%)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54.3%)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학업문제(성적 등)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2) 가정불화

최근 1년 동안 가정불화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7>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1명 정도인 11.3%(매우 2.0%+약간 9.3%)는 가정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가정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15.8%(매우 2.9%+약간 12.9%)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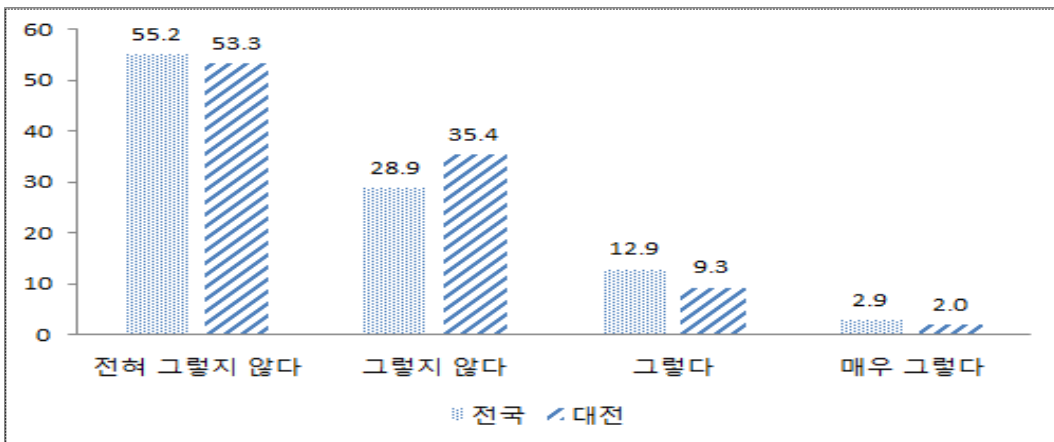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가정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11.3%)과 여학생(11.2%), 중학생(11.2%)과 고등학생(11.3%)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대덕구(15.6%)에서 가정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7〉 가정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55.2	28.9	12.9	2.9
대전		53.3	35.4	9.3	2.0
성별	남자	53.7	35.0	8.8	2.5
	여자	53.0	35.8	9.8	1.4
학교급	중학교	53.1	35.7	9.5	1.7
	고등학교	53.6	35.1	9.0	2.3
구	동구	56.8	33.5	9.2	0.5
	중구	55.5	34.1	7.3	3.0
	서구	52.3	36.3	9.3	2.1
	유성구	54.7	34.8	8.2	2.2
	대덕구	45.7	38.8	14.0	1.6

[그림 3-2-8] 가정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 또래관계 문제

또래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8〉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2명 정도인 19.5%(매우 2.4%+약간 17.1%)는 또래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또래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19.2%(매우 3.4%+약간

15.8%)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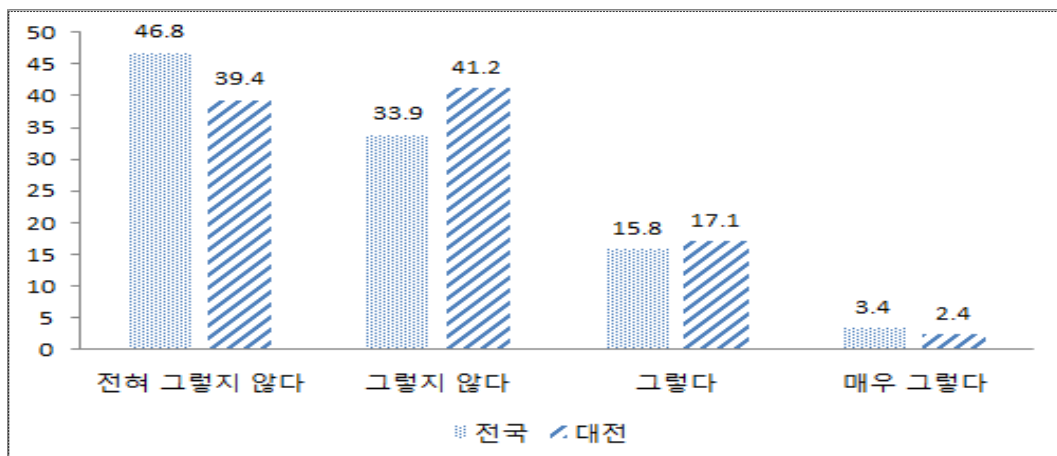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또래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매우+약간)고 응답한 여학생(28.2%)이 남학생(10.6%)보다 17.6%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중학생(19.4%)과 고등학생(19.5%)은 거의 비슷하였지만, 대덕구(24.8%)에서 또래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8〉 또래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46.8	33.9	15.8	3.4
대전		39.4	41.2	17.1	2.4
성별	남자	49.9	39.5	9.5	1.1
	여자	29.1	42.7	24.5	3.7
학교급	중학교	40.5	40.0	16.8	2.6
	고등학교	37.9	42.7	17.4	2.1
구	동구	34.6	45.4	16.2	3.8
	중구	39.0	39.0	19.5	2.4
	서구	41.1	41.3	15.5	2.1
	유성구	41.2	41.2	15.7	1.9
	대덕구	38.0	37.2	22.5	2.3

〔그림 3-2-9〕 또래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9>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1명 정도인 9.5%(매우 1.1%+약간 8.4%)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11.2%(매우 1.6%+약간 9.6%)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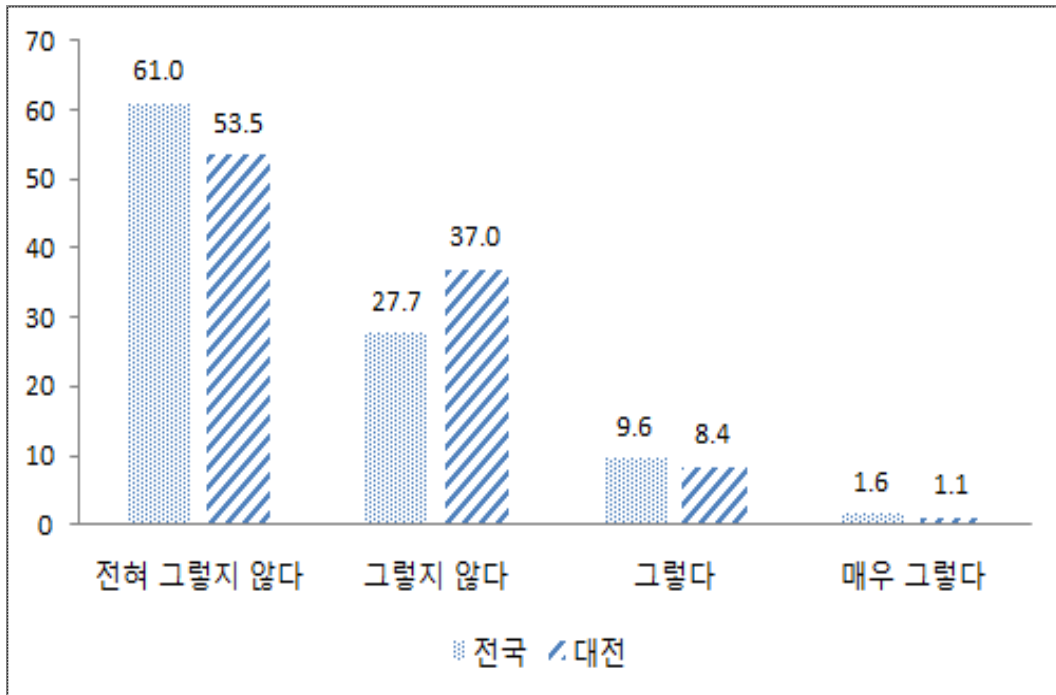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10.0%)과 여학생(9.1%)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고등학생(11.1%)이 중학생(8.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덕구(13.2%)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9〉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61.0	27.7	9.6	1.6
대전		53.5	37.0	8.4	1.1
성별	남자	56.2	33.9	8.7	1.3
	여자	50.9	40.1	8.2	0.9
학교급	중학교	58.5	33.2	6.9	1.4
	고등학교	46.8	42.0	10.5	0.6
구	동구	54.6	35.7	9.7	-
	중구	45.7	43.3	9.1	1.8
	서구	54.8	36.8	7.5	0.8
	유성구	56.9	34.8	6.7	1.5
	대덕구	51.2	35.7	11.6	1.6

[그림 3-2-10]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5) 외모(신체조건) 문제

외모(신체조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10>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3명 이상인 32.9%(매우 4.7%+약간 28.2%)는 외모(신체조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외모(신체조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26.6%(매우 4.8%+약간 21.8%)보다는 6.3%p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전 학생청소년들이 외모(신체조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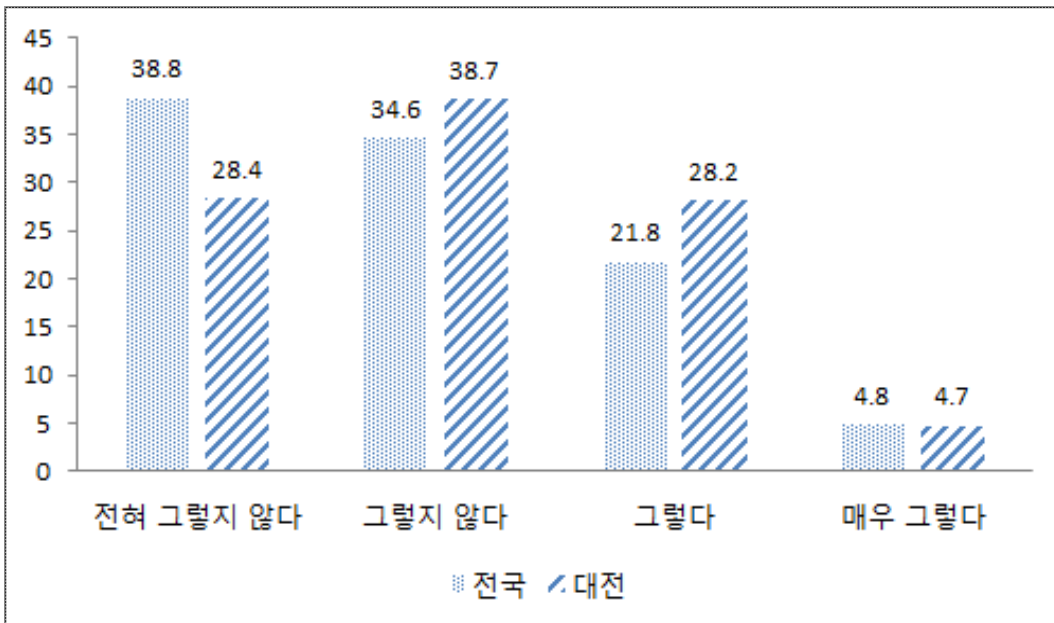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외모(신체조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매우+약간)고 응답한 여학생(45.7%)이 남학생(20.0%)보다 25.7%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기의 특성과 함께 대중매체에서 외적인 미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38.3%)이 중학생(28.9%)보다, 중구(39.6%)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10〉 외모(신체조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38.8	34.6	21.8	4.8
대전		28.4	38.7	28.2	4.7
성별	남자	39.8	40.2	17.3	2.7
	여자	17.2	37.1	39.0	6.7
학교급	중학교	31.6	39.4	25.2	3.7
	고등학교	24.1	37.7	32.2	6.1
구	동구	28.6	36.8	31.4	3.2
	중구	29.3	31.1	32.9	6.7
	서구	26.9	40.5	28.0	4.5
	유성구	30.7	41.9	22.8	4.5
	대덕구	26.4	38.8	29.5	5.4

[그림 3-2-11] 외모(신체조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11>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5명 이상인 54.3%(매우 15.6%+약간 38.7%)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50.5%(매우 17.5%+약간 33.0%)보다는 3.8%p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전 학생청소년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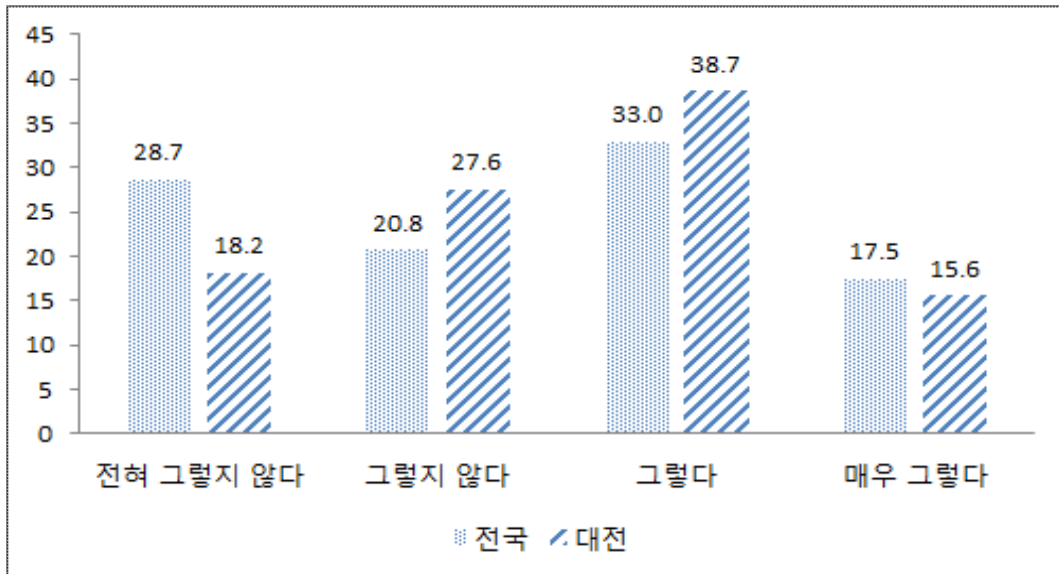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매우+약간)고 응답한 여학생(64.3%)이 남학생(44.1%)보다 20.2%p나 높고, 고등학생(69.4%)이 중학생(43.0%)보다 26.4%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취업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과 함께 대학 입시에 따른 자신의 역량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구별로 보면,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대덕구(48.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1>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28.7	20.8	33.0	17.5
대전		18.2	27.6	38.7	15.6
성별	남자	24.6	31.3	33.1	11.0
	여자	11.7	24.0	44.2	20.1
학교급	중학교	24.2	32.8	32.4	10.6
	고등학교	10.1	20.6	47.1	22.3
구	동구	22.8	22.3	40.8	14.1
	중구	14.0	31.1	33.5	21.3
	서구	17.2	28.4	41.0	13.4
	유성구	16.1	28.1	39.7	16.1
	대덕구	24.0	27.1	33.3	15.5

[그림 3-2-12]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편, 6가지 영역에서 대전 학생청소년이 느끼는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종합해 보면 <표 3-2-12>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원은 학업문제(64.9%)이며, 그 다음으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54.3%),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32.9%), 또래와의 관계 때문에(19.5%), 가정 불화 문제(11.3%), 경제적인 문제(9.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2〉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종합)

(단위: %)

구분	스트레스 심각도(매우+약간)
학업문제	64.9
가정 불화 문제	11.3
또래와의 관계 때문에	19.5
경제적인 문제	9.5
외모, 신체조건 때문에	32.9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54.3

[그림 3-2-13]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종합)



7) 고민거리 대화 상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대화 상대자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3-2-13>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4명 이상(42.0%)이 자신의 고민거리의 대화 상대자로 친구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어머니(30.4%), 형제/자매(7.5%), 아버지(4.2%), 선생님(3.2%), 청소년상담 관련기관(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대화 상대자가 없다는 학생청소년도 10명 중 1명 정도(9.1%)로 나타나 청소년상담체계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고민거리 대화 상대자로 친구가 43.3%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서 어머니(32.7%), 형제/자매(5.6%), 아버지(5.3%), 선생님(2.0%), 청소년상담 관련기관(0.4%)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거의 비슷하였다. 또한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대화 상대자가 없다는 응답도 8.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생청소년들의 가장 비중 있는 의논상대자가 또래친구로 나타나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래친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친구는 부담 없이 쉽게 만날 수 있거나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또래친구도 비슷한 경험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올바른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제시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남학생(40.0%)이나 여학생(43.8%), 중학생(41.0%)과 고등학생(43.4%) 모두 고민거리 대화 상대자로 친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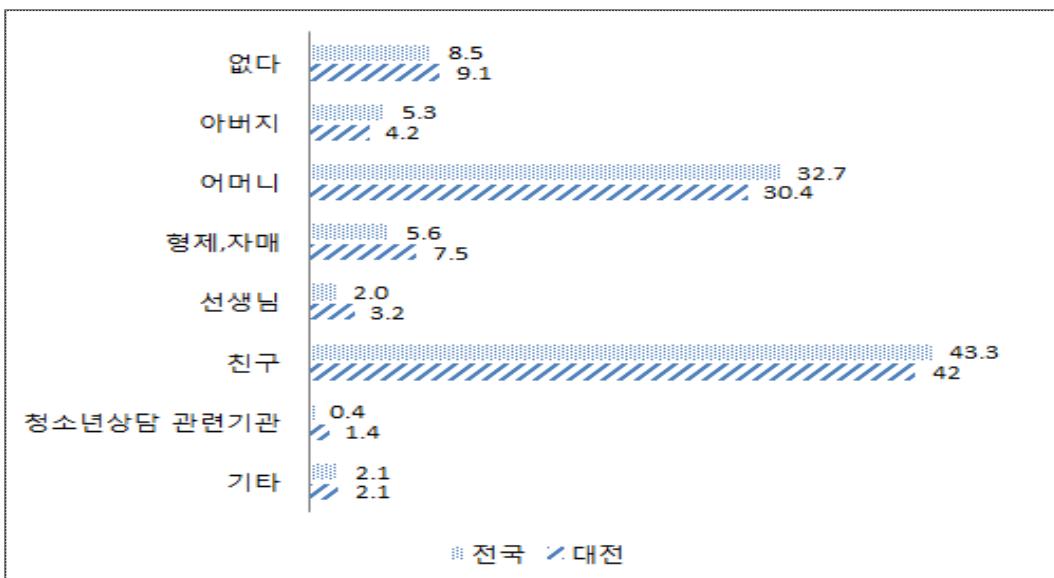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상대자가 없다는 경우는 중학생(11.1%)이 고등학생(6.4%)보다 4.7%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덕구(10.5%)에서도 고민거리 대화 상대자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13〉 고민상담자

(단위: %)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선생님	친구	청소년상담 관련기관	기타
전국		8.5	5.3	32.7	5.6	2.0	43.3	0.4	2.1
대전		9.1	4.2	30.4	7.5	3.2	42.0	1.4	2.1
성별	남자	9.2	5.7	29.3	7.1	4.0	40.0	1.1	3.4
	여자	9.1	2.7	31.5	8.0	2.5	43.8	1.7	0.8
학교급	중학교	11.1	3.4	29.9	7.2	3.6	41.0	1.5	2.3
	고등학교	6.4	5.3	31.1	8.0	2.7	43.4	1.4	1.8
구	동구	8.4	3.9	29.8	9.0	0.6	42.1	2.2	3.9
	중구	7.4	5.4	37.8	6.1	4.1	35.1	0.7	3.4
	서구	9.8	2.0	33.2	6.9	2.3	43.9	1.2	0.6
	유성구	9.1	5.5	27.2	9.4	5.5	39.4	1.6	2.4
	대덕구	10.5	6.5	21.0	4.8	4.0	50.0	1.6	1.6

[그림 3-2-14] 고민상담자



6. 정서 상태

청소년들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복감과 관련된 3개 문항, 대인관계와 관련된 3개 문항, 자율적 역량과 관련된 3개 문항, 자아존중감 관련 3개 문항, 우울 관련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1) 행복감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된 3개 문항 중에서 “나는 사는 게 즐겁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14>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4.0%(매우 26.1%+약간 57.9%)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88.5%(매우 22.5%+약간 66.0%)보다는 4.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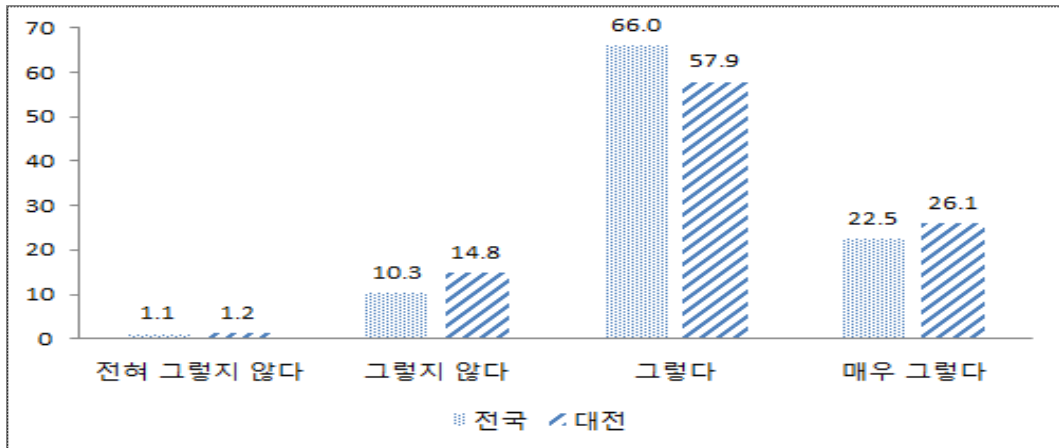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사는 게 즐겁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85.6%)이 여학생(82.7%)보다, 중학생(86.0%)이 고등학생(81.3%)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서구(87.8%)와 동구(86.9%)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구(75.6%)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4>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1.1	10.3	66.0	22.5
대전		1.2	14.8	57.9	26.1
성별	남자	1.4	13.0	54.5	31.1
	여자	0.9	16.4	61.3	21.4
학교급	중학교	0.8	13.2	56.3	29.7
	고등학교	1.7	17.0	59.9	21.4
구	동구	0.5	12.5	65.2	21.7
	중구	3.0	21.3	54.9	20.7
	서구	0.5	11.6	59.0	28.8
	유성구	1.1	16.5	55.1	27.2
	대덕구	1.6	15.5	53.5	29.5

[그림 3-2-15]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다음으로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15>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4명 이상인 44.1%(매우 9.5%+약간 34.6%)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59.1%(매우 11.9%+약간 47.2%)보다는 15.0%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 학생청소년의 55.9%는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대전 학생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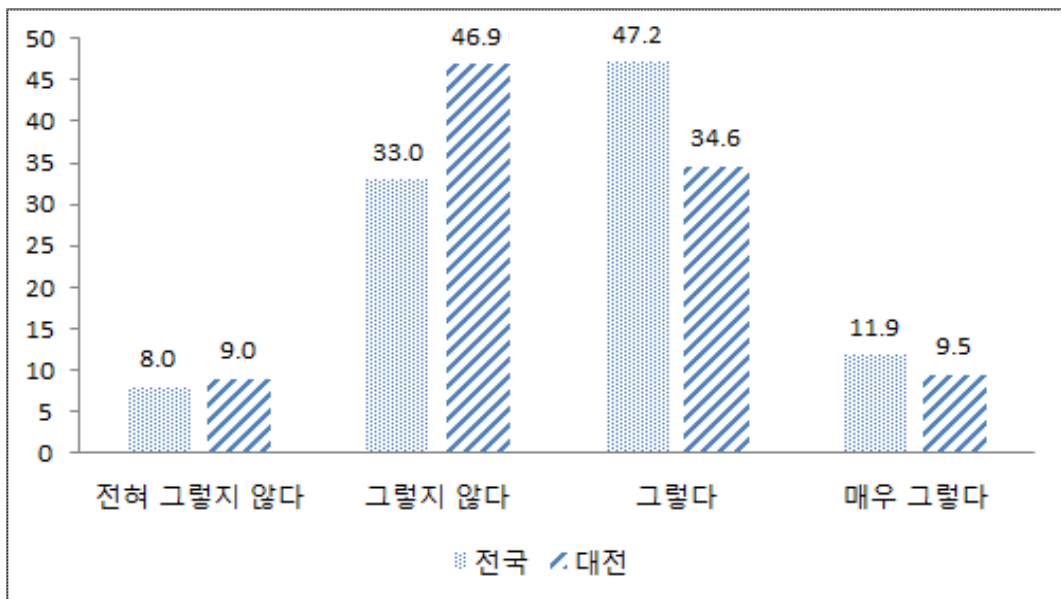
<표 3-2-15>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8.0	33.0	47.2	11.9
대전		9.0	46.9	34.6	9.5
성별	남자	7.1	40.0	39.6	13.2
	여자	10.8	53.6	29.7	5.8
학교급	중학교	6.5	44.0	37.5	11.9
	고등학교	12.3	50.7	30.8	6.2
구	동구	4.9	52.2	34.8	8.2
	중구	14.0	48.2	28.7	9.1
	서구	6.9	44.0	37.7	11.4
	유성구	10.7	44.1	36.8	8.5
	대덕구	10.9	51.9	28.7	8.5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52.8%)이 여학생(35.5%)보다 17.3%p나 높고, 중학생(49.4%)이 고등학생(37.0%)보다 12.4%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일수록, 고등학생일수록 걱정거리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앞서 살펴본 학생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구(49.1%)가 가장 높은 반면, 중구(37.8%)와 대덕구(37.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6]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16>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2.0%(매우 22.2%+약간 59.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86.4%(매우 23.5%+약간 62.9%)보다는 4.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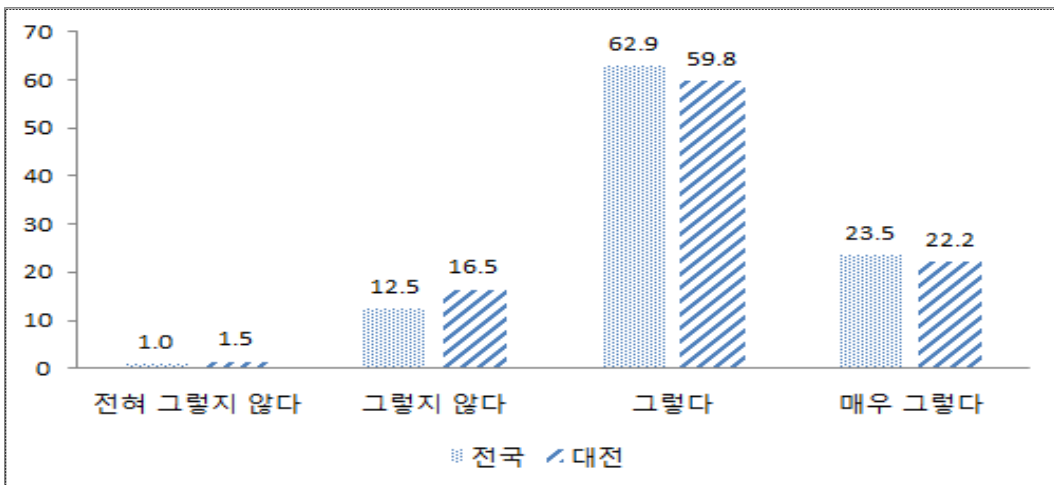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82.7%)이 여학생(81.3%)보다, 중학생(83.6%)이 고등학생(79.8%)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서구(86.5%)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반면, 중구(74.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6〉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1.0	12.5	62.9	23.5
대전		1.5	16.5	59.8	22.2
성별	남자	1.6	15.7	57.3	25.4
	여자	1.4	17.3	62.2	19.1
학교급	중학교	1.1	15.3	57.6	26.0
	고등학교	2.1	18.1	62.8	17.0
구	동구	0.5	17.4	60.9	21.2
	중구	3.0	22.6	55.5	18.9
	서구	1.1	12.4	64.0	22.5
	유성구	1.8	15.4	57.7	25.0
	대덕구	1.6	21.7	55.8	20.9

[그림 3-2-17]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2) 대인관계

청소년의 대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3개 문항 중에서 먼저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17〉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8.7%(매우 25.0% + 약간 63.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92.3%(매우 36.1%+약간 56.2%)보다는 3.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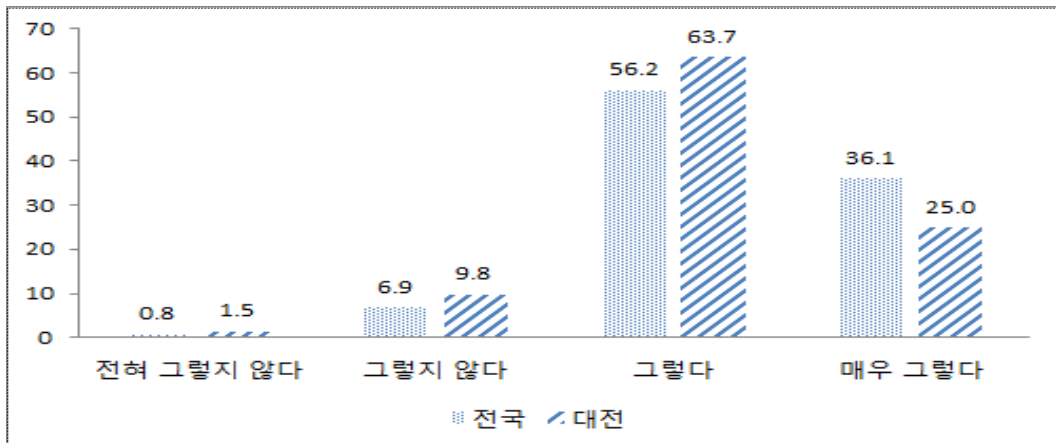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89.8%)이 여학생(87.6%)보다, 고등학생(90.0%)이 중학생(87.8%)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동구(90.2%)와 서구(90.0%)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7〉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0.8	6.9	56.2	36.1
대전		1.5	9.8	63.7	25.0
성별	남자	1.3	8.9	60.9	28.9
	여자	1.8	10.6	66.6	21.0
학교급	중학교	1.7	10.5	62.1	25.7
	고등학교	1.2	8.7	65.9	24.1
구	동구	0.0	9.8	66.8	23.4
	중구	1.2	11.6	65.9	21.3
	서구	0.5	9.5	61.4	28.6
	유성구	3.3	8.8	63.6	24.3
	대덕구	3.1	10.1	63.6	23.3

[그림 3-2-18]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청소년의 대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나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18>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8.3%(매우 20.4%+약간 67.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91.8%(매우 30.3%+약간 61.5%)보다는 3.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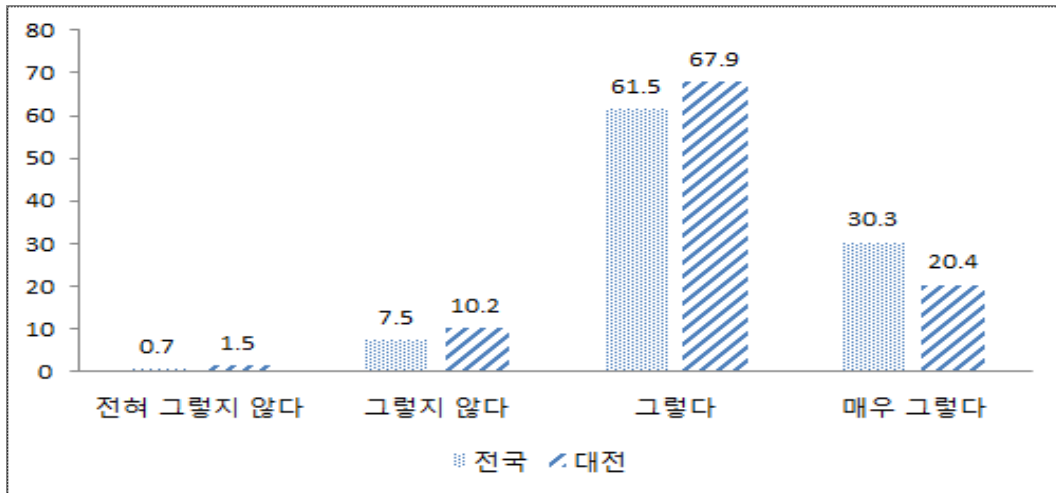
〈표 3-2-18〉 나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0.7	7.5	61.5	30.3
대전		1.5	10.2	67.9	20.4
성별	남자	1.8	9.3	64.6	24.3
	여자	1.2	11.2	71.0	16.6
학교급	중학교	1.4	11.1	66.3	21.2
	고등학교	1.7	9.0	70.0	19.4
구	동구	0.0	9.8	70.7	19.6
	중구	1.2	12.3	66.9	19.6
	서구	1.3	10.1	69.0	19.6
	유성구	1.8	7.7	67.6	22.8
	대덕구	3.9	14.0	62.0	20.2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88.9%)이 여학생(87.6%)보다, 고등학생(89.4%)이 중학생(87.5%)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유성구(90.4%)와 동구(90.3%) 등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덕구(82.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9] 나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청소년의 대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19>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정도인 80.8%(매우 16.1%+약간 64.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86.3%(매우 21.7%+약간 64.6%)보다는 5.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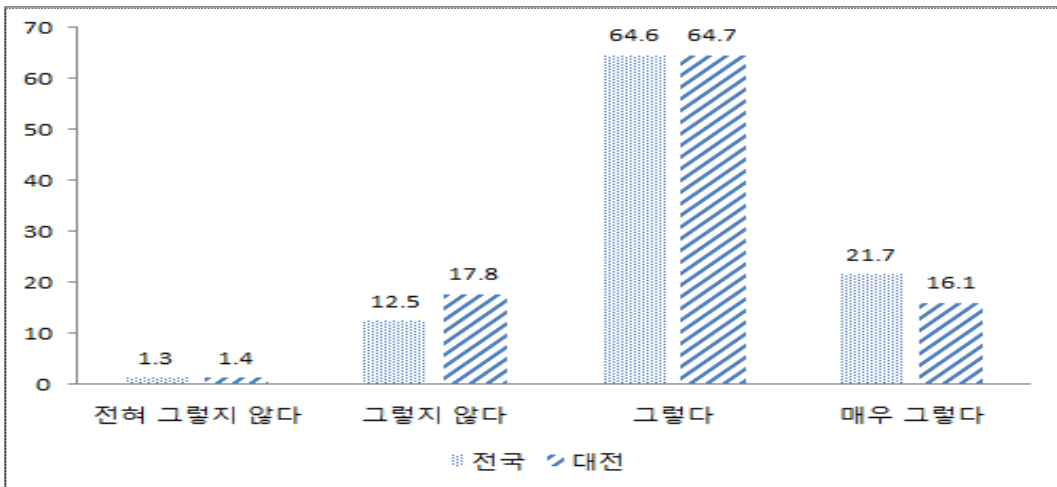
<표 3-2-19>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1.3	12.5	64.6	21.7
대전		1.4	17.8	64.7	16.1
성별	남자	0.9	15.0	64.4	19.7
	여자	1.9	20.5	65.2	12.4
학교급	중학교	1.1	20.7	62.2	15.9
	고등학교	1.9	13.8	68.1	16.3
구	동구	-	21.2	62.0	16.8
	중구	3.0	15.9	62.8	18.3
	서구	1.1	16.2	66.0	16.7
	유성구	1.5	16.2	66.2	16.2
	대덕구	2.3	23.3	64.3	10.1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에 대해 ‘그렇다’ (매우+약간)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84.1%)이 여학생(77.6%)보다, 고등학생(84.4%)이 중학생(7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서구(82.7%)와 유성구(82.4%)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덕구(74.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20]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3) 자율적 역량

청소년의 자율적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3개 문항 중에서 먼저 “나는 사회적 규범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행동하고 결정한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20>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3.7%(매우 18.8%+약간 64.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90.7%(매우 28.1%+약간 62.6%)보다는 7.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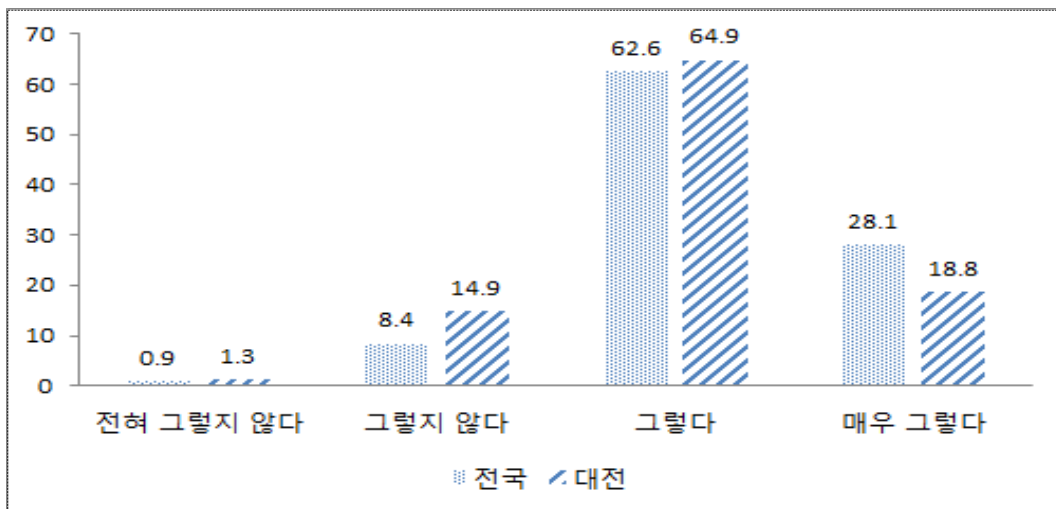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사회적 규범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행동하고 결정한다”에 대해 ‘그렇다’ (매우+약간)고 응답한 여학생(86.4%)이 남학생(81.0%)보다, 고등학생(87.9%)이 중학생(80.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중구(89.1%)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덕구(76.0%)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0〉 나는 사회적 규범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행동하고 결정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0.9	8.4	62.6	28.1
대전		1.3	14.9	64.9	18.8
성별	남자	1.3	17.7	62.8	18.2
	여자	1.4	12.2	67.1	19.3
학교급	중학교	1.1	18.3	61.6	19.0
	고등학교	1.7	10.4	69.4	18.5
구	동구	0.5	14.7	66.3	18.5
	중구	1.8	9.1	66.5	22.6
	서구	0.5	15.1	67.6	16.7
	유성구	1.8	15.4	60.7	22.1
	대덕구	3.1	20.9	62.0	14.0

[그림 3-2-21] 나는 사회적 규범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행동하고 결정한다



청소년의 자율적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21>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5명 이상인 57.6%(매우 11.3%+약간 46.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65.6%(매우 13.8%+약간 51.8%)보다는 8.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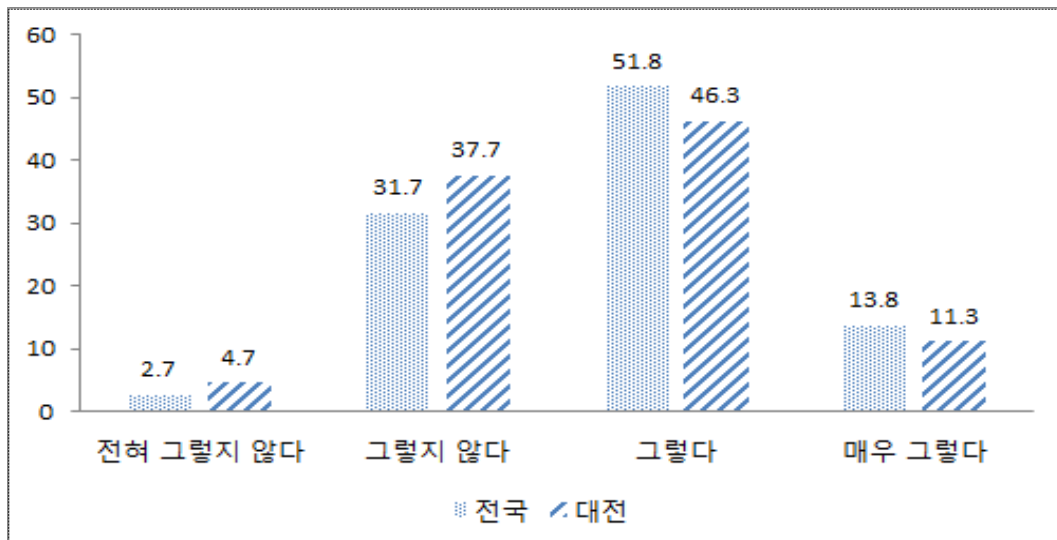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중학생(57.7%)과 고등학생(57.6%)은 거의 비슷하였다. 하지만, 여학생(60.4%)이 남학생(54.7%)보다, 동구(66.3%)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40.3%)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1〉 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2.7	31.7	51.8	13.8
대전		4.7	37.7	46.3	11.3
성별	남자	6.8	38.5	44.1	10.6
	여자	2.7	36.9	48.4	12.0
학교급	중학교	4.5	37.8	46.4	11.3
	고등학교	5.0	37.5	46.3	11.3
구	동구	2.7	31.0	49.5	16.8
	중구	6.7	31.1	50.6	11.6
	서구	2.9	39.3	47.2	10.6
	유성구	5.2	38.0	47.2	9.6
	대덕구	9.3	50.4	31.8	8.5

[그림 3-2-22] 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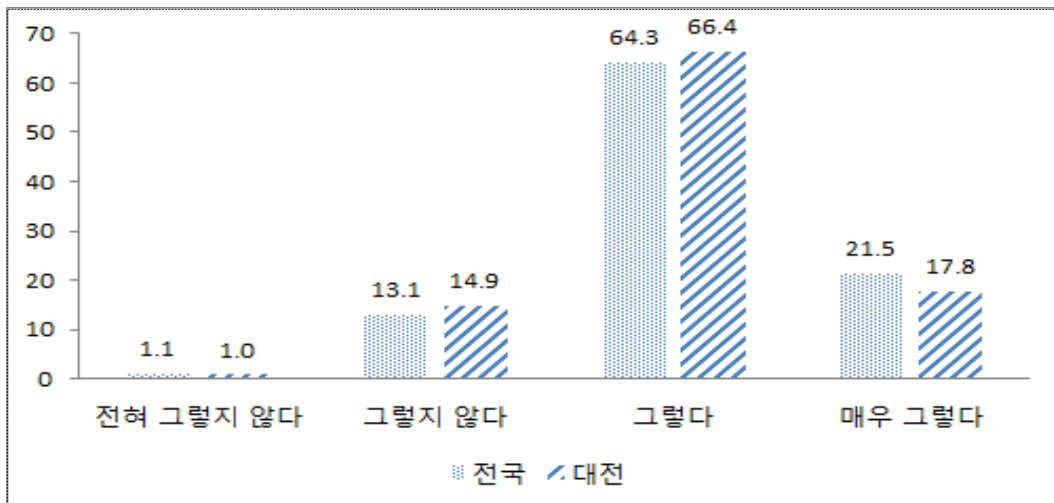
청소년의 자율적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22>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4.2%(매우 17.8%+약간 66.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85.8%(매우 21.5%+약간 64.3%)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2>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1.1	13.1	64.3	21.5
대전		1.0	14.9	66.4	17.8
성별	남자	0.7	14.5	65.1	19.7
	여자	1.2	15.2	67.7	15.8
학교급	중학교	1.1	15.3	65.0	18.6
	고등학교	0.8	14.2	68.3	16.7
구	동구	0.5	12.5	67.9	19.0
	중구	1.2	11.0	69.5	18.3
	서구	0.3	12.8	68.3	18.7
	유성구	1.5	17.6	63.2	17.6
	대덕구	2.3	23.3	61.2	13.2

[그림 3-2-23]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84.8%)이 여학생(83.5%)보다, 고등학생(85.0%)이 중학생(83.6%)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중구(87.8%)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74.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된 3개 문항 중에서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23>과 같다. 대전 학생 청소년의 10명 중 9명 정도인 90.1%(매우 33.5%+약간 56.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91.0%(매우 32.8%+약간 58.2%)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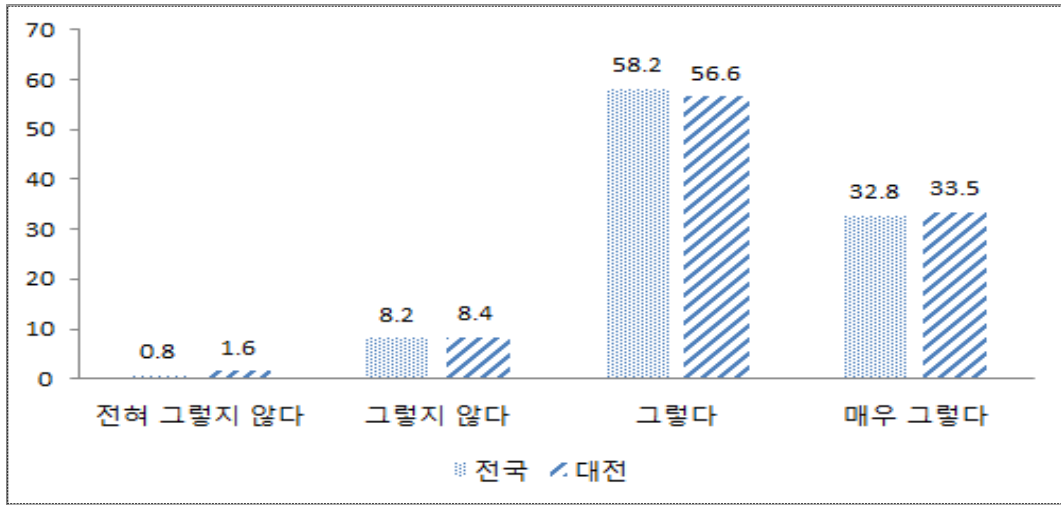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여학생(90.8%)과 남학생(89.3%), 고등학생(90.4%)과 중학생(89.7%)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동구(92.9%)와 서구(92.3%) 등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대덕구(81.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3>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0.8	8.2	58.2	32.8
대전		1.6	8.4	56.6	33.5
성별	남자	2.2	8.6	55.5	33.8
	여자	1.1	8.1	57.6	33.2
학교급	중학교	1.2	9.0	54.7	35.0
	고등학교	2.1	7.5	59.1	31.3
구	동구	0.5	6.5	56.5	36.4
	중구	3.0	9.1	54.9	32.9
	서구	0.3	7.5	59.5	32.8
	유성구	2.6	7.0	54.4	36.0
	대덕구	3.1	15.5	55.0	26.4

[그림 3-2-24]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24>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3.5%(매우 22.8%+약간 60.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87.2%(매우 28.1%+약간 59.1%)보다는 3.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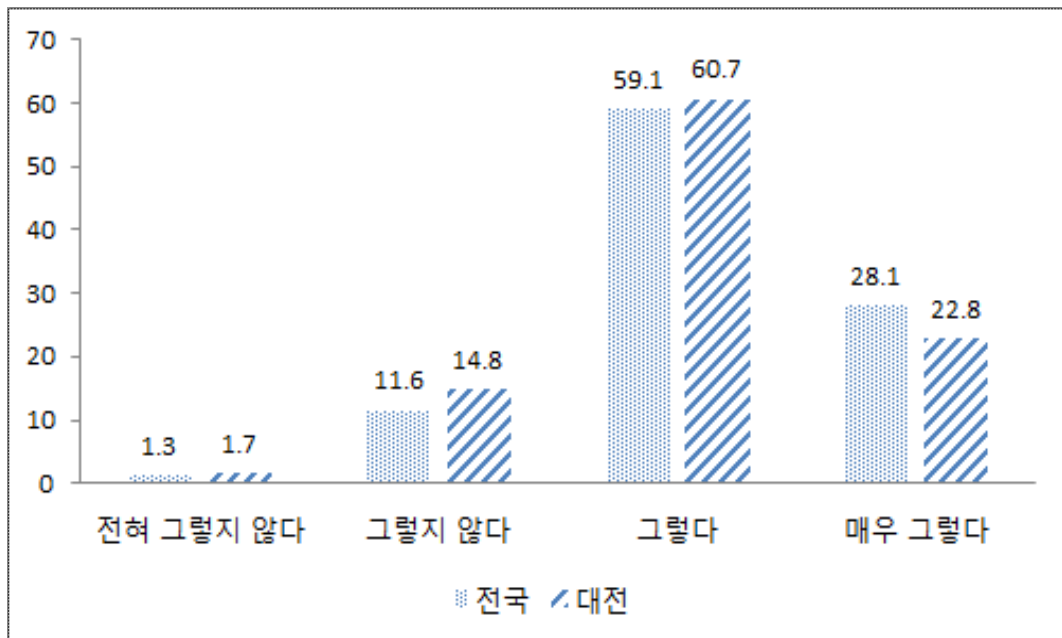
<표 3-2-24>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1.3	11.6	59.1	28.1
대전		1.7	14.8	60.7	22.8
성별	남자	1.6	13.6	60.5	24.3
	여자	1.8	16.1	60.7	21.4
학교급	중학교	1.4	15.8	60.4	22.4
	고등학교	2.1	13.5	61.0	23.3
구	동구	1.1	16.3	60.9	21.7
	중구	3.1	12.9	56.4	27.6
	서구	0.8	13.8	64.0	21.4
	유성구	2.2	14.0	61.0	22.8
	대덕구	2.3	20.2	55.0	22.5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84.8%)이 여학생(82.1%)보다, 고등학생(84.3%)이 중학생(82.8%)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서구(85.4%)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덕구(77.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25]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25>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2.2%(매우 23.6% + 약간 58.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85.4%(매우 29.6% + 약간 55.8%)보다는 3.2%p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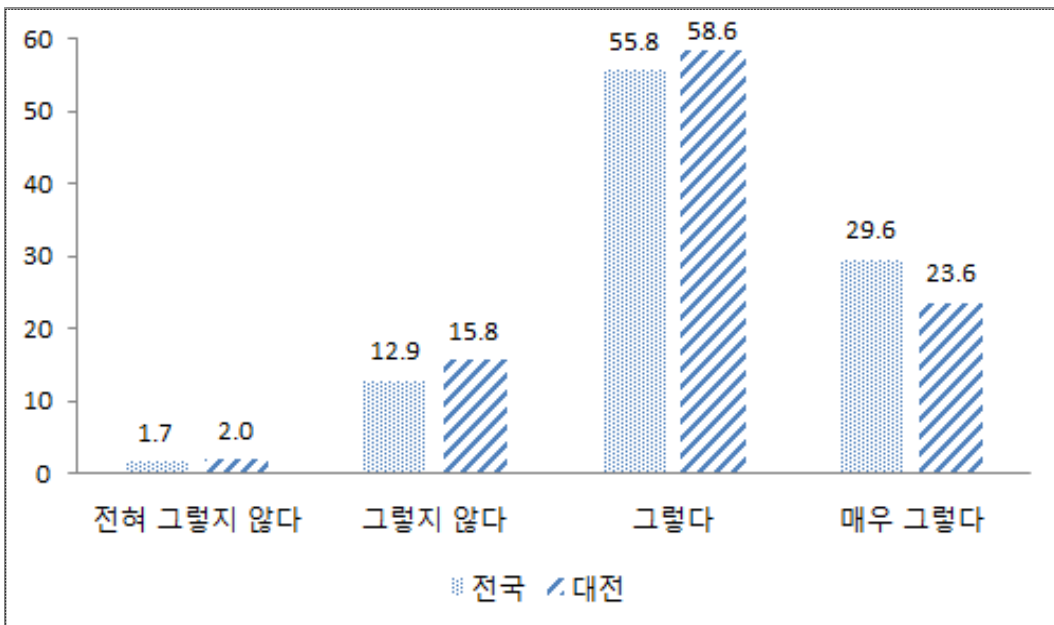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85.3%)이 여학생(79.2%)보다, 중학생(84.2%)이 고등학생(7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서구(85.6%)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덕구(76.7%)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5〉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1.7	12.9	55.8	29.6
대전		2.0	15.8	58.6	23.6
성별	남자	1.4	13.2	59.4	25.9
	여자	2.5	18.4	57.8	21.4
학교급	중학교	0.8	15.0	59.0	25.2
	고등학교	3.5	16.9	58.1	21.5
구	동구	0.0	16.3	58.7	25.0
	중구	4.9	17.1	54.9	23.2
	서구	0.5	13.8	62.3	23.3
	유성구	2.9	15.4	57.0	24.6
	대덕구	3.1	20.2	55.8	20.9

[그림 3-2-26]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5) 우울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관련된 3개 문항 중에서 먼저 “나는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26>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5명 이상인 54.3%(매우 10.7%+약간 43.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32.6%(매우 5.3%+약간 27.3%)보다는 21.7%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전 학생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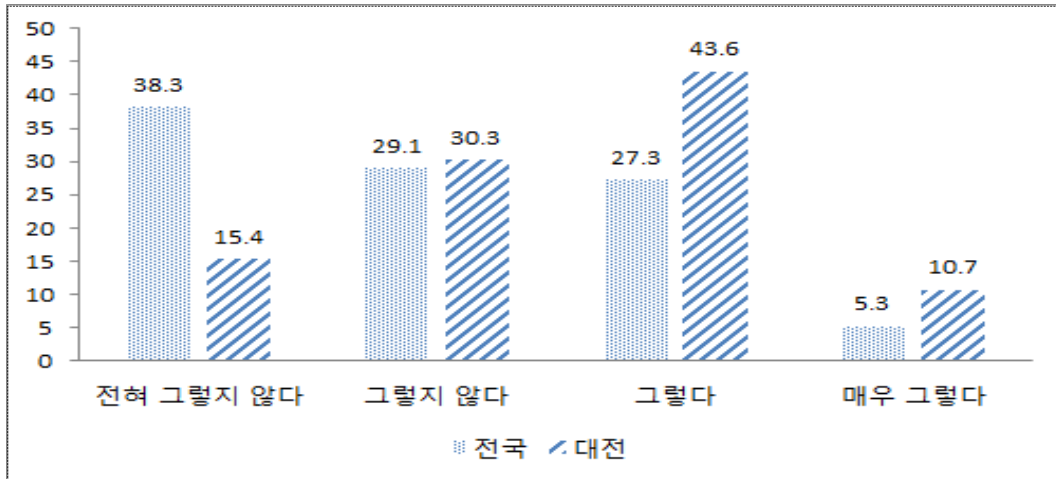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여학생(62.8%)이 남학생(45.9%)보다 16.9%p나 높고, 고등학생(63.8%)이 중학생(47.2%)보다 16.6%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과 고등학생의 우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별로 보면, 대덕구(56.6%), 서구(56.3%), 중구(56.1%) 등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26> 나는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38.3	29.1	27.3	5.3
대전		15.4	30.3	43.6	10.7
성별	남자	20.4	33.8	36.8	9.1
	여자	10.4	26.9	50.4	12.4
학교급	중학교	19.2	33.6	38.2	9.0
	고등학교	10.2	26.0	50.7	13.1
구	동구	14.7	31.5	42.9	10.9
	중구	12.8	31.1	43.9	12.2
	서구	15.1	28.6	44.7	11.6
	유성구	18.8	31.6	40.8	8.8
	대덕구	13.2	30.2	46.5	10.1

[그림 3-2-27] 나는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27>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인 61.4%(매우 13.0%+약간 48.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27.2%(매우 4.9%+약간 22.3%)보다는 34.2%p나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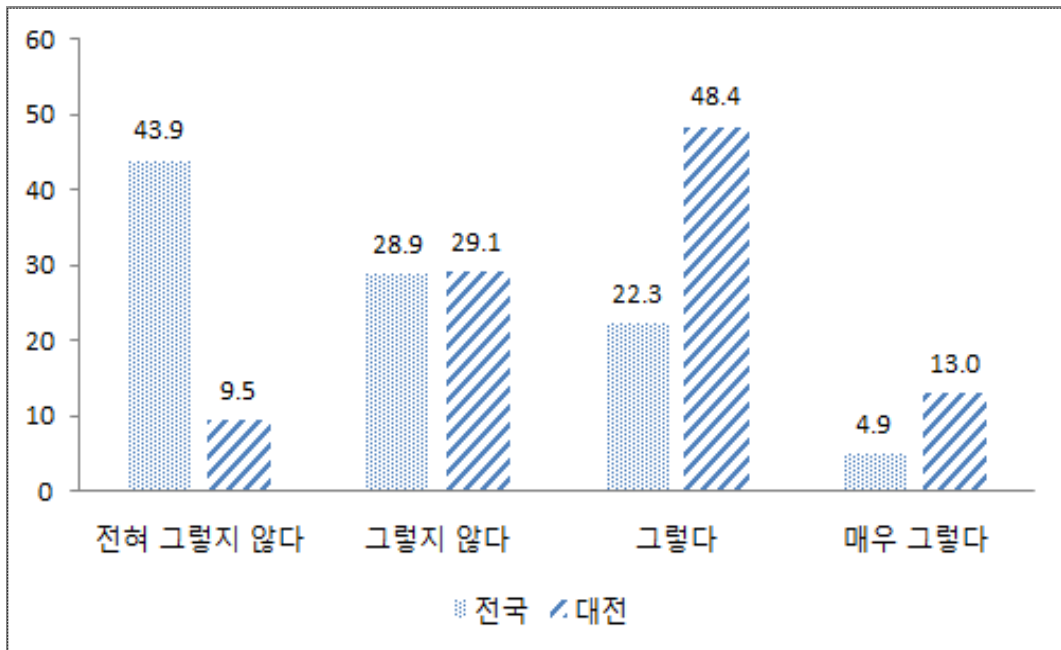
<표 3-2-27>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43.9	28.9	22.3	4.9
대전		9.5	29.1	48.4	13.0
성별	남자	11.6	34.2	44.5	9.7
	여자	7.4	24.0	52.3	16.3
학교급	중학교	11.6	33.0	44.7	10.7
	고등학교	6.7	23.9	53.4	16.0
구	동구	8.2	28.3	47.3	16.3
	중구	9.8	30.5	43.3	16.5
	서구	10.3	28.4	50.4	10.9
	유성구	10.3	29.8	47.4	12.5
	대덕구	7.0	29.5	52.7	10.9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여학생(68.6%)이 남학생(54.2%)보다 14.4%p나 높고, 고등학생(69.4%)이 중학생(55.4%)보다 14.0%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과 고등학생의 걱정거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을 시사한다. 구별로 보면, 대덕구(63.6%)와 동구(63.6%)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28]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28>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5명 이상인 52.6%(매우 9.5%+약간 43.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30.7%(매우 5.7%+약간 25.0%)보다는 21.9%p나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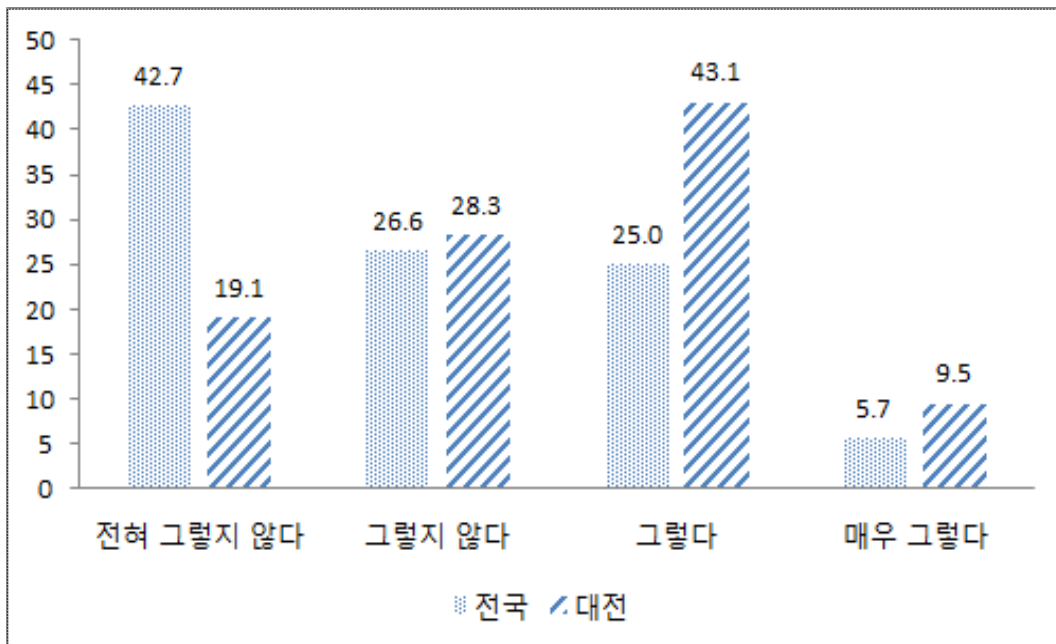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64.9%)이 남학생(40.2%)보다 24.7%p나 높고, 고등학생(61.7%)이 중학생(45.8%)보다 15.9%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중구(58.0%)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28〉 나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42.7	26.6	25.0	5.7
대전		19.1	28.3	43.1	9.5
성별	남자	24.3	35.4	32.7	7.5
	여자	14.0	21.2	53.4	11.5
학교급	중학교	24.1	30.0	38.4	7.4
	고등학교	12.3	26.0	49.4	12.3
구	동구	18.0	27.9	45.9	8.2
	중구	18.9	23.2	47.0	11.0
	서구	18.8	27.0	45.2	9.0
	유성구	21.7	30.9	37.9	9.6
	대덕구	16.3	34.1	38.8	10.9

[그림 3-2-29] 나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제3절 사회·문화

본 절에서는 학생청소년의 사회·문화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 청소년 활동 및 시설 이용경험, 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 청소년 시설 이용경험, 프로그램 인지도, 미디어·인터넷의 6개 세부영역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 대전 학생청소년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문화 참여 실태 및 이용경험 등을 확인하고, 이를 전국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대전 학생청소년의 사회·문화를 성별, 학교급, 구로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참여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주변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한 참여를 통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 가운데 참여는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참여와 관련하여 5개 영역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제 참여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1) 참여 필요도

청소년들의 참여 필요성과 관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아르바이트 등)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1>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3.6%(매우 23.7%+가끔 59.9%)는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아르바이트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80.4%(매우 29.3%+가끔 51.1%)보다는 3.2%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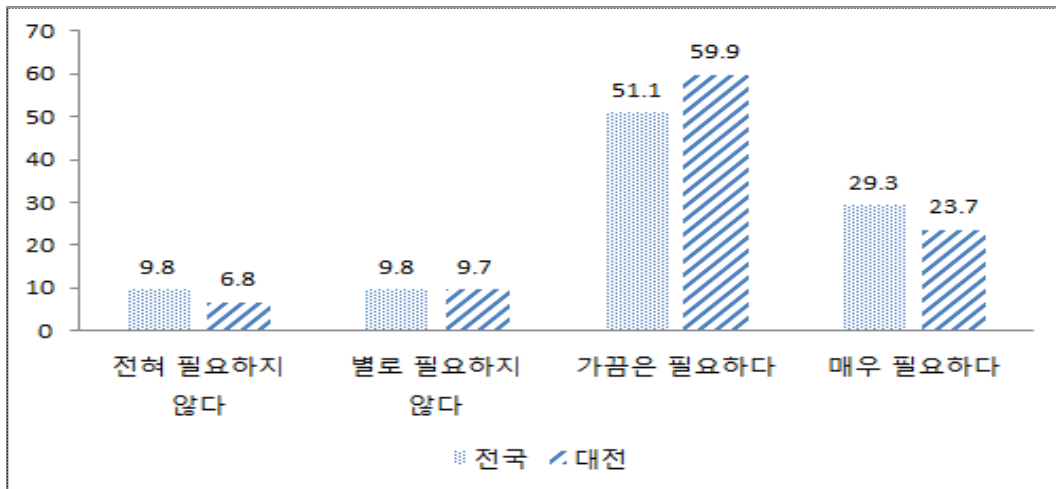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아르바이트 등)이 ‘필요하다’(매우+가끔)고 응답한 여학생(84.6%)이 남학생(82.5%)보다, 고등학생(84.7%)이 중학생(82.6%)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대덕구(91.4%)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동구(80.0%)와 중구(81.0%)가 낮게 나타났다.

〈표 3-3-1〉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

(단위: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가끔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국		9.8	9.8	51.1	29.3
대전		6.8	9.7	59.9	23.7
성별	남자	8.1	9.4	61.0	21.5
	여자	5.5	9.9	58.7	25.9
학교급	중학교	6.6	10.8	58.3	24.3
	고등학교	7.1	8.2	61.9	22.8
구	동구	8.6	11.4	57.3	22.7
	중구	7.4	11.7	53.4	27.6
	서구	7.2	9.4	59.9	23.5
	유성구	6.3	9.7	61.7	22.3
	대덕구	3.1	5.5	68.0	23.4

[그림 3-3-1]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



청소년들의 참여 필요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봉사활동 등)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2>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9명 정도인 88.2%(매우 31.7%+가끔 56.5%)는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봉사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86.2%(매우 25.7%+가끔 60.5%)보다는 2.0%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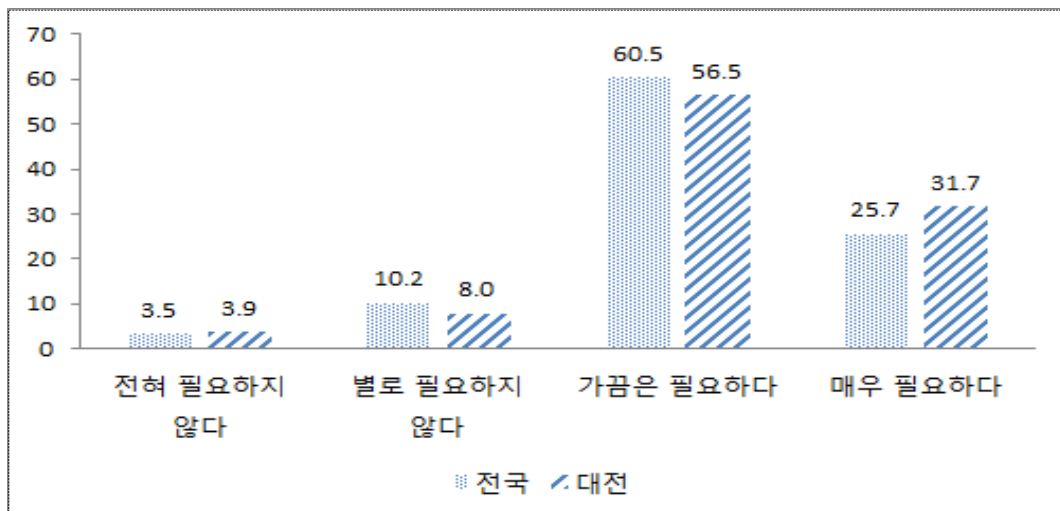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봉사활동 등)이 ‘필요하다’ (매우+가끔)고 응답한 여학생(91.5%)이 남학생(84.8%)보다, 고등학생(89.1%)이 중학생(87.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동구(92.4%)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덕구(83.6%)와 유성구(85.4%)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

(단위: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가끔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국		3.5	10.2	60.5	25.7
대전		3.9	8.0	56.5	31.7
성별	남자	5.4	9.8	60.9	23.9
	여자	2.3	6.2	52.0	39.5
학교급	중학교	3.8	8.8	57.9	29.6
	고등학교	4.0	6.9	54.5	34.6
구	동구	2.7	4.9	51.9	40.5
	중구	6.7	5.5	58.3	29.4
	서구	4.0	6.2	58.9	30.9
	유성구	2.2	12.3	52.6	32.8
	대덕구	4.7	11.7	61.7	21.9

〔그림 3-3-2〕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



청소년들의 참여 필요성과 관련하여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3>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정도인 82.5%(매우 27.6%+가끔 54.9%)는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80.6%(매우 26.2%+가끔 54.4%)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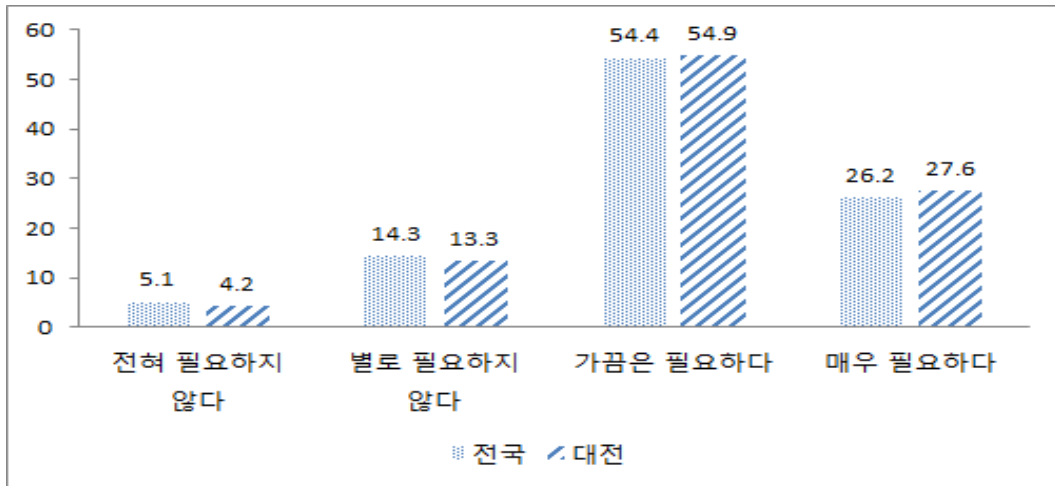
<표 3-3-3>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함

(단위: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가끔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국		5.1	14.3	54.4	26.2
대전		4.2	13.3	54.9	27.6
성별	남자	6.2	16.5	52.3	25.0
	여자	2.3	10.1	57.5	30.1
학교급	중학교	4.4	15.2	56.3	24.1
	고등학교	4.0	10.7	53.1	32.2
구	동구	2.7	9.2	58.4	29.7
	중구	7.4	14.7	46.0	31.9
	서구	4.6	11.8	57.0	26.6
	유성구	3.0	15.0	56.0	25.9
	대덕구	3.9	18.0	53.1	25.0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 (매우+가끔)고 응답한 여학생(87.6%)이 남학생(77.3%)보다, 고등학생(85.3%)이 중학생(8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동구(88.1%)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구(77.9%)와 대덕구(78.1%)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3]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함



청소년들의 참여 필요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교칙 제정 등)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4>와 같다. 대전 청소년의 10명 중 7명 이상인 77.1%(매우 26.3%+가끔 50.8%)는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교칙 제정 등)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76.9%(매우 22.6%+가끔 54.3%)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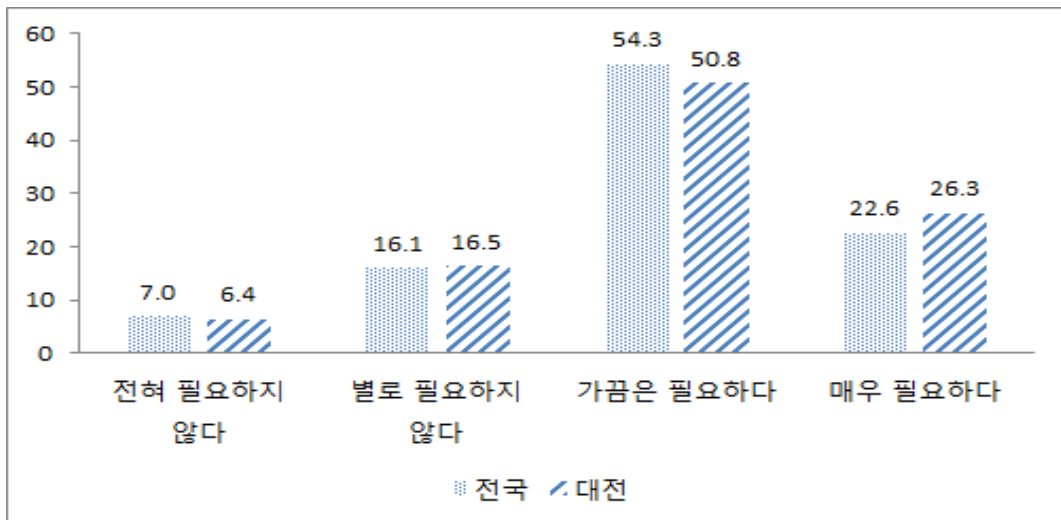
<표 3-3-4>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단위: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가끔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국		7.0	16.1	54.3	22.6
대전		6.4	16.5	50.8	26.3
성별	남자	8.5	20.5	51.1	19.8
	여자	4.3	12.5	50.4	32.8
학교급	중학교	6.9	19.5	50.6	23.0
	고등학교	5.7	12.4	51.1	30.9
구	동구	4.4	12.6	50.8	32.2
	중구	9.2	13.5	46.0	31.3
	서구	5.9	17.8	53.6	22.6
	유성구	5.2	14.6	50.6	29.6
	대덕구	9.4	25.8	49.2	15.6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교직 제정 등)에 대해 ‘필요하다’ (매우+가끔)고 응답한 여학생(83.2%)이 남학생(70.9%)보다, 고등학생(82.0%)이 중학생(7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동구(83.0%)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덕구(64.8%)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청소년들의 참여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5>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7명 정도인 70.4%(매우 19.2%+가끔 51.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69.8%(매우 20.4%+가끔 49.4%)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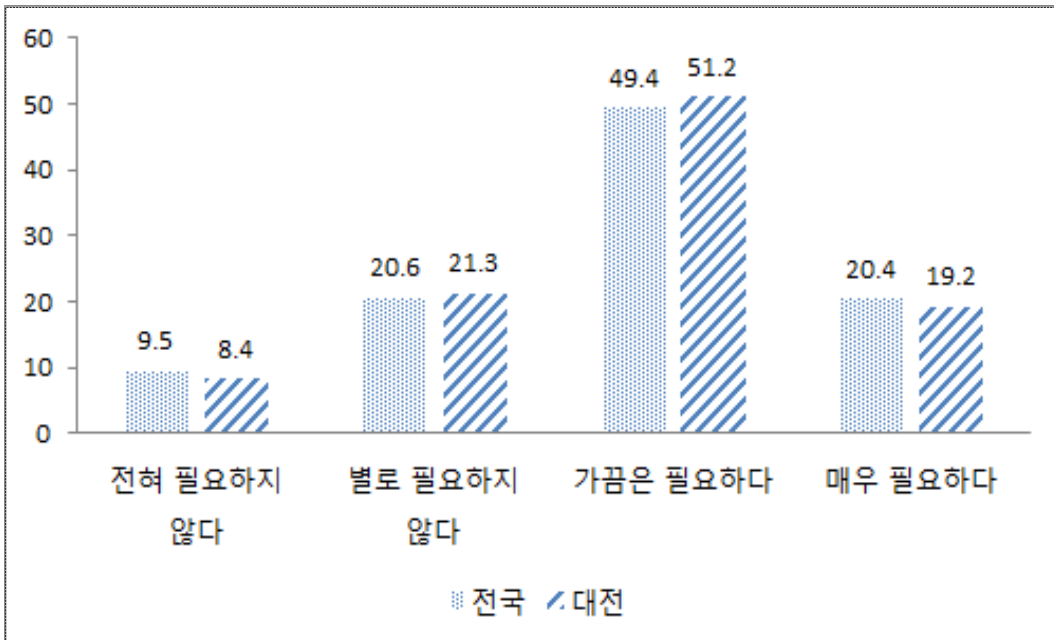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이 ‘필요하다’ (매우+가끔)고 응답한 여학생(76.4%)이 남학생(64.0%)보다, 고등학생(73.9%)이 중학생(6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동구(76.7%)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63.3%)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단위: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가끔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국		9.5	20.6	49.4	20.4
대전		8.4	21.3	51.2	19.2
성별	남자	11.5	24.5	47.5	16.5
	여자	5.3	18.2	54.7	21.7
학교급	중학교	8.8	23.6	49.8	17.8
	고등학교	7.8	18.3	52.9	21.0
구	동구	7.1	16.3	53.3	23.4
	중구	9.3	19.8	49.4	21.6
	서구	8.9	21.8	51.2	18.1
	유성구	7.5	22.1	53.2	17.2
	대덕구	9.4	27.3	46.1	17.2

[그림 3-3-5]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2) 실제 참여도

다음으로 5개 영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실제 참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아르바이트 등)의 실제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6>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2명 이상인 23.8%(적극 6.6%+가끔 17.2%)는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아르바이트 등)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33.6%(적극 15.3%+가끔 18.3%)보다는 9.8%p 정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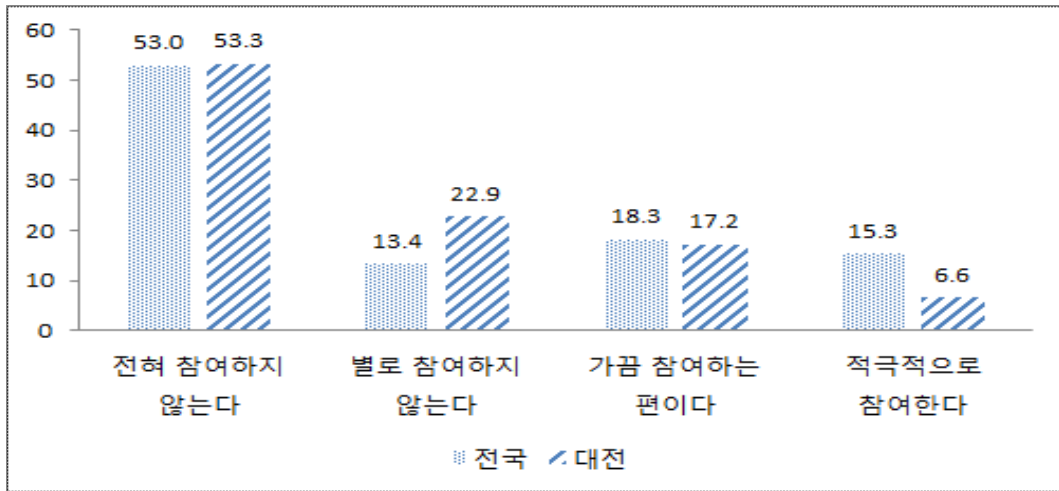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아르바이트 등)에 '참여한다' (적극+가끔)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28.2%)이 여학생(19.7%)보다 8.5%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24.2%)과 고등학생(23.3%)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대덕구(34.1%)에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중구(19.0%)와 서구(19.2%)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가끔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전국		53.0	13.4	18.3	15.3
대전		53.3	22.9	17.2	6.6
성별	남자	47.4	24.3	20.6	7.6
	여자	59.0	21.3	14.0	5.7
학교급	중학교	49.6	26.2	16.7	7.5
	고등학교	58.2	18.5	17.8	5.5
구	동구	51.4	21.1	21.6	5.9
	중구	60.1	20.9	13.9	5.1
	서구	55.0	25.7	13.0	6.2
	유성구	52.1	22.1	18.3	7.6
	대덕구	44.7	21.1	25.2	8.9

[그림 3-3-6]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 참여도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봉사활동 등)의 실제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7>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6명 정도인 60.9%(적극 13.5% + 가끔 47.4%)는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봉사활동 등)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51.1%(적극 9.4% + 가끔 41.7%)보다는 9.8%p 정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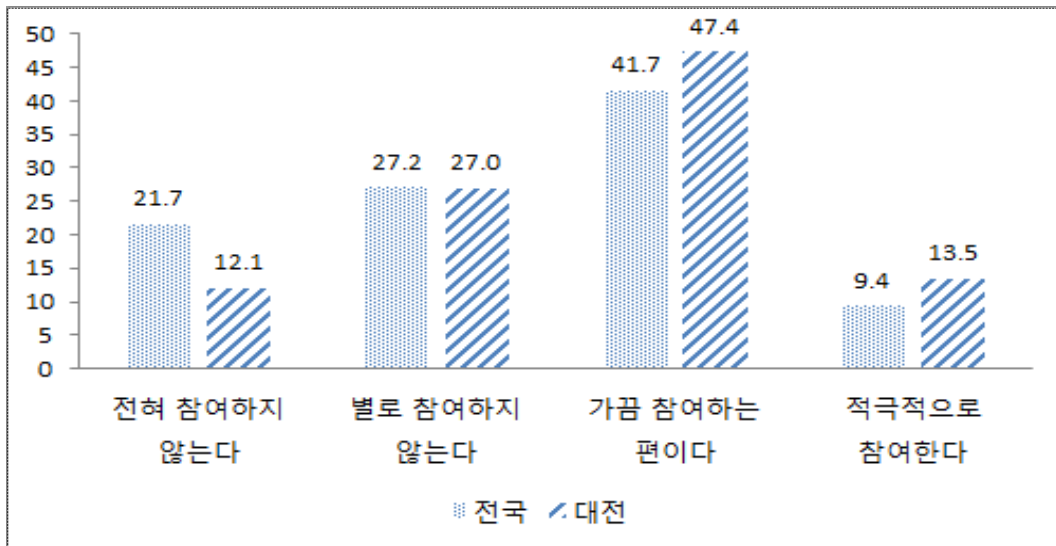
<표 3-3-7>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가끔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전국		21.7	27.2	41.7	9.4
대전		12.1	27.0	47.4	13.5
성별	남자	14.3	29.6	45.5	10.6
	여자	10.0	24.7	49.0	16.3
학교급	중학교	13.2	28.5	46.3	12.0
	고등학교	10.6	25.1	48.8	15.5
구	동구	6.5	27.6	49.2	16.8
	중구	11.5	28.7	47.8	12.1
	서구	13.8	27.4	47.4	11.4
	유성구	9.8	25.4	49.6	15.2
	대덕구	21.1	26.8	39.0	13.0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봉사활동 등)에 ‘참여한다’ (적극+가끔)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65.3%)이 남학생(56.1%)보다 9.2%p 정도 높고, 고등학생(64.3%)이 중학생(58.3%)보다 6.0%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동구(66.0%)에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52.0%)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기]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 참여도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에 대한 실제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8>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4명 정도인 41.4%(적극 10.8%+가끔 30.6%)는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38.3%(적극 9.8%+가끔 28.5%)보다는 3.1%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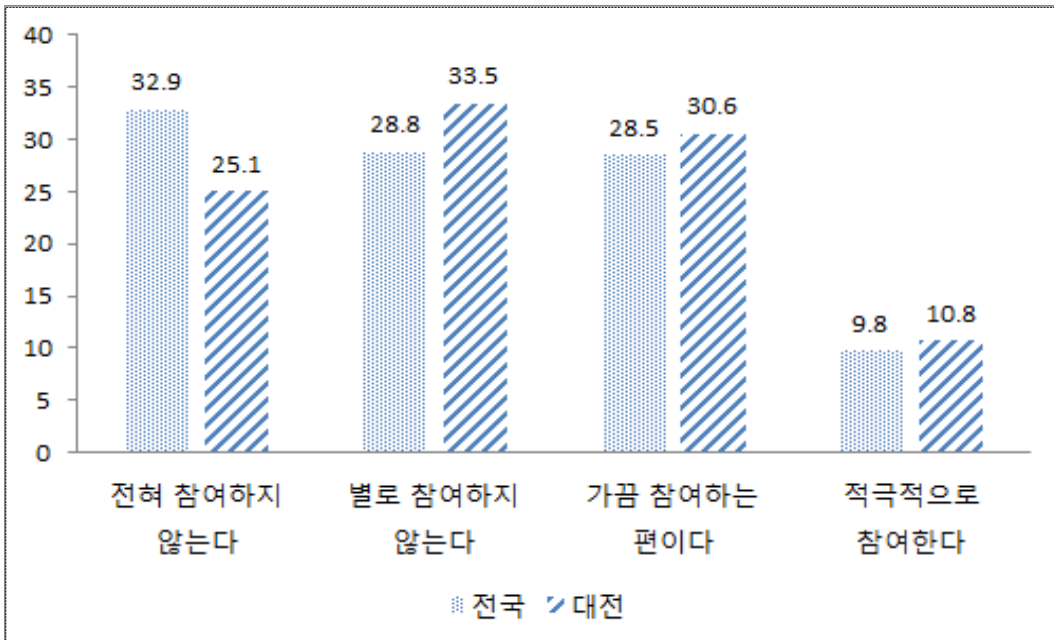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에 ‘참여한다’ (적극+가끔)고 응답한 남학생(44.5%)이 여학생(38.4%)보다 6.1%p 정도 높았다. 이처럼 남학생들은 친구들과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41.7%)과 중학생(41.3%)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유성구(46.4%)에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구(36.1%)와 서구(38.3%)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 참여도

(단위: %)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가끔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전국		32.9	28.8	28.5	9.8
대전		25.1	33.5	30.6	10.8
성별	남자	25.3	30.2	31.8	12.7
	여자	24.9	36.7	29.3	9.1
학교급	중학교	26.0	32.7	31.3	10.0
	고등학교	23.8	34.5	29.8	11.9
구	동구	21.1	33.5	33.0	12.4
	중구	31.0	32.9	25.3	10.8
	서구	26.8	34.9	28.6	9.7
	유성구	23.0	30.7	36.8	9.6
	대덕구	22.8	35.8	26.8	14.6

[그림 3-3-8]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 참여도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교칙 제정 등)에 대한 실제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9>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4명 중 1명 이상인 26.3% (적극 7.2%+가끔 19.1%)는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교칙 제정 등)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9.7%(적극 2.3%+가끔 7.4%)보다는 16.6%p 정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청소년 관련 문제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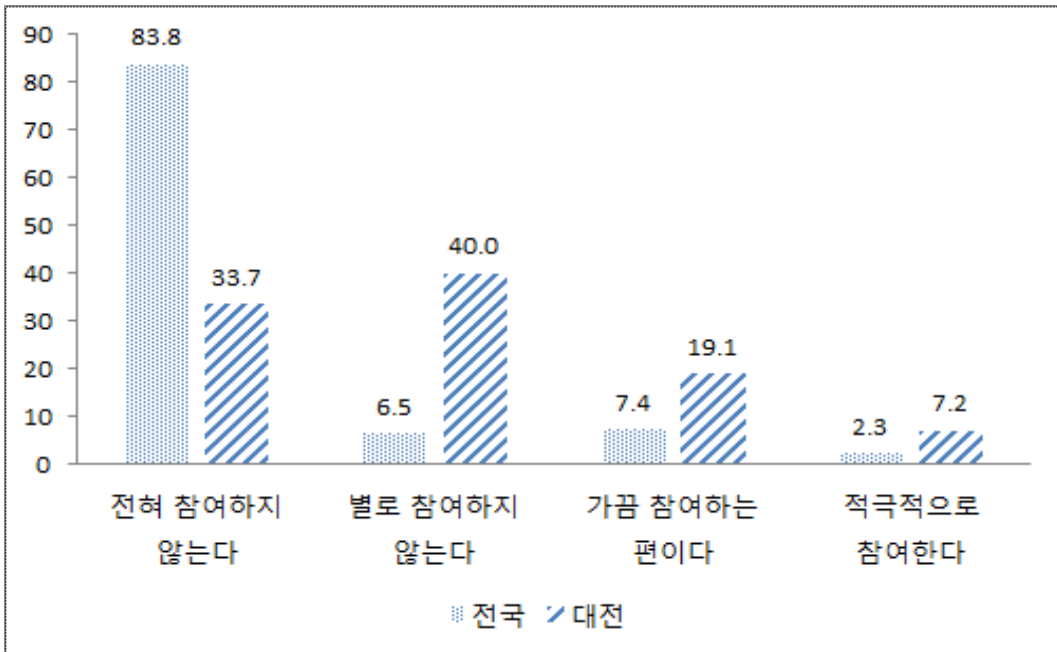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교칙 제정 등)에 대해 '참여한다' (적극+가끔)고 응답한 여학생(27.1%)이 남학생(25.3%)보다, 고등학생(28.5%)이 중학생(24.7%)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동구(33.3%)에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14.7%)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참여도

(단위: %)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가끔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전국		83.8	6.5	7.4	2.3
대전		33.7	40.0	19.1	7.2
성별	남자	33.4	41.2	18.8	6.5
	여자	34.1	38.9	19.2	7.9
학교급	중학교	35.1	40.2	18.1	6.6
	고등학교	31.8	39.7	20.4	8.1
구	동구	33.3	33.3	25.1	8.2
	중구	32.9	38.0	20.3	8.9
	서구	35.7	42.0	16.3	6.0
	유성구	28.0	41.3	22.3	8.3
	대덕구	41.5	43.9	9.8	4.9

[그림 3-3-9]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참여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에 대한 실제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10>과 같다. 대전 학생 청소년의 16.0%(적극 4.7%+가끔 11.3%)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5.9%(적극 1.3%+가끔 4.6%)보다는 10.1%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전 학생청소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에 대한 실제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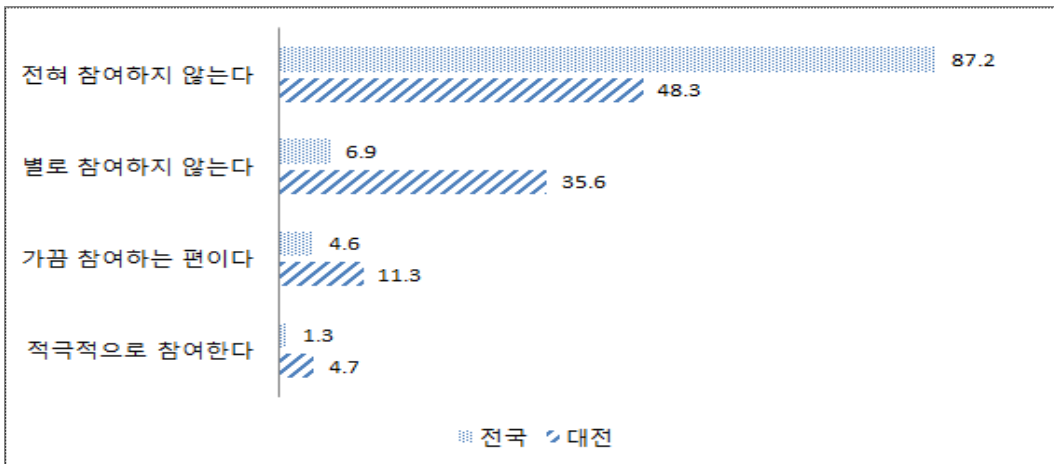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에 ‘참여한다’(적극+가끔)는 남학생(18.2%)이 여학생(13.9%)보다, 중학생(16.5%)이 고등학생(1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동구(20.6%)에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서구(12.3%)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0〉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참여도

(단위: %)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가끔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전국		87.2	6.9	4.6	1.3
대전		48.3	35.6	11.3	4.7
성별	남자	45.9	36.0	11.8	6.4
	여자	50.7	35.4	10.7	3.2
학교급	중학교	46.7	36.8	12.0	4.5
	고등학교	50.4	34.1	10.4	5.1
구	동구	45.4	34.1	15.7	4.9
	중구	52.9	29.3	10.8	7.0
	서구	50.5	37.2	8.2	4.1
	유성구	44.7	38.3	14.0	3.0
	대덕구	48.0	35.8	8.9	7.3

[그림 3-3-10]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 참여도



한편, 청소년들의 참여와 관련하여 5개 영역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제 참여 정도를 종합한 결과는 <표 3-3-11>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제시한 5개 영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항별로는 흥미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은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여가 문화 행사 등 자신과 관련이 있는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반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소년 문제나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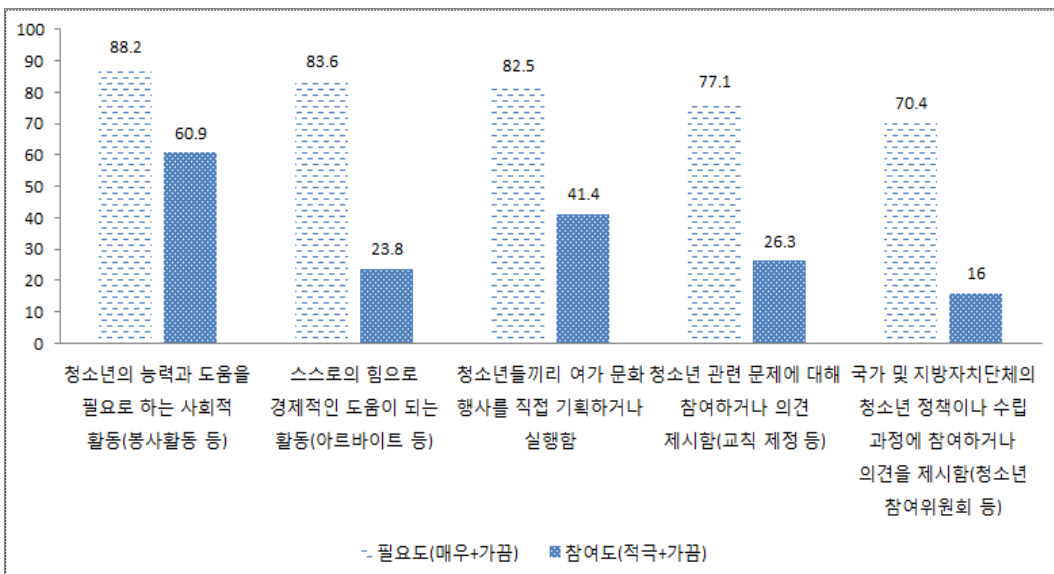
서는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제시된 5개 영역에 청소년들의 참여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봉사활동 등)을 제외하고, 다른 4개 영역에서는 필요도와 참여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이러한 활동 영역에 대전 학생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표 3-3-11〉 청소년 참여 영역의 필요도와 참여도(종합)

(단위: %)

구분	필요도(매우+가끔)	참여도(적극+가끔)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아르바이트 등)	83.6	23.8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봉사활동 등)	88.2	60.9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함	82.5	41.4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함(교직 제정 등)	77.1	26.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70.4	16.0

[그림 3-3-11] 청소년 참여 영역의 필요도와 참여도(종합)



2. 청소년 활동 및 시설 이용 경험

1)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청소년 활동 영역을 10가지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 참여 여부와 참여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12>와 같다. 대전의 학생청소년은 10개의 청소년 활동 영역 중에서 참여 경험 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감상, 공연참가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64.4%)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 횟수도 4.2회로 자원봉사활동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의 참여 횟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직업/진로 관련 활동(56.1%), 자원봉사활동(50.4%), 건강/보건 관련 활동(43.2%), 모험/개척 관련 활동(28.7%), 과학/정보 관련 활동(26.7%),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20.5%), 환경 보존 관련 활동(19.8%), 국제 교류활동(8.0%), 정책 참여 활동(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10개 영역 가운데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공연 감상 등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으로 조사대상자의 77.2%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 횟수도 6.6회로 건강/보건 관련 활동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의 참여 횟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직업/진로 관련 활동(52.3%), 자원봉사활동(48.6%), 건강/보건 관련 활동(37.5%), 모험/개척 관련 활동(36.9%),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25.6%), 과학/정보 관련 활동(25.3%), 환경 보존 관련 활동(19.8%), 정책 참여 활동(14.3%), 국제 교류 활동(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횟수는 건강/보건 관련 활동의 참여 횟수가 9.5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6.6회),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5.5회), 자원봉사활동(5회), 과학/정보 관련 활동(4.6회), 모험/개척 관련 활동(3.5회), 환경 보존 관련 활동(2.9회), 직업/진로 관련 활동(2.8회), 정책 참여 활동과 국제 교류 활동은 각각 2.1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대전 학생청소년 들은 전체 청소년활동 영역의 참여율과 참여 횟수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10개의 영역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참여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은 과학/정보 관련 활동, 국제 교류 활동, 건강/보건 관련 활동, 환

〈표 3-3-12〉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단위: %, 회)

구분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원봉사		직업/진로	
		백분율	회	백분율	회	백분율	회	백분율	회	백분율	회
전국		77.2	6.6	25.3	4.6	36.9	3.5	48.6	5.0	52.3	2.8
대전		64.4	4.2	26.7	2.9	28.7	2.4	50.4	5.2	56.1	2.8
성별	남자	55.8	3.7	24.5	3.2	28.6	3.0	44.6	4.8	50.3	3.3
	여자	73.0	4.6	29.0	2.6	28.7	1.9	56.1	5.4	61.9	2.4
학교급	중학교	64.5	3.7	29.7	3.0	25.0	2.8	43.3	4.4	49.7	2.9
	고등학교	64.4	4.9	22.7	2.6	33.7	2.1	60.0	5.9	64.7	2.7
구	동구	74.5	4.5	29.3	2.5	33.2	2.2	56.5	4.7	55.4	2.2
	중구	62.8	7.0	20.7	2.1	33.1	2.6	59.8	4.5	61.0	2.3
	서구	66.1	3.9	26.0	3.5	30.8	2.3	52.9	6.2	62.9	3.5
	유성구	56.6	3.2	33.0	2.8	26.4	2.4	45.4	4.6	48.0	2.7
	대덕구	63.6	3.1	19.4	2.6	15.6	3.3	32.6	4.6	48.1	2.2
구분		정책참여		국제교류		건강/보건		자기계발		환경보존	
		백분율	회	백분율	회	백분율	회	백분율	회	백분율	회
전국		14.3	2.1	5.5	2.1	37.5	9.5	25.6	5.5	19.8	2.9
대전		5.1	3.2	8.0	2.1	43.2	3.0	20.5	2.0	19.8	2.3
성별	남자	4.7	3.2	7.0	2.0	42.6	3.2	16.3	2.2	17.4	2.5
	여자	5.5	3.2	9.0	2.2	43.8	2.9	24.7	2.0	22.3	2.2
학교급	중학교	5.1	3.1	9.1	2.0	45.4	2.7	16.7	2.4	20.7	2.7
	고등학교	5.0	3.3	6.5	2.5	40.1	3.6	25.6	1.8	18.7	1.7
구	동구	4.3	1.4	11.4	2.1	42.4	1.8	24.5	1.5	30.4	1.6
	중구	4.3	3.6	9.8	1.6	49.4	4.4	24.4	1.5	23.2	1.9
	서구	5.9	3.7	8.0	2.3	43.6	3.4	20.3	2.5	18.4	3.3
	유성구	5.1	2.5	7.3	2.5	42.9	2.6	22.3	2.2	17.9	2.3
	대덕구	4.7	4.3	2.3	1.0	35.7	2.5	6.3	1.4	8.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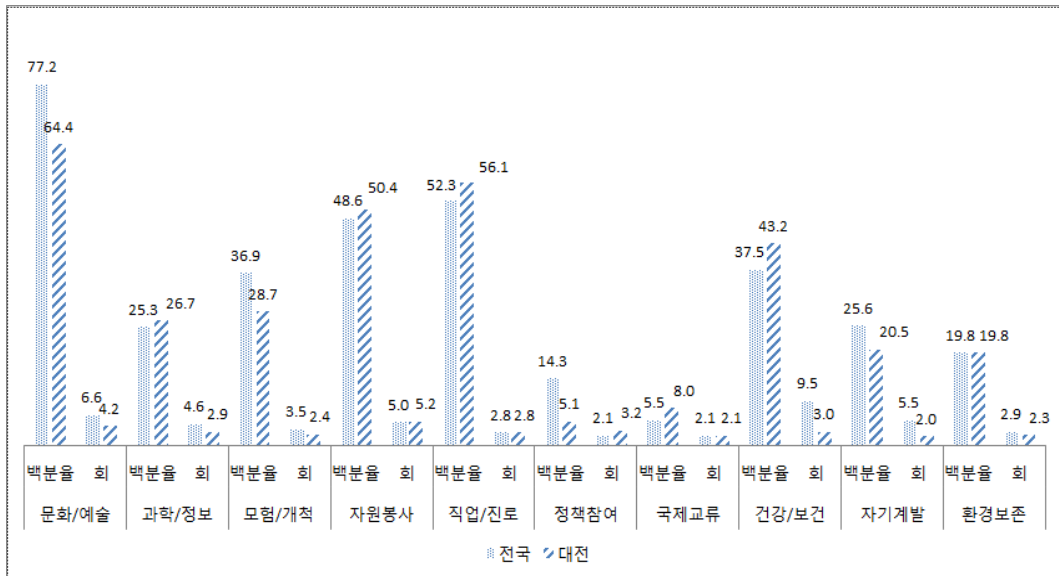
주) 횡수는 해당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1년 평균 참여 횡수를 의미함.

경 보존 관련 활동 등에 많이 참여한 반면, 고등학생은 모험/개척 관련 활동, 자원봉사 활동, 직업/진로 관련 활동,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등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동구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 국제 교류 활동, 환경 보존 관련 활동 등에서, 중

구는 자원봉사 활동과 건강/보건 관련 활동 등에서, 서구는 직업/진로 관련 활동과 정책 참여 활동 등에서, 유성구는 과학/정보 관련 활동에서의 참여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전 학생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횟수는 대부분의 활동 영역에서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횟수가 5.2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4.2회), 정책 참여 활동(3.2회), 건강/보건 관련 활동(3회), 과학/정보 관련 활동(2.9회), 직업/진로 관련 활동(2.8회), 모험/개척 관련 활동(2.4회), 환경 보존 관련 활동(2.3회), 국제교류 활동(2.1회),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2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2]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활동 참여 횟수를 성별로 보면,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남학생은 과학/정보 관련 활동, 모험/개척 관련 활동, 직업/진로 관련 활동, 정책 참여 활동, 건강/보건 관련 활동,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환경 보존 관련 활동 등에서 참여 횟수가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 자원봉사 활동, 국제 교류 활동 등에서의 참여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은 과학/정보 관련 활동, 모험/개척 관련 활동, 직업/진로 관련 활동,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환경 보존 관련 활동 등에서 참여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 자원봉사 활동, 정책 참여 활동, 국제 교류 활동, 건강/보건 관련 활동 등에서 참여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구별로 보면, 동구는 국제 교류 활동에서, 중구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과 건강/보건 관련 활동에서, 서구는 과학/정보 관련 활동, 자원봉사 활동, 직업/진로 관련 활동,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환경 보존 관련 활동 등에서, 유성구는 국제 교류 활동에서, 대덕구는 모험/개척 관련 활동과 정책 참여 활동 등에서 참여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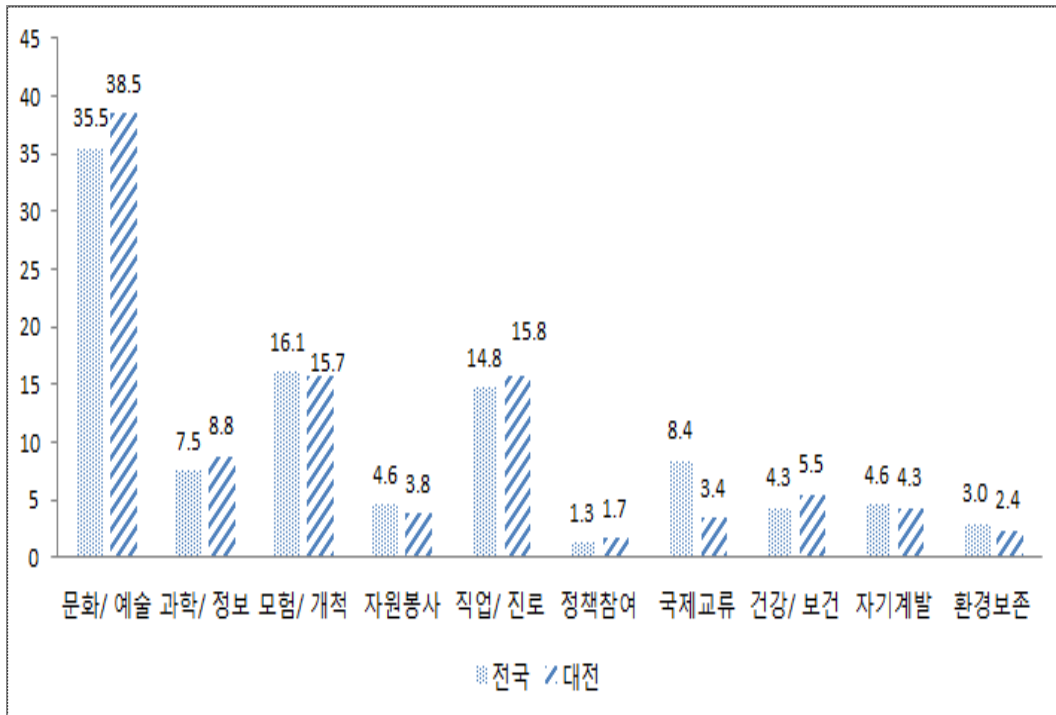
제시된 10가지 청소년활동 영역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 1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13>과 같다. 대전의 학생청소년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 1순위는 공연 감상 등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38.5%)이다. 그 다음으로 직업/진로 관련 활동(15.8%), 모험/개척 관련 활동(15.7%), 과학/정보 관련 활동(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도 10개 영역 가운데 청소년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 1순위로 문화/예술 관련 활동(35.5%), 모험/개척 관련 활동(16.1%), 직업/진로 관련 활동(14.8%), 국제 교류 활동(8.4%), 과학/정보 관련 활동(7.5%)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전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은 공연 관람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3-13>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단위: %)

구분		문화/ 예술	과학/ 정보	모험/ 개척	자원 봉사	직업/ 진로	정책 참여	국제 교류	건강/ 보건	자기 계발	환경 보존
전국		35.5	7.5	16.1	4.6	14.8	1.3	8.4	4.3	4.6	3.0
대전		38.5	8.8	15.7	3.8	15.8	1.7	3.4	5.5	4.3	2.4
성별	남자	29.2	12.9	22.2	4.1	11.9	2.7	3.1	8.4	2.3	3.1
	여자	47.1	5.1	9.6	3.6	19.4	0.7	3.6	2.9	6.2	1.8
학교급	중학교	33.5	9.5	18.5	3.4	18.1	1.5	2.1	6.4	3.9	3.1
	고등학교	45.3	7.9	11.9	4.4	12.6	2.0	5.1	4.4	4.9	1.5
구	동구	35.4	11.8	10.1	5.1	22.5	1.1	6.2	3.4	3.4	1.1
	중구	41.0	3.8	11.5	3.2	21.2	3.8	4.5	3.8	5.1	1.9
	서구	36.8	8.6	18.7	5.3	12.8	1.7	3.1	5.6	4.5	3.1
	유성구	38.9	7.5	17.1	3.2	13.9	1.6	2.0	7.1	5.2	3.6
	대덕구	44.2	14.2	17.5	0.0	11.7	0.0	1.7	7.5	2.5	0.8

[그림 3-3-13]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성별에 따라 참여하고 싶은 활동 1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29.2%), 모험/개척 관련 활동(22.2%), 과학/정보 관련 활동(12.9%), 직업/진로 관련 활동(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도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 47.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직업/진로 관련 활동(19.4%), 모험/개척 관련 활동(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학생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과 직업/진로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33.5%), 모험/개척 관련 활동(18.5%), 직업/진로 관련 활동(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45.3%), 직업/진로 관련 활동(12.6%), 모험/개척 관련 활동(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모든 구에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 1순위로 나타났고, 특히 대덕구(44.2%)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진로 관련 활동은 동구(22.5%)와 중구(2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시된 10가지 활동 영역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 2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14>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 2순위는 직업/진로 관련 활동(22.0%)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16.5%), 모험/개척 관련 활동(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10개 영역 가운데 청소년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 2순위는 직업/진로 관련 활동이 19.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모험/개척 관련 활동(15.8%), 문화/예술 관련 활동(15.5%),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 2순위로 직업/진로 관련 활동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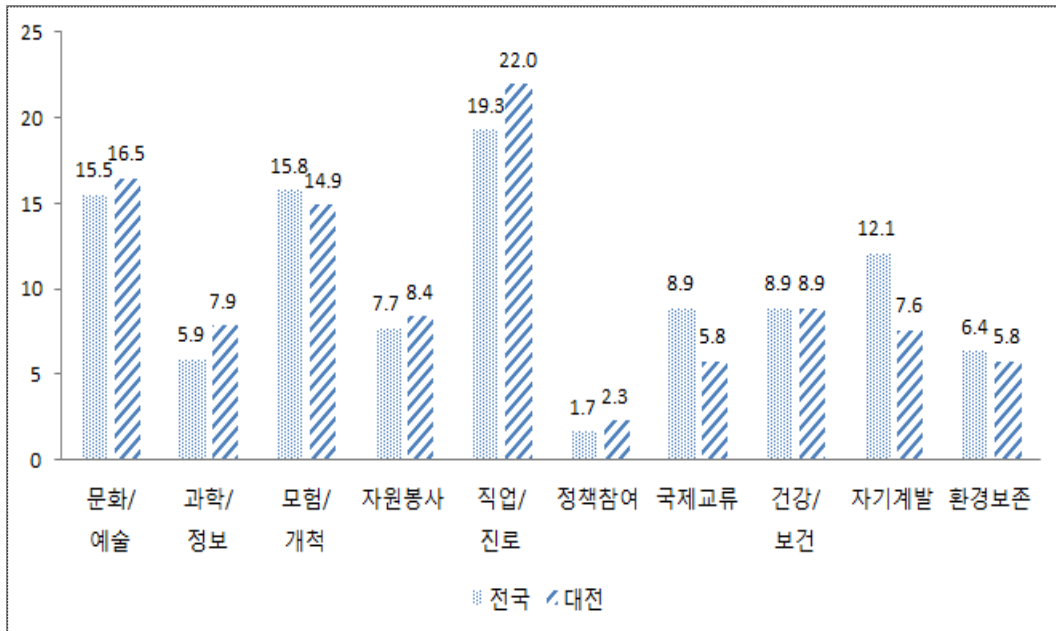
〈표 3-3-14〉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2순위)

(단위: %)

구분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원봉사	직업/진로	정책참여	국제교류	건강/보건	자기계발	환경보존
전국		15.5	5.9	15.8	7.7	19.3	1.7	8.9	8.9	12.1	6.4
대전		16.5	7.9	14.9	8.4	22.0	2.3	5.8	8.9	7.6	5.8
성별	남자	15.7	11.4	18.5	6.3	19.5	1.4	4.7	9.8	6.3	6.3
	여자	17.2	4.7	11.6	10.3	24.3	3.1	6.7	8.0	8.9	5.3
학교급	중학교	16.9	8.9	16.3	8.0	21.0	1.3	3.4	10.0	7.6	6.6
	고등학교	16.0	6.7	13.1	8.9	23.3	3.5	8.9	7.3	7.8	4.7
구	동구	16.3	6.2	15.7	9.6	24.2	1.1	7.3	10.1	6.7	2.8
	중구	20.5	9.6	12.8	9.0	23.1	3.2	3.2	5.1	6.4	7.1
	서구	17.3	7.8	13.6	6.1	22.3	3.1	5.0	9.2	8.6	7.0
	유성구	15.3	8.0	15.7	10.0	15.7	2.0	7.2	10.4	9.6	6.0
	대덕구	11.9	8.5	18.6	9.3	29.7	0.8	5.9	7.6	3.4	4.2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직업/진로 관련 활동(19.5%), 모험/개척 관련 활동(18.5%), 문화/예술 관련 활동(15.7%), 과학/정보 관련 활동(11.4%)

[그림 3-3-14]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2순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도 직업/진로 관련 활동(24.3%)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17.2%), 모험/개척 관련 활동(11.6%), 자원봉사 활동(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에서 보면, 중학생은 직업/진로 관련 활동(21.0%), 문화/예술 관련 활동(16.9%), 모험/개척 관련 활동(16.3%), 건강/보건 관련 활동(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도 직업/진로 관련 활동(23.3%)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16.0%), 모험/개척 관련 활동(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도 직업/진로 관련 활동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대덕구(29.7%)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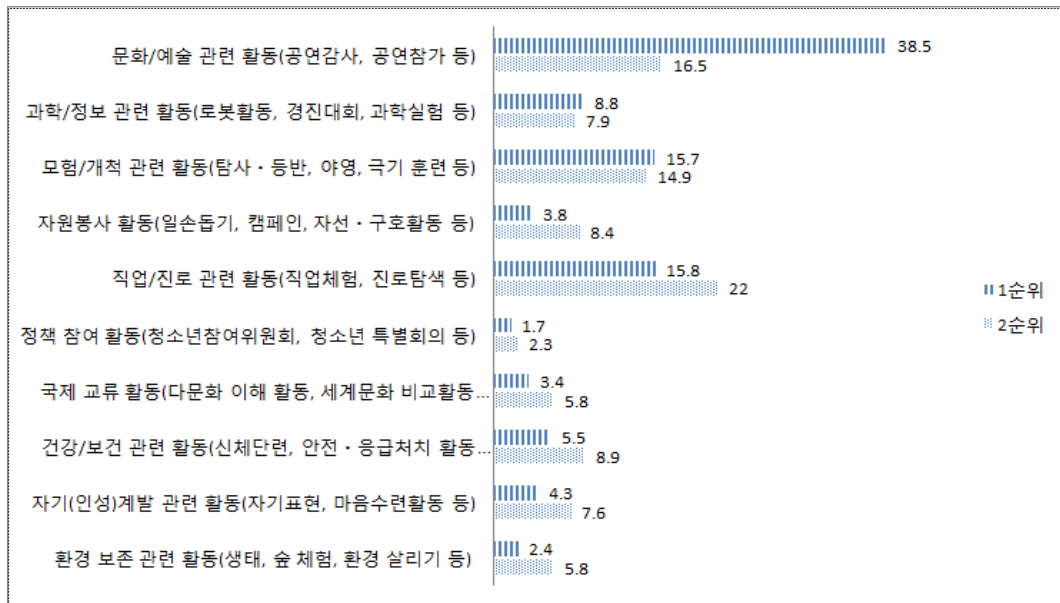
한편, 제시된 10가지 활동 영역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 1, 2순위를 종합한 결과는 <표 3-3-15>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전의 학생청소년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1순위와 2순위 모두 문화/예술 관련 활동, 직업/진로 관련 활동, 모험/개척 관련 활동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3-3-12>에서와 같이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경험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여횟수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전 학생청소년의 활동 영역의 참여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15〉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종합)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감상, 공연참가 등)	38.5	16.5
과학/정보 관련 활동(로봇활동, 경진대회, 과학실험 등)	8.8	7.9
모험/개척 관련 활동(탐사·등반, 야영, 극기 훈련 등)	15.7	14.9
자원봉사 활동(일손돕기, 캠페인, 자선·구호활동 등)	3.8	8.4
직업/진로 관련 활동(직업체험, 진로탐색 등)	15.8	22.0
정책 참여 활동(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등)	1.7	2.3
국제 교류 활동(다문화 이해 활동, 세계문화 비교활동 등)	3.4	5.8
건강/보건 관련 활동(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활동 등)	5.5	8.9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자기표현, 마음수련활동 등)	4.3	7.6
환경 보존 관련 활동(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2.4	5.8

[그림 3-3-15]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종합)



3) 청소년 활동 참여 경로

청소년 활동 영역에 참여하게 된 경로를 살펴본 결과(복수 응답)는 <표 3-3-16>과 같다. <표 3-3-16>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부터 권유를 통해 청소년 활동 영역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교 선생님의 권유

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3명 이상(32.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31.0%), 친구나 선배의 권유(23.2%)로 나타났다. 또한 홍보/게시판 공고를 통해(15.9%), 인터넷 상의 정보 활용(14.1%),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학교 선생님의 권유(22.1%)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21.8%), 친구나 선배의 권유(17.7%)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3-16〉 청소년활동 참여 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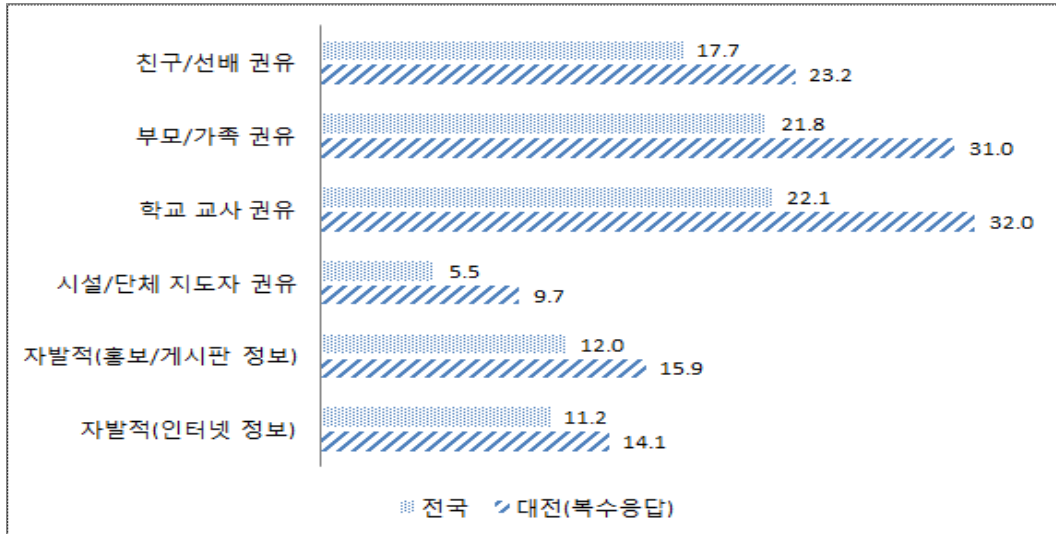
구분		친구/선배 권유	부모/가족 권유	학교 교사 권유	시설/단체 지도자 권유	자발적(홍보/게시판 정보)	자발적(인터넷 정보)
전국		17.7	21.8	22.1	5.5	12.0	11.2
대전(복수응답)		23.2	31.0	32.0	9.7	15.9	14.1
성별	남자	20.3	30.7	33.6	7.8	11.1	8.6
	여자	26.1	31.3	30.6	11.5	20.6	19.5
학교급	중학교	20.4	35.5	33.2	8.5	14.1	12.0
	고등학교	27.0	24.9	30.5	11.3	18.4	16.9
구	동구	24.5	33.2	39.7	8.2	18.5	10.9
	중구	20.9	27.6	34.4	12.3	11.7	19.0
	서구	27.2	32.1	33.4	9.4	14.8	14.6
	유성구	17.9	34.0	22.0	10.8	19.4	13.1
	대덕구	24.0	22.4	35.2	7.2	13.6	13.6

주) “해당 없음” 및 “기타” 항목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분율의 합이 100이 되지 않음.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청소년활동 참여 경로는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33.6%),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30.7%), 친구나 선배의 권유(20.3%)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31.3%), 학교 선생님의 권유(30.6%), 친구나 선배의 권유(26.1%), 홍보/게시판의 공고를 통해서(20.6%), 인터넷 상의 정보 활용(19.5%) 등 좀 더 다양한 참여 경로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은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35.5%)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어서 학교 선생님의 권유(33.2%), 친구나 선배의 권유(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

(30.5%)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친구나 선배의 권유(27.0%),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24.9%), 홍보/게시판 공고를 통해(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유성구는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가 가장 많은 반면에 다른 구들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6] 청소년활동 참여 경로



4) 청소년 활동 참여 이유

청소년 활동 영역에 참여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3-3-17>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4명 이상인 45.3%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청소년 활동 영역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14.4%),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청소년 활동의 참여 이유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서(54.1%)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14.4%),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12.0%)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순서를 보였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활동 영역의 참여 이유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여학생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서와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많은 반

면, 고등학생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덕구(58.9%), 유성구(57.5%), 동구(53.6%)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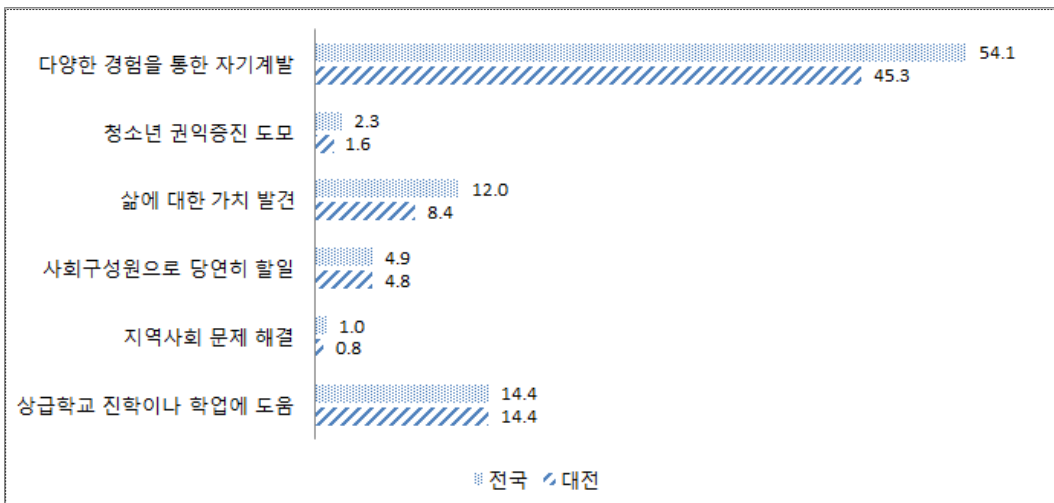
〈표 3-3-17〉 청소년활동 참여 이유

(단위: %)

구분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	삶에 대한 가치 발견	사회구성원으로 당연히 할 일	지역사회 문제 해결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
전국		54.1	2.3	12.0	4.9	1.0	14.4
대전		45.3	1.6	8.4	4.8	0.8	14.4
성별	남자	46.8	2.3	12.9	6.9	1.4	15.9
	여자	57.1	1.4	6.8	4.3	0.6	17.3
학교급	중학교	48.8	1.9	9.3	5.7	1.7	17.3
	고등학교	56.9	1.8	10.2	5.4	0.0	15.8
구	동구	53.6	0.0	10.2	6.6	0.6	16.3
	중구	46.0	3.6	10.2	5.8	0.7	19.0
	서구	48.7	2.5	10.5	5.1	1.0	19.1
	유성구	57.5	1.9	9.2	6.8	1.4	13.0
	대덕구	58.9	0.0	6.3	2.1	1.1	13.7

주) “해당 없음” 및 “기타” 항목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분율의 합이 100이 되지 않음.

[그림 3-3-17] 청소년활동 참여 이유



5) 청소년 활동 참여 만족도

청소년 활동의 참여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3-18>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5명 이상인 54.9%(매우 11.1%+약간 43.8%)는 청소년 활동 참여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3.7%(전혀 0.8%+ 약간 2.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50.6%(매우 11.4%+약간 39.2%)보다는 4.3%p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청소년 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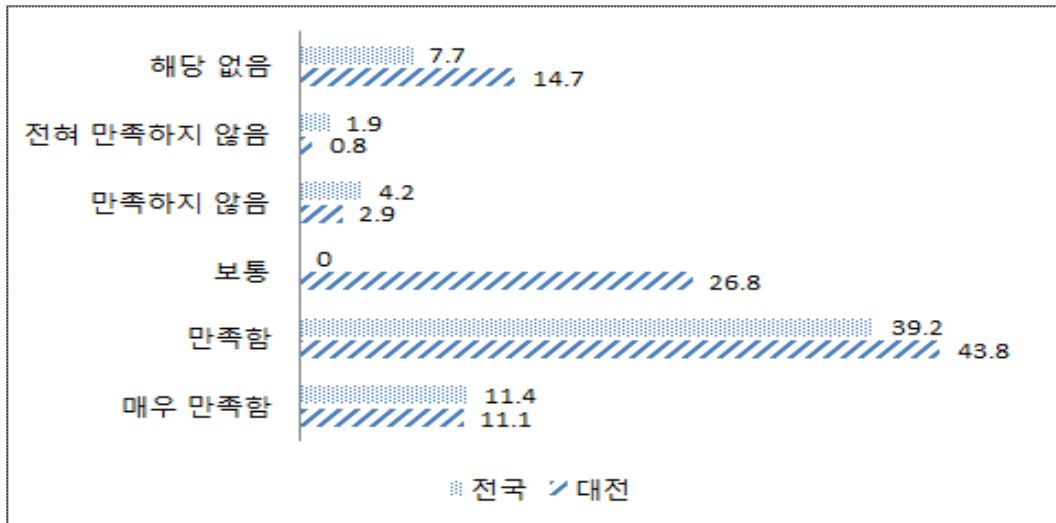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활동의 참여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매우+약간)고 응답한 여학생(58.4%)이 남학생(51.0%)보다, 고등학생(56.0%)이 중학생(53.9%)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동구(66.8%)에서 청소년 활동의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덕구(46.3%)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8> 청소년활동 참여 만족도

(단위: %)

구분		해당 없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전국		7.7	1.9	4.2	-	39.2	11.4
대전		14.7	0.8	2.9	26.8	43.8	11.1
성별	남자	18.6	1.1	2.7	26.5	41.1	9.9
	여자	10.8	0.5	3.1	27.2	46.2	12.2
학교급	중학교	16.5	0.5	2.8	26.3	40.7	13.2
	고등학교	12.2	1.3	3.0	27.6	47.9	8.1
구	동구	8.3	0.6	2.8	21.5	56.9	9.9
	중구	11.1	3.1	2.5	32.1	41.4	9.9
	서구	13.9	0.3	2.7	27.8	44.7	10.7
	유성구	20.3	0.4	2.3	25.2	39.5	12.4
	대덕구	19.0	0.8	5.8	28.1	33.9	12.4

[그림 3-3-18] 청소년활동 참여 만족도



6)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 가입 현황

청소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단체나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특히 사회성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청소년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동아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3-3-19>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7.9%는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 29.1%는 사이버단체나 동아리에, 36.8%는 기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21.6%는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 21.4%는 사이버단체나 동아리에, 26.6%는 기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대전 학생청소년은 청소년시설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사이버나 기타 단체나 동아리에서 더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수에서도 대전 학생청소년은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의 경우가 1.3개, 사이버단체나 동아리는 3.2개, 기타 단체는 1.5개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이버단체나 동아리의 가입이 가장 많은 것은 학생청소년들이 모임이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청소년시설이나 단체 1.3개, 사이버단체나 동아리 2.8개, 기타 단체 1.3개와 비교해 보면, 대전 청소년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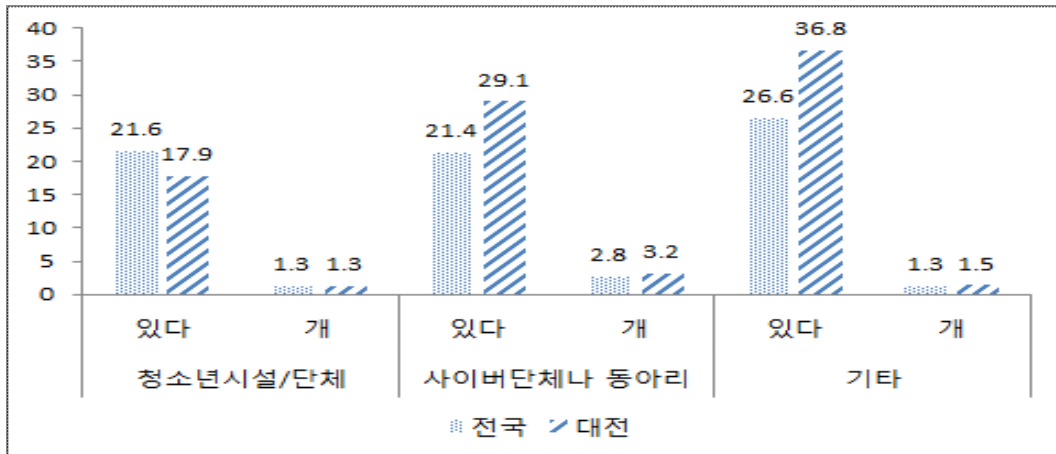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나 동아리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청소년시설이나 단체(18.3%)에, 여학생은 사이버단체나 동아리(32.0%)와 기타 단체(39.0%)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나 동아리 수는 남학생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모든 단체나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비율과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중구는 기타 단체(42.3%)에서, 서구는 청소년시설이나 단체(21.9%), 사이버단체나 동아리(32.4%)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 개수를 보면, 청소년시설/단체는 동구(1.4개)가, 사이버단체나 동아리는 대덕구(4.1개)가, 기타 단체나 동아리는 중구(1.8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9〉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동아리

(단위: %, 개)

구분		청소년시설/단체		사이버단체나 동아리		기타	
		있다	개	있다	개	있다	개
전국		21.6	1.3	21.4	2.8	26.6	1.3
대전		17.9	1.3	29.1	3.2	36.8	1.5
성별	남자	18.3	1.3	26.1	3.5	34.6	1.5
	여자	17.3	1.3	32.0	2.9	39.0	1.5
학교급	중학교	17.5	1.3	27.0	3.1	33.1	1.4
	고등학교	18.5	1.4	32.0	3.2	41.9	1.6
구	동구	14.7	1.4	28.8	2.9	37.5	1.6
	중구	14.7	1.3	29.4	3.2	42.3	1.8
	서구	21.9	1.3	32.4	3.1	39.1	1.4
	유성구	16.5	1.3	28.2	3.1	36.0	1.5
	대덕구	18.1	1.3	21.4	4.1	23.6	1.2

[그림 3-3-19]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동아리



7) 청소년 시설 이용 경험

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3-20>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청소년시설은 공연시설로 청소년의 10명 중 7명 이상인 74.6%로 나타났다. 이어서 도서관(62.7%), 수목원 등(50.2%), 전시시설(49.6%), 청소년수련관 등(46.6%), 유스호스텔(24.2%), 사회복지관(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공연시설(83.9%)의 이용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도서관(60.8%), 전시시설(47.3%), 청소년수련관 등(39.6%), 수목원 등(34.5%), 유스호스텔(15.7%), 사회복지관(13.5%)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거의 비슷하였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시설 이용 횟수(연)의 경우를 보면, 도서관(12.6회)의 이용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연시설(8.0회), 사회복지관(6.0회), 수목원 등(3.3회), 전시시설(2.9회), 청소년수련관 등(2.4회), 유스호스텔(1.8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학생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에서 여학생들은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이용 경험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은 유스호스텔, 전시시설, 수목원 등에서, 고등학생은 청소년수련관 등, 도서관, 공연시설, 사회복지관 등에서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동구는 공연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중구는 도서관, 사회복지관에서, 서구는 수목원 등에서, 대덕구는 유스호스텔의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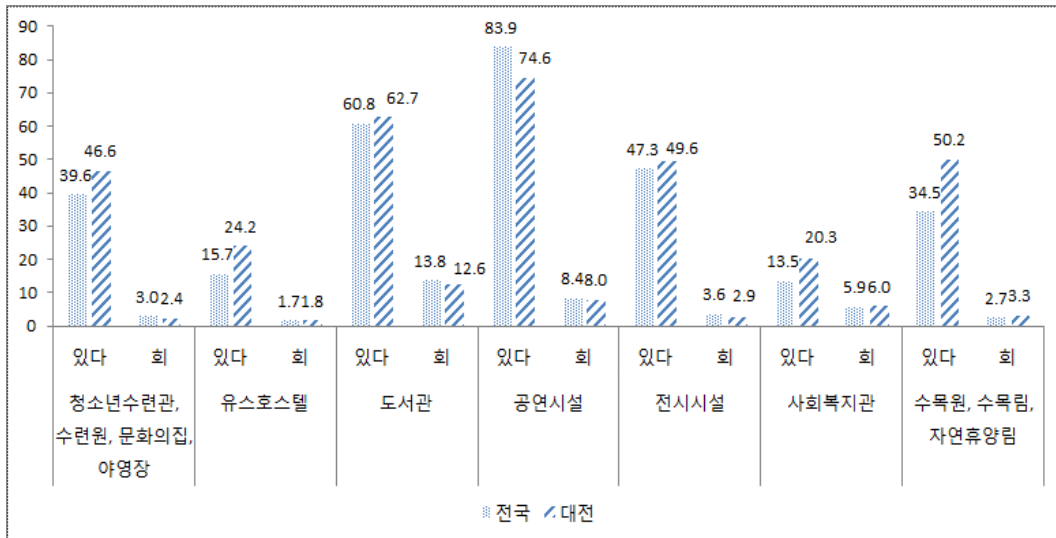
〈표 3-3-20〉 시설 이용 경험

(단위: %, 회)

구분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아영장		유스호스텔		도서관	
		있다	회	있다	회	있다	회
전국		39.6	3.0	15.7	1.7	60.8	13.8
대전		46.6	2.4	24.2	1.8	62.7	12.6
성별	남자	42.9	2.8	24.8	1.8	56.8	12.0
	여자	50.4	2.0	23.6	1.7	68.6	13.1
학교급	중학교	42.1	2.8	25.7	1.8	60.9	9.3
	고등학교	52.7	1.9	22.1	1.6	65.1	17.0
구	동구	53.5	2.1	20.0	1.5	64.9	12.7
	중구	53.1	2.0	26.5	2.0	72.4	12.3
	서구	50.1	2.7	26.4	1.6	60.1	14.0
	유성구	38.5	1.8	21.0	2.0	61.0	11.5
	대덕구	35.4	3.5	27.3	1.9	57.9	11.4

구분		공연시설		전시시설		사회복지관		수목원, 수목림, 자연휴양림	
		있다	회	있다	회	있다	회	있다	회
전국		83.9	8.4	47.3	3.6	13.5	5.9	34.5	2.7
대전		74.6	8.0	49.6	2.9	20.3	6.0	50.2	3.3
성별	남자	68.5	7.7	41.3	3.1	16.9	4.6	45.4	3.4
	여자	80.6	8.2	57.7	2.7	23.6	7.1	55.0	3.2
학교급	중학교	73.0	7.2	51.4	2.8	16.2	6.3	51.9	3.5
	고등학교	76.7	9.0	47.1	3.0	25.7	5.8	47.9	3.0
구	동구	80.0	7.5	54.9	2.6	23.8	9.8	49.2	2.7
	중구	76.7	8.2	50.6	2.9	24.5	4.4	50.9	2.8
	서구	76.5	8.6	46.7	3.0	18.9	6.3	55.6	4.1
	유성구	69.2	7.9	53.8	3.0	19.8	4.4	45.8	2.8
	대덕구	69.5	6.4	39.8	2.4	14.8	4.5	44.5	3.1

[그림 3-3-20] 시설 이용 경험



8)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인지도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3-21>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인 65.5%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국제교류활동(30.5%), 청소년어울림마당(24.9%), 청소년참여활동(24.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17.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전 학생청소년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제외한 다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65.2%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서 청소년어울림마당(28.9%), 청소년국제교류활동(28.9%), 청소년참여활동(21.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17.7%),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활동 정책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어울림마당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은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중학생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제외하고 동구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42.2%)과 청소년어울림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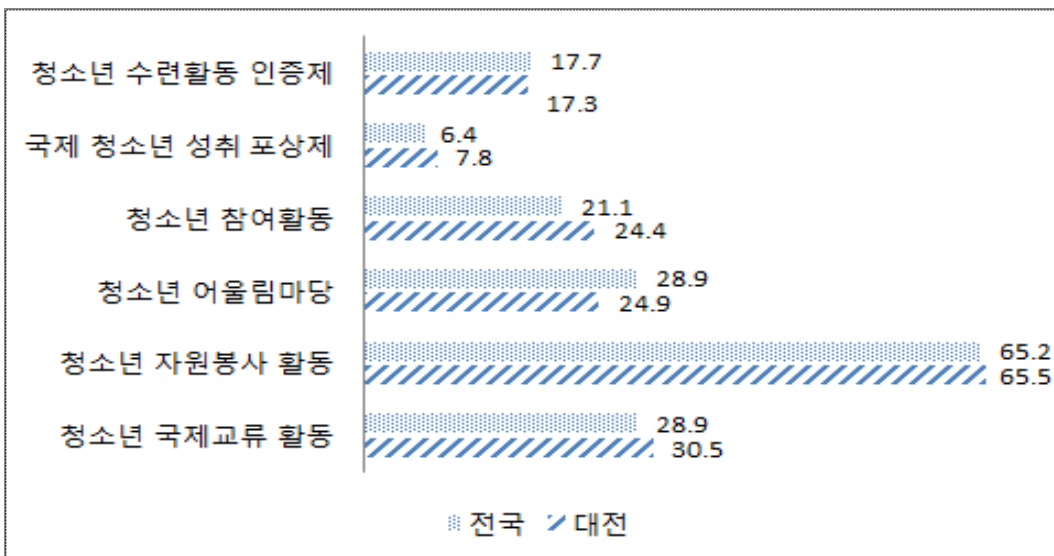
(34.6%)에서, 중구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37.8%)과 청소년참여활동(28.0%)에서, 서구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20.0%)에서, 유성구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11.9%)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1〉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 인지도

(단위: %)

구분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청소년 참여활동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전국		17.7	6.4	21.1	28.9	65.2	28.9
대전		17.3	7.8	24.4	24.9	65.5	30.5
성별	남자	13.0	6.9	22.4	19.1	58.9	24.1
	여자	21.5	8.8	26.5	30.9	73.1	37.0
학교급	중학교	16.3	6.7	22.7	26.5	64.5	26.2
	고등학교	18.8	9.4	27.0	23.3	68.3	36.8
구	동구	15.1	7.0	26.5	34.6	70.8	42.2
	중구	15.2	5.5	28.0	22.1	70.1	37.8
	서구	20.0	7.5	24.4	24.3	66.2	29.9
	유성구	19.3	11.9	25.7	21.9	66.9	29.0
	대덕구	11.7	4.7	15.6	24.2	52.3	10.9

[그림 3-3-21]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 인지도



3. 미디어 · 인터넷

1) 미디어 · 인터넷 매체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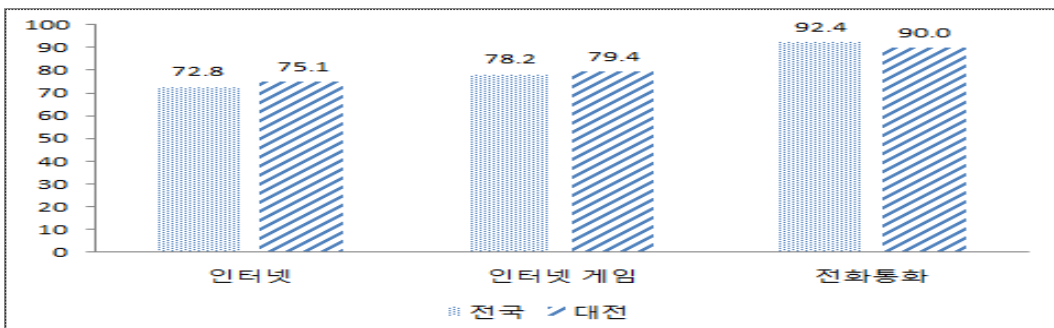
미디어 · 인터넷 사용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청소년들의 지나친 사용으로 각종 폐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 인터넷 사용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미디어 · 인터넷 사용 경험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매체 이용 경험과 이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3-3-22>와 같다.

<표 3-3-22>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인터넷	인터넷 게임	전화통화
전국		72.8	78.2	92.4
대전		75.1	79.4	90.0
성별	남자	68.0	89.9	85.8
	여자	82.2	69.1	94.2
학교급	중학교	70.0	85.6	90.3
	고등학교	82.0	70.9	89.5
구	동구	76.2	73.5	89.2
	중구	79.1	78.5	87.7
	서구	75.3	83.0	91.5
	유성구	72.5	75.5	88.6
	대덕구	73.4	86.7	92.2

[그림 3-3-22]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경험



대전 학생청소년의 매체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3가지의 매체에 대한 이용 경험 여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은 75.1%, 인터넷 게임은 79.4%,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전화통화나 문자 이용 경험은 90.0%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인터넷(72.8%), 인터넷 게임(78.2%),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전화통화나 문자 이용 경험(92.4%)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성별에 따라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경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은 인터넷 게임(89.9%)의 이용 경험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인터넷(82.2%)과 전화통화(94.2%)의 이용 경험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은 인터넷 게임(85.6%)에서 높은 반면, 고등학생은 인터넷 이용 경험(82.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중구는 인터넷(79.1%)에서, 대덕구는 인터넷 게임(86.7%)과 전화통화(92.2%)의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시간

다음으로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시간에 대한 결과는 <표 3-3-23>과 같다. 대전 학생 청소년은 주중에는 인터넷 게임을 1시간 53분으로 가장 오래 사용하였고, 이어서 인터넷(1시간 48분), 전화통화(1시간 7분)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에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시간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터넷 게임(3시간 1분)과 인터넷(2시간 52분)의 이용시간은 거의 3시간 정도 내외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주중에 3가지의 매체 이용 시간이 1시간 15~16분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전화통화를 제외하고 대전 학생청소년은 인터넷과 인터넷게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말에도 대전 학생청소년은 3가지 매체 이용시간이 더 많았고, 그 중에서도 인터넷과 인터넷 게임은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다 1시간 이상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인터넷 활용법과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주중(2시간 17분)과 주말(3시간 34분)에 인터넷 게임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 여학생은 주중과 주말에 인터넷과 전화통화의 이용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주중에 인터넷과 인터넷 게임에 대한 이용 시간이 더 많았고, 주말에도 인터넷 게임의 이용 시간(3시간 13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주말에 인터넷과 전화통화를 이용하는 시간이 더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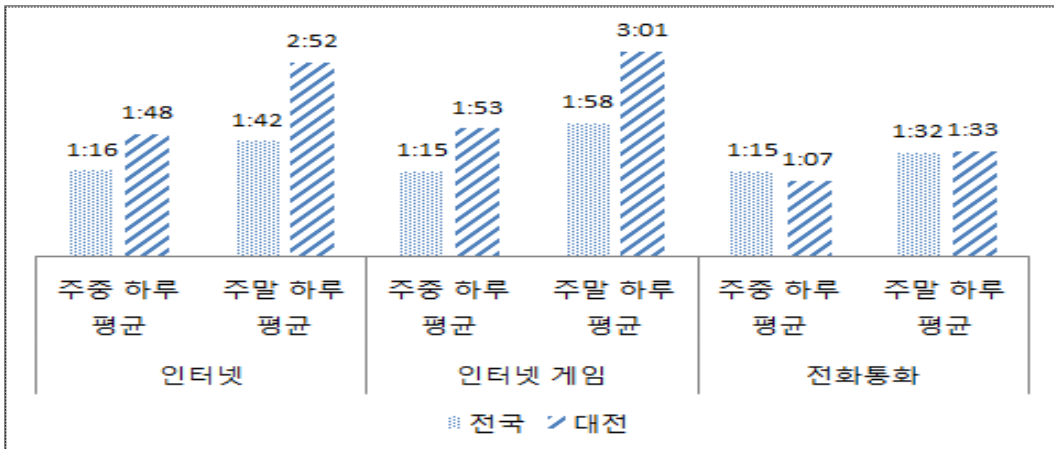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대덕구가 주중과 주말 모두 3가지 매체의 이용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덕구 학생청소년들에 대한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23〉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시간

(단위: 시간)

구분		인터넷		인터넷 게임		전화통화	
		주중 하루 평균	주말 하루 평균	주중 하루 평균	주말 하루 평균	주중 하루 평균	주말 하루 평균
전국		1:16	1:42	1:15	1:58	1:15	1:32
대전		1:48	2:52	1:53	3:01	1:07	1:33
성별	남자	1:41	2:22	2:17	3:34	1:05	1:26
	여자	1:54	3:16	1:23	2:18	1:10	1:40
학교급	중학교	1:57	2:49	2:04	3:13	1:07	1:26
	고등학교	1:38	2:55	1:33	2:42	1:09	1:44
구	동구	1:54	2:47	1:54	2:38	1:08	1:32
	중구	1:34	2:36	1:30	2:39	1:08	1:42
	서구	1:45	2:41	1:50	3:02	1:03	1:22
	유성구	1:46	2:48	1:56	3:06	1:04	1:33
	대덕구	2:10	3:33	2:20	3:45	1:28	1:58

[그림 3-3-23]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시간



제4절 가정생활

본 절에서는 학생청소년의 가정생활을 부모와 함께한 시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 가정생활 만족도의 3개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 대전 학생청소년의 전반적인 가정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전국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가정생활을 성별, 학교급, 구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대전 지역 학생청소년의 가정생활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모와 함께한 시간

1) 주중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

부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주중에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물어본 결과는 <표 3-4-1>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2.9%는 주중에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미만 정도만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학생청소년은 2명 중 1명 정도(50.2%)로 나타났지만, 1시간 이상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학생청소년도 3명 중 1명 이상(34.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주중에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전혀 없는 청소년은 6.7%로 나타났고, 1시간 미만 정도만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은 56.5%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청소년의 31.8%는 주중에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대전 학생청소년들이 주중에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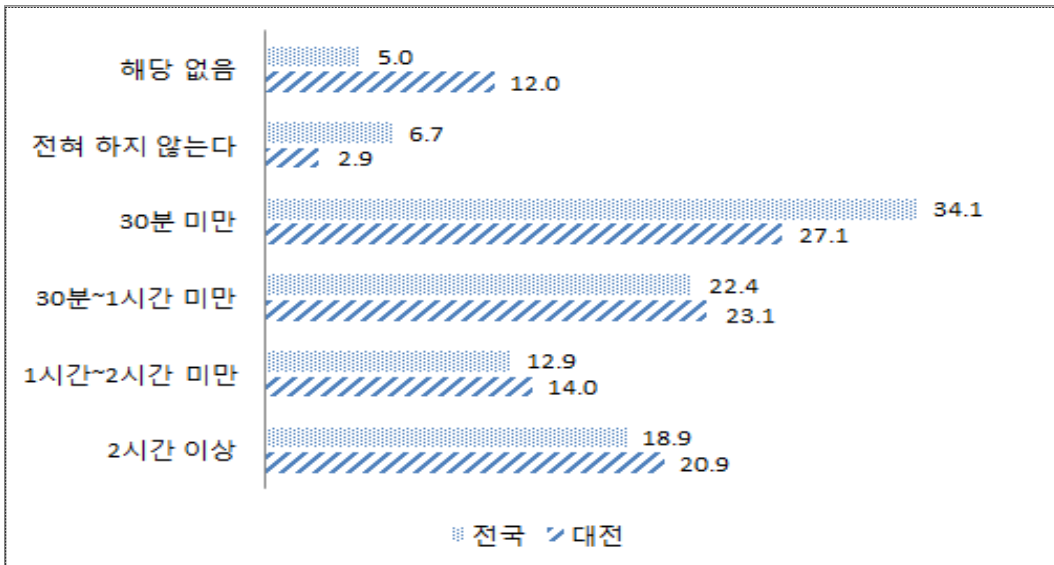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남학생(3.8%)이 여학생(2.1%)보다 주중에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약간 높지만, 1시간 이상 함께한 경우는 남학생(35.9%)이 여학생(34.0%)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에 아버지와 시간을 전혀 보내지 않는 경우는 중학생(2.2%)이 고등학생(4.0%)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1시간 이상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10명 중 4명 정도(40.4%)로 고등학생(2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의 연령이 낮은 중학생일수록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별로 보면, 주중에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는 유성구(4.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중에 1시간 이상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있는 경우는 동구(42.1%)가 가장 높은 반면, 중구(27.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1〉 주중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

(단위: %)

구분		해당 없음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전국		5.0	6.7	34.1	22.4	12.9	18.9
대전		12.0	2.9	27.1	23.1	14.0	20.9
성별	남자	13.2	3.8	22.4	24.7	13.4	22.5
	여자	10.8	2.1	31.8	21.4	14.7	19.3
학교급	중학교	11.3	2.2	25.2	21.0	14.4	26.0
	고등학교	12.9	4.0	29.6	25.9	13.6	14.0
구	동구	11.9	2.2	20.5	23.2	12.4	29.7
	중구	10.4	3.7	32.3	26.2	11.6	15.9
	서구	13.0	2.1	27.6	23.1	14.9	19.4
	유성구	11.4	4.0	28.7	22.1	16.2	17.6
	대덕구	12.5	3.1	25.0	21.1	12.5	25.8

[그림 3-4-1] 주중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



2) 주중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주중에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물어본 결과는 <표 3-4-2>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3%는 주중에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

버지의 경우(2.9%)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주중에 어머니와 1시간 미만 정도만 시간을 보내는 학생청소년은 41.8%로 나타났지만, 1시간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주중에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전혀 없는 청소년은 2.6%로 나타났고, 1시간 미만 정도만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은 41.9%로 나타났다. 또한 1시간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은 53.1%로 절반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대전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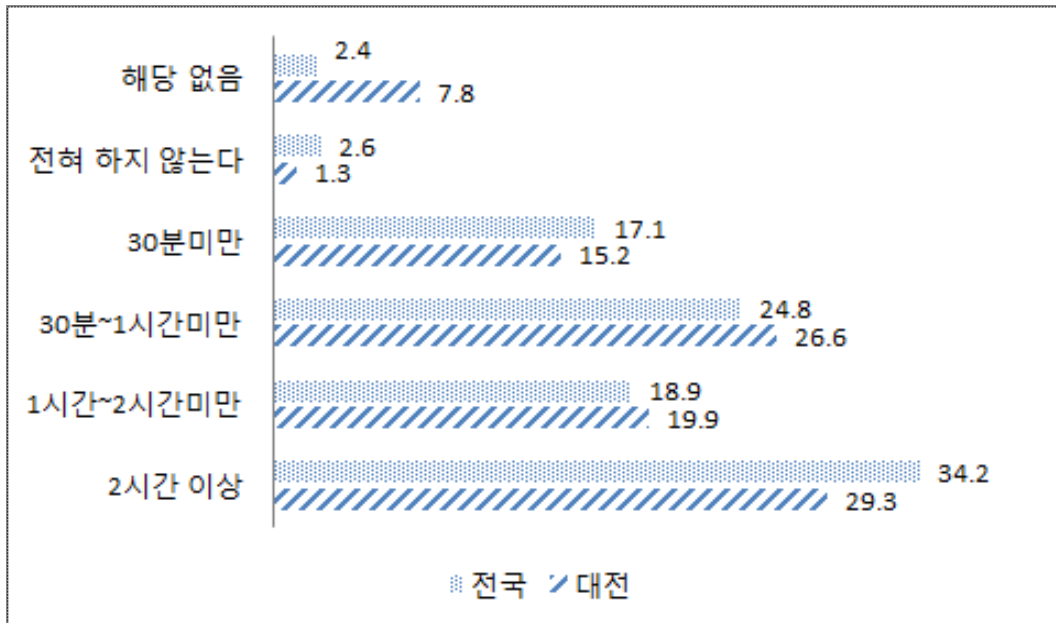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성별로 보면 주중에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는 남학생(1.6%)이 여학생(1.1%)보다 약간 높을 뿐만 아니라, 1시간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여학생(50.9%)이 남학생(47.6%)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에 어머니와 1시간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중학생(55.4%)이 고등학생(40.8%)보다 14.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의 연령이 낮은 중학생일수록 어머니와의 주중 함께한 시간이 많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별로 보면, 주중에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는 중구(2.5%)가 가장 높은 반면, 주중에 1시간 이상 어머니와 시간을 함께 보낸 경우는 동구가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 주중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단위: %)

구분		해당 없음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전국		2.4	2.6	17.1	24.8	18.9	34.2
대전		7.8	1.3	15.2	26.6	19.9	29.3
성별	남자	10.4	1.6	16.0	24.4	20.1	27.5
	여자	5.1	1.1	14.4	28.5	19.7	31.2
학교급	중학교	9.0	1.2	12.7	21.6	20.0	35.4
	고등학교	6.1	1.5	18.4	33.3	19.7	21.1
구	동구	4.3	1.6	11.9	22.7	18.9	40.5
	중구	6.7	2.5	15.3	29.4	20.9	25.2
	서구	6.6	0.8	14.1	27.1	23.1	28.4
	유성구	8.2	1.1	19.3	27.1	16.4	27.9
	대덕구	16.4	1.6	14.1	25.8	18.0	24.2

[그림 3-4-2] 주중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4가지를 질문하였다. <표 3-4-3>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나 학원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대전 학생청소년은 8.4%(매우 1.1%+약간 7.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6.1%(매우 1.5%+약간 4.6%)보다는 2.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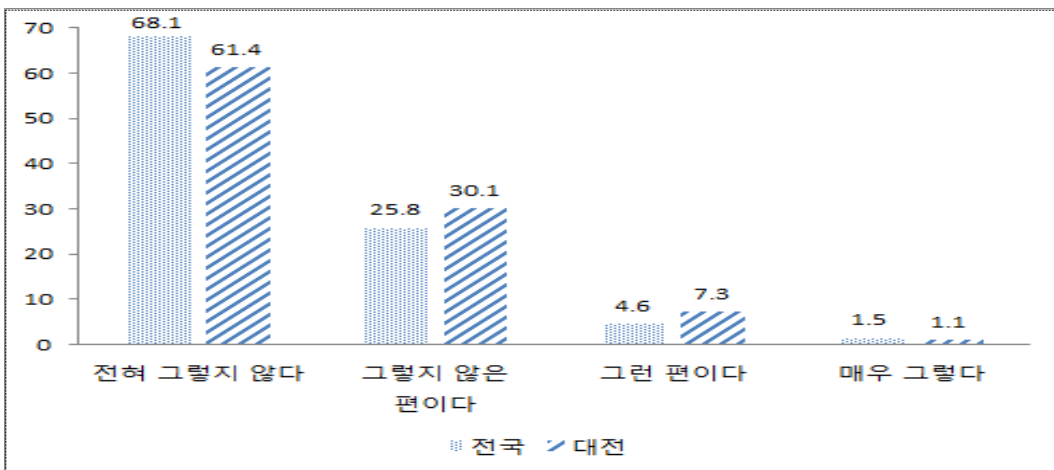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학교나 학원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에 대해 ‘그렇다’ (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9.0%)이 여학생(7.8%)보다 약간 높았고, 중학생(9.5%)이 고등학생(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대덕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10.9%로 가장 높은 반면, 서구(6.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3〉 학교나 학원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국		68.1	25.8	4.6	1.5
대전		61.4	30.1	7.3	1.1
성별	남자	58.4	32.5	8.1	0.9
	여자	64.4	27.8	6.6	1.2
학교급	중학교	58.5	32.0	8.3	1.2
	고등학교	65.4	27.7	6.1	0.8
구	동구	63.9	26.2	9.3	0.5
	중구	64.0	27.4	7.9	0.6
	서구	61.6	32.0	5.4	1.1
	유성구	62.7	28.4	7.7	1.1
	대덕구	51.6	37.5	8.6	2.3

[그림 3-4-3] 학교나 학원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고 질문한 결과는 <표 3-4-4>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3.6%(매우 0.3%+약간 3.3%)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3.3%(매우 0.9%+약간 2.4%)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에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3.8%)이 여학생(3.4%)보다 약간 높았고, 중학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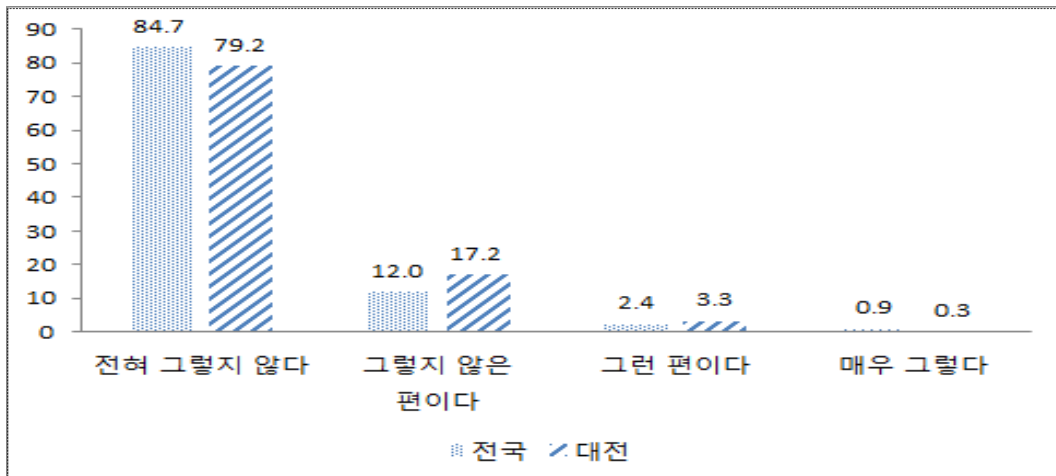
고등학생은 3.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별로는 대덕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7.8%로 가장 높은 반면, 서구(2.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4〉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국		84.7	12.0	2.4	0.9
대전		79.2	17.2	3.3	0.3
성별	남자	78.7	17.5	3.6	0.2
	여자	79.8	16.8	3.0	0.4
학교급	중학교	78.2	18.3	3.3	0.3
	고등학교	80.7	15.7	3.4	0.2
구	동구	79.8	16.4	3.8	-
	중구	80.5	15.2	3.0	1.2
	서구	79.6	18.3	2.2	-
	유성구	80.1	17.0	3.0	-
	대덕구	74.2	18.0	7.0	0.8

[그림 3-4-4]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다음으로 <표 3-4-5>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질문에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9명 정도인 88.8%(매우 39.8%+약간 49.0%)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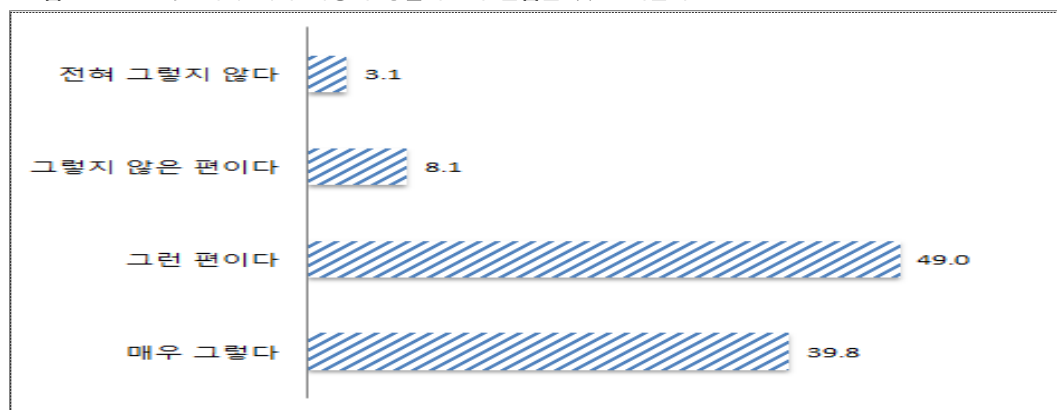
특히,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89.5%)이 남학생(88.2%)보다 약간 높았고, 고등학생(89.1%)과 중학생(88.6%)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별로는 중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92.1%로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84.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5〉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전		3.1	8.1	49.0	39.8
성별	남자	3.3	8.5	50.5	37.7
	여자	2.8	7.6	47.5	42.0
학교급	중학교	4.1	7.3	49.2	39.4
	고등학교	1.9	9.0	48.6	40.5
구	동구	2.7	6.6	48.1	42.6
	중구	1.8	6.1	48.8	43.3
	서구	1.6	8.1	51.2	39.1
	유성구	5.5	8.9	45.4	40.2
	대덕구	4.7	10.9	51.6	32.8

[그림 3-4-5]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



다음으로 <표 3-4-6>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님은 내 친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는 질문에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6.9%(매우 35.2%+약간 51.7%)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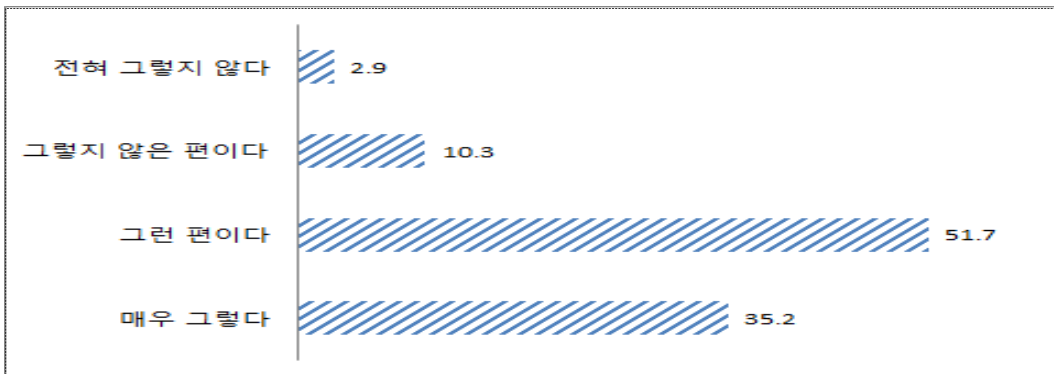
특히, “부모님은 내 친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에 대해 ‘그렇다’ (매우+약간)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90.5%)이 남학생(83.2%)보다 높았고, 중학생(87.2%)과 고등학생(86.4%)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별로는 대덕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93.0%로 가장 높은 반면, 유성구(80.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 내 친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전		2.9	10.3	51.7	35.2
성별	남자	3.8	13.0	54.1	29.1
	여자	2.0	7.6	49.5	41.0
학교급	중학교	3.1	9.7	51.2	36.0
	고등학교	2.5	11.1	52.4	34.0
구	동구	3.3	8.2	48.6	39.9
	중구	1.8	9.8	51.8	36.6
	서구	1.1	11.0	52.4	35.5
	유성구	6.3	13.3	50.6	29.9
	대덕구	1.5	5.5	56.3	36.7

〔그림 3-4-6〕 내 친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



3. 가정생활 만족도

부모(양육자)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는 〈표 3-4-7〉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6.8%(매우

42.2%+약간 44.6%)는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13.3%(전혀 3.5%+약간 9.8%)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90.8%(매우 36.8%+약간 54.0%)는 만족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대전 학생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4.0%p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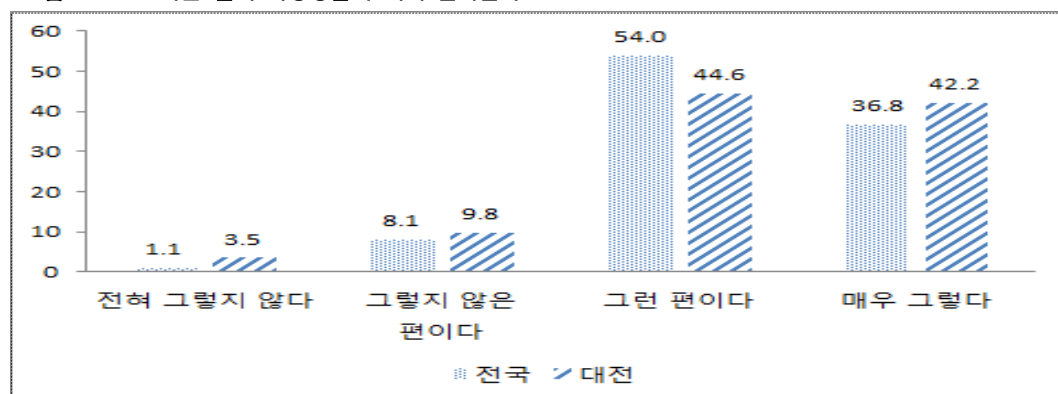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매우+약간)는 응답은 여학생(88.0%)이 남학생(85.5%)보다 높았고, 중학생(87.4%)이 고등학생(86.0%)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가정생활 만족도는 동구(89.1%)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78.9%)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 나는 현재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국		1.1	8.1	54.0	36.8
대전		3.5	9.8	44.6	42.2
성별	남자	4.7	9.8	43.8	41.7
	여자	2.3	9.8	45.4	42.6
학교급	중학교	3.3	9.4	43.0	44.4
	고등학교	3.8	10.3	46.8	39.2
구	동구	2.7	8.2	43.2	45.9
	중구	3.7	9.1	46.3	40.9
	서구	2.7	8.6	47.3	41.4
	유성구	4.8	9.3	43.3	42.6
	대덕구	3.9	17.2	39.1	39.8

[그림 3-4-7] 나는 현재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제5절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본 절에서는 학생청소년의 학교 및 방과 후 생활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업성취도, 희망교육수준, 사교육, 방과 후 활동의 7개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로 대전 학생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전국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실태를 성별, 학교급, 구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대전지역 학생청소년의 학교 및 방과 후 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생활 만족도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소 학업에 대한 태도, 학교 분위기,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1) 학업에 대한 태도

청소년들이 학교공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학업에 대한 태도를 2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먼저 <표 3-5-1>에서와 같이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10명 중 6명 이상인 64.9%(매우 8.7%+약간 56.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69.5%(매우 13.5%+약간 56.0%)보다는 4.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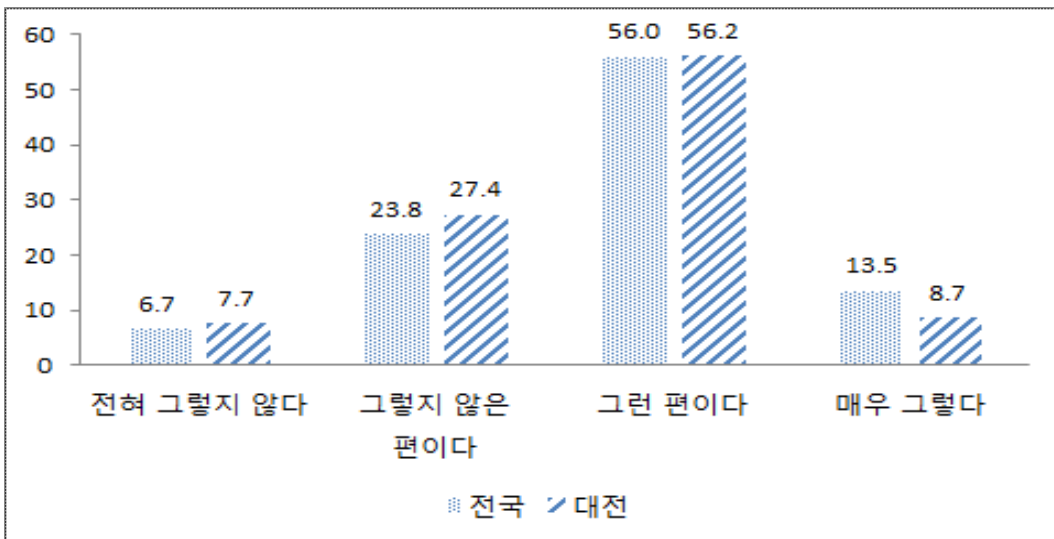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는 응답은 여학생(67.2%)이 남학생(62.6%)보다 높았고, 고등학생(65.3%)과 중학생(64.7%)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동구(71.0%)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60.9%)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국		6.7	23.8	56.0	13.5
대전		7.7	27.4	56.2	8.7
성별	남자	9.0	28.4	54.1	8.5
	여자	6.4	26.4	58.2	9.0
학교급	중학교	8.2	27.0	56.2	8.5
	고등학교	6.9	27.8	56.3	9.0
구	동구	8.2	20.8	61.2	9.8
	중구	8.5	29.3	54.9	7.3
	서구	5.1	29.8	57.4	7.7
	유성구	9.2	26.6	55.0	9.2
	대덕구	10.2	28.9	50.0	10.9

[그림 3-5-1]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다음으로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질문의 결과는 <표 3-5-2>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들의 10명 중 6명 이상인 66.7%(매우 8.3%+약간 58.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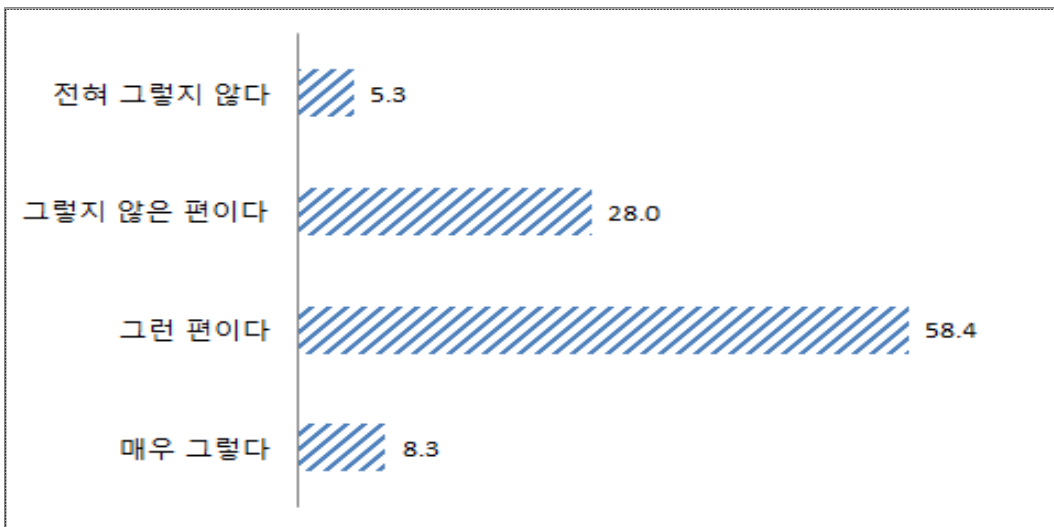
특히,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67.1%)과 여학생(66.2%)이 거의 비슷하였고, 중학생(68.2%)이 고등학생(64.6%)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중구(71.9%)와 동구(71.6%)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57.0%)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전		5.3	28.0	58.4	8.3
성별	남자	7.0	25.9	57.6	9.5
	여자	3.7	30.1	59.1	7.1
학교급	중학교	5.3	26.6	59.2	9.0
	고등학교	5.4	29.9	57.3	7.3
구	동구	3.8	24.6	60.7	10.9
	중구	4.3	23.8	64.6	7.3
	서구	3.7	29.5	58.5	8.2
	유성구	7.7	27.7	56.8	7.7
	대덕구	8.6	34.4	50.0	7.0

〔그림 3-5-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2) 학교 분위기

학교의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2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먼저 <표 3-5-3>에서와 같이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5명 이상인 53.4%(매우 9.2%+약간 44.2%)는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56.3%(매우 9.4%+약간 46.9%)보다 2.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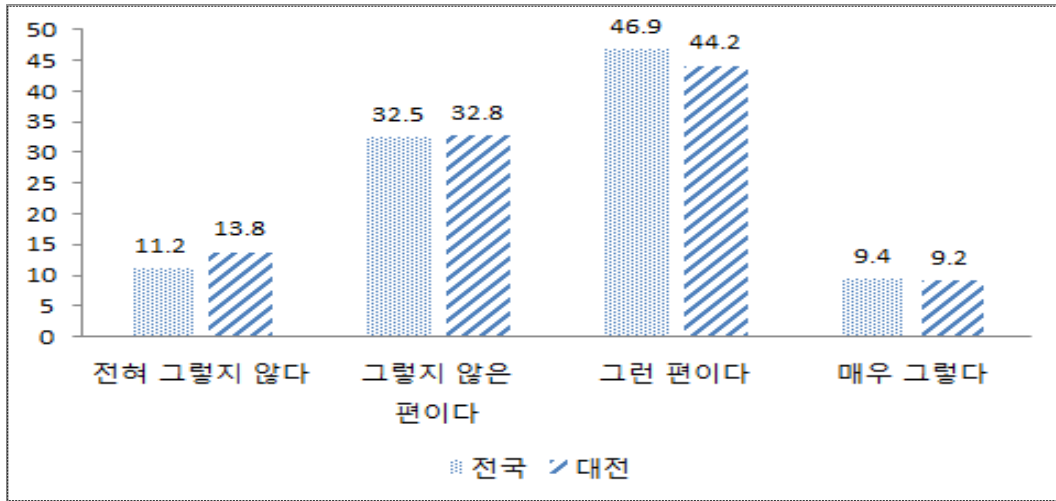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58.5%)이 여학생(48.4%)보다 많았고, 중학생(55.0%)이 고등학생(51.3%)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에서 여학생일수록, 고등학생일수록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구(64.0%)가 가장 높은 반면, 유성구(46.3%)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3>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국		11.2	32.5	46.9	9.4
대전		13.8	32.8	44.2	9.2
성별	남자	13.4	28.2	46.9	11.6
	여자	14.2	37.4	41.5	6.9
학교급	중학교	11.7	33.3	44.4	10.6
	고등학교	16.6	32.1	44.0	7.3
구	동구	9.8	26.2	51.4	12.6
	중구	17.7	34.8	41.5	6.1
	서구	12.0	31.6	47.9	8.6
	유성구	17.4	36.3	35.9	10.4
	대덕구	11.7	35.9	44.5	7.8

[그림 3-5-3]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표 3-5-4〉에서와 같이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6명 정도인 60.7%(매우 11.7%+약간 49.0%)는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65.6%(매우 11.9%+약간 53.7%)보다는 4.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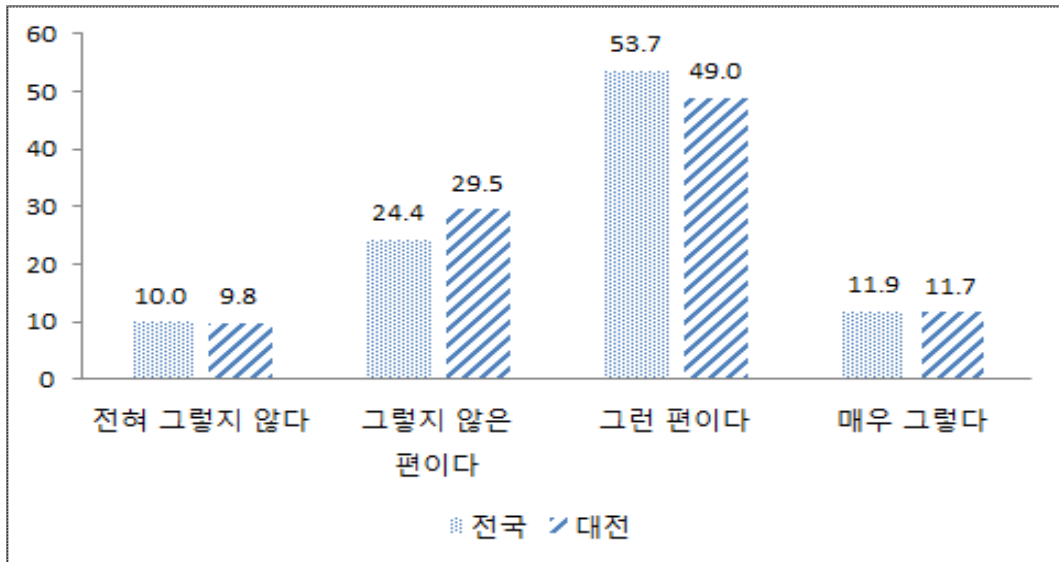
〈표 3-5-4〉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국		10.0	24.4	53.7	11.9
대전		9.8	29.5	49.0	11.7
성별	남자	11.7	27.9	46.8	13.7
	여자	8.0	31.2	51.1	9.8
학교급	중학교	8.2	31.8	50.0	9.9
	고등학교	11.9	26.4	47.6	14.0
구	동구	6.6	20.2	58.5	14.8
	중구	9.8	25.0	50.6	14.6
	서구	8.3	29.3	51.5	10.9
	유성구	10.0	33.9	44.3	11.8
	대덕구	18.8	39.8	35.9	5.5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60.5%)과 여학생(60.9%)이 거의 비슷하였고, 고등학생(61.6%)이 중학생(59.9%)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구(73.3%)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41.4%)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4]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3)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표 3-5-5〉에서와 같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은 만족스럽다”에 대해 대전 학생 청소년의 10명 중 8명 정도인 78.9%(매우 18.9%+약간 60.0%)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85.9%(매우 24.2%+약간 61.7%)보다는 7.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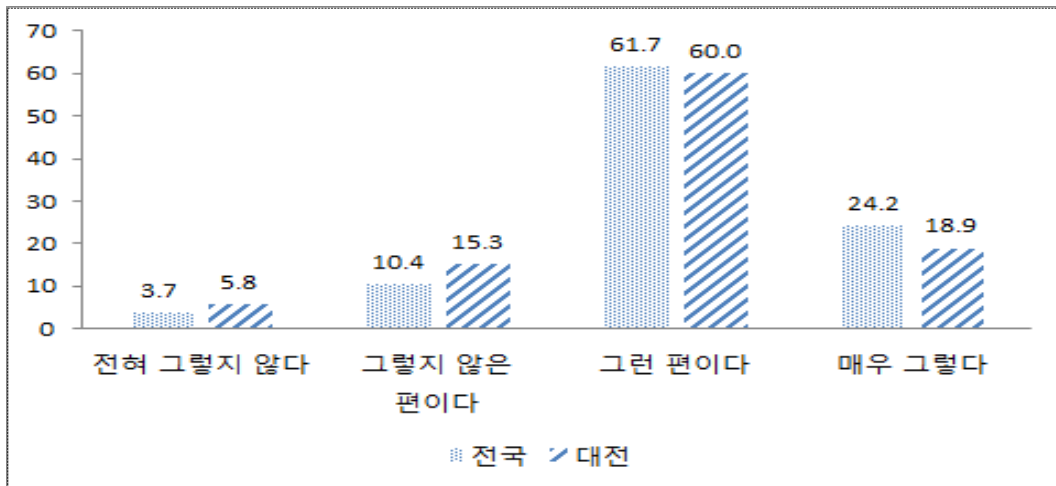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은 만족스럽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82.1%)이 여학생(75.8%)보다, 중학생(81.4%)이 고등학생(75.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서구(86.1%)가 가장 높은 반면, 유성구(71.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과 중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5-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은 만족스럽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국		3.7	10.4	61.7	24.2
대전		5.8	15.3	60.0	18.9
성별	남자	5.1	12.8	60.1	22.0
	여자	6.6	17.7	59.8	16.0
학교급	중학교	5.4	13.2	61.0	20.4
	고등학교	6.3	18.1	58.6	17.0
구	동구	4.9	11.0	65.4	18.7
	중구	6.7	20.7	57.3	15.2
	서구	2.9	10.9	65.6	20.5
	유성구	8.5	19.6	54.4	17.4
	대덕구	8.6	18.0	50.8	22.7

[그림 3-5-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은 만족스럽다



2. 학교 친구관계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먼저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는 질문의 결과는 <표 3-5-6>과 같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9명 이상인 92.1%(매우 26.2%+약간 65.9%)는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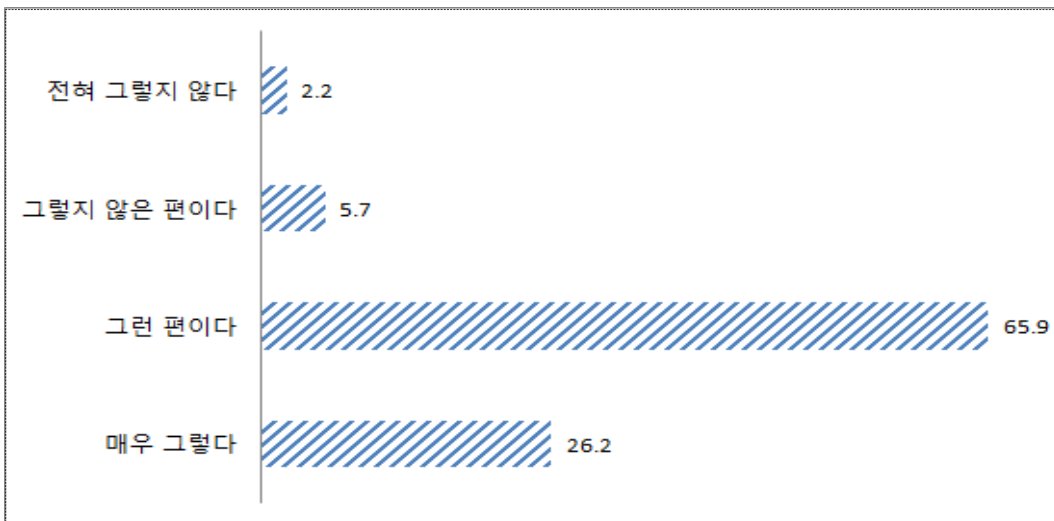
특히,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92.8%)이 여학생(91.3%)보다 약간 높았고, 고등학생(92.3%)과 중학생(91.9%)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구(94.5%)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87.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6〉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전		2.2	5.7	65.9	26.2
성별	남자	2.3	4.9	64.6	28.2
	여자	2.1	6.5	67.1	24.2
학교급	중학교	2.5	5.6	65.7	26.2
	고등학교	1.9	5.9	66.1	26.2
구	동구	1.1	4.4	68.3	26.2
	중구	2.4	6.7	65.9	25.0
	서구	0.8	5.6	66.0	27.7
	유성구	4.8	4.1	64.9	26.2
	대덕구	2.3	10.2	64.1	23.4

[그림 3-5-6]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는 질문의 결과는 <표 3-5-7>과 같다.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7명 이상인 75.7%(매우 15.3%+약간 60.4%)는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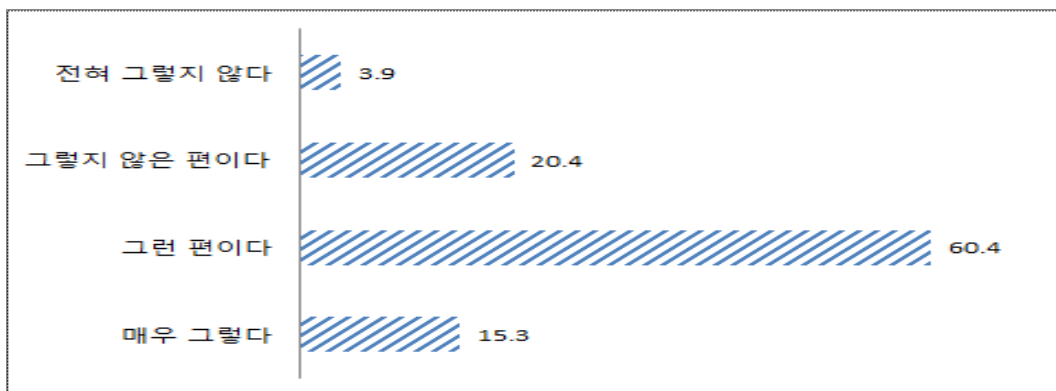
특히,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77.7%)이 여학생(73.6%)보다 많았고, 고등학생(78.0%)이 중학생(73.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구(78.1%)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69.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7>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전		3.9	20.4	60.4	15.3
성별	남자	4.1	18.2	60.4	17.3
	여자	3.7	22.7	60.3	13.3
학교급	중학교	4.8	21.3	60.5	13.4
	고등학교	2.7	19.3	60.2	17.8
구	동구	2.7	19.1	62.3	15.8
	중구	4.3	19.5	59.8	16.5
	서구	3.5	20.3	62.7	13.6
	유성구	4.1	20.4	59.6	15.9
	대덕구	6.3	24.2	53.1	16.4

[그림 3-5-7]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3. 교사와의 관계

청소년과 교사와의 좋은 관계 형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청소년과 교사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먼저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는 질문의 결과는 <표 3-5-8>과 같다.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는 질문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9명 정도인 87.8%(매우 26.0%+약간 61.8%)는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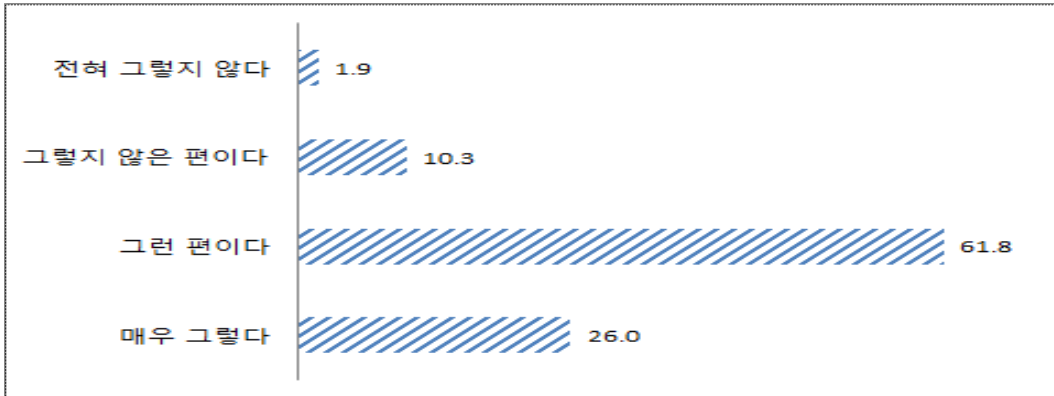
특히,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여학생(89.0%)이 남학생(86.7%)보다 많았고, 고등학생(88.1%)과 중학생(87.7%)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구(92.4%)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82.0%)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8>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전		1.9	10.3	61.8	26.0
성별	남자	2.3	11.0	62.4	24.3
	여자	1.4	9.6	61.2	27.8
학교급	중학교	2.0	10.2	62.7	25.0
	고등학교	1.7	10.3	60.6	27.5
구	동구	1.6	6.0	64.5	27.9
	중구	2.4	8.5	64.0	25.0
	서구	0.8	12.3	61.3	25.6
	유성구	2.6	9.2	60.9	27.3
	대덕구	3.2	14.8	58.6	23.4

[그림 3-5-8]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다음으로 <표 3-5-9>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6명 정도인 60.2%(매우 11.9%+약간 48.3%)는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9.9%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선생님과 대화의 관계를 통한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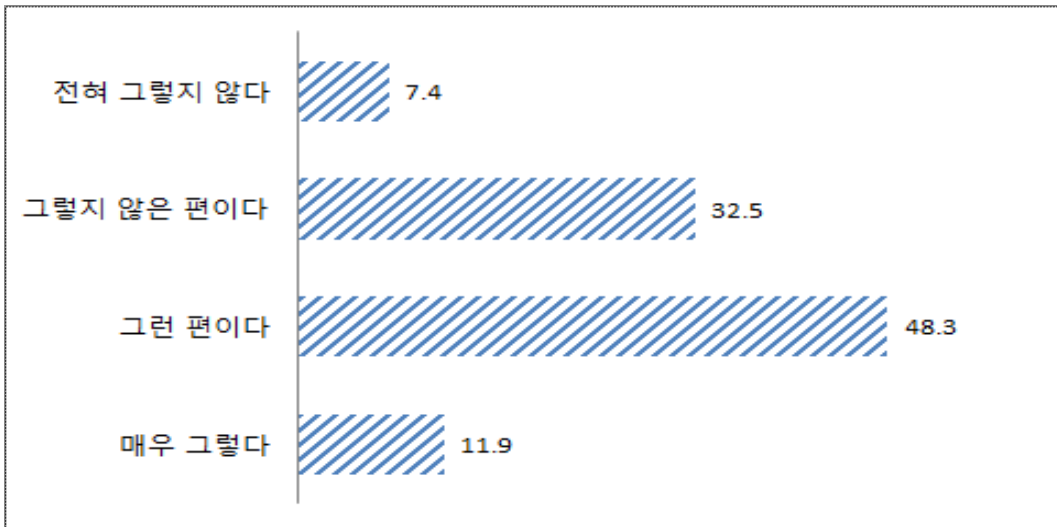
특히,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에 대해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남학생(62.8%)이 여학생(57.4%)보다 많았고, 중학생(60.6%)과 고등학생(59.5%)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구(62.9%)가 가장 높은 반면, 중구(57.3%)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9>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전		7.4	32.5	48.3	11.9
성별	남자	7.9	29.3	50.4	12.4
	여자	6.9	35.6	46.1	11.3
학교급	중학교	7.0	32.5	49.7	10.9
	고등학교	8.0	32.5	46.3	13.2
구	동구	6.6	30.6	50.3	12.6
	중구	9.1	33.5	46.3	11.0
	서구	5.9	34.1	49.1	10.9
	유성구	8.5	31.7	46.9	12.9
	대덕구	8.6	30.5	48.4	12.5

[그림 3-5-9]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4.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본 조사에서는 학생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학업성적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3-5-10>에 서와 같이 자신의 학업성적을 살펴보면, 대전 학생청소년의 3명 중 1명 정도인 33.8%(매우 4.5%+약간 29.3%)는 자신의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자신의 학업성적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경우는 38.6%(매우 6.1%+약간 32.5%)로 나타나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자신의 학업성적에 대해 대체로 낮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학생의 36.9%(매우 8.9%+약간 28.0%)는 자신의 학업성적을 우수하다고 평가하였고, 18.2%(매우 2.5%+약간 15.7%)는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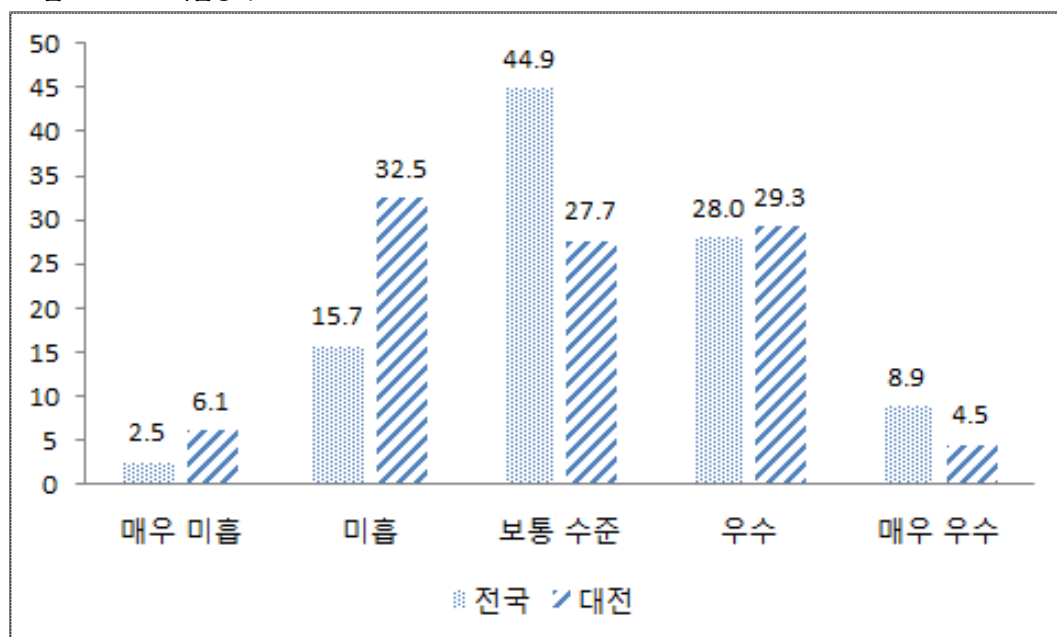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남학생(35.4%)이 여학생(32.1%)보다, 중학생(37.1%)이 고등학생(29.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동구가 자신의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반면, 자신의 학업성적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경우는 중구(41.3%)와 서구(41.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0> 학업성적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수준	우수	매우 우수
전국		2.5	15.7	44.9	28.0	8.9
대전		6.1	32.5	27.7	29.3	4.5
성별	남자	7.5	31.8	25.3	29.3	6.1
	여자	4.6	33.2	30.0	29.3	2.8
학교급	중학교	5.8	30.5	26.7	32.1	5.0
	고등학교	6.5	35.2	29.0	25.6	3.8
구	동구	4.9	27.1	29.7	31.9	6.5
	중구	6.8	34.5	24.7	27.1	6.8
	서구	5.6	35.4	27.1	28.8	3.2
	유성구	8.5	30.1	28.3	29.8	3.3
	대덕구	3.1	34.4	28.9	28.9	4.7

[그림 3-5-10] 학업성적



5. 희망교육수준

1) 학생의 희망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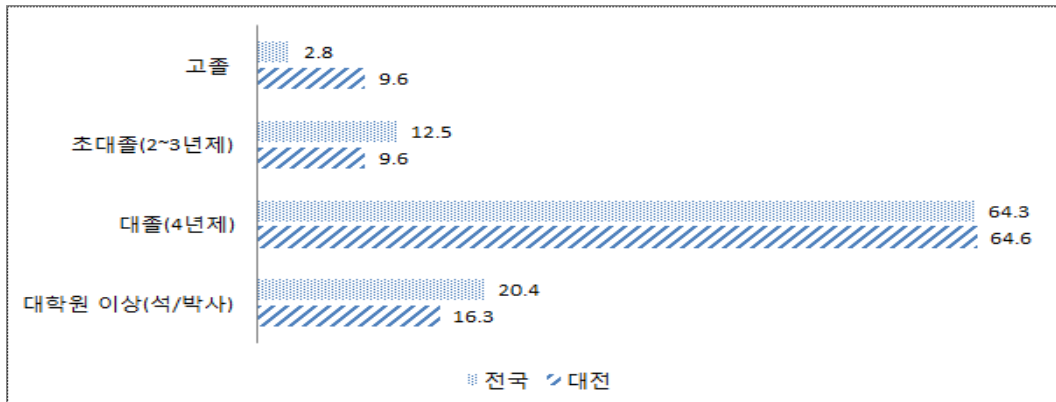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하는가를 물어본 결과는 <표 3-5-11>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정도는 대학교 졸업 이상까지 교육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전 학생청소년의 64.6%는 대학교 졸업까지, 16.3%는 대학원 이상까지 교육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1명 정도인 9.6%는 고졸 이하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4년제 대학교 졸업은 64.3%, 대학원 이상은 20.4%, 고졸 이하는 2.8%보다는 대전 학생청소년의 희망교육수준이 약간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자리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와 함께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대학입시 체제에서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교육정도에 대해 학생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5-11> 학생청소년 본인의 희망교육수준

(단위: %)

구분		고졸	초대졸(2~3년제)	대졸(4년제)	대학원 이상(석/박사)
전국		2.8	12.5	64.3	20.4
대전		9.6	9.6	64.6	16.3
성별	남자	12.8	11.4	61.2	14.6
	여자	6.4	7.8	68.0	17.9
학교급	중학교	9.3	11.7	65.5	13.5
	고등학교	9.9	6.7	63.5	19.9
구	동구	7.6	9.7	63.8	18.9
	중구	9.8	9.8	65.9	14.6
	서구	7.5	8.3	68.6	15.5
	유성구	10.7	8.5	61.5	19.3
	대덕구	15.6	14.8	59.4	10.2

[그림 3-5-11] 학생청소년 본인의 희망교육수준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희망교육수준을 성별로 보면 여학생(85.9%)이 남학생(75.8%)보다 4년제 이상의 학력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졸 이하도 여학생(6.4%)이 남학생(12.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83.4%)이 중학생(79.0%)보다 4년제 이상의 학력을 갖기를 원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졸 이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서구가 4년제 이상의 학력을 갖기를 원하는 비율이 84.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덕구는 고졸 이하를 희망하는 비율이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부모의 희망교육수준

희망하는 교육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희망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기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양육자)가 갖고 있는 희망교육수준을 자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는 <표 3-5-12>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들의 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인 72.0%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5.8%는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교육수준을 고졸 이하로 기대하는 부모는 5.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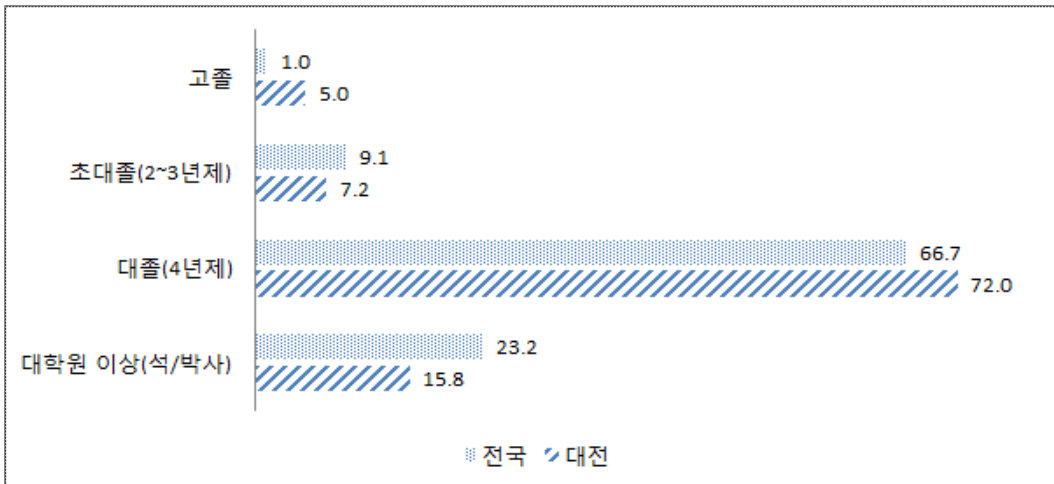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 부모의 89.9%는 자녀가 4년제 대학 졸업(66.7%) 혹은 그 이상의 교육수준(23.2%)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교육수준을 고졸 이하로 기대하는 부모는 1.0%로 나타나 대전 학생청소년들의 부모가 자녀의 희망 교육수준이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나 경제적 상황 및 자녀의 학업성취도 등을 고려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5-12〉 부모님 또는 양육자의 희망교육수준

(단위: %)

구분		고졸	초대졸(2~3년제)	대졸(4년제)	대학원 이상(석/박사)
전국		1.0	9.1	66.7	23.2
대전		5.0	7.2	72.0	15.8
성별	남자	6.7	9.2	66.3	17.8
	여자	3.4	5.2	77.6	13.9
학교급	중학교	4.9	7.7	70.4	17.1
	고등학교	5.2	6.5	74.2	14.0
구	동구	3.8	6.6	72.1	17.5
	중구	4.3	5.5	77.4	12.8
	서구	3.8	5.1	73.9	17.3
	유성구	4.8	9.3	67.4	18.5
	대덕구	11.8	11.8	69.3	7.1

[그림 3-5-12] 부모님 또는 양육자의 희망교육수준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자녀의 희망 교육수준을 보면 부모는 여학생(91.5%)이 남학생(84.1%)보다 4년제 이상의 학력을 갖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고졸 이하도 여학생(3.4%)이 남학생(6.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희망하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의 교육수준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서구(91.2%)와 중구

(90.2%)가 4년제 이상의 학력을 갖기를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덕구는 고졸 이하를 희망하는 비율이 1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수준보다는 부모가 갖고 있는 자녀의 희망교육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희망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학생청소년의 80.9%가 4년제 대학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부모는 87.8%로 6.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사교육

사교육 경험률은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학벌사회 속에서 대학입학을 위한 경쟁이 극심한 한국의 교육상황에서 사교육의 경험이 곧 사회계층의 진입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개개인의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최근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5-13>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7명 이상인 73.9%는 학원이나 과외수업, 학습지 과외 등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청소년들이 일주일 동안 사교육을 받은 시간은 7시간 12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사교육 경험 비율이 73.6%로 나타난 것과 거의 비슷하였다. 또한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일주일 총 사교육 시간은 9시간 30분 정도로 나타나 대전 학생청소년이 2시간 20분 정도나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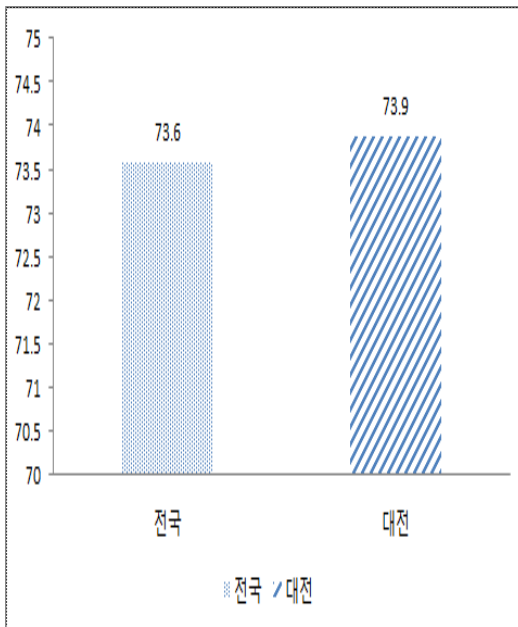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최근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은 여학생(80.1%)이 남학생(67.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주일 평균시간은 남학생(7시간 52분)이 여학생(6시간 41분)보다 1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76.3%)이 고등학생(70.7%)보다 사교육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평균시간도 중학생(8시간 3분)이 고등학생(5시간 59분)보다 2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서구(78.7%)가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평균시간도 7시간 28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덕구(64.7%)가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낮고, 일주일 평균시간은 중구(6시간 31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3〉 사교육 경험 및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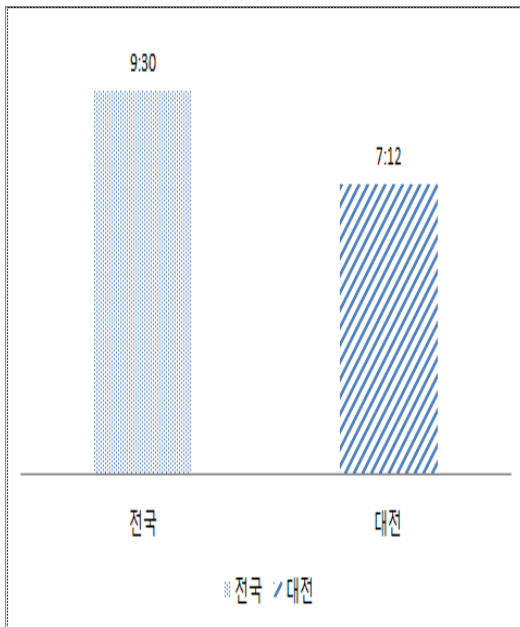
(단위: %, 시간)

구분		경험 있음	일주일 평균 시간
전국		73.6	9:30
대전		73.9	7:12
성별	남자	67.4	7:52
	여자	80.1	6:41
학교급	중학교	76.3	8:03
	고등학교	70.7	5:59
구	동구	68.9	7:06
	중구	71.6	6:31
	서구	78.7	7:28
	유성구	76.3	7:19
	대덕구	64.7	7:11

[그림 3-5-13] 사교육 경험 있음



[그림 3-5-14] 사교육 일주일 평균 시간



7. 방과 후 활동

1)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정도

평일 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사람 없이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는 <표 3-5-14>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인 65.5%가 평일 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의 10명 중 1명 이상인 13.1%는 거의 매일 그리고 7.6%는 3~4일 정도는 방과 후에 홀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64.8%가 평일 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11.6%는 방과 후에 거의 매일 홀로 지내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4>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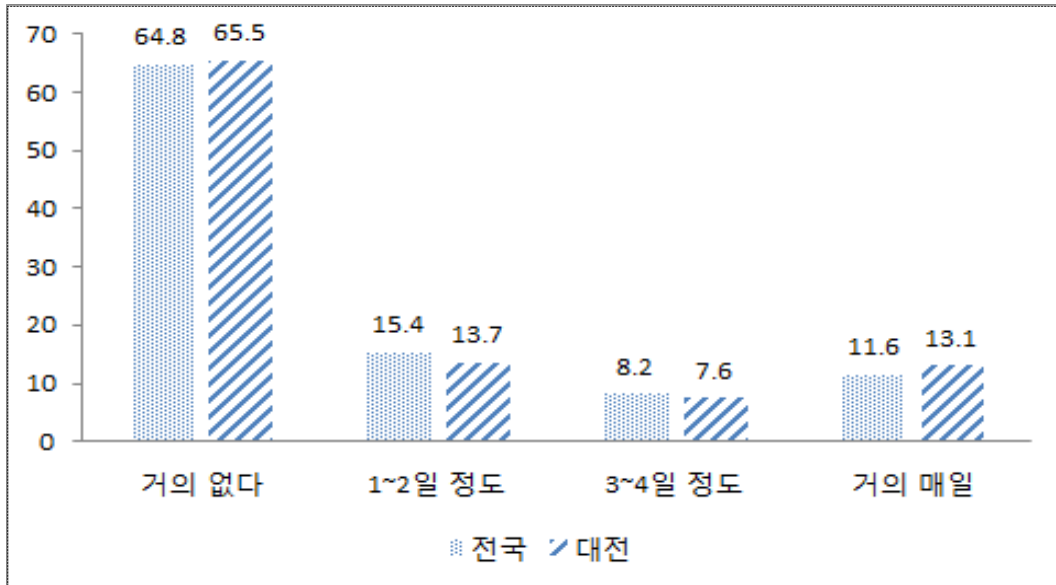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거의 없다	1~2일 정도	3~4일 정도	거의 매일
전국		64.8	15.4	8.2	11.6
대전		65.5	13.7	7.6	13.1
성별	남자	64.3	13.9	8.1	13.7
	여자	66.9	13.6	7.1	12.4
학교급	중학교	59.4	15.7	10.1	14.9
	고등학교	73.8	11.2	4.3	10.7
구	동구	64.6	17.7	7.2	10.5
	중구	70.4	11.1	6.8	11.7
	서구	65.1	15.3	7.1	12.5
	유성구	64.9	12.0	8.5	14.7
	대덕구	63.1	10.7	9.0	17.2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사람 없이 거의 매일 홀로 지내는 경우는 남학생(13.7%)이 여학생(12.4%)보다, 중학생(14.9%)이 고등학생(10.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4일 정도 방과 후에 홀로 지내는 경우는 중학생(10.1%)이 고

등학생(4.3%)보다 5.8%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학부모의 연령대가 맞벌이로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별로 보면, 대덕구(17.2%)가 돌봐 주는 사람 없이 평일 방과 후 거의 매일 홀로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15]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정도



2)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 활동

평일 방과 후에 주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저녁식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주로 하는 활동을 2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평일 저녁식사 전에 1순위 활동을 살펴본 결과, <표 3-5-15>에서와 같이 대전 학생청소년의 4명 중 1명인 24.6%는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방과 후 학교(16.8%), 학원이나 과외(14.2%), TV나 비디오 시청(13.3%), 학교 자율학습(8.9%), 쉬거나 잠자기(6.3%), 집에서 공부(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학원이나 과외(20.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TV나 비디오 시청(17.9%), 집에서 인터넷(12.0%), 방과 후 학교(11.0%), 집에서 공부(8.2%), 쉬거나 잠자기(8.0%)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3-5-15〉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 활동(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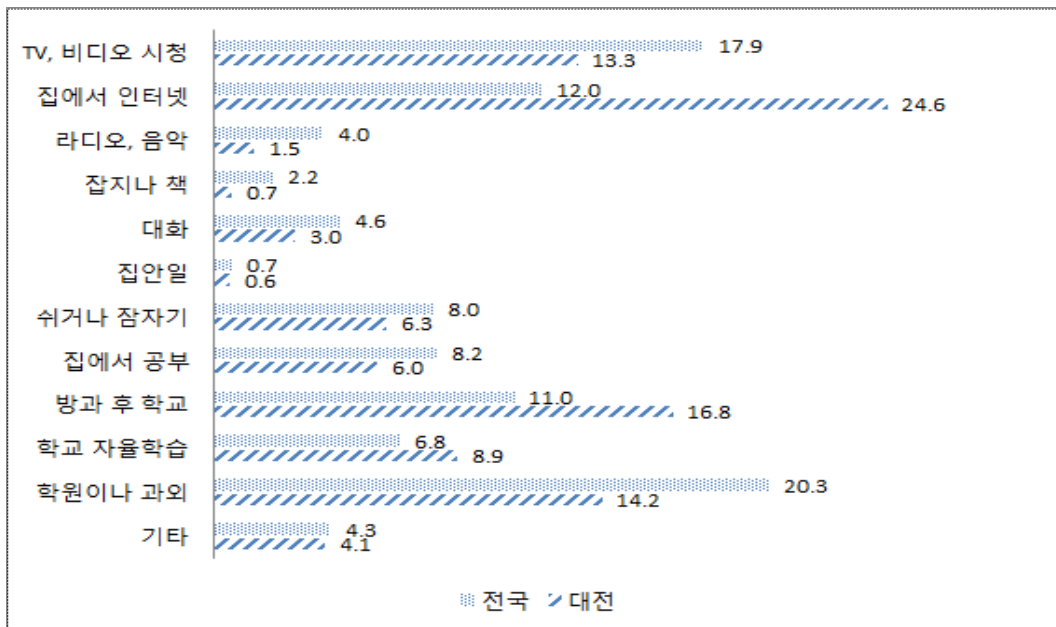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TV, 비디오 시청	집에서 인터넷	라디오, 음악	잡지나 책	대화	집안일
전국		17.9	12.0	4.0	2.2	4.6	0.7
대전		13.3	24.6	1.5	0.7	3.0	0.6
성별	남자	16.5	28.7	1.7	1.3	1.8	0.7
	여자	10.1	20.7	1.4	0.2	4.1	0.5
학교급	중학교	17.7	30.3	1.9	0.6	3.5	0.5
	고등학교	7.3	16.9	1.1	0.9	2.4	0.9
구	동구	23.5	20.8	1.6	1.1	2.2	0.5
	중구	10.5	17.9	1.2	1.2	1.9	0.0
	서구	11.4	24.6	1.1	0.5	2.7	0.8
	유성구	12.2	22.1	1.5	0.4	5.0	0.8
	대덕구	9.7	44.4	3.2	0.8	2.4	0.8
구분		쉬거나 잠자기	집에서 공부	방과 후 학교	학교 자율학습	학원이나 과외	기타
전국		8.0	8.2	11.0	6.8	20.3	4.3
대전		6.3	6.0	16.8	8.9	14.2	4.1
성별	남자	6.4	5.9	9.9	8.3	13.4	5.3
	여자	6.1	5.9	23.6	9.5	14.9	2.9
학교급	중학교	6.3	8.1	3.9	1.9	21.6	3.6
	고등학교	6.2	3.2	34.2	18.4	4.1	4.7
구	동구	7.1	6.0	19.7	4.9	9.3	3.3
	중구	5.6	2.5	25.9	20.4	7.4	5.6
	서구	4.3	7.8	15.4	8.4	20.0	3.0
	유성구	10.3	6.9	12.6	8.4	15.3	4.6
	대덕구	3.2	3.2	13.7	2.4	10.5	5.6

주) 전국 수치의 경우 “청소년 시설 이용” 항목 제외.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평일 저녁식사 전에 1순위 활동을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집에서 인터넷(28.7%)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TV나 비디오 시청(16.5%), 학원이나 과외(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방과 후 학교(23.6%)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집에서 인터넷(20.7%), 학원이나 과외(1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학교급별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은 집에서 인터넷(30.3%)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학원이나 과외(21.6%), TV나 비디오 시청(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등학생은 방과 후 학교(34.2%)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학교 자율학습(18.4%), 집에서 인터넷(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별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대덕구(44.4%), 서구(24.6%), 유성구(22.1%) 등은 집에서 인터넷이 1순위로 나타난 반면, 동구는 TV나 비디오 시청(23.5%)이, 중구는 방과 후 학교(25.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16]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 활동(1순위)



<표 3-5-16>에서와 같이 대전 학생청소년들이 평일 저녁식사 전에 주로 하는 활동의 2순위로는 집에서 인터넷(23.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쉬거나 잠자기(18.6%), TV나 비디오 시청(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

년종합실태조사에서 쉬거나 잠자기(15.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TV나 비디오 시청(15.8%), 집에서 인터넷(15.7%)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순서에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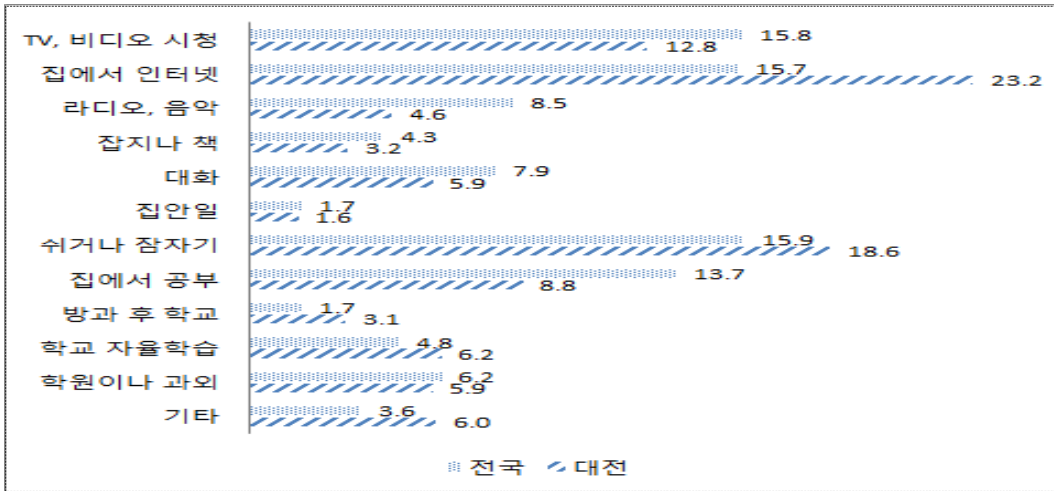
〈표 3-5-16〉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 활동(2순위)

(단위: %)

구분		TV, 비디오 시청	집에서 인터넷	라디오, 음악	잡지나 책	대화	집안일
전국		15.8	15.7	8.5	4.3	7.9	1.7
대전		12.8	23.2	4.6	3.2	5.9	1.6
성별	남자	15.5	23.6	4.3	3.7	3.1	2.4
	여자	10.1	22.9	4.9	2.6	8.7	0.8
학교급	중학교	15.7	29.9	4.3	2.4	4.9	1.7
	고등학교	8.0	12.4	5.2	4.7	7.5	1.3
구	동구	13.1	27.9	5.5	2.7	6.6	1.6
	중구	9.2	18.4	4.3	3.5	7.1	2.8
	서구	14.3	23.4	3.3	3.3	5.8	1.5
	유성구	9.4	23.0	6.6	3.7	5.3	1.2
	대덕구	19.3	21.8	3.4	2.5	5.0	0.8
구분		쉬거나 잠자기	집에서 공부	방과 후 학교	학교 자율학습	학원이나 과외	기타
전국		15.9	13.7	1.7	4.8	6.2	3.6
대전		18.6	8.8	3.1	6.2	5.9	6.0
성별	남자	19.3	8.1	3.5	3.5	5.3	7.7
	여자	18.0	9.5	2.8	8.9	6.5	4.3
학교급	중학교	16.2	10.7	1.1	1.0	6.7	5.4
	고등학교	22.5	5.7	6.5	14.7	4.7	7.0
구	동구	16.4	7.7	3.8	8.7	3.3	2.7
	중구	19.9	3.5	6.4	9.2	7.1	8.5
	서구	17.6	9.7	3.6	4.6	5.5	7.3
	유성구	18.9	11.9	1.2	7.0	7.4	4.5
	대덕구	22.7	7.6	0.8	1.7	6.7	7.6

주) 전국 수치의 경우 “청소년 시설 이용” 항목 제외.

[그림 3-5-17]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 활동(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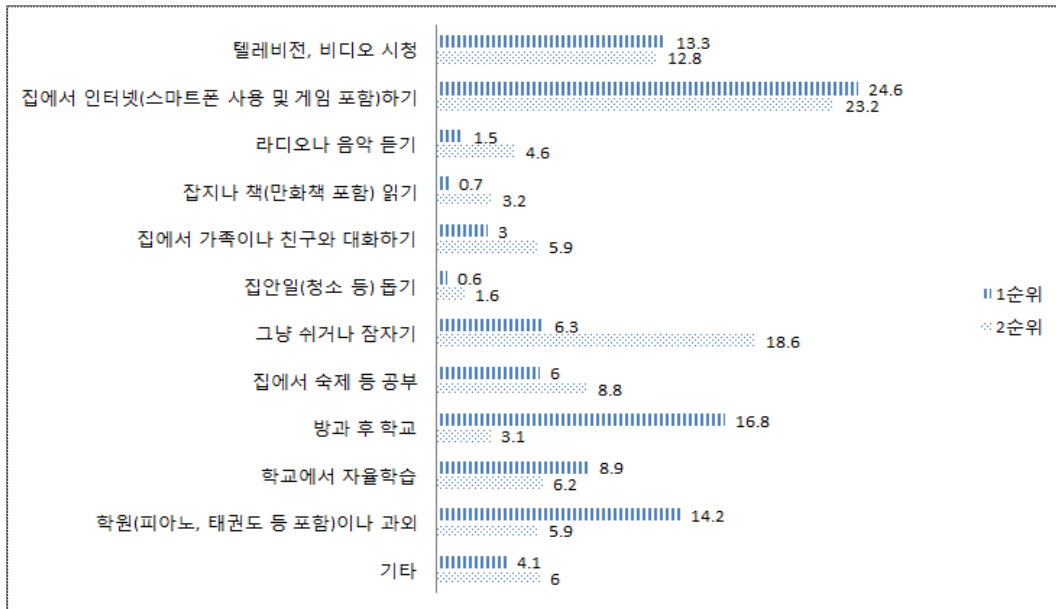
한편, 대전 학생청소년들의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 활동의 1순위와 2순위를 살펴보면 <표 3-5-17>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에는 주로 집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방과 후 학교, 학원이나 과외, TV나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순위 활동으로도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쉬거나 잠자기, TV나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7〉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 활동(종합)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텔레비전, 비디오 시청	13.3	12.8
집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및 게임 포함)하기	24.6	23.2
라디오나 음악 듣기	1.5	4.6
잡지나 책(만화책 포함 읽기)	0.7	3.2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기	3.0	5.9
집안일(청소 등) 돕기	0.6	1.6
쉬거나 잠자기	6.3	18.6
집에서 숙제 등 공부	6.0	8.8
방과 후 학교	16.8	3.1
학교에서 자율학습	8.9	6.2
학원(피아노, 태권도 등 포함)이나 과외	14.2	5.9
기타	4.1	6.0

[그림 3-5-18]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 활(종합)



3)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 활동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의 1순위 활동을 살펴본 결과는 <표 3-5-18>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2명 이상인 25.4%는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학교 자율학습(19.9%), TV나 비디오 시청(11.8%), 학원이나 과외(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집에서 공부(21.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TV나 비디오 시청(19.7%), 집에서 인터넷(12.4%)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의 1순위 활동에서는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의 경우는 집에서 인터넷(29.2%)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TV나 비디오 시청(14.2%), 학교 자율학습(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학교 자율학습(27.1%)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집에서 인터넷(21.7%), 학원이나 과외(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은 집에서 인터넷(32.6%)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TV나 비디오 시청(15.8%), 집에서 공부(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등학생은 학교 자율학습(45.6%)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집에서 인터넷(15.6%), 학원이나 과외(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별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대덕구(36.8%), 서구(27.6%), 동구(24.0%), 유성구(21.4%)

등은 집에서 인터넷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구는 학교 자율학습(37.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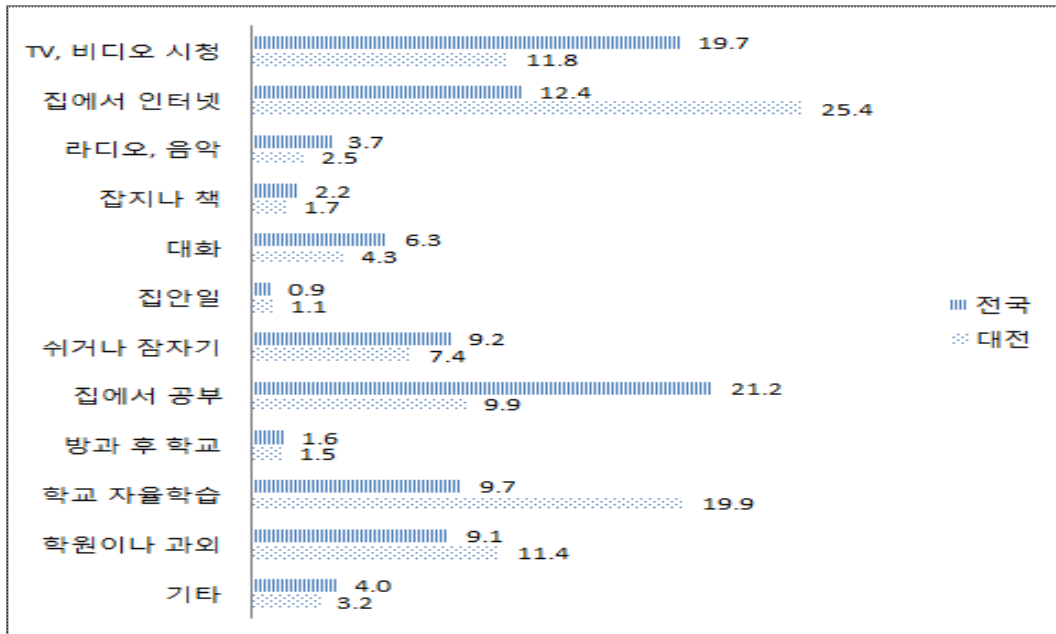
〈표 3-5-18〉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 활동(1순위)

(단위: %)

구분		TV, 비디오 시청	집에서 인터넷	라디오, 음악	잡지나 책	대화	집안일
전국		19.7	12.4	3.7	2.2	6.3	0.9
대전		11.8	25.4	2.5	1.7	4.3	1.1
성별	남자	14.2	29.2	1.8	1.8	4.2	1.1
	여자	9.5	21.7	3.1	1.6	4.3	1.1
학교급	중학교	15.8	32.6	3.0	2.1	4.6	1.4
	고등학교	6.4	15.6	1.7	1.3	3.8	0.6
구	동구	12.0	24.0	2.7	1.1	6.6	1.1
	중구	9.3	19.3	1.9	1.9	3.7	1.9
	서구	13.3	27.6	1.4	0.8	3.5	1.1
	유성구	10.3	21.4	3.4	3.8	4.2	1.1
	대덕구	13.6	36.8	4.0	0.8	4.0	0.0
구분		쉬거나 잠자기	집에서 공부	방과 후 학교	학교 자율학습	학원이나 과외	기타
전국		9.2	21.2	1.6	9.7	9.1	4.0
대전		7.4	9.9	1.5	19.9	11.4	3.2
성별	남자	7.9	10.1	1.3	12.5	10.7	5.0
	여자	6.8	9.5	1.8	27.1	12.0	1.4
학교급	중학교	7.4	15.2	0.5	0.8	13.9	2.5
	고등학교	7.2	2.8	3.0	45.6	7.9	4.1
구	동구	8.2	10.9	3.3	16.9	10.9	2.2
	중구	9.3	5.0	1.2	37.3	5.0	4.3
	서구	5.4	11.4	1.6	18.4	13.0	2.4
	유성구	7.6	11.8	1.1	18.3	12.6	4.2
	대덕구	8.8	6.4	0.0	9.6	12.8	3.2

주) 전국 수치의 경우 “청소년 사설 이용” 항목 제외.

[그림 3-5-19]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 활동(1순위)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의 2순위 활동을 살펴본 결과는 <표 3-5-19>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2명 이상인 22.1%는 쉬거나 잠자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집에서 인터넷(20.0%), 집에서 공부(13.9%), TV나 비디오 시청(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쉬거나 잠자기(25.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집에서 공부(18.6%), TV나 비디오 시청(14.1%), 집에서 인터넷(12.6%)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우선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의 2순위 활동에서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의 경우는 집에서 인터넷(21.5%)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쉬거나 잠자기(20.8%), TV나 비디오 시청(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쉬거나 잠자기(23.4%)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집에서 인터넷(18.6%), 집에서 공부(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은 쉬거나 잠자기(22.1%)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집에서 인터넷(21.4%), TV나 비디오 시청(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등학생은 쉬거나 잠자기(22.1%)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집에서 인터넷(17.7%), 학원이나 과외(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별에서도

〈표 3-5-19〉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 활동(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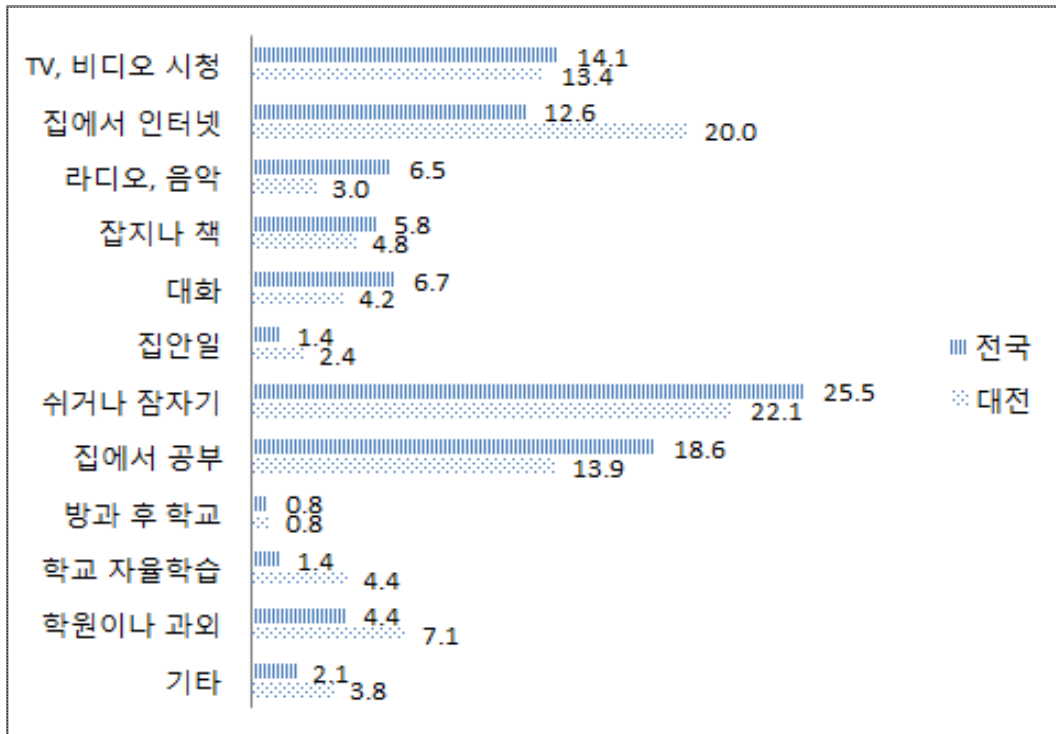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TV, 비디오 시청	집에서 인터넷	라디오, 음악	잡지나 책	대화	집안일
전국		14.1	12.6	6.5	5.8	6.7	1.4
대전		13.4	20.0	3.0	4.8	4.2	2.4
성별	남자	15.0	21.5	3.6	6.5	2.2	2.8
	여자	11.7	18.6	2.5	3.1	6.3	2.0
학교급	중학교	16.2	21.4	3.0	6.0	4.1	3.0
	고등학교	9.0	17.7	3.1	2.8	4.4	1.3
구	동구	18.0	14.2	4.4	4.9	4.4	2.2
	중구	14.8	19.7	1.4	4.2	7.0	1.4
	서구	12.0	20.4	3.3	3.3	4.8	2.1
	유성구	8.7	23.2	1.7	7.5	2.5	3.3
	대덕구	18.3	21.7	5.0	4.2	2.5	2.5
구분		쉬거나 잠자기	집에서 공부	방과 후 학교	학교 자율학습	학원이나 과외	기타
전국		25.5	18.6	0.8	1.4	4.4	2.1
대전		22.1	13.9	0.8	4.4	7.1	3.8
성별	남자	20.8	13.2	0.4	3.0	5.1	5.9
	여자	23.4	14.6	1.2	5.9	9.0	1.8
학교급	중학교	22.1	15.6	0.3	1.7	3.7	2.9
	고등학교	22.1	11.3	1.5	8.7	12.6	5.4
구	동구	23.0	13.7	1.1	5.5	7.7	1.1
	중구	19.7	9.9	2.1	4.9	10.6	4.2
	서구	22.2	15.9	0.6	3.9	7.2	4.2
	유성구	19.1	17.0	0.4	5.4	6.2	5.0
	대덕구	29.2	7.5	0.0	1.7	3.3	4.2

주) 전국 수치의 경우 “청소년 사설 이용” 항목 제외.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저녁식사 이후 2순위로 대덕구(29.2%), 동구(23.0%), 서구(22.2%) 등은 쉬거나 잠자기가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유성구(23.2%)와 중구(19.7%)는 집에서 인터넷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20]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 활동(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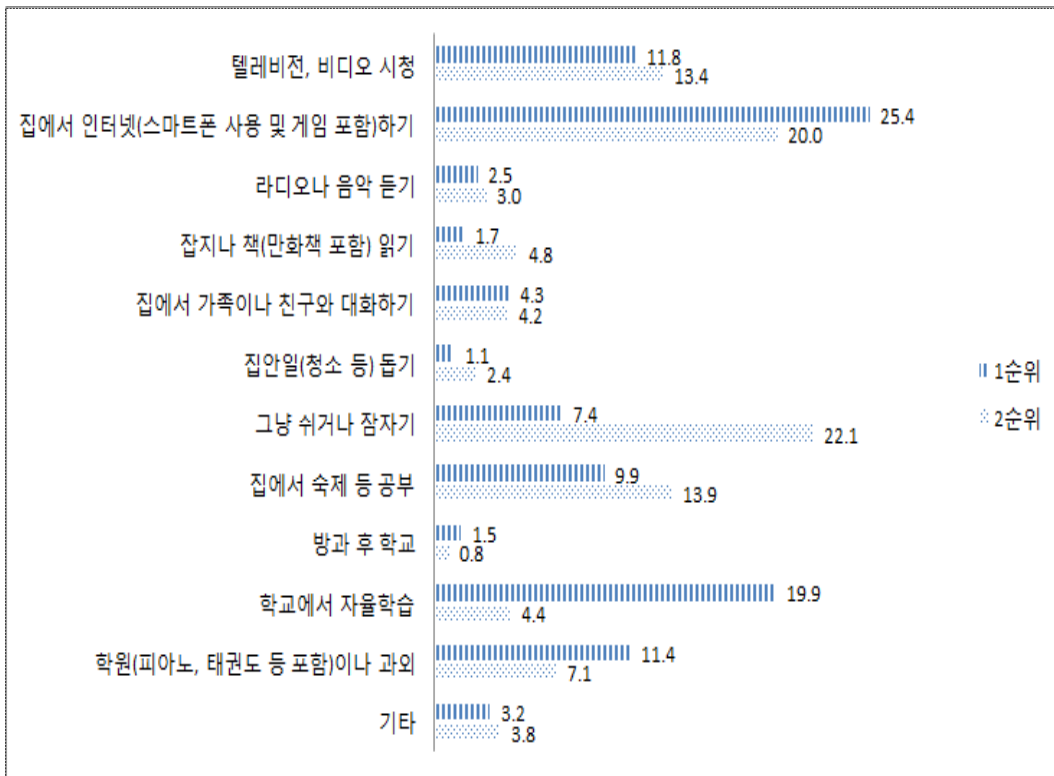
한편, 대전 학생청소년들의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 활동의 1순위와 2순위를 살펴보면 <표 3-5-20>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에는 주로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방과 후 학교, TV나 비디오를 시청, 학원이나 과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활동으로도 쉬거나 잠자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집에서 인터넷 하기, 집에서 숙제나 공부, TV나 비디오 시청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3-5-17>의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 활동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과 이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20〉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 활동(종합)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텔레비전, 비디오 시청	11.8	13.4
집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및 게임 포함)하기	25.4	20.0
라디오나 음악 듣기	2.5	3.0
잡지나 책(만화책 포함) 읽기	1.7	4.8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기	4.3	4.2
집안일(청소 등) 돕기	1.1	2.4
쉬거나 잠자기	7.4	22.1
집에서 숙제 등 공부	9.9	13.9
방과 후 학교	1.5	0.8
학교에서 자율학습	19.9	4.4
학원(피아노, 태권도 등 포함)이나 과외	11.4	7.1
기타	3.2	3.8

[그림 3-5-21]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 활동(종합)



제6절 문제행동 및 예방교육 경험

본 절에서는 학생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예방교육 경험 실태를 확인하였다. 각 영역별로 대전 학생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행동 및 예방교육 경험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전국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문제행동 및 예방교육 경험 실태를 성별, 학교급, 구별로 분석함으로써, 대전지역 학생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예방교육 경험 정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제행동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자살 생각 경험을 질문하였다.

1) 흡연

청소년의 흡연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6-1>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5.8%는 흡연 경험(일주일)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94.2%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흡연 경험(한 달)이 있다고 응답한 9.2%보다는 3.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을 말하기 때문에 약간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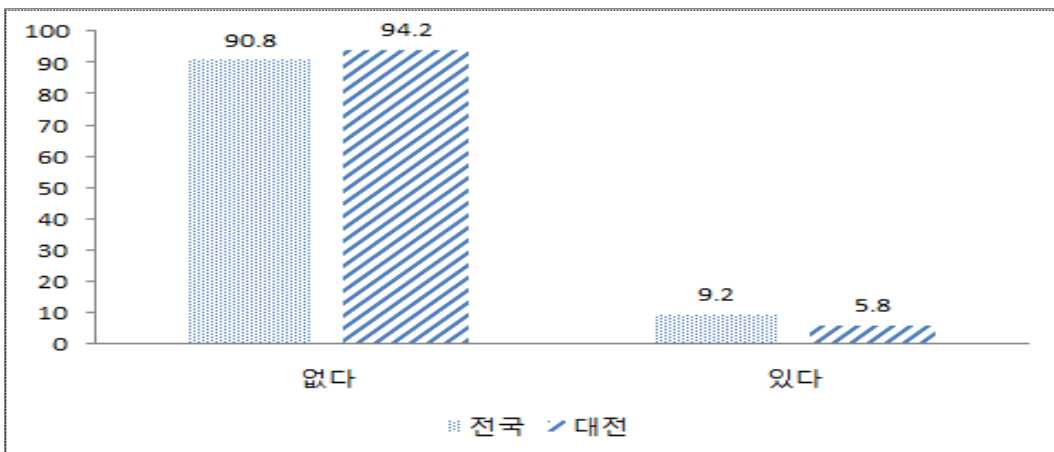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흡연 경험(일주일)이 있다는 남학생(10.3%)이 여학생(1.4%)보다 8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9.3%)이 중학생(3.3%)보다 3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별로 보면, 대덕구(11.7%)가 흡연 경험이 가장 높은 반면, 동구(1.6%)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1〉 흡연 경험

(단위: %)

구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국		90.8	9.2		
대전		94.2	1.6	1.2	3.0
성별	남자	89.7	2.9	1.8	5.6
	여자	98.6	0.4	0.5	0.5
학교급	중학교	96.7	1.6	0.8	0.9
	고등학교	90.7	1.7	1.7	5.9
구	동구	98.4	0.5	1.1	-
	중구	95.1	0.6	-	4.3
	서구	93.9	1.6	1.9	2.7
	유성구	94.0	2.6	-	3.4
	대덕구	88.3	2.3	3.1	6.3

[그림 3-6-1] 흡연 경험



2) 음주

청소년의 음주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6-2>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6.6%는 음주 경험(일주일)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93.4%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음주 경험(한 달)이 있다고 응답한 16.7%보다는 10.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말하기 때문에 약간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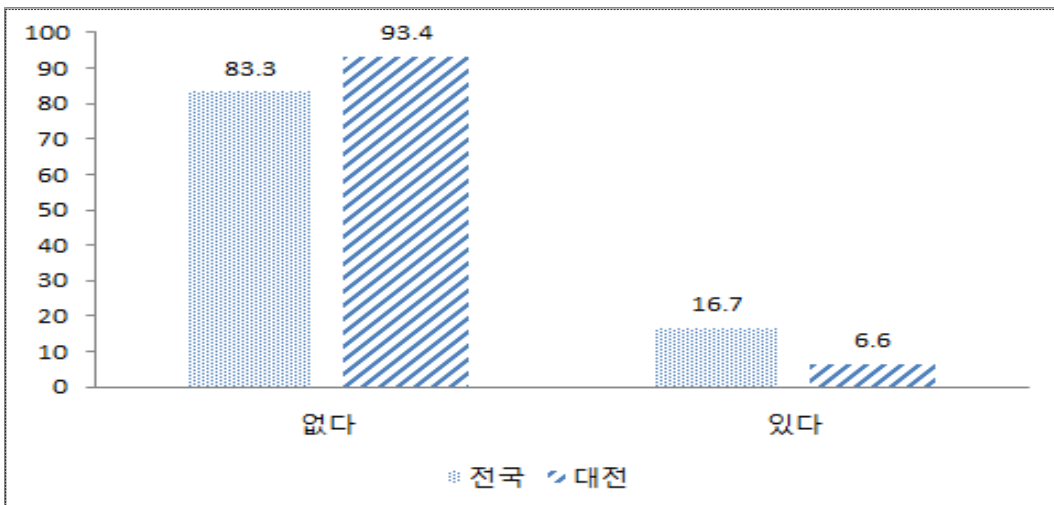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음주 경험(일주일)이 있다는 남학생(9.9%)이 여학생(3.5%)보다 3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10.8%)이 중학생(3.6%)보다 3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별로 보면, 대덕구(14.1%)가 음주 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동구(2.7%)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2〉 음주 경험

(단위: %)

구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국		83.3	16.7		
대전		93.4	4.9	0.6	1.1
성별	남자	90.1	7.2	0.9	1.8
	여자	96.6	2.7	0.4	0.4
학교급	중학교	96.4	3.0	0.3	0.3
	고등학교	89.3	7.6	1.1	2.1
구	동구	97.3	2.2	0.5	-
	중구	95.7	1.8	0.6	1.8
	서구	93.6	4.3	0.8	1.3
	유성구	92.5	6.3	0.4	0.7
	대덕구	85.9	11.7	0.8	1.6

[그림 3-6-2] 음주 경험



3) 무단결석

청소년의 학교생활 중에서 무단결석이 반복될수록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실제로 청소년들의 무단결석의 경험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6-3>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4.1%는 최근 1년 동안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95.8%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7.6%보다는 3.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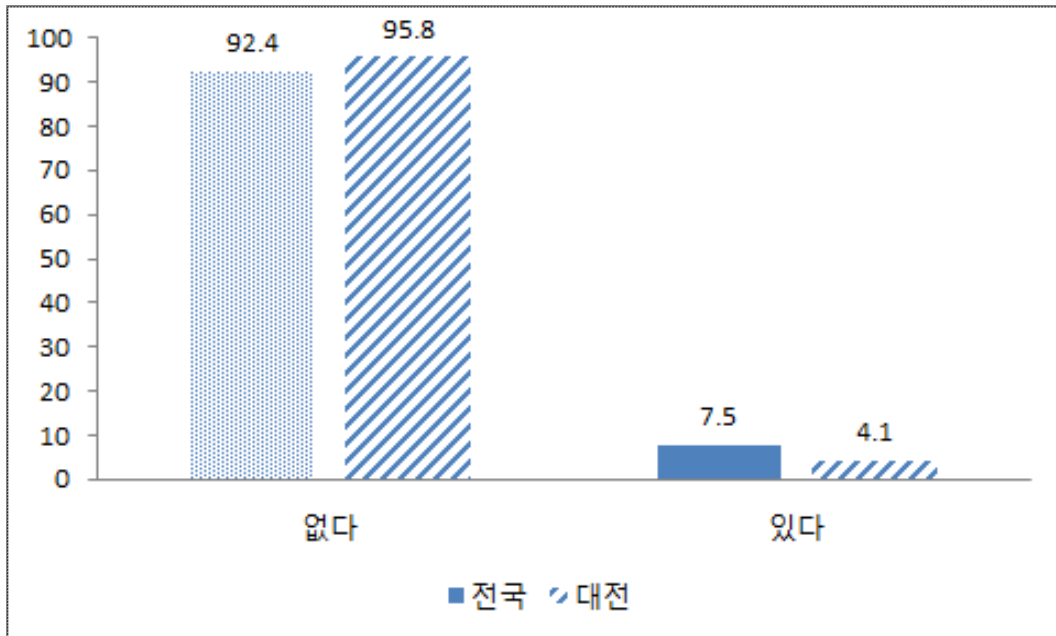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학생(5.8%)이 여학생(2.7%)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5.3%)이 중학생(3.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별로 보면, 대덕구(7.0%)가 무단결석 경험이 가장 많은 반면, 동구(1.6%)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3> 무단결석 경험

(단위: %)

구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국		92.4	5.2	1.4	0.9
대전		95.8	2.2	0.5	1.4
성별	남자	94.2	3.1	0.9	1.8
	여자	97.3	1.4	0.2	1.1
학교급	중학교	96.6	1.6	0.5	1.4
	고등학교	94.7	3.2	0.6	1.5
구	동구	98.4	0.5	0.0	1.1
	중구	96.3	1.2	0.0	2.5
	서구	95.2	2.1	0.8	1.9
	유성구	95.9	2.6	0.7	0.7
	대덕구	93.0	5.5	0.8	0.8

[그림 3-6-3] 무단결석 경험



4) 가출

가정생활 만족 여부라는 동전의 또 다른 측면은 가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가출은 가출 자체도 문제이지만, 가출 이후의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행과 범죄 피해 가능성 때문에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가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6-4>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3.0%는 최근 1년 동안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가출 경험이 있는 9.8%보다 6.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출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함께, 가출 경험이 반복될수록 가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출이 상습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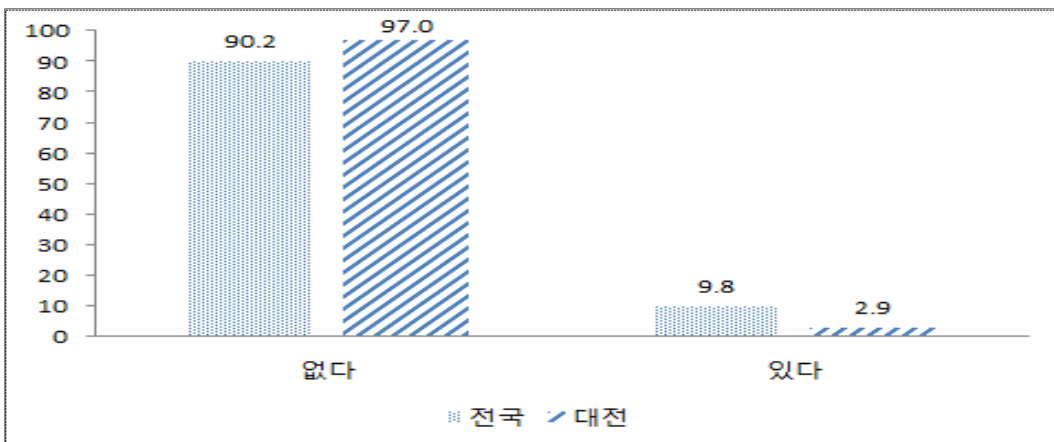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학생(4.0%)이 여학생(2.0%)보다, 고등학생(3.4%)이 중학생(2.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별로 보면, 대덕구(4.7%)가 가출 경험이 가장 많은 반면, 중구(1.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4〉 가출 경험

(단위: %)

구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국		90.2	9.8		
대전		97.0	2.1	0.6	0.2
성별	남자	96.0	2.5	1.1	0.4
	여자	98.0	1.8	0.2	-
학교급	중학교	97.4	2.0	0.5	0.2
	고등학교	96.6	2.3	0.8	0.2
구	동구	97.3	2.2	0.5	-
	중구	98.8	0.6	0.6	-
	서구	96.5	2.1	0.8	0.5
	유성구	97.4	1.9	0.7	-
	대덕구	95.3	4.7	-	-

[그림 3-6-4] 가출 경험



5) 성관계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6-5>와 같다. 최근 1년 동안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전 학생청소년은 1.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3%보다는 4.2%p 낮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성관계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2.2%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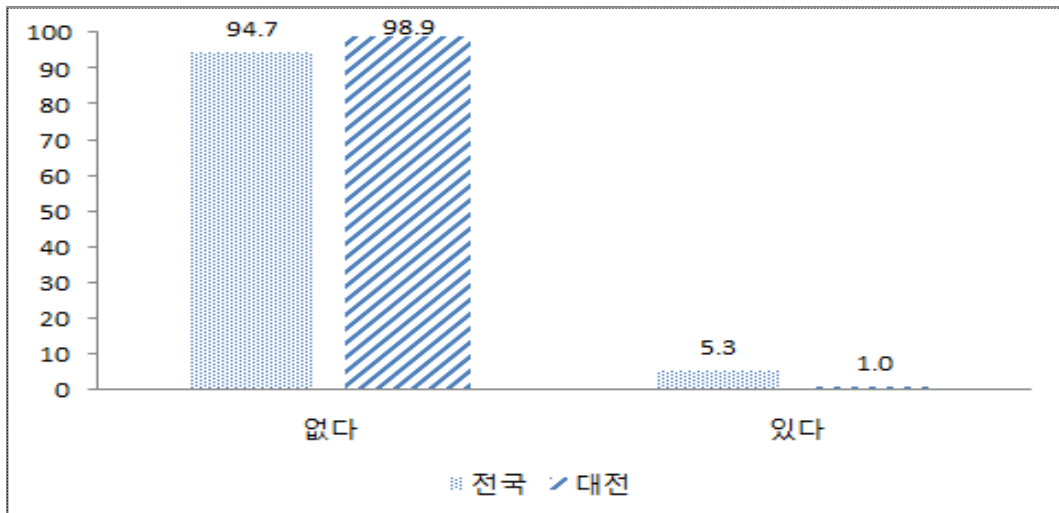
난 반면, 여학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1.7%)이 중학생(0.6%)보다 3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대덕구(3.1%)가 성관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5〉 성관계 경험

(단위: %)

구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국		94.7	5.3		
대전		98.9	0.4	-	0.6
성별	남자	97.8	0.9	-	1.3
	여자	100.0	-	-	-
학교급	중학교	99.4	0.5	-	0.2
	고등학교	98.3	0.4	-	1.3
구	동구	100.0	-	-	-
	중구	99.4	0.6	-	-
	서구	98.7	0.3	-	1.1
	유성구	99.3	0.7	-	-
	대덕구	96.9	0.8	-	2.3

[그림 3-6-5] 성관계 경험



6) 자살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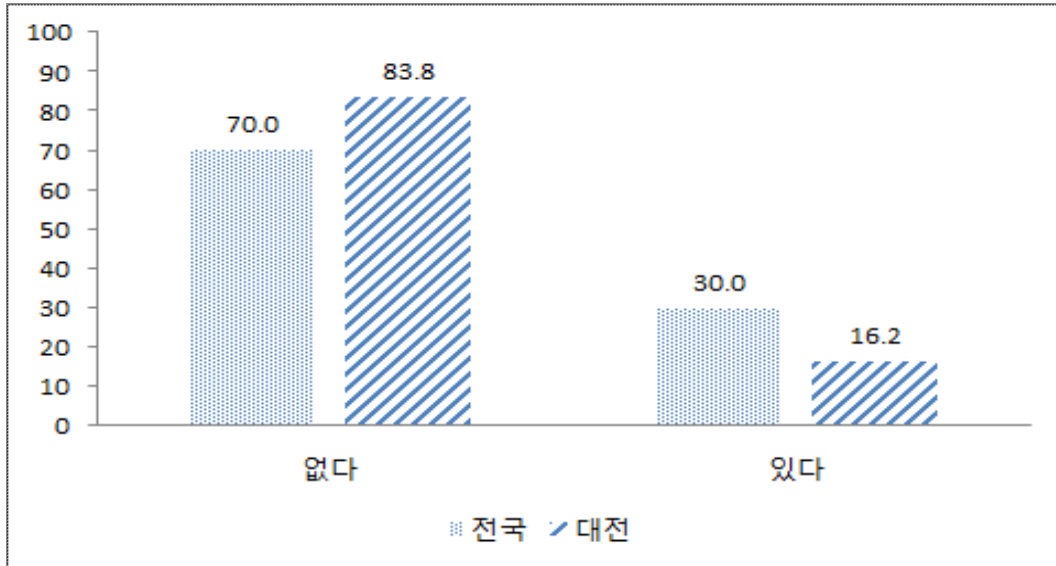
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6-6>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16.2%는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나타난 30.0%보다는 13.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여학생(20.7%)이 남학생(11.6%)보다 9.1%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앞서 우울 정도에서도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학생(16.6%)과 고등학생(15.6%)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구(20.9%)와 동구(19.6%)에서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6-6> 자살생각 경험(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국		70.0	30.0		
대전		83.8	11.3	2.6	2.3
성별	남자	88.4	8.5	2.0	1.1
	여자	79.3	14.0	3.2	3.5
학교급	중학교	83.4	11.7	3.0	2.0
	고등학교	84.4	10.7	2.1	2.7
구	동구	80.4	15.2	3.3	1.1
	중구	79.1	15.3	1.8	3.7
	서구	86.1	10.1	1.6	2.1
	유성구	84.7	10.4	3.0	1.9
	대덕구	85.9	5.5	4.7	3.9

[그림 3-6-6] 자살생각 경험(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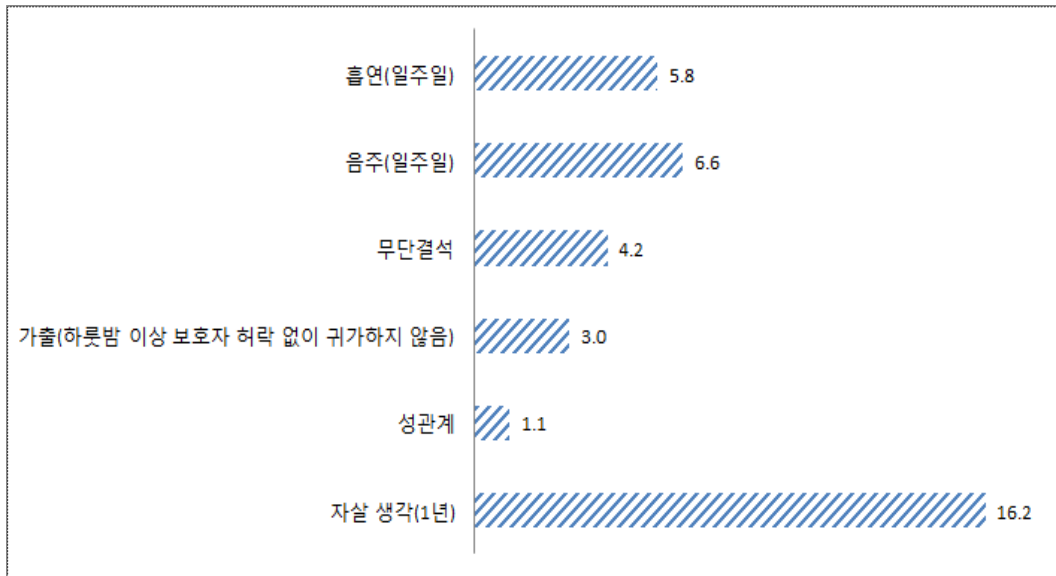
한편, 6개의 문제행동 경험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6-7>과 같다. 문제행동 중에서 대전 학생청소년들의 16.2%는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 학생청소년들의 우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음주(6.6%), 흡연(5.8%), 무단결석(4.2%), 가출(3.0%), 성관계(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7> 문제행동 경험 정도(종합)

(단위: %)

구분	있다
흡연(일주일)	5.8
음주(일주일)	6.6
무단결석	4.1
가출(하룻밤 이상 보호자 허락 없이 귀가하지 않음)	2.9
성관계	1.0
자살 생각(1년)	16.2

[그림 3-6-7] 문제행동 경험 정도(종합)



2. 예방교육 경험

학교현장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예방교육의 경험 정도를 질문하였다.

1) 인권교육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인권교육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가치와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인권교육을 얼마나 실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6-8>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5명 이상인 55.4%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회 이상도 1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교육의 경험이 없는 경우도 44.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서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4.4%보다는 9.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여학생(56.3%)이 남학생(54.4%)보다, 고등학생(56.1%)이 중학생(54.8%)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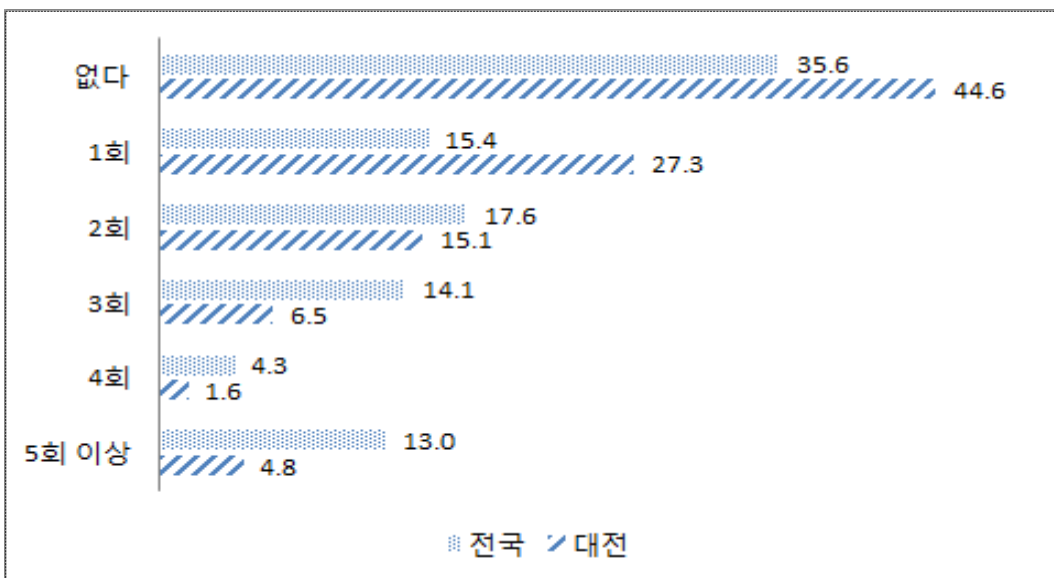
다. 구별로 보면, 동구(69.0%)가 인권교육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성구(46.5%)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8〉 인권교육 경험

(단위: %)

구분		없다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국		35.6	15.4	17.6	14.1	4.3	13.0
대전		44.6	27.3	15.1	6.5	1.6	4.8
성별	남자	45.6	25.0	15.1	7.0	1.4	5.8
	여자	43.7	29.5	15.1	6.0	1.8	3.9
학교급	중학교	45.2	24.8	15.0	7.9	2.0	5.1
	고등학교	43.9	30.7	15.3	4.6	1.1	4.4
구	동구	31.0	33.7	23.9	7.6	1.1	2.7
	중구	38.4	34.8	17.1	5.5	0.6	3.7
	서구	45.7	24.9	13.9	7.8	1.3	6.4
	유성구	53.5	25.3	10.0	5.2	1.9	4.1
	대덕구	50.4	19.7	14.2	5.5	3.9	6.3

[그림 3-6-8] 인권교육 경험



2) 성교육

최근 1년 동안 성교육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6-9>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5.6%는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회 이상도 2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도 14.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성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1.8%보다는 13.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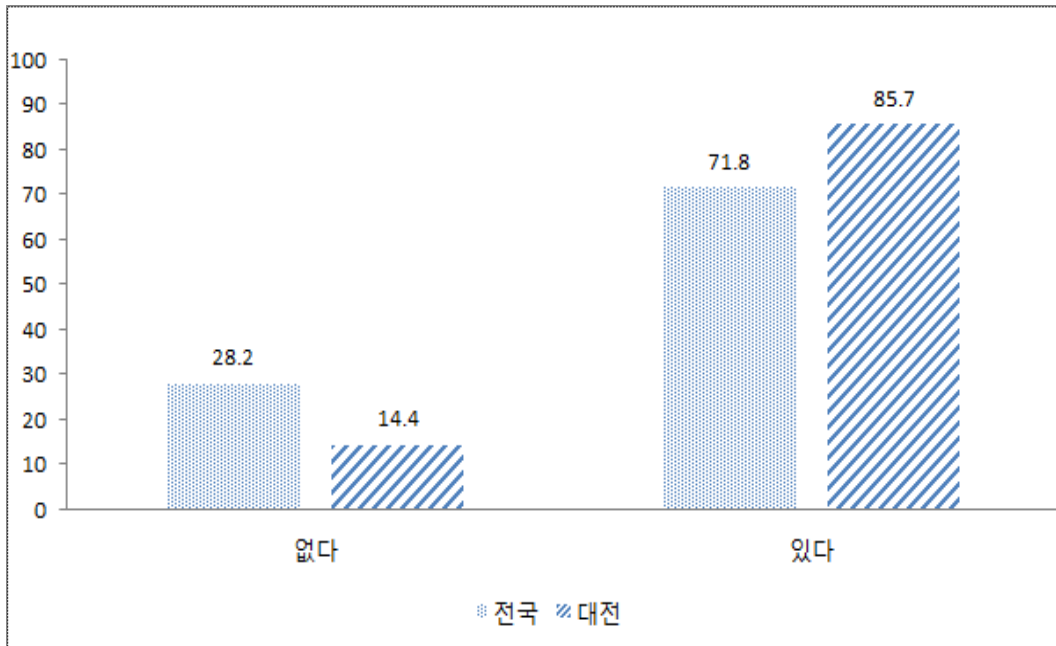
<표 3-6-9> 성교육 경험

(단위: %)

구분		없다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국		28.2	71.8				
대전		14.4	35.5	24.4	12.2	3.1	10.5
성별	남자	16.8	35.5	22.5	11.5	2.5	11.2
	여자	12.1	35.5	26.2	12.8	3.7	9.8
학교급	중학교	15.3	35.1	22.8	13.1	3.0	10.8
	고등학교	13.2	36.0	26.6	10.9	3.3	10.0
구	동구	14.7	44.6	26.6	8.2	2.2	3.8
	중구	11.0	34.8	26.8	15.9	4.3	7.3
	서구	11.5	33.2	26.5	13.9	2.7	12.3
	유성구	19.3	37.5	19.0	9.3	2.2	12.6
	대덕구	16.4	25.8	23.4	14.1	6.3	14.1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성교육의 경험은 여학생(87.9%)이 남학생(83.2%)보다, 고등학생(86.8%)이 중학생(84.7%)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별로 보면, 중구(89.0%)와 서구(88.5%)에서 성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유성구(80.7%)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9] 성교육 경험



3)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현황은 소수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이다. 이것은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소외당하기 쉬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권보호와 함께 공존해야 할 미래세대에게 더욱 요구되는 교육이다. 이에 최근 1년 동안 다문화교육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6-10>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5명 정도인 48.8%는 다문화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회 이상은 11.2%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다문화교육의 경험이 없는 경우도 5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다문화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5.6%보다는 3.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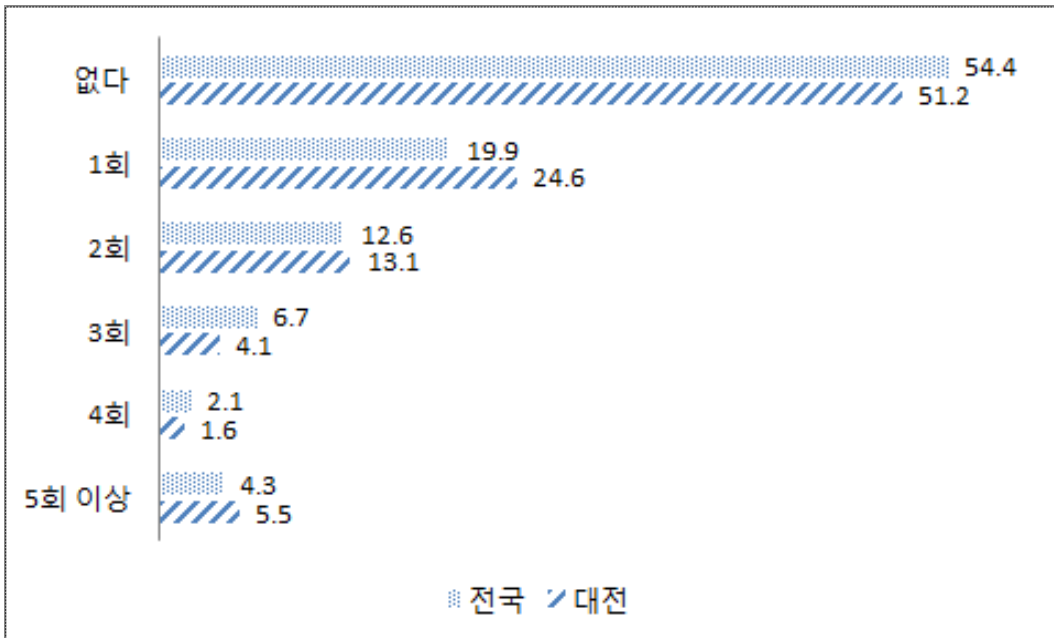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다문화교육 경험은 남학생(51.1%)이 여학생(46.6%)보다, 중학생(51.9%)이 고등학생(44.7%)보다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별로 보면, 중구(55.2%)가 다문화교육 경험이 가장 많은 반면, 유성구(45.1%)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10〉 다문화교육 경험

(단위: %)

구분		없다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국		54.4	19.9	12.6	6.7	2.1	4.3
대전		51.2	24.6	13.1	4.1	1.6	5.5
성별	남자	48.9	23.8	14.3	5.2	1.6	6.1
	여자	53.4	25.3	11.9	3.0	1.6	4.8
학교급	중학교	48.1	24.5	13.6	4.7	2.2	6.9
	고등학교	55.3	24.6	12.4	3.4	0.8	3.6
구	동구	49.2	27.9	14.2	4.4	1.1	3.3
	중구	44.8	31.9	12.9	4.9	0.0	5.5
	서구	52.4	21.1	14.4	4.5	1.6	5.9
	유성구	54.9	26.9	9.7	2.6	1.9	4.1
	대덕구	50.8	15.6	14.8	4.7	3.9	10.2

[그림 3-6-10] 다문화교육 경험



4) 학교폭력예방교육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예방교육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6-11>과 같다. 대전 청소년의 10명 중 9명 이상인 92.7%는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회 이상도 38.1%로 나타났지만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도 7.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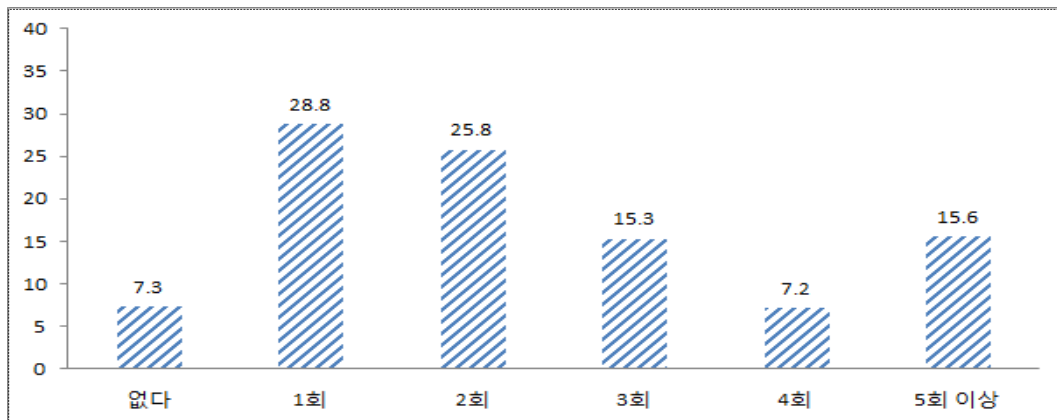
특히,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은 여학생(95.0%)이 남학생(90.3%)보다, 중학생(93.8%)이 고등학생(91.2%)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별로 보면, 동구(96.2%)와 서구(94.6%)가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이 가장 많은 반면, 유성구(89.2%)와 대덕구(89.8%)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11>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

(단위: %)

구분		없다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대전		7.3	28.8	25.8	15.3	7.2	15.6
성별	남자	9.7	27.6	24.4	14.1	6.3	17.9
	여자	5.0	30.0	27.3	16.5	8.0	13.3
학교급	중학교	6.2	26.8	24.8	15.6	7.5	19.0
	고등학교	8.8	31.4	27.3	14.9	6.7	10.9
구	동구	3.8	34.8	33.7	12.5	6.5	8.7
	중구	7.9	29.3	23.8	16.5	5.5	17.1
	서구	5.4	29.0	26.8	14.7	8.0	16.1
	유성구	10.8	27.9	22.3	16.7	6.7	15.6
	대덕구	10.2	21.1	21.9	16.4	8.6	21.9

[그림 3-6-11]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



5)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최근 1년 동안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6-12>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1.2%는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도 22.9%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도 18.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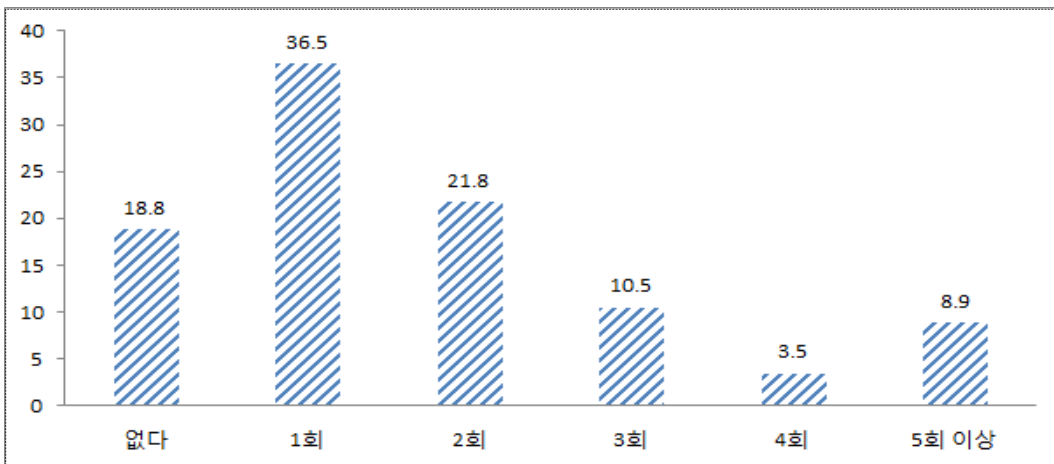
특히, 최근 1년 동안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경험은 여학생(84.1%)이 남학생(78.4%)보다, 중학생(82.6%)이 고등학생(79.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별로 보면, 중구(84.8%)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경험이 가장 많은 반면, 유성구(74.7%)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12>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경험

(단위: %)

구분		없다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대전		18.8	36.5	21.8	10.5	3.5	8.9
성별	남자	21.6	34.8	19.8	9.9	3.8	10.1
	여자	15.9	38.2	23.7	11.2	3.2	7.8
학교급	중학교	17.4	35.2	20.1	11.4	4.7	11.2
	고등학교	20.5	38.3	24.1	9.4	1.9	5.9
구	동구	16.8	45.1	22.3	9.8	3.3	2.7
	중구	15.2	42.1	19.5	9.1	3.0	11.0
	서구	16.8	34.4	22.1	13.9	3.2	9.6
	유성구	25.3	33.8	21.9	7.4	2.6	8.9
	대덕구	18.0	28.9	22.7	10.2	7.0	13.3

[그림 3-6-12]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경험



6) 자살예방교육(생명존중교육)

최근 1년 동안 자살예방교육(생명존중교육)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6-13>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1.7%는 자살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회 이상도 20.0%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도 18.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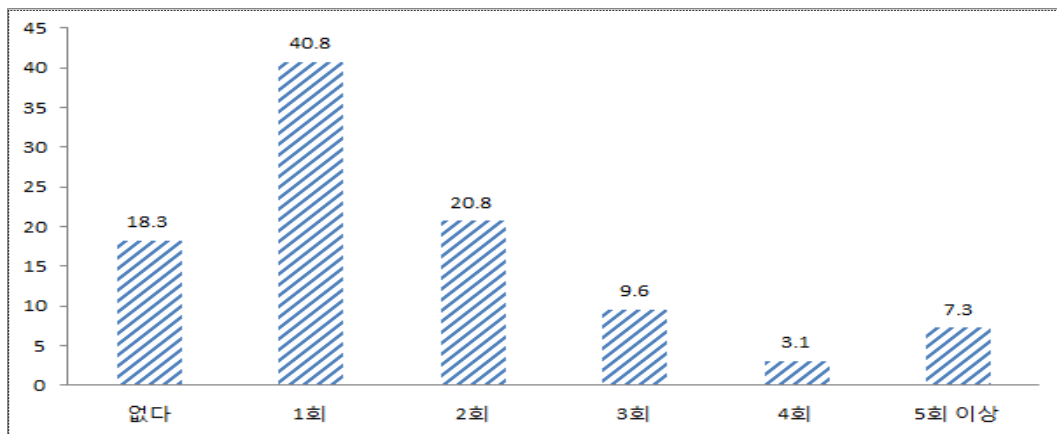
특히, 최근 1년 동안 자살예방교육(생명존중교육) 경험은 여학생(84.6%)이 남학생(78.7%)보다, 중학생(82.1%)이 고등학생(81.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별로 보면, 중구(89.0%)와 동구(85.9%)가 자살예방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13> 자살예방교육(생명존중교육) 경험

(단위: %)

구분		없다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대전		18.3	40.8	20.8	9.6	3.1	7.3
성별	남자	21.3	38.8	18.4	9.7	2.3	9.4
	여자	15.4	42.8	23.2	9.4	3.9	5.3
학교급	중학교	17.9	39.4	19.3	10.4	3.6	9.3
	고등학교	18.9	42.8	22.9	8.4	2.5	4.6
구	동구	14.1	48.4	25.5	7.1	1.1	3.8
	중구	11.0	48.8	19.5	7.9	5.5	7.3
	서구	20.9	36.1	19.5	14.2	2.9	6.4
	유성구	20.8	41.6	20.8	6.7	2.2	7.8
	대덕구	21.1	32.0	19.5	7.8	5.5	14.1

[그림 3-6-13] 자살예방교육(생명존중교육) 경험



7) 흡연·음주·약물 예방교육

최근 1년 동안 흡연·음주·약물예방교육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6-14>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1.4%는 흡연·음주·약물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도 22.5%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도 18.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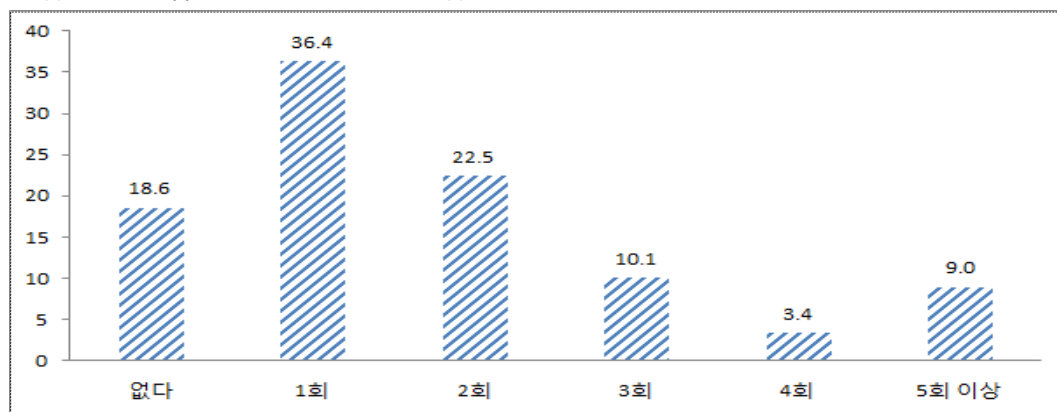
특히, 최근 1년 동안 흡연·음주·약물예방교육 경험은 여학생(84.2%)이 남학생(78.6%)보다, 중학생(82.9%)이 고등학생(79.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별로 보면, 동구(86.4%)가 흡연·음주·약물예방교육 경험이 가장 많은 반면, 유성구(72.5%)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14> 흡연·음주·약물예방교육 경험

(단위: %)

구분		없다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대전		18.6	36.4	22.5	10.1	3.4	9.0
성별	남자	21.4	33.0	20.5	11.0	2.7	11.4
	여자	15.8	39.7	24.5	9.2	4.1	6.7
학교급	중학교	17.1	36.1	20.6	10.0	4.5	11.7
	고등학교	20.5	36.7	25.2	10.3	1.9	5.5
구	동구	13.6	45.1	26.1	8.7	1.1	5.4
	중구	16.5	34.1	23.2	11.6	4.9	9.8
	서구	16.8	36.5	21.9	11.2	4.5	9.1
	유성구	27.5	34.2	20.1	7.4	1.9	8.9
	대덕구	15.0	30.7	23.6	12.6	4.7	13.4

[그림 3-6-14] 흡연·음주·약물예방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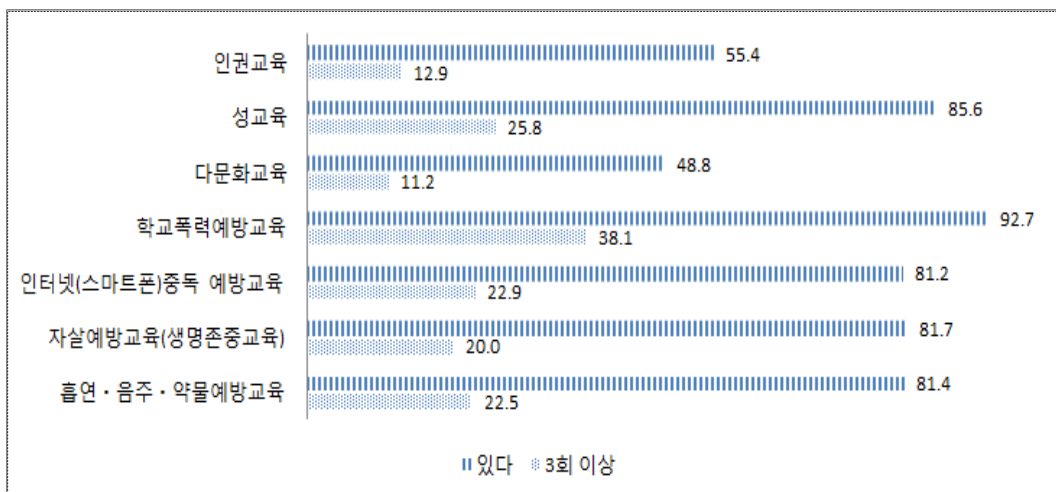
한편, 학교현장에서 실시하거나 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교육의 실태를 종합한 결과는 <표 3-6-15>와 같다. 최근 1년 동안 대전 학생청소년들의 92.7%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3회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도 38.1%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교육(85.6%), 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81.7%), 흡연·음주·약물예방교육(81.4%),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81.2%) 등은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교육(55.4%)과 다문화교육(48.8%) 등은 다른 예방교육과는 다르게 학교현장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횟수에서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15> 최근 1년 동안 예방교육경험(종합)

(단위: %)

구분	있다	3회 이상
인권교육	55.4	12.9
성교육	85.6	25.8
다문화교육	48.8	11.2
학교폭력예방교육	92.7	38.1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81.2	22.9
자살예방교육(생명존중교육)	81.7	20.0
흡연·음주·약물예방교육	81.4	22.5

[그림 3-6-15] 최근 1년 동안 예방교육경험(종합)



제7절 진로

본 절에서는 학생청소년의 진로를 향후 진로 계획, 진로 관련 부모님과의 대화 정도,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 장래 희망직업, 아르바이트 경험의 6개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로 대전 학생청소년 진로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전국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세부영역을 성별, 학교급, 구별로 분석함으로써, 대전지역 학생청소년의 진로 관련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향후 진로 계획

향후 자신의 진로에 관한 계획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3-7-1>과 같다. 향후 자신의 진로 계획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5명 이상인 53.2%는 상급학교 진학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어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31.2%), 진학하지 않고 취업(7.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상급학교 진학(57.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진학하지 않고 취업(27.6%),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10.9%)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3명 정도(31.2%)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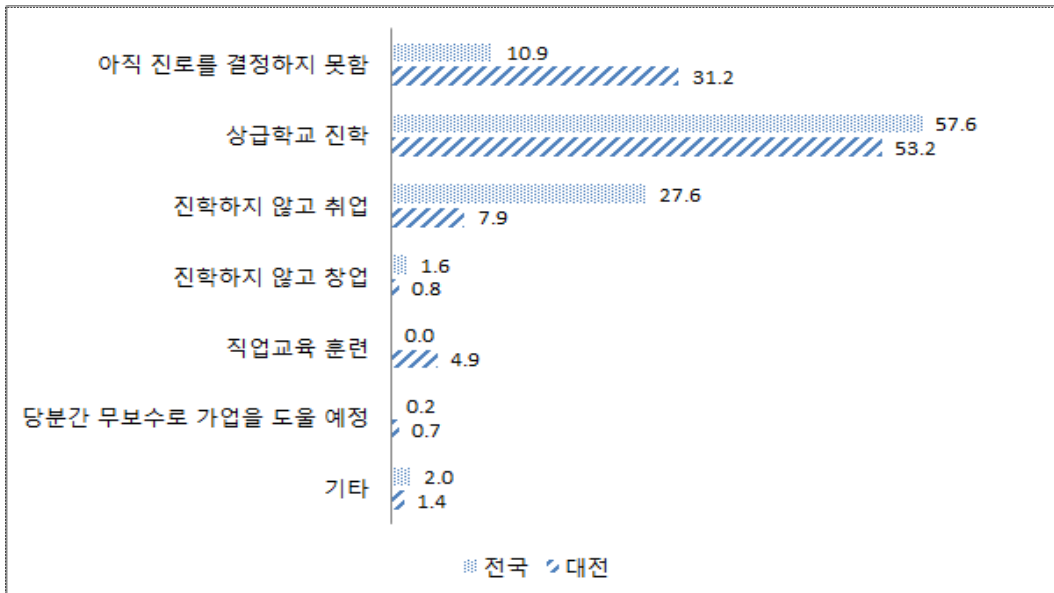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남학생은 상급학교 진학(44.8%)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34.1%), 진학하지 않고 취업(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도 상급학교 진학이 10명 중 6명 정도(61.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2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은 상급학교 진학(46.1%)이 가장 많고, 이어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39.0%), 직업훈련 교육(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등학생은 상급학교 진학(62.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20.8%), 진학하지 않고 취업(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도 모든 구에서 상급학교 진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덕구의 경우에는 10명 중 4명 정도(39.4%)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1> 향후 진로계획

(단위: %)

구분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	상급학교 진학	진학하지 않고 취업	진학하지 않고 창업	직업교육 훈련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을 도울 예정	기타
전국		10.9	57.6	27.6	1.6	-	0.2	2.0
대전		31.2	53.2	7.9	0.8	4.9	0.7	1.4
성별	남자	34.1	44.8	12.9	0.9	4.9	0.9	1.5
	여자	28.4	61.4	2.9	0.7	4.8	0.5	1.3
학교급	중학교	39.0	46.1	5.2	0.9	6.4	0.9	1.4
	고등학교	20.8	62.7	11.4	0.6	2.8	0.4	1.3
구	동구	26.8	50.3	12.6	0.0	7.1	1.1	2.2
	중구	26.5	58.6	9.3	1.2	1.9	0.6	1.9
	서구	31.6	55.9	4.1	0.8	5.9	1.1	0.5
	유성구	32.7	53.0	7.9	1.1	3.4	0.4	1.5
	대덕구	39.4	42.5	10.2	0.8	5.5	0.0	1.6

[그림 3-7-1] 향후 진로계획



2. 진로 관련 부모님과의 대화 정도

향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과의 대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7-2>와 같다. 향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한다고 응답한 대전 학생청소년은 48.8%(매우 14.4%+약간 34.4%)로 나타난 반면,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5.4%(전혀 3.0%+별로 12.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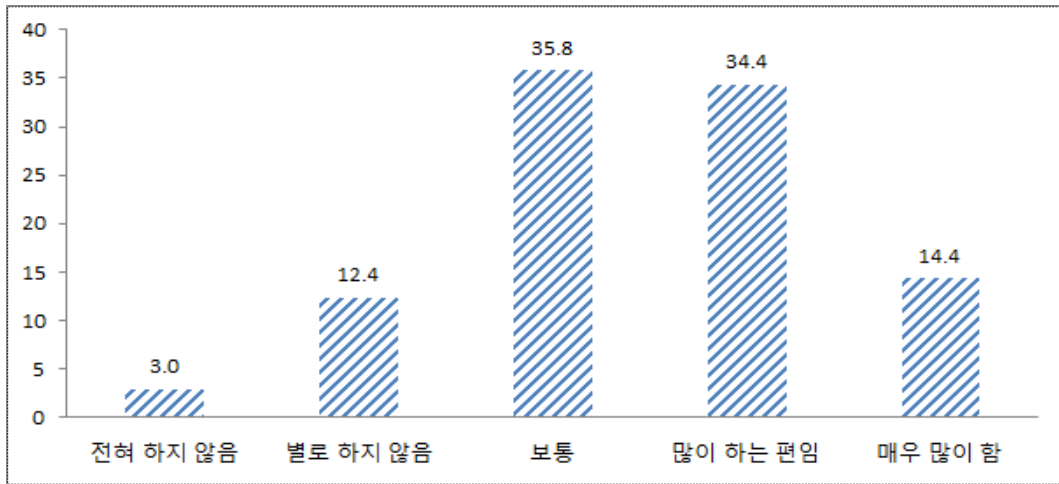
<표 3-7-2> 향후 진로관련 부모님과의 대화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하지 않음	별로 하지 않음	보통	많이 하는 편임	매우 많이 함
대전		3.0	12.4	35.8	34.4	14.4
성별	남자	4.3	13.9	35.9	33.3	12.5
	여자	1.6	10.8	35.7	35.5	16.3
학교급	중학교	3.7	13.4	34.6	33.2	15.0
	고등학교	2.1	10.9	37.3	36.0	13.7
구	동구	2.7	10.3	35.3	33.7	17.9
	중구	2.5	8.6	33.7	40.5	14.7
	서구	1.9	13.3	35.5	37.1	12.3
	유성구	4.5	13.1	35.6	30.0	16.9
	대덕구	4.7	15.7	40.2	29.1	10.2

특히, 향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과의 대화를 하는 경우는 여학생(51.8%)이 남학생(45.8%)보다, 고등학생(49.7%)이 중학생(48.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향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경우는 중구(55.2%)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39.3%)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2] 향후 진로관련 부모님과의 대화 정도



3.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 진로와 직업 과목

청소년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로교육에 참여한 경험 여부와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 교육을 살펴본 결과는 <표 3-7-3>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2.8%는 진로와 직업 과목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와 직업 과목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52.5%(매우 8.6%+약간 43.9%)로 나타났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30.3%(전혀 6.6%+ 별로 23.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81.0%)보다 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47.2%(매우 6.7%+약간 40.5%)보다도 5.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진로와 직업 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학생(87.0%)이 남학생(78.5%)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여학생(53.2%)이 남학생(51.7%)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고등학생(87.8%)이 중학생(79.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중학생(53.1%)이 고등학생(51.7%)보다 약간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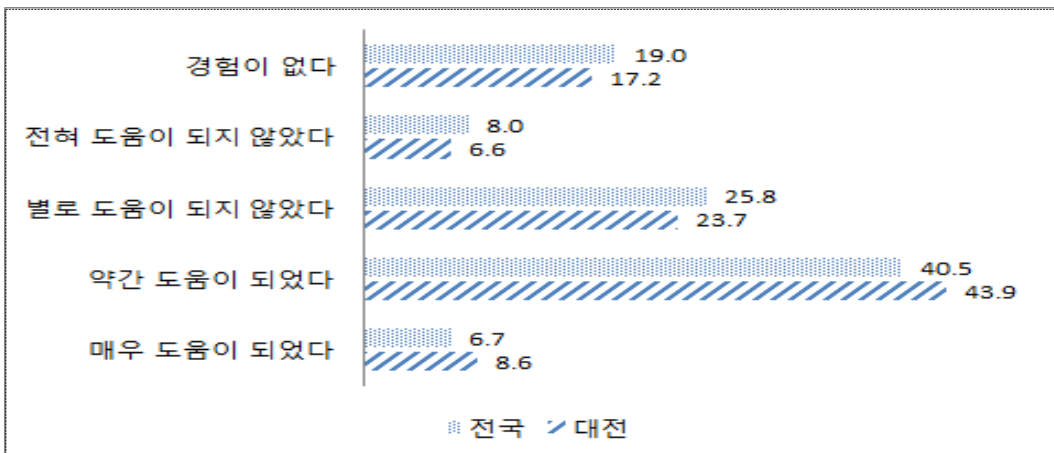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중구(86.0%)와 동구(85.4%)가 교육 경험이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77.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서구(59.7%)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44.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7-3〉 ‘진로와 직업’ 과목의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경험이 없다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국		19.0	8.0	25.8	40.5	6.7
대전		17.2	6.6	23.7	43.9	8.6
성별	남자	21.5	5.7	21.1	40.9	10.8
	여자	13.0	7.5	26.3	46.8	6.4
학교급	중학교	20.9	5.4	20.6	43.6	9.5
	고등학교	12.2	8.2	27.9	44.3	7.4
구	동구	14.6	8.6	22.2	43.8	10.8
	중구	14.0	9.1	28.0	39.6	9.1
	서구	16.6	3.7	20.1	51.9	7.8
	유성구	19.2	8.1	25.5	39.1	8.1
	대덕구	22.8	5.5	27.6	36.2	7.9

[그림 3-7-3] ‘진로와 직업’ 과목의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2) 현장학습이나 견학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 교육을 살펴본 결과는 <표 3-7-4>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7명 이상인 76.1%는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50.6%(매우 11.7%+약간 38.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69.4%)보다 6.7%p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42.0%(매우 7.8%+약간 34.2%)보다도 8.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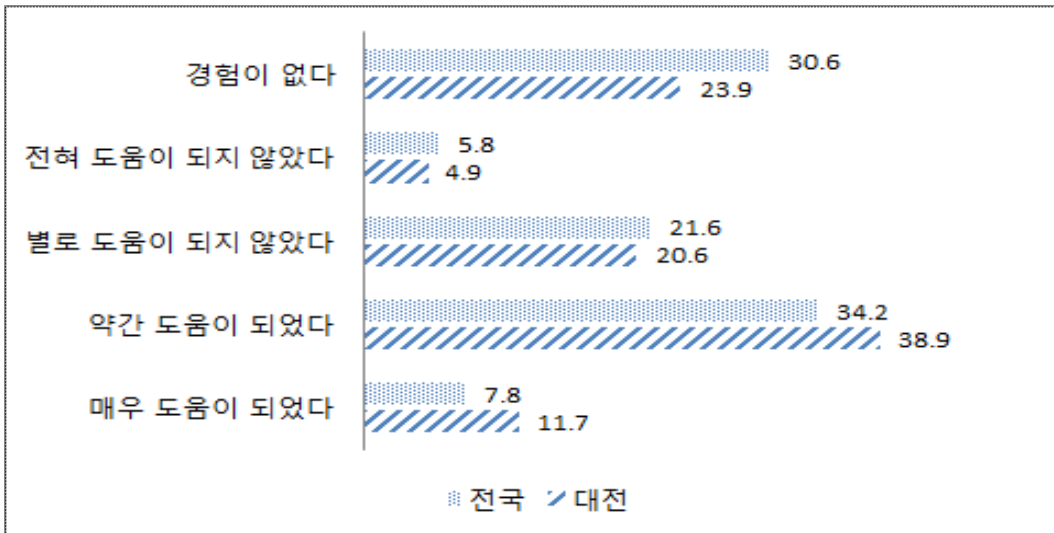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학생(79.3%)이 남학생(72.8%)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여학생(51.5%)이 남학생(49.4%)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고등학생(78.5%)이 중학생(74.3%)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고등학생(51.3%)이 중학생(50.0%)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동구(78.9%)와 중구(78.0%)가 교육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동구(56.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7-4> 현장학습이나 견학의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경험이 없다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국		30.6	5.8	21.6	34.2	7.8
대전		23.9	4.9	20.6	38.9	11.7
성별	남자	27.2	4.8	18.5	36.7	12.7
	여자	20.7	5.0	22.8	40.9	10.6
학교급	중학교	25.7	3.7	20.6	38.1	11.9
	고등학교	21.5	6.5	20.7	40.0	11.3
구	동구	21.1	2.2	20.0	41.6	15.1
	중구	22.0	6.7	18.9	42.7	9.8
	서구	24.5	3.7	19.1	40.4	12.2
	유성구	25.8	6.6	22.9	33.6	11.1
	대덕구	25.0	6.3	23.4	36.7	8.6

[그림 3-7-4] 현장학습이나 견학의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3) 상담교사 상담

상담교사의 상담 중심 진로교육을 살펴본 결과는 <표 3-7-5>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인 66.7%는 상담교사의 상담 중심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교사의 상담 중심 진로교육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5.0%(매우 9.3%+약간 35.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전국 조사결과에서 상담교사의 상담 중심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67.0%)와 거의 비슷하며, 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40.3%(매우 6.9%+약간 33.4%)보다는 4.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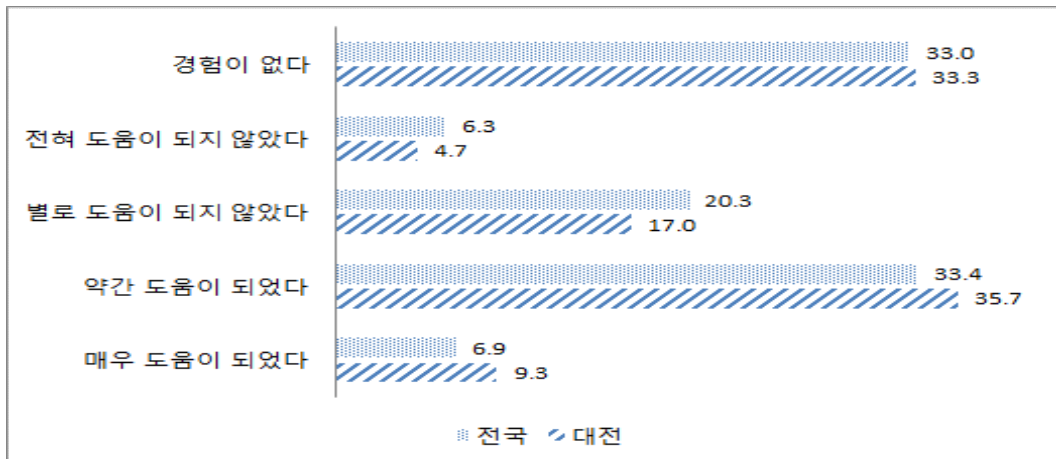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상담교사의 상담 중심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학생(67.3%)이 남학생(66.1%)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남학생(46.0%)이 여학생(43.9%)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고등학생(69.4%)이 중학생(64.8%)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고등학생(46.2%)이 중학생(44.1%)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대덕구(71.1%)가 가장 높은 반면, 유성구(63.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동구(49.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7-5〉 상담교사의 상담 중심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경험이 없다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국		33.0	6.3	20.3	33.4	6.9
대전		33.3	4.7	17.0	35.7	9.3
성별	남자	33.9	4.2	15.9	34.8	11.2
	여자	32.7	5.3	18.1	36.4	7.5
학교급	중학교	35.2	4.0	16.6	34.3	9.8
	고등학교	30.6	5.7	17.5	37.6	8.6
구	동구	33.5	4.3	13.0	36.2	13.0
	중구	32.9	7.5	15.5	35.4	8.7
	서구	32.7	2.7	19.3	37.0	8.3
	유성구	36.2	5.2	15.9	34.7	8.1
	대덕구	28.9	7.0	20.3	33.6	10.2

〔그림 3-7-5〕 상담선생님의 상담 중심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4) 진로관련 검사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을 살펴본 결과는 <표 3-7-6>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0.8%는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또한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54.7%(매우 12.6%+약간 42.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80.8%)와 동일하며, 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48.9%(매우 8.4%+약간 40.5%)보다는 5.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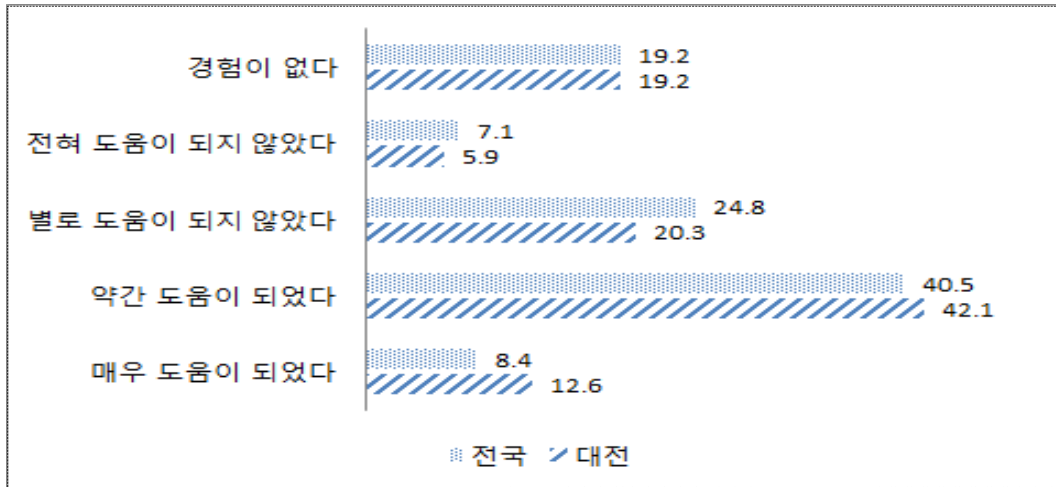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학생(86.3%)이 남학생(75.3%)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여학생(59.7%)이 남학생(49.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고등학생(85.1%)이 중학생(77.7%)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고등학생(55.6%)이 중학생(53.9%)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중구(84.7%)와 동구(84.3%)가 많은 반면, 대덕구(75.0%)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중구(59.5%)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46.1%)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6〉 진로관련 검사의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경험이 없다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국		19.2	7.1	24.8	40.5	8.4
대전		19.2	5.9	20.3	42.1	12.6
성별	남자	24.7	5.6	20.3	37.3	12.2
	여자	13.7	6.2	20.4	46.7	13.0
학교급	중학교	22.3	5.0	18.8	39.8	14.1
	고등학교	14.9	7.1	22.4	45.1	10.5
구	동구	15.7	5.9	19.5	43.8	15.1
	중구	15.3	9.8	15.3	47.2	12.3
	서구	19.7	3.5	22.7	42.9	11.2
	유성구	20.3	7.7	18.5	40.2	13.3
	대덕구	25.0	3.9	25.0	34.4	11.7

[그림 3-7-6] 진로관련 검사의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5) 인터넷 또는 동영상 교육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을 살펴본 결과는 <표 3-7-7>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7명 이상인 71.2%는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8.7%(매우 7.9%+약간 30.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63.7%)보다 7.5%p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27.5%(매우 4.1%+약간 23.4%)보다 11.2%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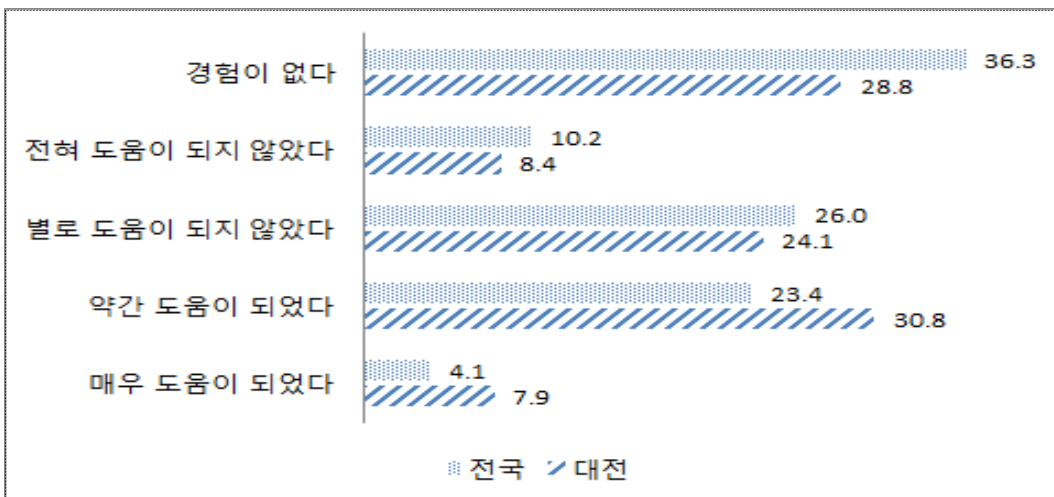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학생(74.7%)이 남학생(67.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남학생(40.1%)이 여학생(37.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고등학생(73.8%)이 중학생(69.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중학생(41.2%)이 고등학생(35.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중구(73.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동구(44.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7-7〉 인터넷 또는 동영상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경험이 없다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국		36.3	10.2	26.0	23.4	4.1
대전		28.8	8.4	24.1	30.8	7.9
성별	남자	32.4	6.5	21.0	30.4	9.7
	여자	25.3	10.3	27.1	31.2	6.2
학교급	중학교	30.7	4.7	23.4	32.1	9.1
	고등학교	26.2	13.4	24.9	29.1	6.3
구	동구	30.8	7.0	17.8	34.1	10.3
	중구	26.4	12.3	24.5	28.2	8.6
	서구	28.7	6.4	26.3	31.6	6.9
	유성구	27.8	10.7	24.1	30.7	6.7
	대덕구	31.3	6.3	25.8	27.3	9.4

[그림 3-7-7] 인터넷 또는 동영상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6) 소집단·동아리

소집단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을 살펴본 결과는 <표 3-7-8>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인 66.6%는 소집단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집단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2.5%(매우 9.6%+약간 32.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소집단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 (57.6%)보다는 9.0%p 높은 편이며, 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30.8%(매우 4.8%+약간 26.0%)보다는 11.7%p 높게 나타났다.

<표 3-7-8> 소집단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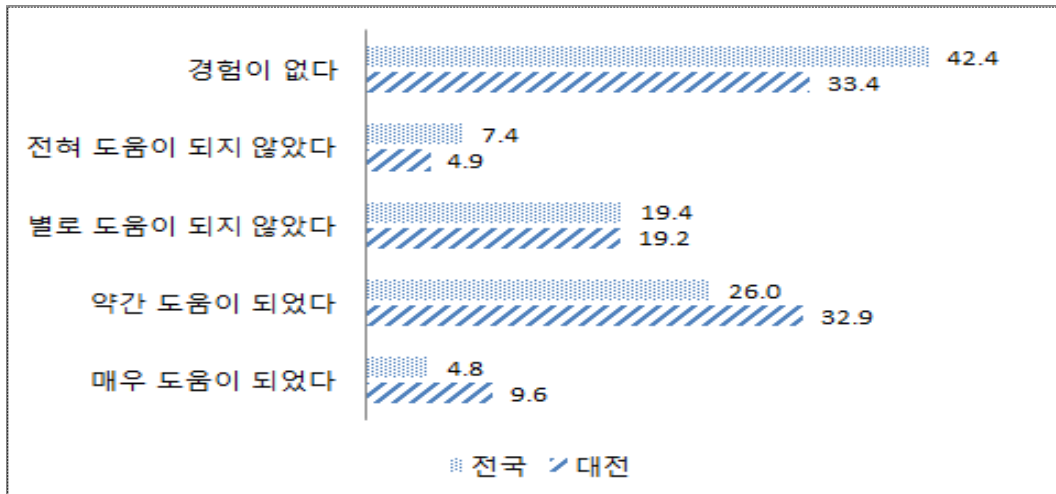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경험이 없다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국		42.4	7.4	19.4	26.0	4.8
대전		33.4	4.9	19.2	32.9	9.6
성별	남자	37.2	4.3	18.3	29.7	10.4
	여자	29.6	5.5	20.0	36.0	8.9
학교급	중학교	35.7	3.7	19.7	30.9	10.1
	고등학교	30.3	6.5	18.5	35.7	9.0
구	동구	33.5	4.9	14.6	31.9	15.1
	중구	31.9	8.0	18.4	31.9	9.8
	서구	33.9	3.2	20.0	35.2	7.7
	유성구	32.6	5.9	20.7	31.5	9.3
	대덕구	35.2	3.9	21.1	32.0	7.8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소집단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학생(70.4%)이 남학생(62.8%)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여학생(44.9%)이 남학생(40.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고등학생(69.7%)이 중학생(64.3%)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고등학생(44.7%)이 중학생(41.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중구(68.1%)가 가장 많은 반면, 대덕구(64.8%)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동구(47.0%)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덕구(39.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8] 소집단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7) 저명인사나 선배 초청강연

저명인사나 선배 초청강연을 통한 진로교육을 살펴본 결과는 <표 3-7-9>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인 65.3%는 저명인사나 선배 초청강연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명인사나 선배 초청강연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2.5%(매우 10.3%+약간 32.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저명인사나 선배 초청강연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65.8%)와는 거의 비슷하였고, 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39.9%(매우 7.9%+약간 32.0%)보다는 2.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저명인사나 선배 초청강연을 통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학생(68.3%)이 남학생(62.3%)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여학생(43.6%)이 남학생(41.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고등학생(73.3%)이 중학생(59.5%)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고등학생(49.7%)이 중학생(37.1%)보다 많은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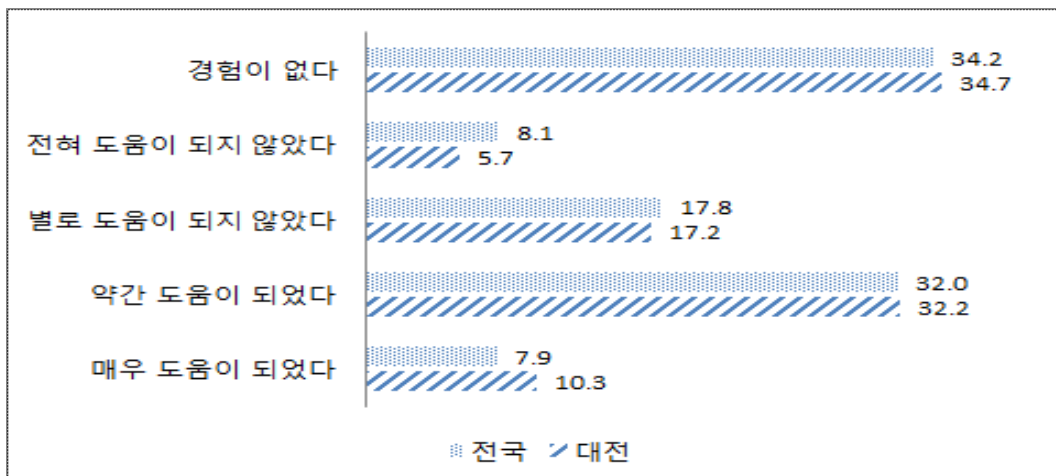
타났다. 구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중구(71.8%)와 동구(71.0%)가 많은 반면, 대덕구(57.0%)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동구(50.3%)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덕구(33.6%)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9〉 초청강연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경험이 없다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국		34.2	8.1	17.8	32.0	7.9
대전		34.7	5.7	17.2	32.2	10.3
성별	남자	37.7	5.2	15.9	30.7	10.5
	여자	31.7	6.2	18.4	33.5	10.1
학교급	중학교	40.5	4.2	18.2	27.8	9.3
	고등학교	26.7	7.8	15.8	38.1	11.6
구	동구	29.0	3.3	17.5	38.8	11.5
	중구	28.2	12.3	12.3	38.0	9.2
	서구	37.1	4.3	16.8	31.7	10.1
	유성구	35.2	6.7	18.9	29.6	9.6
	대덕구	43.0	3.1	20.3	21.9	11.7

[그림 3-7-9] 초청강연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8)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을 살펴본 결과는 <표 3-7-10>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인 66.7%는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4.4%(매우 9.0%+약간 35.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62.9%)보다는 3.8%p 높고, 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35.0%(매우 5.4%+약간 29.6%)보다도 9.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10〉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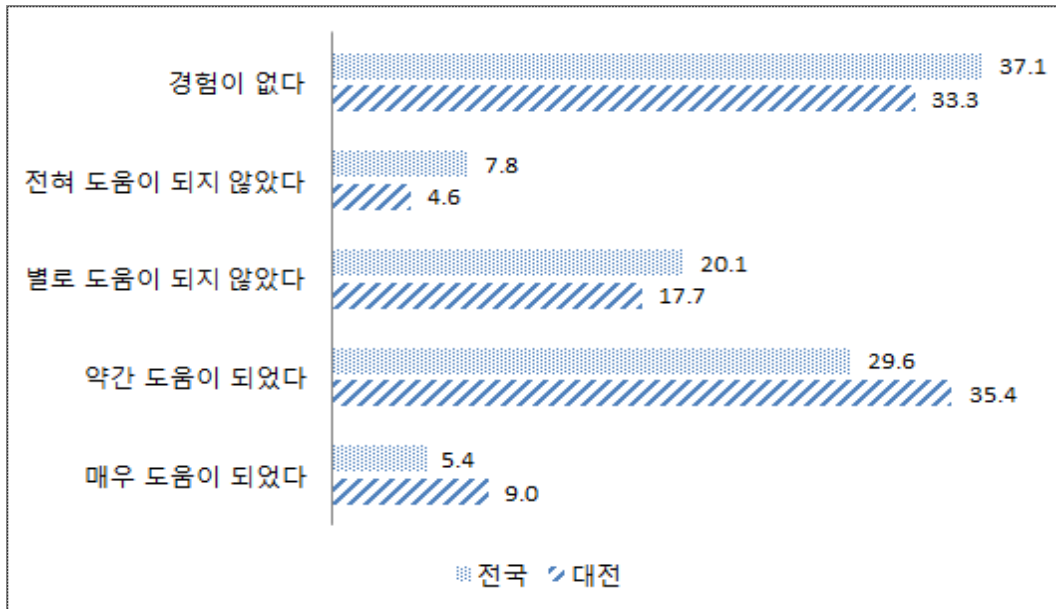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경험이 없다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국		37.1	7.8	20.1	29.6	5.4
대전		33.3	4.6	17.7	35.4	9.0
성별	남자	37.1	4.0	16.2	33.5	9.2
	여자	29.6	5.2	19.3	37.1	8.9
학교급	중학교	36.9	4.2	17.7	32.3	8.9
	고등학교	28.5	5.1	17.7	39.5	9.3
구	동구	30.8	4.9	9.7	42.7	11.9
	중구	26.1	6.2	15.5	44.7	7.5
	서구	35.5	2.9	20.3	33.1	8.3
	유성구	34.2	5.6	21.2	30.5	8.6
	대덕구	37.8	4.7	17.3	29.9	10.2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학생(70.4%)이 남학생(62.9%)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여학생(46.0%)이 남학생(42.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고등학생(71.5%)이 중학생(63.1%)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고등학생(48.8%)이 중학생(41.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중구(73.9%)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62.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매우+약간)은 동구(54.6%)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유성구(39.1%)와 대덕구(40.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10]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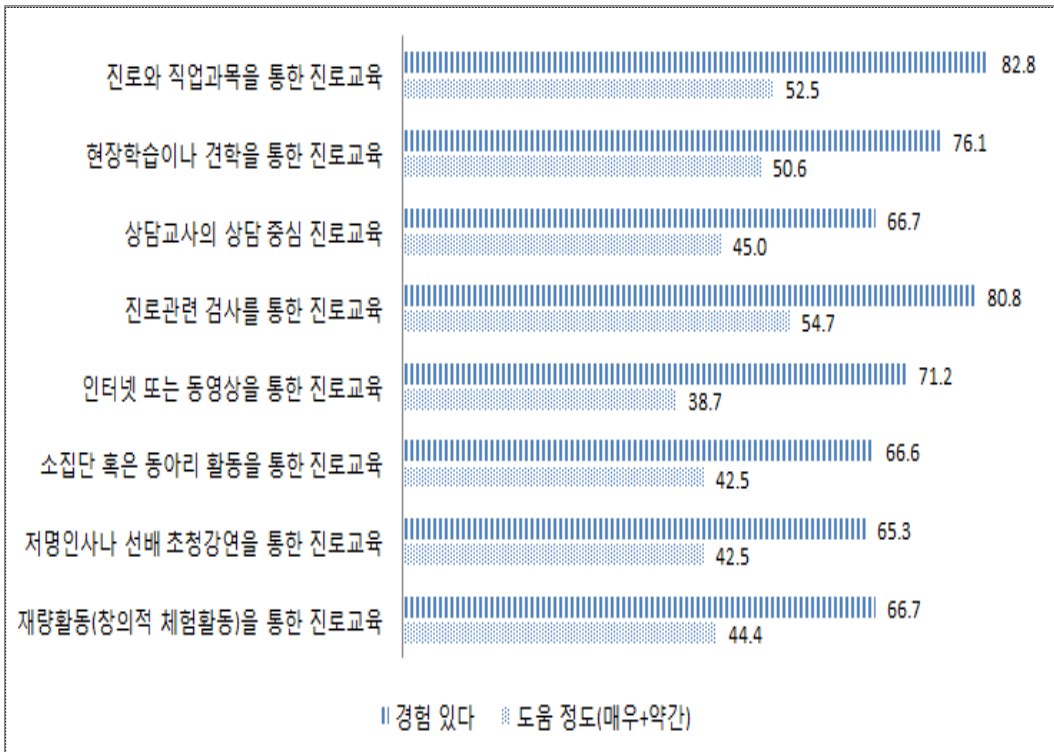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학교나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들이 8개의 영역에서 진로교육 경험과 그 경험의 도움 정도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3-7-11>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진로와 직업과목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82.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80.8%),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76.1%), 인터넷 또는 동영상 을 통한 진로교육(7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대부분의 진로교육 영역에서 4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은 38.7%로 상대적으로 도움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또는 동영상 교육이 다른 진로교육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교육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7-11〉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종합)

(단위: %)

구분	경험 있다	도움 정도(매우+약간)
진로와 직업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82.8	52.5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76.1	50.6
상담교사의 상담 중심 진로교육	66.7	45.0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	80.8	54.7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71.2	38.7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66.6	42.5
저명인사나 선배 초청강연을 통한 진로교육	65.3	42.5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66.7	44.4

[그림 3-7-11]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종합)



4.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

1) 진로박람회

진로교육은 간접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체험 중심의 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진로체험은 진로교육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진로설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조사에서는 진로체험 경험을 진로박람회, 청소년수련관 등에서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산업체의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 대학 견학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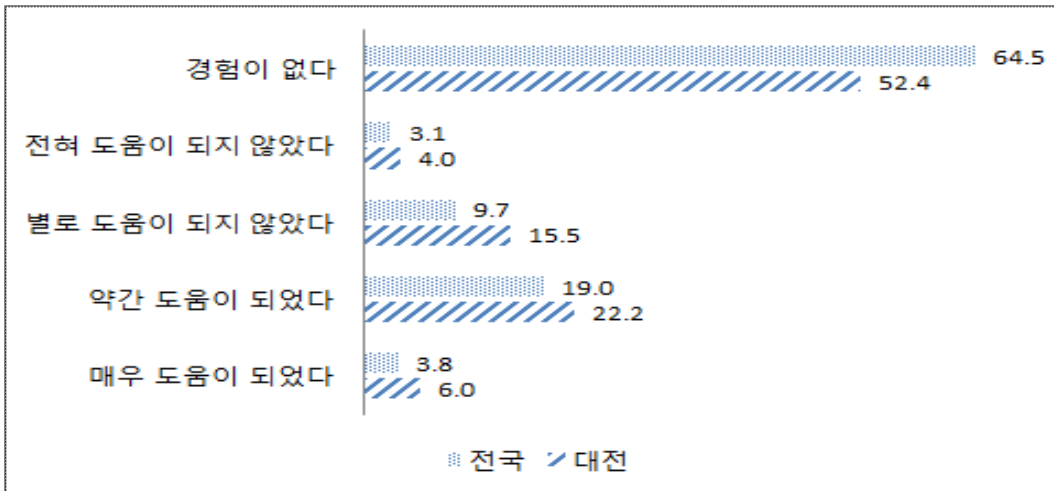
우선 진로박람회 참여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7-12>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4명 이상인 47.6%는 진로박람회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박람회 참여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28.2%(매우 6.0%+약간 22.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진로박람회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35.5%)보다는 12.1%p 높게 나왔고, 참여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22.8%(매우 3.8%+약간 19.0%)보다도 5.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12> 진로박람회의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경험이 없다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국		64.5	3.1	9.7	19.0	3.8
대전		52.4	4.0	15.5	22.2	6.0
성별	남자	52.3	3.6	15.6	21.4	7.0
	여자	52.5	4.4	15.3	22.8	5.0
학교급	중학교	53.2	3.6	17.0	20.2	6.1
	고등학교	51.3	4.6	13.4	24.8	5.9
구	동구	52.4	4.3	11.9	21.6	9.7
	중구	54.0	6.7	9.2	23.9	6.1
	서구	52.5	3.7	16.8	22.4	4.5
	유성구	50.2	3.3	18.6	23.0	4.8
	대덕구	54.3	2.4	18.1	18.1	7.1

[그림 3-7-12] 진로박람회의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진로박람회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학생(47.7%)과 여학생(47.5%)이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남학생(28.4%)과 여학생(27.8%)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고등학생(48.7%)이 중학생(46.8%)보다 약간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매우+약간)도 고등학생(30.7%)이 중학생(26.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유성구(49.8%)가 가장 많은 반면, 대덕구(45.7%)와 중구(46.0%)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동구(31.3%)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25.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수련관(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7-13>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5명 이상인 51.7%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0.7%(매우 6.5%+약간 24.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38.0%)보다는 13.7%p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21.1%(매우 3.4%+약간 17.7%)보다도 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52.0%)과 여학생(51.4%)은 거의 비슷하였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남학생(33.1%)이 여학생(28.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고등학생(52.4%)이 중학생(51.2%)보다 약간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고등학생(32.0%)이 중학생(29.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동구(53.5%)가 가장 높은 반면, 유성구(47.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동구(34.1%)가 가장 높은 반면, 유성구(25.3%)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13〉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경험이 없다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국		62.0	4.2	12.7	17.7	3.4
대전		48.3	5.1	15.9	24.2	6.5
성별	남자	48.0	3.4	15.5	25.3	7.8
	여자	48.6	6.8	16.4	23.0	5.3
학교급	중학교	48.8	3.9	17.6	22.3	7.5
	고등학교	47.6	6.7	13.7	26.7	5.3
구	동구	46.5	6.5	13.0	23.8	10.3
	중구	46.9	7.4	14.2	24.1	7.4
	서구	46.7	5.1	15.2	27.7	5.3
	유성구	52.6	3.7	18.3	20.1	5.2
	대덕구	48.0	3.1	19.7	22.8	6.3

[그림 3-7-13]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도움 정도



3)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7-14>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4명 정도인 41.1%는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24.1%(매우 5.3%+약간 18.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26.8%)보다는 14.3%p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16.8%(매우 3.1%+약간 13.7%)보다도 7.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학생(42.9%)이 여학생(39.3%)보다 약간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남학생(27.3%)이 여학생(20.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중학생(41.9%)이 고등학생(40.0%)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고등학생(25.0%)이 중학생(23.4%)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대덕구(44.1%)가 가장 높은 반면, 서구(39.5%)와 유성구(39.6%)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동구(29.7%)가 가장 높은 반면, 유성구(20.9%)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14〉 산업체의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경험이 없다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국		73.2	2.7	7.3	13.7	3.1
대전		58.9	3.6	13.4	18.8	5.3
성별	남자	57.1	3.3	12.3	21.0	6.3
	여자	60.7	3.9	14.6	16.5	4.3
학교급	중학교	58.1	3.3	15.3	17.8	5.6
	고등학교	60.0	4.0	10.9	20.2	4.8
구	동구	56.8	3.2	10.3	22.7	7.0
	중구	57.4	6.2	11.1	18.5	6.8
	서구	60.5	3.2	12.5	19.5	4.3
	유성구	60.4	3.4	15.3	16.4	4.5
	대덕구	55.9	2.4	19.7	16.5	5.5

[그림 3-7-14] 산업체의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도움 정도



4) 대학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7-15>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4명 이상인 45.3%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0.6%(매우 8.0%+약간 22.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36.7%)보다는 8.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25.4%(매우 6.9%+약간 18.5%)보다도 5.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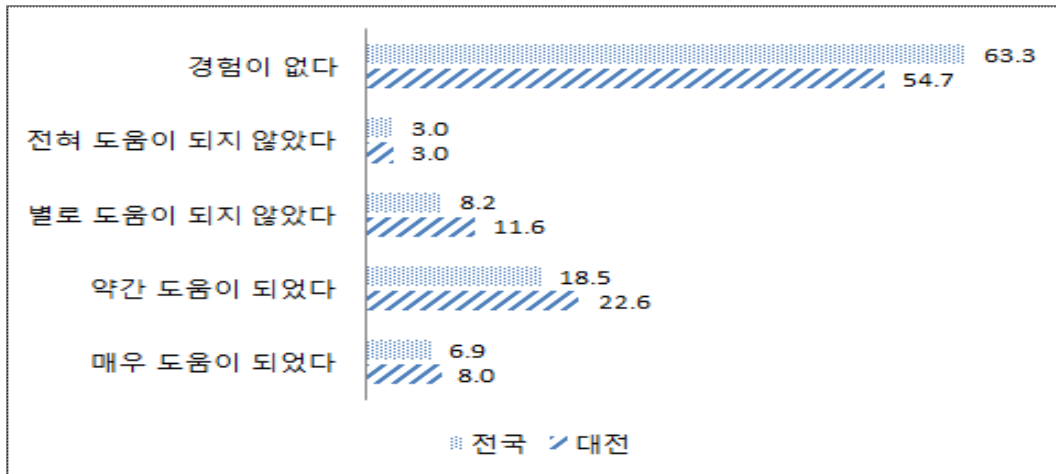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학생(47.3%)이 남학생(43.1%)보다 약간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여학생(30.9%)이 남학생(30.1%)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고등학생(50.3%)이 중학생(41.5%)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도 고등학생(36.0%)이 중학생(26.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중구(50.3%)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41.7%)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매우+약간)은 중구(35.0%)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24.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15〉 대학 실시 견학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경험이 없다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국		63.3	3.0	8.2	18.5	6.9
대전		54.7	3.0	11.6	22.6	8.0
성별	남자	56.9	2.5	10.5	22.7	7.4
	여자	52.7	3.6	12.8	22.4	8.5
학교급	중학교	58.5	2.5	12.4	20.4	6.2
	고등학교	49.7	3.8	10.5	25.7	10.3
구	동구	55.4	3.3	8.2	24.5	8.7
	중구	49.7	5.5	9.8	26.4	8.6
	서구	56.5	1.9	10.1	23.5	8.0
	유성구	53.2	3.7	15.2	20.8	7.1
	대덕구	58.3	1.6	15.7	16.5	7.9

[그림 3-7-15] 대학 실시 견학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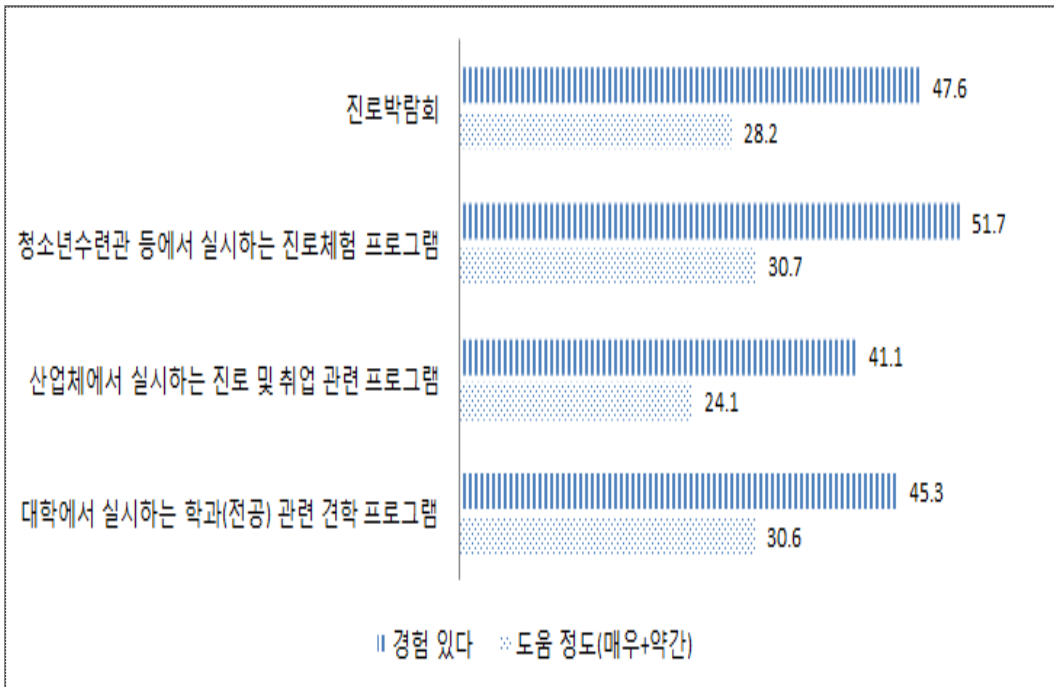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진로교육은 간접적인 경험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전 학생청소년들이 4개의 영역에서 진로체험 경험과 그 경험의 도움 정도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3-7-16>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51.7%)에 참여한 경험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진로박람회(47.6%),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 관련 견학 프로그램(45.3%),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4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 3-7-13>의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정도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참여 경험과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회성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해서 체험하는 질 높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시점으로 추정된다.

<표 3-7-16>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종합)

(단위: %)

구분	경험 있다	도움 정도(매우+약간)
진로박람회	47.6	28.2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51.7	30.7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41.1	24.1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견학 프로그램	45.3	30.6

[그림 3-7-16]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종합)



5. 장래 희망직업

장래 희망직업을 결정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7-17>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인 65.4%는 자신의 장래 희망직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자신의 희망직업을 결정한 청소년(61.2%)보다는 4.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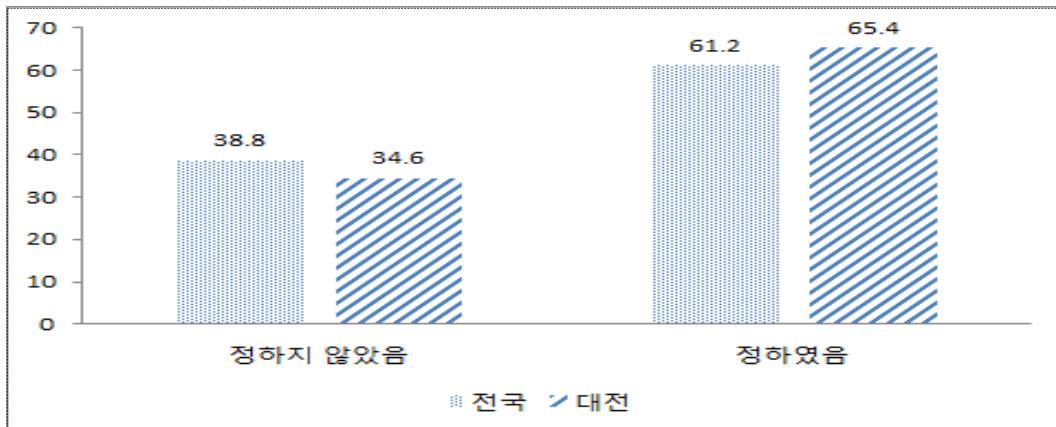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장래 희망직업을 결정한 경우는 여학생(67.3%)이 남학생(63.5%)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장래 희망직업에 대해 더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앞서 진로교육의 경험 및 도움 정도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68.6%)이 중학생(62.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장래 희망직업을 결정한 경우는 서구(68.3%)와 동구(67.9%)가 높은 반면, 대덕구(58.9%)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17〉 장래희망 직업 결정 여부

(단위: %)

구분		정하지 않았음	정하였음
전국		38.8	61.2
대전		34.6	65.4
성별	남자	36.5	63.5
	여자	32.7	67.3
학교급	중학교	37.1	62.9
	고등학교	31.4	68.6
구	동구	32.1	67.9
	중구	33.3	66.7
	서구	31.7	68.3
	유성구	38.2	61.8
	대덕구	41.1	58.9

[그림 3-7-17] 장래희망 직업 결정 여부



6.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들이 직접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이런 경험이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예기 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의 측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아르바이트는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인 측면에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7-18>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6.2%는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31.2%p보다는 15.0%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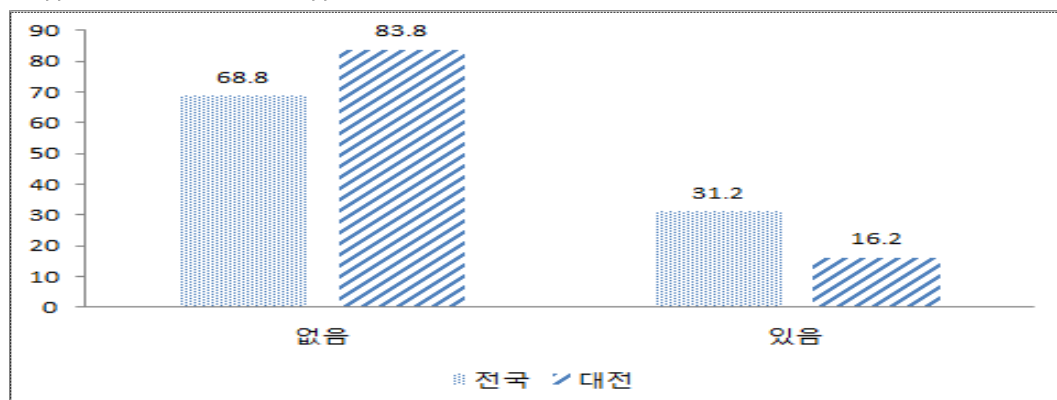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는 남학생(20.6%)이 여학생(11.9%)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24.7%)이 중학생(9.9%)보다 경험 정도가 2배 이상이나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별로 보면, 대덕구(26.4%)가 가장 높은 반면 서구(11.7%)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18>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

구분		없음	있음
전국		68.8	31.2
대전		83.8	16.2
성별	남자	79.4	20.6
	여자	88.1	11.9
학교급	중학교	90.1	9.9
	고등학교	75.3	24.7
구	동구	84.9	15.1
	중구	82.8	17.2
	서구	88.3	11.7
	유성구	82.3	17.7
	대덕구	73.6	26.4

[그림 3-7-18] 아르바이트 경험



제8절 인권 및 인생관

본 절에서는 학생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차별 경험률, 인권 태도, 인생관을 확인하였다. 각 영역별로 대전 학생청소년의 인권 및 인생관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전국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인권 및 인생관을 성별, 학교급, 구별로 분석함으로써, 대전지역 학생청소년의 인권 및 인생관에 대한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 표현, 차별금지, 평등 등 4가지 영역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인권의식 중에서 참여를 살펴본 결과는 <표 3-8-1>과 같다.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정도인 80.3%(매우 23.7%+약간 56.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83.3%(매우 25.9%+약간 57.4%)보다는 3.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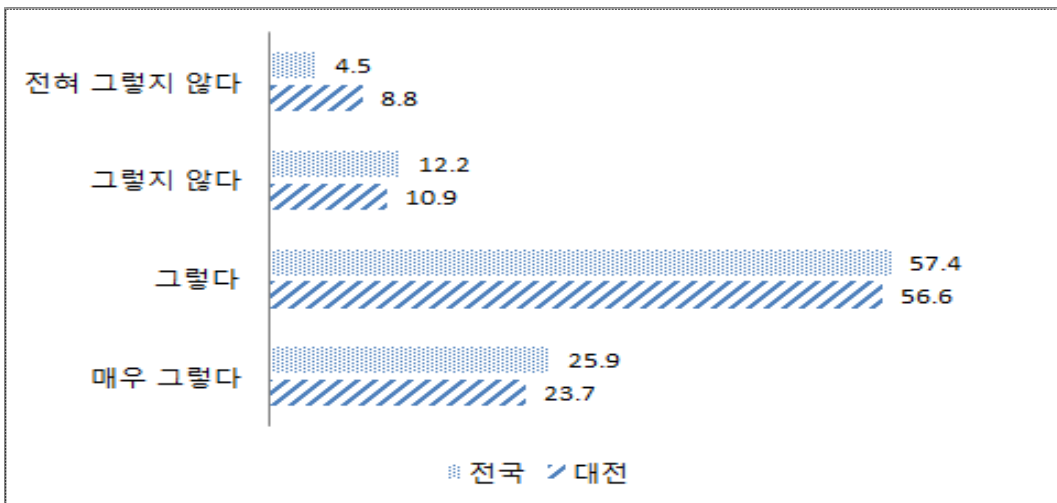
<표 3-8-1> 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4.5	12.2	57.4	25.9
대전		8.8	10.9	56.6	23.7
성별	남자	13.1	14.5	51.3	21.0
	여자	4.6	7.3	61.6	26.5
학교급	중학교	10.7	12.9	56.1	20.3
	고등학교	6.3	8.2	57.2	28.3
구	동구	3.8	8.2	57.9	30.1
	중구	9.8	9.8	53.7	26.8
	서구	10.9	9.6	58.0	21.5
	유성구	7.8	11.5	56.1	24.5
	대덕구	10.9	18.6	55.0	15.5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여학생(88.1%)이 남학생(72.3%)보다, 고등학생(85.5%)이 중학생(76.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구(88.0%)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70.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1] 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인권 의식 중에서 표현을 살펴본 결과는 <표 3-8-2>와 같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9명 이상인 93.2%(매우 46.8%+약간 46.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93.4%(매우 49.5%+약간 43.9%)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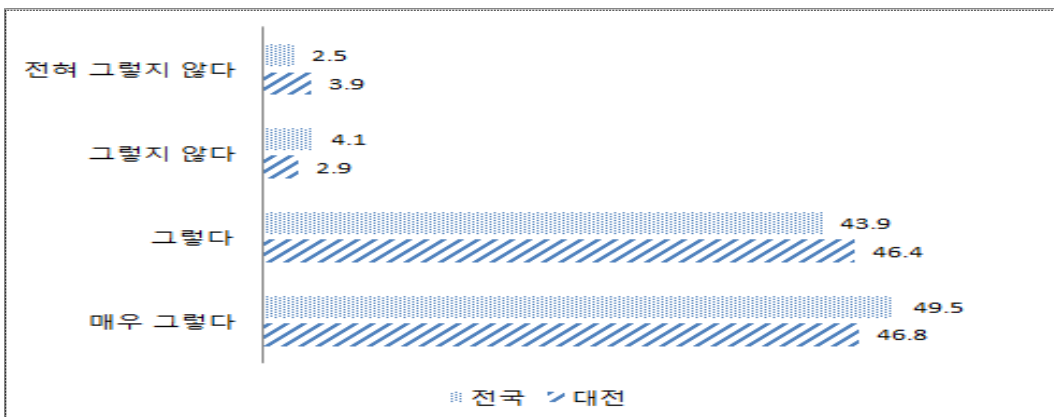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96.8%)이 남학생(89.6%)보다, 고등학생(94.8%)이 중학생(92.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구(96.2%)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87.6%)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2〉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2.5	4.1	43.9	49.5
대전		3.9	2.9	46.4	46.8
성별	남자	6.1	4.3	47.4	42.2
	여자	1.8	1.4	45.3	51.5
학교급	중학교	4.7	3.3	48.9	43.2
	고등학교	2.9	2.3	43.0	51.8
구	동구	1.6	2.2	43.2	53.0
	중구	4.9	1.8	43.9	49.4
	서구	4.0	2.1	49.2	44.7
	유성구	3.7	3.3	45.4	47.6
	대덕구	6.2	6.2	48.1	39.5

〔그림 3-8-2〕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인권 의식 중에서 차별금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8-3〉과 같다.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9명 이상인 94.9%(매우 53.0% + 약간 41.9%)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95.0%(매우 60.4% + 약간 34.6%)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97.0%)이 남학생(92.8%)보다, 고등학생(95.6%)이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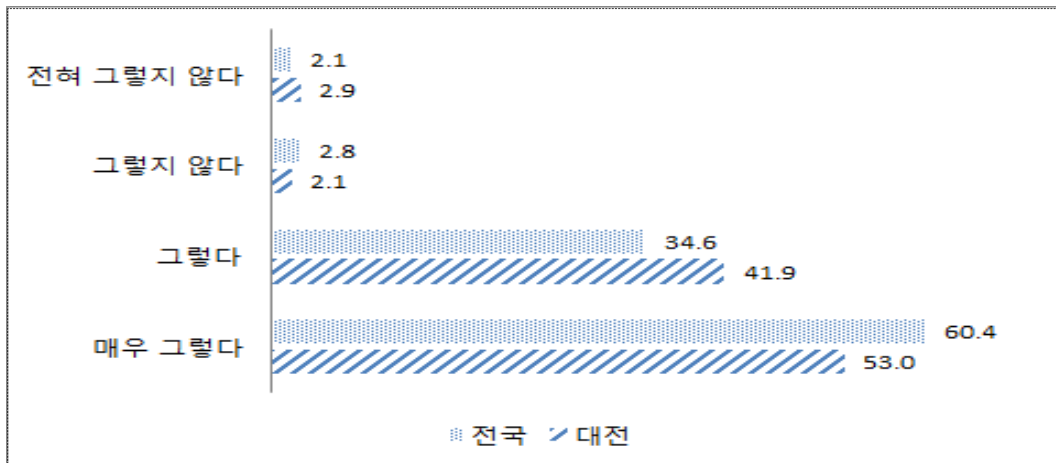
(94.4%)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구(96.2%)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90.7%)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3〉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2.1	2.8	34.6	60.4
대전		2.9	2.1	41.9	53.0
성별	남자	4.5	2.7	45.8	47.0
	여자	1.4	1.6	37.9	59.1
학교급	중학교	3.3	2.3	43.8	50.6
	고등학교	2.5	1.9	39.3	56.3
구	동구	2.7	1.1	36.1	60.1
	중구	3.0	3.0	39.6	54.3
	서구	2.9	1.3	45.6	50.1
	유성구	2.6	1.9	42.0	53.5
	대덕구	3.9	5.4	41.9	48.8

[그림 3-8-3]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인권 의식 중에서 평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8-4>와 같다.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9명 이상인 93.1%(매우 52.0%+약간 41.1%)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

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93.5%(매우 59.0%+약간 34.5%)와 거의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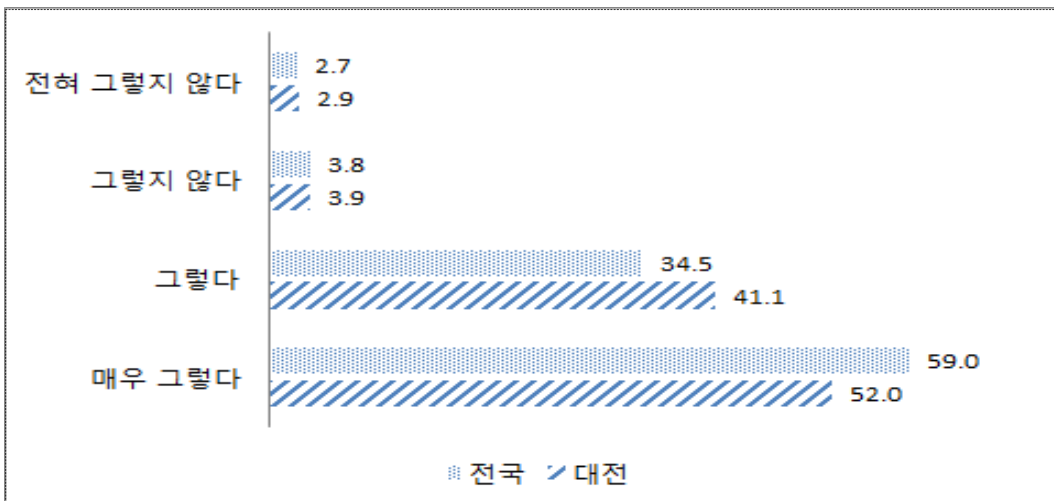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96.4%)이 남학생(89.7%)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93.2%)과 고등학생(93.1%)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구(95.1%)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89.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2.7	3.8	34.5	59.0
대전		2.9	3.9	41.1	52.0
성별	남자	5.0	5.2	42.7	47.0
	여자	0.9	2.7	39.4	57.0
학교급	중학교	3.1	3.7	42.3	50.9
	고등학교	2.7	4.2	39.5	53.6
구	동구	1.6	3.3	37.2	57.9
	중구	3.7	4.9	39.0	52.4
	서구	2.9	3.2	43.2	50.7
	유성구	3.0	3.7	43.1	50.2
	대덕구	3.9	6.3	39.1	50.8

[그림 3-8-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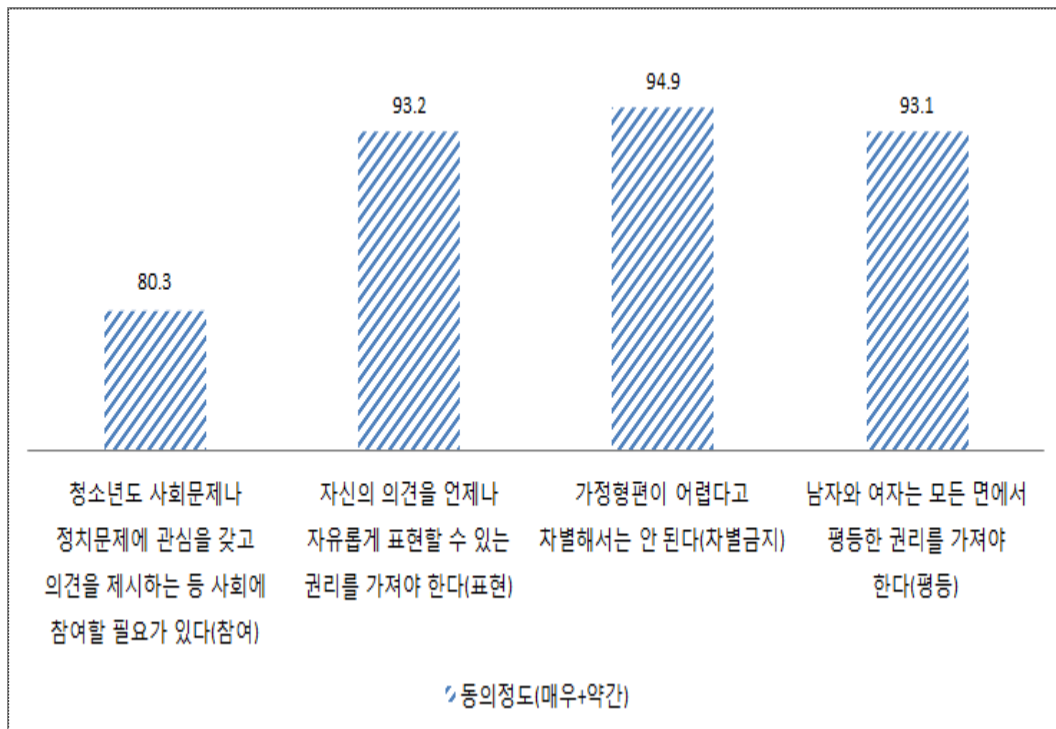
이와 같이 4개의 인권의식 영역을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3-8-5>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들은 대체로 인권의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권의식 중에서 참여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인권교육이 지속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표 3-8-5〉 인권의식(종합)

(단위: %)

구분	동의정도(매우+약간)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참여)	80.3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표현)	93.2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차별금지)	94.9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	93.1

[그림 3-8-5] 인권의식(종합)



2. 차별 경험률

1) 가해 경험

청소년들의 차별에 대한 가해와 피해 경험률을 파악하기 위해 2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성차별 가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8-6>과 같다. 최근 1년 동안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7.1%는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있다’고 응답한 26.9%보다는 9.8%p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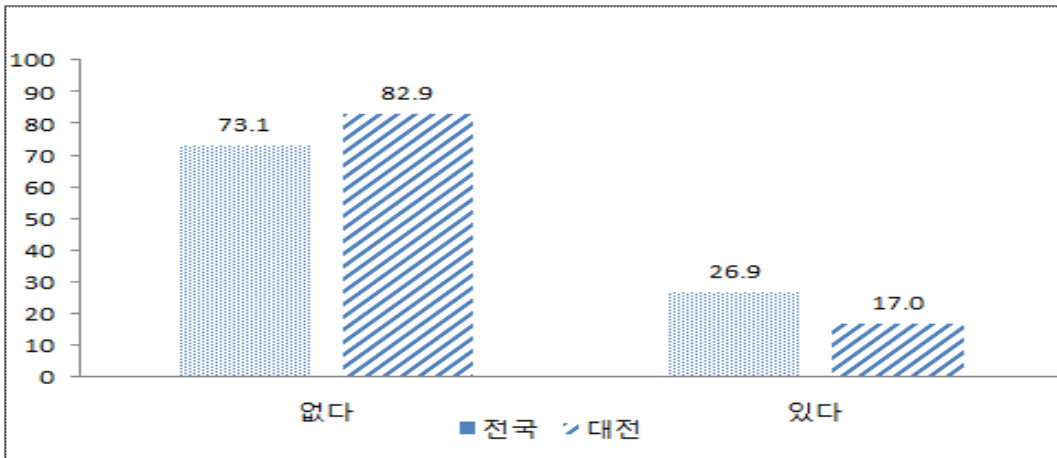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19.0%)이 남학생(15.3%)보다, 중학생(20.2%)이 고등학생(1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덕구(21.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6>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없다	차별경험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전국		73.1	18.8	5.7	1.5	0.9
대전		82.9	12.3	3.7	0.4	0.6
성별	남자	84.7	11.2	2.7	0.5	0.9
	여자	81.0	13.5	4.8	0.4	0.4
학교급	중학교	79.8	13.8	4.7	0.6	1.1
	고등학교	87.0	10.3	2.5	0.2	0.0
구	동구	80.4	14.7	3.8	0.5	0.5
	중구	84.0	14.8	1.2	0.0	0.0
	서구	84.0	9.3	5.1	0.8	0.8
	유성구	84.1	11.4	3.7	0.4	0.4
	대덕구	78.9	16.4	3.1	0.0	1.6

[그림 3-8-6]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최근 1년 동안 가정형편으로 차별 가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8-7>과 같다. 최근 1년 동안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2.8%는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있다’고 응답한 4.5%보다는 1.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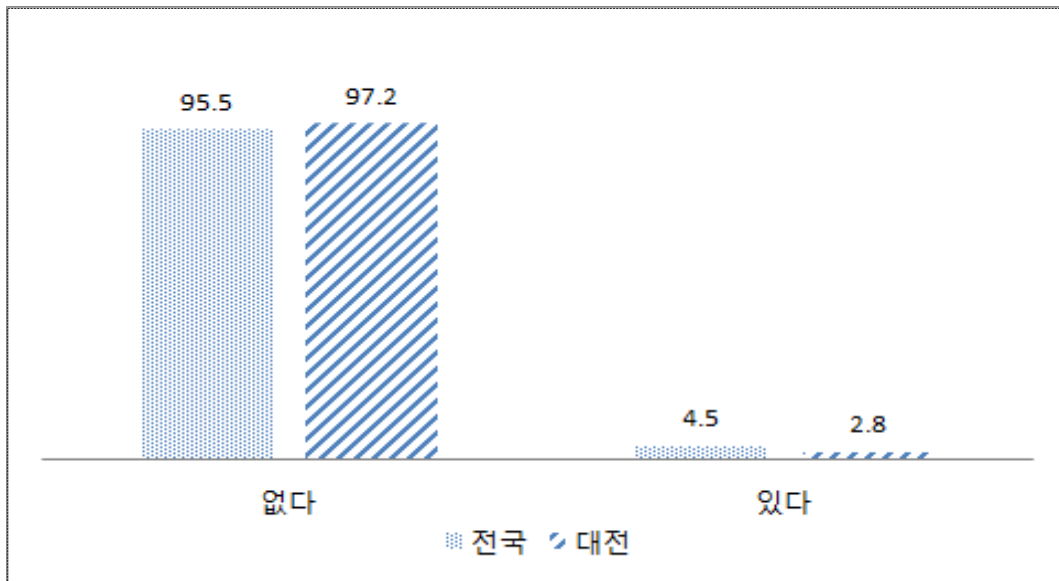
〈표 3-8-7〉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없다	차별 경험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전국		95.5	3.0	0.9	0.4	0.2
대전		97.2	2.0	0.4	-	0.4
성별	남자	97.3	1.8	0.2	-	0.7
	여자	97.2	2.1	0.7	-	-
학교급	중학교	97.0	2.0	0.3	-	0.6
	고등학교	97.5	1.9	0.6	-	-
구	동구	98.4	1.1	-	-	0.5
	중구	96.3	3.1	0.6	-	-
	서구	98.9	0.8	0.3	-	-
	유성구	96.7	2.6	0.4	-	0.4
	대덕구	93.0	3.9	1.6	-	1.6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2.7%)과 여학생(2.8%)은 거의 비슷하였고, 중학생(3.0%)이 고등학생(2.5%)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덕구(7.0%)가 가장 높은 반면, 서구(1.1%)와 동구(1.6%)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7]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 피해 경험

최근 1년 동안 성차별의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8-8>과 같다.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2명 정도인 20.4%는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있다’고 응답한 24.3%보다는 3.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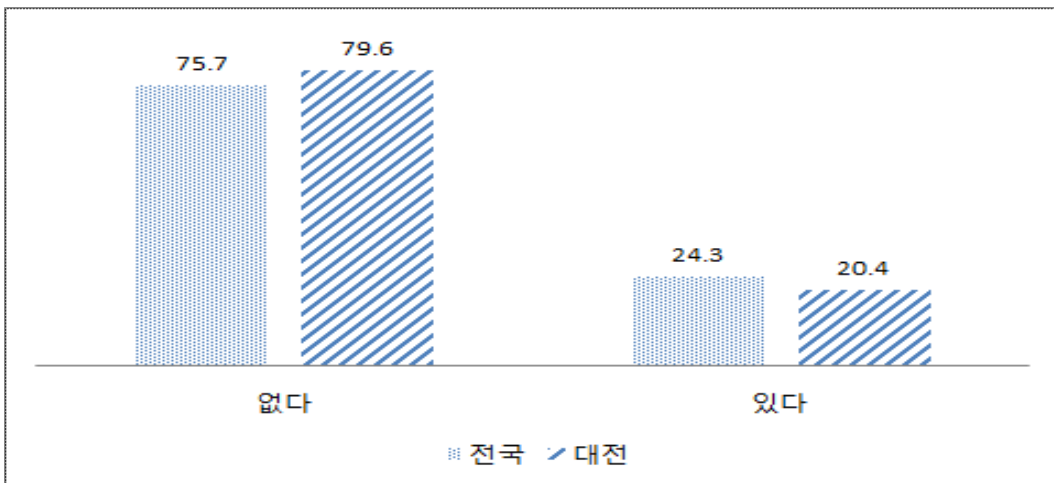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22.4%)이 남학생(18.3%)보다, 중학생(21.0%)이 고등학생(19.5%)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덕구(23.4%)와 동구(22.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8〉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단위: %)

구분		없다	차별 경험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전국		75.7	16.5	5.2	1.5	1.1
대전		79.6	13.9	4.6	0.9	1.0
성별	남자	81.7	11.7	4.3	1.1	1.3
	여자	77.6	16.0	5.0	0.7	0.7
학교급	중학교	79.0	12.4	5.9	1.1	1.6
	고등학교	80.5	15.8	2.9	0.6	0.2
구	동구	77.2	17.4	4.9	-	0.5
	중구	81.4	14.3	3.7	0.6	-
	서구	80.5	11.7	4.8	1.1	1.9
	유성구	80.4	12.5	5.5	1.1	0.4
	대덕구	76.6	17.2	3.1	1.6	1.6

[그림 3-8-8]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최근 1년 동안 가정형편으로 차별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8-9>와 같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2.8%가 ‘있다’고 응답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있다’고 응답한 3.8%보다는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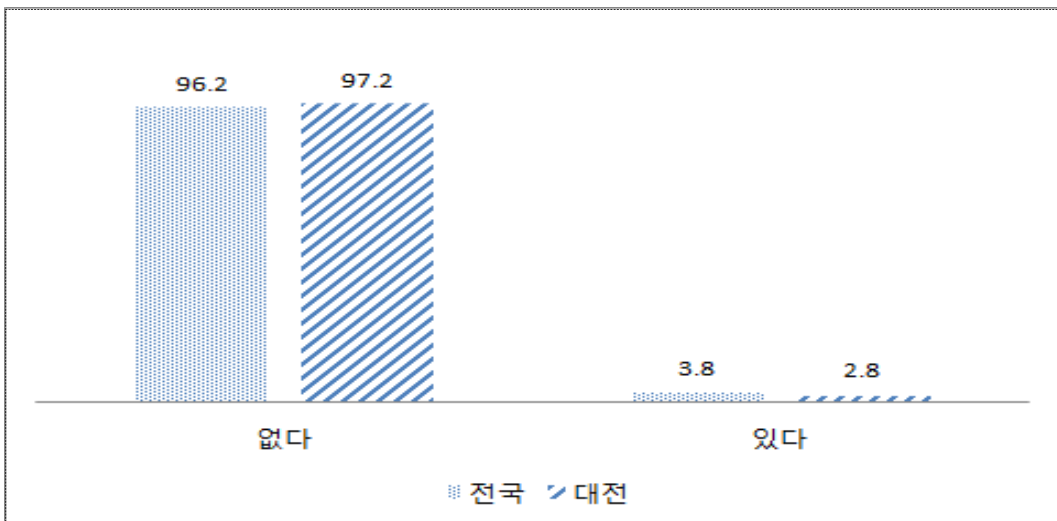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2.9%)과 여학생(2.7%), 중학생(2.3%)과 고등학생(3.4%)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대덕구(7.1%)가 가정형편으로 차별을 당한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구(0.8%)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9〉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단위: %)

구분		없다	차별 경험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전국		96.2	2.5	0.9	0.2	0.2
대전		97.2	1.9	0.4	0.1	0.4
성별	남자	97.1	1.8	0.2	0.2	0.7
	여자	97.3	2.0	0.7	-	0.0
학교급	중학교	97.7	1.1	0.5	0.2	0.6
	고등학교	96.6	2.9	0.4	-	-
구	동구	96.2	3.3	-	-	0.5
	중구	95.7	4.3	-	-	-
	서구	99.2	0.8	-	-	-
	유성구	98.2	0.7	0.7	0.4	-
	대덕구	92.9	2.4	2.4	-	2.4

[그림 3-8-9]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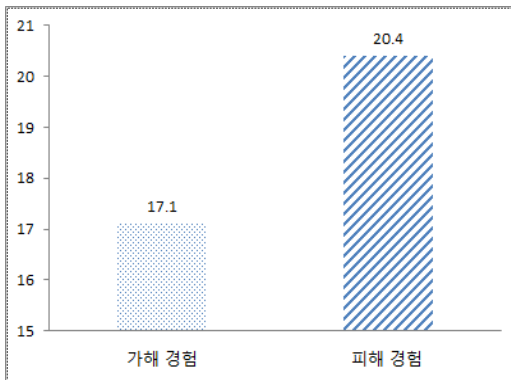
한편, 성차별과 빈부차별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을 비교한 결과는 <표 3-8-10>과 같다. 성차별은 피해 경험(20.4%)이 가해 경험(17.1%)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빈부차별은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차별에 대한 가해와 피해 경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8-10〉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성, 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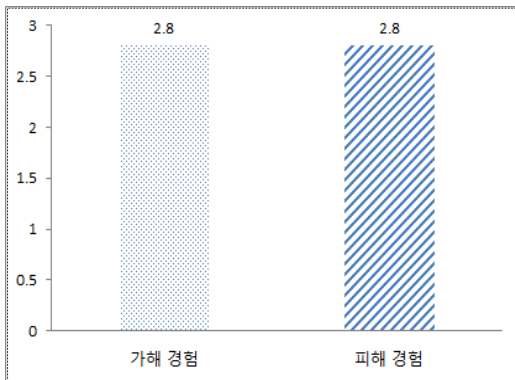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가해 경험	피해 경험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성차별)	17.1	20.4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빈부차별)	2.8	2.8

[그림 3-8-10] 성차별 경험



[그림 3-8-11] 빈부차별 경험



3. 인권 태도

청소년의 인권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먼저 “나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를 살펴본 결과는 <표 3-8-11>과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2.9%(매우 18.5%+약간 64.4%)는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76.9%(매우 19.8%+약간 57.1%)보다는 6.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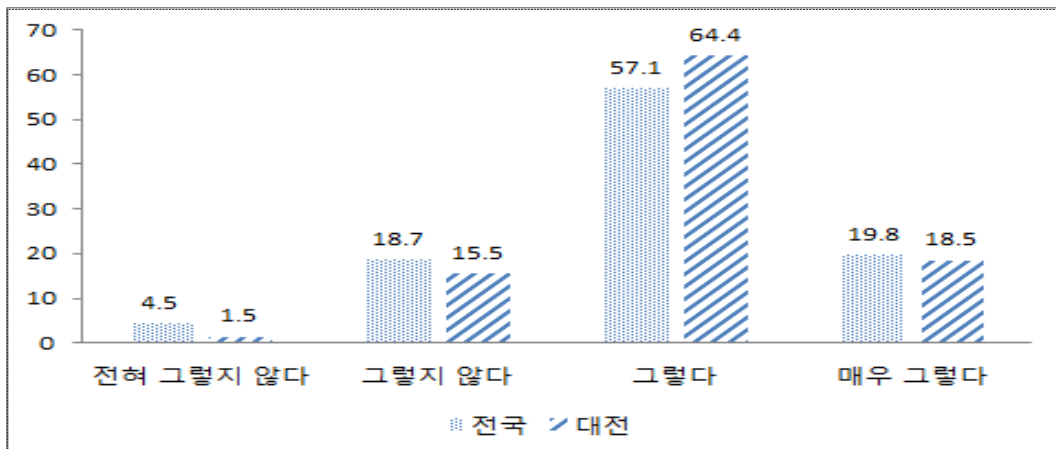
로 도울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84.5%)이 여학생(81.5%)보다, 고등학생(84.4%)이 중학생(81.8%)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거의 비슷하였지만 동구(84.7%)가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11〉 나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4.5	18.7	57.1	19.8
대전		1.5	15.5	64.4	18.5
성별	남자	1.6	13.9	65.7	18.8
	여자	1.4	17.1	63.1	18.4
학교급	중학교	1.9	16.3	62.8	19.0
	고등학교	1.0	14.6	66.5	17.9
구	동구	0.0	15.2	63.0	21.7
	중구	1.8	15.9	63.4	18.9
	서구	1.3	16.1	63.0	19.6
	유성구	1.8	15.4	66.2	16.5
	대덕구	3.1	14.0	68.2	14.7

[그림 3-8-12] 나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를 살펴본 결과는 〈표 3-8-12〉와 같다.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3.8%(매우 30.0%+약간 53.8%)

는 ‘그렇다’ (매우+약간)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87.9%(매우 33.1%+ 약간 54.8%)보다는 4.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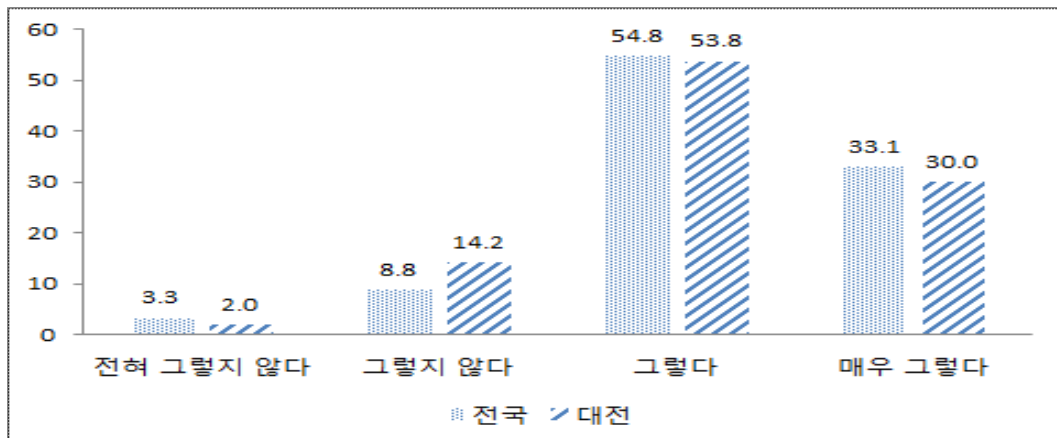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85.5%)이 남학생(82.1%)보다, 고등학생(87.3%)이 중학생(81.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동구(86.4%)와 중구(86.0%)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대덕구(81.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12〉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3.3	8.8	54.8	33.1
대전		2.0	14.2	53.8	30.0
성별	남자	1.6	16.3	54.4	27.7
	여자	2.3	12.2	53.1	32.4
학교급	중학교	1.4	17.4	53.3	27.9
	고등학교	2.7	10.0	54.4	32.9
구	동구	0.5	13.0	50.0	36.4
	중구	2.4	11.6	54.9	31.1
	서구	1.3	15.1	55.2	28.4
	유성구	2.6	15.1	53.9	28.4
	대덕구	3.9	14.7	53.5	27.9

[그림 3-8-13]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4. 인생관

1) 인생목표의 설정

인생목표의 설정 여부를 물어본 결과는 <표 3-8-13>과 같다.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7명 이상인 73.7%(매우 23.5%+약간 50.2%)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청소년가치관국제비교 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74.8%(매우 36.8%+약간 38.0%)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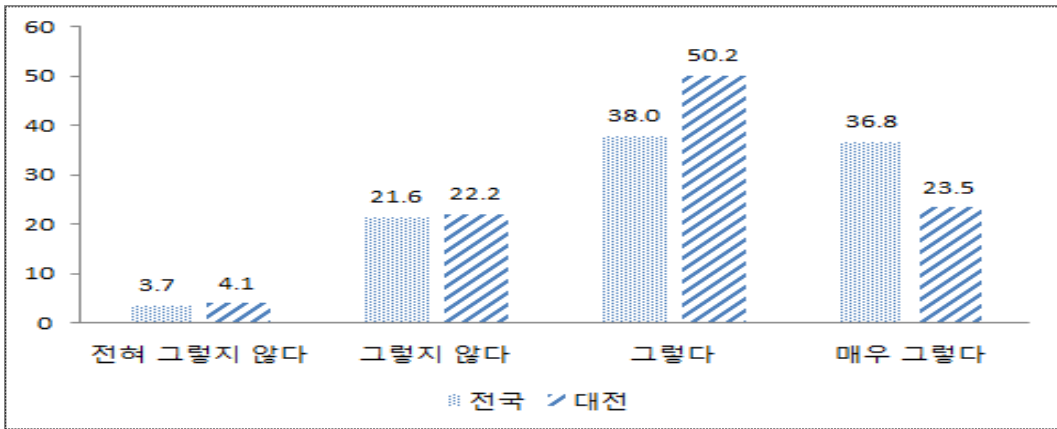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74.3%)과 여학생(73.0%), 중학생(73.8%)과 고등학생(73.6%)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중구(79.3%)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69.0%)와 유성구(69.5%)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13>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3.7	21.6	38.0	36.8
대전		4.1	22.2	50.2	23.5
성별	남자	5.7	19.9	47.9	26.4
	여자	2.5	24.5	52.3	20.7
학교급	중학교	3.7	22.5	51.6	22.2
	고등학교	4.6	21.8	48.3	25.3
구	동구	3.3	21.2	50.0	25.5
	중구	5.5	15.2	53.7	25.6
	서구	2.4	22.6	52.9	22.1
	유성구	5.2	25.3	46.1	23.4
	대덕구	6.2	24.8	46.5	22.5

[그림 3-8-14]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2) 결혼에 대한 의견

결혼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는 <표 3-8-14>와 같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인 64.5%(매우 26.6%+약간 37.9%)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청소년가치관국제비교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73.2%(매우 32.3%+약간 40.9%)보다는 8.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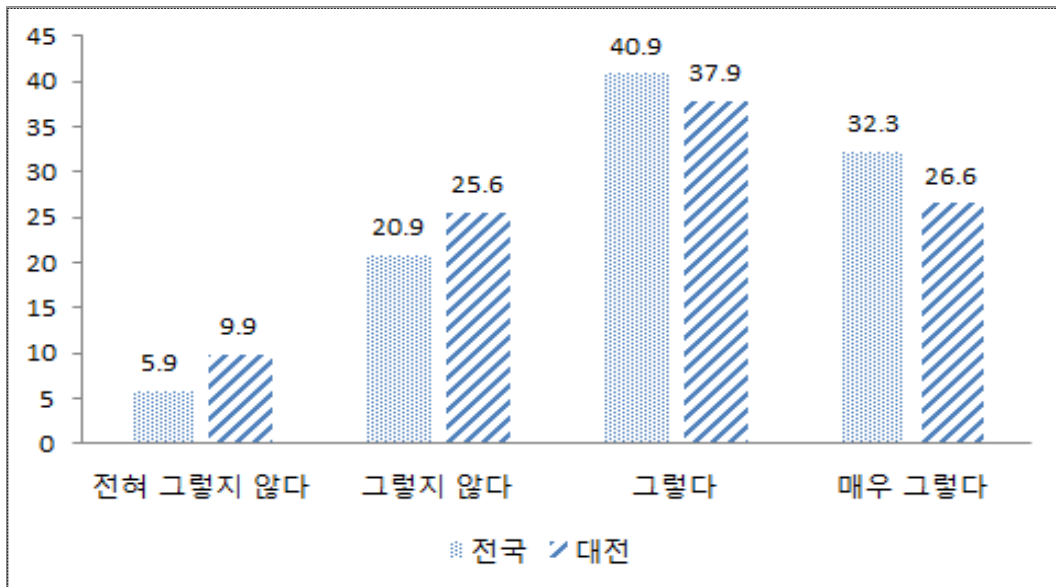
<표 3-8-14>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5.9	20.9	40.9	32.3
대전		9.9	25.6	37.9	26.6
성별	남자	7.9	16.9	40.5	34.6
	여자	11.9	34.1	35.2	18.8
학교급	중학교	7.3	23.2	41.4	28.1
	고등학교	13.4	28.8	33.2	24.6
구	동구	9.8	23.9	39.7	26.6
	중구	12.3	31.9	31.9	23.9
	서구	10.4	24.8	38.1	26.7
	유성구	9.3	26.0	39.0	25.7
	대덕구	7.0	21.2	39.8	32.0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75.1%)은 여학생(54.0%)보다 21.1%p 높고, 중학생(69.5%)은 고등학생(57.8%)보다 11.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덕구(71.8%)가 가장 높은 반면, 중구(55.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15]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3)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물어본 결과는 <표 3-8-15>와 같다.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매우 28.7%+약간 53.6%)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청소년가치관국제비교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82.9%(매우 41.4%+약간 41.5%)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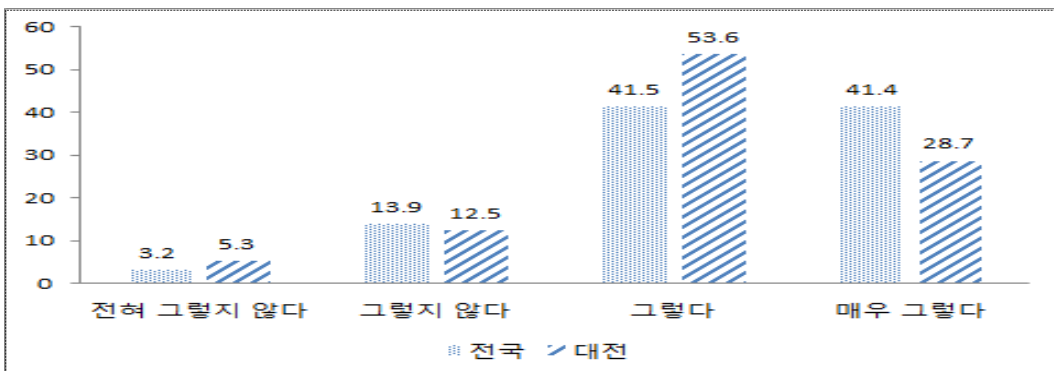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83.9%)이 남학생(80.6%)보다 약간 높고, 중학생(87.1%)이 고등학생(75.7%)보다 11.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덕구(88.3%)와 동구(87.0%)가 높은 반면, 중구(78.1%)와 유성구(79.0%)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15〉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3.2	13.9	41.5	41.4
대전		5.3	12.5	53.6	28.7
성별	남자	7.0	12.4	48.5	32.1
	여자	3.5	12.6	58.5	25.4
학교급	중학교	4.4	8.6	53.1	34.0
	고등학교	6.5	17.8	54.2	21.5
구	동구	2.2	10.9	59.8	27.2
	중구	8.5	13.4	61.6	16.5
	서구	5.3	12.8	50.8	31.1
	유성구	6.0	15.0	49.1	30.0
	대덕구	3.9	7.8	51.9	36.4

[그림 3-8-16]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



4) 잘못된 역사 수정의 필요성

잘못된 역사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표 3-8-16>과 같다.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9명 이상인 95.4%(매우 52.4%+약간 43.0%)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청소년가치관국제 비교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94.4%(매우 67.8%+약간 26.6%)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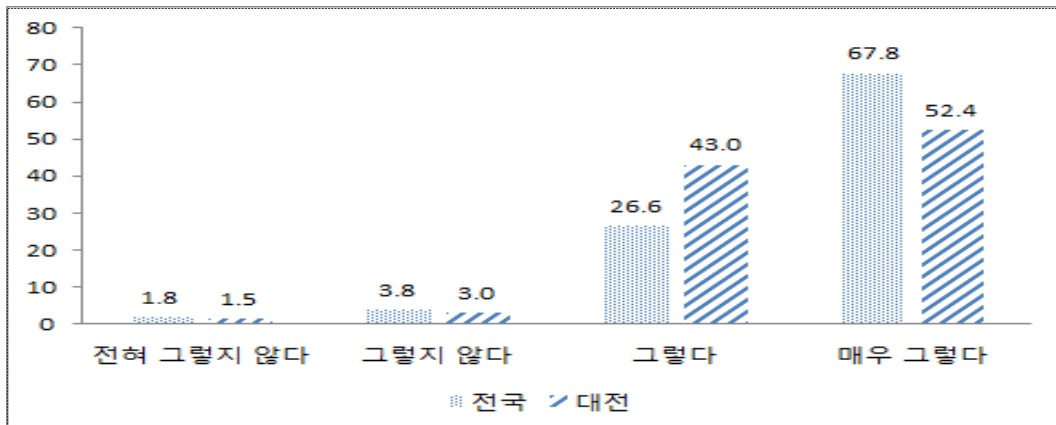
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96.5%)이 남학생(94.4%)보다, 고등학생(96.5%)이 중학생(94.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구(96.2%)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91.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16〉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1.8	3.8	26.6	67.8
대전		1.5	3.0	43.0	52.4
성별	남자	2.3	3.2	44.3	50.1
	여자	0.7	2.8	41.7	54.8
학교급	중학교	2.0	3.3	44.9	49.8
	고등학교	0.8	2.7	40.6	55.9
구	동구	2.2	1.6	40.8	55.4
	중구	0.6	3.7	42.1	53.7
	서구	1.3	2.7	43.4	52.7
	유성구	1.5	2.6	44.6	51.3
	대덕구	2.3	6.2	43.4	48.1

[그림 3-8-17]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5) 남북통일의 필요성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는 <표 3-8-17>과 같다. “평화적

인 남북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대전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7명 이상인 77.8%(매우 35.6%+약간 42.2%)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청소년가치관국제비교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71.2%(매우 33.0%+약간 38.2%)보다는 6.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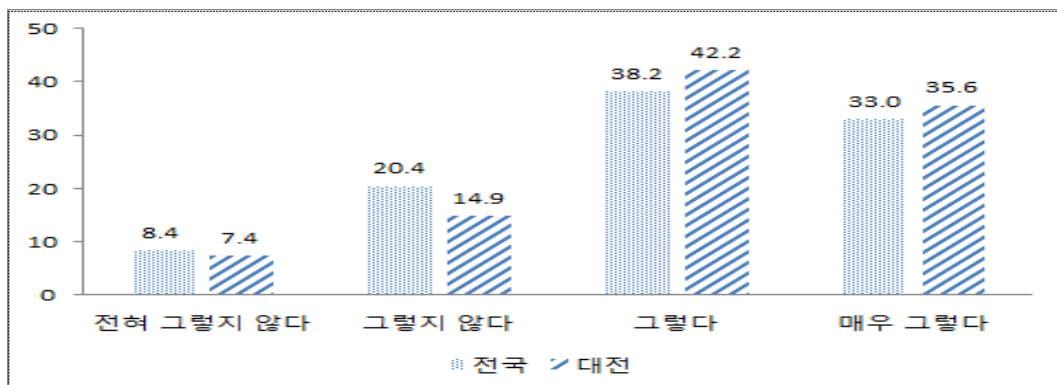
특히, 대전 학생청소년 중에서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79.9%)이 여학생(75.5%)보다 약간 많았고, 중학생(82.7%)이 고등학생(70.9%)보다 1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구(82.1%)가 가장 높은 반면, 대덕구(72.9%)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17〉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국		8.4	20.4	38.2	33.0
대전		7.4	14.9	42.2	35.6
성별	남자	8.1	12.0	39.9	40.0
	여자	6.7	17.7	44.3	31.2
학교급	중학교	5.4	11.8	43.3	39.4
	고등학교	10.0	19.0	40.6	30.3
구	동구	5.4	12.5	42.4	39.7
	중구	7.9	12.2	40.2	39.6
	서구	6.9	14.4	44.1	34.6
	유성구	7.1	18.6	41.6	32.7
	대덕구	11.6	15.5	39.5	33.4

〔그림 3-8-18〕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학생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조사 완료한 1,129명의 학생청소년은 성별로는 남학생(49.7%)과 여학생(50.3%)은 비슷하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57.4%)이 고등학생(42.6%)보다 조금 많다. 거주지역은 서구(36.0%), 유성구(23.8%), 중구(14.9%), 동구(13.6%), 대덕구(11.7%)의 순이다. 종교가 없는 학생청소년은 절반 정도(53.2%)이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청소년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형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85.3%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건강

1) 수면시간

학생청소년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52분, 주말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 37분이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과 중학생이 여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많다. 주말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비슷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많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학생청소년의 수면시간은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비하여 약간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2) 아침 식습관

학생청소년의 4명 중 1명 정도(24.6%)는 아침 식사를 전혀 먹지 않거나 먹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비율은 학생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비슷한 결과이다.

3) 운동

학생청소년의 4명 중 3명 정도(77.0%)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에

참여하였고, 주당 평균 활동시간은 4.3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참여율은 2014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와 비슷한 결과이지만, 평균 활동시간은 1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청소년 4명 중 1명 정도(23.0%)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 참여도와 활동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신체활동으로는 구기운동, 등산조강산책, 줄넘기, 자전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중학생은 구기운동을, 여학생과 고등학생은 등산조강산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주관적 건강상태

학생청소년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10명 중 8명 정도(84.5%)는 건강하다고 응답하였고, 10명 중 2명 정도(15.5%)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은 비슷하지만,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5) 스트레스

학생청소년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원은 학업문제(64.9%)이며, 그 다음으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54.3%), 외모(신체조건) 문제(32.9%), 또래와의 관계 문제(19.5%), 가정불화 문제(11.3%), 경제적인 문제(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지만 외모(신체조건) 문제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과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6) 정서상태

학생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질문에, 사는 게 즐겁다고 느끼며(84.0%),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82.0%)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44.1%)는 응답

은 낮아 절반 이상의 학생청소년은 걱정거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비하여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남학생과 중학생이 여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대체로 높다.

학생청소년의 대인관계(사회적 역량)에 대한 질문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88.7%)고 하였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하며(88.3%),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80.8%)고 평가하였다. 이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비하여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남학생과 고등학생이 여학생과 중학생 보다 대체로 높다.

학생청소년의 자율적 역량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84.2%), 사회적 규범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행동하고 결정한다(83.7%)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57.6%)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비하여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역량은 성별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생청소년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질문에, 자신을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 하며(90.1%),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며(83.5%), 자기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82.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로 높고, 학교급별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학생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은 걱정이 많은 편(61.4%)이라고 하였고,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54.3%)고 응답하였으며,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52.6%)고 응답하여 학생청소년 2명 중 1명은 각각의 질문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결과에 비하여 대전광역시 학생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에 대한 각각의 질문에 여학생과 고등학생이 남학생과 중학생보다 높다. 이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사회·문화

1)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과 참여도

학생청소년은 5개 참여 영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은 봉사활동(88.2%), 아르바이트(83.6%), 여가 문화

행사(82.5%) 등 자신과 관련이 있는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동의하였다. 반면에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소년 관련 문제의 참여(77.1%)나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참여(70.4%)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여학생과 고등학생이 남학생과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5개 영역의 참여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청소년의 참여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60.9%)에 가장 많이 참여하며, 여가 문화 행사 기획(41.4%), 청소년 관련 문제 참여(26.3%), 아르바이트(23.8%), 청소년 정책 참여(16.0%)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 참여 필요도와 참여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비하여 대전광역시 학생청소년의 참여도가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5개 사회참여 영역의 참여도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청소년 활동 및 시설 이용 경험

학생청소년의 청소년 활동 참여율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감상, 공연참가 등)이 6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직업/진로 관련 활동(56.1%), 자원봉사활동(50.4%), 건강/보건 관련 활동(4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 참여 횟수는 자원봉사활동(5.2회)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4.2회), 정책 참여 활동(3.2회), 건강/보건 관련 활동(3.0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의 참여 경험률이 높고, 학교급별로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생청소년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1순위와 2순위 모두 문화/예술 관련 활동, 직업/진로 관련 활동, 모험/개척 관련 활동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활동 영역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학교 교사의 권유(32.0%),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31.0%), 친구나 선배의 권유(23.2%) 등 주로 주변의 권유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좀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생청소년이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45.3%),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14.4%), 삶에 대한 가치 발견(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활동 참여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학생청소년의 54.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생청소년의 17.9%는 청소년시설이나 단체, 29.1%는 사이버단체나 동아리, 36.8%는 기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수도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의 경우가 1.3개, 사이버단체나 동아리는 3.2개, 기타 단체는 1.5개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은 공연시설(74.6%)의 이용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도서관(62.7%), 수목원 등(50.2%), 전시시설(49.6%), 청소년수련관 등(46.6%), 유스호스텔(24.2%), 사회복지관(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 횟수로 도서관(12.6회)의 이용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연시설(8.0회), 사회복지관(6.0회), 수목원 등(3.3회), 전시시설(2.9회), 청소년수련관 등(2.4회), 유스호스텔(1.8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65.5%)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국제교류활동(30.5%), 청소년어울림마당(24.9%), 청소년참여활동(24.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17.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특정 프로그램 이외에는 인지도가 낮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미디어와 인터넷

학생청소년의 매체에 대한 이용 경험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전화통화나 문자 이용(90.0%), 인터넷 게임(79.4%), 인터넷(7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의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주중에는 인터넷 게임(1시간 53분)을 가장 오래 사용하며, 인터넷(1시간 48분), 전화통화(1시간 7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도 인터넷 게임(3시간 1분)과 인터넷(2시간 52분)의 이용시간은 거의 3시간 정도 내외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디어와 인터넷 매체 이용 실태는 청소년의 방과 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인터넷 게임, 여학생은 전화통화가, 중학생은 인터넷 게임, 고등학생은 인터넷의 이용 경험이 더 높다.

4. 가정생활

1) 부모와 함께한 시간(대화시간 포함)

주중에 1시간 이상 아버지와 함께하는 학생청소년들은 34.9%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에 1시간 이상 어머니와

함께하는 학생청소년은 49.2%로 아버지보다 14.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85% 이상은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는 부모님이 학교생활과 친한 친구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소수이지만 자녀가 학교나 학원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무관심하거나(8.4%) 자녀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두는(3.6%) 방임형 부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생활 만족도

부모(양육자)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청소년은 86.8%로 나타났고, 학생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인 13.3%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1)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에 대한 태도를 2개의 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학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청소년은 60% 이상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수업시간이 재미있다(64.9%)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66.7%)고 응답하였다.

학교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청소년은 60% 정도로 나타났다. 즉,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60.7%)를 형성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53.4%)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비하여 대체로 낮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학업에 대한 태도와 학교 분위기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의 78.9%는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 친구관계

학생청소년의 친구관계는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청소년의 92.1%는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들과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하는 성숙한 학생청소년도 7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사와의 관계

학생청소년의 교사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개의 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학생청소년은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지만(87.8%),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한 경우(60.2%)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업성취도

학생청소년 3명 중 1명 정도(33.8%)는 자신의 학업성적을 우수하다고 평가하였고, 반면에 5명 중 2명 정도(38.6%)는 자신의 학업성적을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지난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결과(우수하다 36.9%, 미흡하다 18.2%)에 비하여 대전광역시 학생청소년은 자신들의 학업성적에 대해 대체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희망 교육수준

학생청소년의 희망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비율은 80.9%로 나타났다. 특히,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모가 자녀의 희망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이상이 87.8%로,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수준보다는 부모가 갖고 있는 자녀의 희망교육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사교육

학생청소년의 4명 중 3명 정도(73.9%)는 사교육 경험이 있으며, 일주일 동안 사교육 시간은 평균 7시간 12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주당 사교육 시간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주일 평균 사교육 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사교육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평균 사교육 시간도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2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 방과 후 활동

학생청소년 3명 중 1명 정도(34.5%)는 평일 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사람 없이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의 매일(13.1%) 또는 3~4일 정도(7.6%) 방과 후에 홀로 지내는 학생청소년이 있다는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생청소년이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과 이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전에는 주로 집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방과 후 학교, 학원이나 과외, TV나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일 방과 후 저녁식사 이후에도 주로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방과 후 학교, TV나 비디오를 시청, 학원이나 과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저녁식사 이전의 주된 활동은 학원이나 과외(20.3%)가, 저녁식사 이후의 주된 활동은 집에서 공부(21.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평일 저녁식사 이전과 이후의 주된 활동은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남학생과 중학생은 주로 인터넷을, 여학생과 고등학생은 주로 방과 후 학교나 자율학습 등 학습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 문제행동 및 예방교육 경험

1) 문제행동

학생청소년에게 흡연, 음주 등 6가지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6개의 문제행동 경험 중에서 학생청소년들은 자살생각(16.2%)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학생청소년들의 우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음주(6.6%), 흡연(5.8%), 무단결석(4.2%), 가출(3.0%), 성관계(1.1%)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지만, 자살생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경험률은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다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예방교육 경험

학교현장에서 실시하거나 현재 실시하는 다양한 예방교육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학생청소년의 92.7%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3회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도 38.1%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교육(85.6%), 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81.7%), 흡연·음주·약물예방교육(81.4%),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81.2%) 등은 학생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교육(55.4%)과 다문화교육(48.8%) 등은 다른 예방교육과는 다르게 학교현장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횟수에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진로

1) 향후 진로 계획

학생청소년은 향후 자신의 진로에 관한 계획과 관련하여 절반 정도(53.2%)는 상급학교 진학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3명 중 1명 정도(31.2%)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비하여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 관련 부모님과의 대화 정도

향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생청소년의 절반 정도(48.8%)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였지만, 대화를 하지 않는 학생청소년도 15.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과의 대화를 하는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학생청소년은 자신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학교나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참여하는데, 진로와 직업과목을 통한 진로교육의 경험(82.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80.8%),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76.1%), 인터넷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한 진로교육(7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 경험률은 여학생과 고등학생이 남학생과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대부분의 진로교육 영역에서 40% 이상으로 나타났다지만, 인터넷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한 진로교육은 38.7%로 상대적으로 도움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의 유형에 따른 도움 정도는 학생청소년의 성별과 교육급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4)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

학생청소년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진로교육은 간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교육도 필요한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51.7%)에 참여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진로박람회(47.6%),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 관련 견학 프로그램(45.3%),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4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체험의 유형에 따른 도움 정도는 진로체험 유형에 따라 도움 정도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

5) 장래 희망 직업 및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청소년의 3명 중 2명 정도(65.4%)는 자신의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의 16.2%는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비하여 경험률이 낮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인권 및 인생관

1) 인권의식과 인권태도

학생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차별금지(94.9%), 표현할 수 있는 권리(93.2%), 평등의 권리(93.1%), 참여권리(8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의식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의 인권태도도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청소년 83.8%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82.9%는 주변에 어려

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였다. 인권태도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차별경험

학생청소년의 성차별 피해 경험(20.4%)이 가해 경험(17.1%)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차별은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부차별보다 성차별에 대한 가해와 피해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차별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 모두 여학생과 중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차별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은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비하여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3) 인생관

학생청소년의 4명 중 3명 정도(73.7%)는 분명한 인생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청소년의 3명 중 2명 정도(64.5%)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의 5명 중 4명 정도(82.3%)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은 긍정적인 역사관과 통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의 대부분(95.4%)은 잘못된 역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5명 중 4명 정도(77.8%)는 남북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제언

1. 청소년 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대전광역시 학생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일일 평균 7시간도 되지 않으며, 청소년 4명 중 1명 정도는 아침식사를 전혀 먹지 않거나 먹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4명 중 1명 정도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청소년 5명 중 1명 정도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문제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과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높다.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 조사인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질병관리본부, 2014)에 의하면, 청소년의 주관적 수면 충족률¹⁾은 26.4%(대전 22.3%)로 나타나 청소년 4명 중 3명 정도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아침식사 결식률²⁾은 청소년 10명 중 3명 정도인 28.5%(대전 28.1%)이며, 아침식사 결식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36.7%), 식욕이 없어서(19.9%), 늦잠을 자서(18.9%)의 순이다. 신체활동 실천율³⁾은 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인 37.2%(대전 34.3%)이며, 주관적 건강 인지율⁴⁾은 청소년 10명 중 7명 정도인 71.0%(대전 69.8%)이다. 스트레스 인지율⁵⁾은 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인 37.0%(대전 38.5%)이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여학생(50.0%)과 고등학생(40.3%)이 남학생(30.8%)과 중학생(33.4%)보다 높다. 통계청(2014)의 사회조사에서도 청소년의 58.7%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⁶⁾은 청소년 4명 중 1명 정도인 26.7%(대전 27.4%)이다. 성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여학생(31.6%)과 고등학생(28.8%)의 우울 수준이 남학생(22.2%)과 중학생(24.4%)보다 높다. 또 다른 연구(모상현 외, 2013)에서도 여학생과 고등학생이 남학생과 중학생보다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1) 주관적 수면 충족률: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매우 충분' 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2) 아침식사 결식률: 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먹지 않은 사람의 비율

3) 신체활동 실천률: 최근 7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이 3일 이상인 사람의 비율

4) 주관적 건강 인지율: 본인이 '매우 건강한' 또는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5) 스트레스 인지율: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

6) 우울감 경험률: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이러한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신문기사에서 ‘공부와 쉼의 균형을 회복하자’며 지난해부터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을 주장(한겨레, 2015. 7. 30.)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은 ‘놀 권리를 빼앗긴 아이들’(EBS NEWS, 2015. 7. 22.)로 방학인데도 여전히 바쁘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보충수업, 학원교육 등 과도한 사교육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빼앗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학업에 대한 욕구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이며,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의 수면시간, 아침 식습관, 운동, 건강상태, 스트레스, 우울 등은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서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수면시간의 부족은 청소년의 신체발달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발달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대책, 9시 등교와 같은 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정은주, 2014). 아울러 청소년은 성장발달의 시기라는 특징으로 인해 1차 예방에 집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위한 통합기구 마련,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가족과 가정에 접근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모상현 외, 2013).

따라서 청소년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적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부분이며, 특히 스트레스와 우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고등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접근의 경우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연계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사회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 등 5개 영역에 대한 참여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봉사활동(60.9%)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의 참여율은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학생과 고등학생이 남학생과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도는 각 영역에서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활동 10개 영역 중 문화/예술활동 영역, 직업/진로활동 영역,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순으로 참여경험이 많고,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의 참여 경험률이 남학생보다 높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활동 중 가장 참여하고 싶은 영역은 문화/예술활동 영역, 직업/진로활동 영역, 모험/개척활동 영역의 순이며, 성별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문화/예술활동 영역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성별과 학교급별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연구(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4)에서는 동아리 활동(59.0%), 스포츠 활동(44.0%), 봉사 활동(41.4%), 건강/보건활동(25.9%), 직업체험활동(21.2%)의 순으로 나타났고,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스포츠 활동(48.1%), 모험/개척활동(38.4%), 직업체험활동(37.1%), 문화/예술활동(26.6%), 건강/보건활동(2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임희진·송병국, 2014)에서도 청소년의 참여율이 높은 영역은 문화/예술활동 영역, 직업/진로활동 영역, 건강/보건활동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나, 학교 정책이나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은 참여하고 싶으나 실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같은 경우에 대전광역시에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대덕구 청소년참여위원회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활동의 참여율이나 욕구는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수준에 따라 참여율이 다르기 때문에(임희진·송병국, 2014) 청소년의 성장과정 및 요구에 맞는 전문화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황진구·허효주, 2014). 아울러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유형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 직업/진로 관련 활동, 모험/개척 관련 활동 등에 집중되어 있지만, 성장과정 속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기의 특성, 요구 및 성별이나 연령별 특성에 따른 선호도를 고려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 참여 경로는 학교 교사, 부모 및 가족, 친구나 선배 등 주로 주변의 권유가 주를 이루고 있고, 참여 경로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관련 인지도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이외에는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다른 연구(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4)에서는 청소년활동 정보습득 경로가 학교(45.9%), 친구(20.5%), 인터넷(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인지도도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이외에는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나 방법을 동원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들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여 이러한 결과가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와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공유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전국 청소년 단체 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김영한·조달현, 2013)에서는 청소년단체의 홍보 활동 대부분이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우호적 역량을 함양시켜야 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측면에서 지역 중요자원인 신문과 방송을 참여토록 유도하는 방안 역시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2013년 중학교 42개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 2015년 희망학교로 확대하여 운영하며, 20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인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의 연계시스템 구축과 청소년활동 연계를 위한 관련 조직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험활동의 가치 공유, 체험기관의 발굴과 효율적 매칭, 서비스 질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성은모, 2013)을 지적하고 있어,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따른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의 다각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3. 가족관계 및 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청소년이 부모와의 함께 보내는 시간(대화시간 포함), 가정생활 만족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3명 중 1명 정도는 아버지와 매일 1시간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청소년 2명 중 1명 정도는 어머니와 매

일 1시간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지만, 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는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지만, 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조사(통계청, 2014)에서는 2014년 13~19세 청소년의 70.8%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지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없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은 개방형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종원 외, 2010).

청소년에게 가정생활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다행스럽게도 본 연구와 많은 연구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지 않지만, 만족하지 못한 청소년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10대들이 우울한 이유'(EBS NEWS, 2015. 5. 8.)라는 기사에서 25년간 추적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대 청소년의 우울증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으며, 무심코 내뱉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어 25년 후의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아울러 본 조사결과 청소년들은 여전히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가장 비중 있는 의논상대자로 친구를 들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또래 역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올바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좀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부모 또는 가족과 학생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개선 및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 세대 간의 원활한 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부모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연수나 강의와 같은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관련 기관, 여성관련 기관, 가족관련 기관에서 부모교육,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부모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된다. 대전광역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개소만 운영되고 있

다.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과 부모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사랑의 날’을 활성화시켜서 학생의 부모가 다니는 일터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현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해 부모의 일터와 학생의 교육 및 생활환경의 변화가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방과 후 동아리활동 활성화

방과 후에 혼자 있는 청소년이 3명 중 1명이며, 거의 매일 혼자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방과 후에 청소년은 평일 저녁식사 이전에는 주로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즉, 남학생은 집에서 인터넷을 주로 하고, 여학생은 방과 후 학교 참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은 집에서 인터넷을, 고등학생은 방과 후 학교에 참여가 가장 많다. 평일 저녁식사 이후의 주된 활동도 집에서 인터넷이 가장 많으며, 남학생과 중학생은 집에서 인터넷을, 여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 자율학습 참여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2014a)의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학생은 하루 중 여가시간은 중학생(4시간 1분)이 고등학생(3시간 22분)보다 많으며, 주로 TV, 라디오, 인터넷 검색 등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2014)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15~19세 청소년의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은 인터넷 검색(28.4%), 게임(17.1%), TV시청(16.7%)의 순이며,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은 게임(16.6%), 영화보기(13.3%), 인터넷 검색(12.0%)의 순이다. 주5일 수업제 실시 후 여가시간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16.5%에 불과하며, 주5일 수업제 실시 후 토요일 오전 시간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학업시간으로 활용한다는 의견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은 학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활용하는 여가시간 마저도 수동적인 여가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청소년은 방과 후에 성인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로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휴일이나 주말에 더 심화되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여가시간을 수동적인 활동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만들거나 기존의 동아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청소년은 평일에 부모나 보호자가 없을 때가 많고 주말에도 부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주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지원이 요구된다.

아울러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의 확대설치가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군구 및 읍면동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관은 5개 자치구 대비 3개소(설치율 60.0%), 청소년문화의집은 77개동 대비 7개소(설치율 9.1%)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방재정 여건상 시설확대가 쉽지는 않겠지만,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생활권에 청소년시설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5. 문제행동의 조기개입과 구체적인 자살 예방 대책 마련

다양한 문제행동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발달정신병리학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초기의 작은 문제행동은 발달상의 여러 과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파장이 증폭되기 때문에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전광역시 학생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흡연, 음주 등 6가지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자살생각(16.2%), 음주(6.6%), 흡연(5.8%), 무단결석(4.2%), 가출(3.0%), 성관계(1.1%)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과 관련한 다른 조사를 살펴보면, 사회조사(통계청, 2014b)에 의하면 2014년 13~19세 청소년 8.0%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자살하고 싶었던 주된 이유는 ‘성적 및 진학문제(39.3%)’, ‘경제적 어려움(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13)에 의하면 2013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많아 인구 10만명 당 7.8명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행동으로는 2014년 중·고등학교의 현재 흡연율⁷⁾은 9.2%이며, 현재 음주율⁸⁾은 16.7%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4).

7) 현재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

8)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

2014년 지금까지 한 번 이상 가출을 경험한 중·고등학생은 11.0%로 남자 청소년(12.9%)이 여자 청소년(8.8%)에 비해, 고등학생(12.5%)이 중학생(9.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가출의 원인으로는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67.8%)이 가장 높다(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행동 중에서도 특히 자살생각의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첫 단계가 자살에 대한 생각(고려)인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예방적 개입 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김기현, 2013)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청소년 상담복지 모형 개발 연구(이창호 외, 2014)에서도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Wee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지원함으로써 예방적 측면, 시도자에 대한 개입 측면, 사후개입 측면이 중복되어 이에 대한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조영철(2013)의 연구에서도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조가 미비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여 서비스를 전달한다면 청소년 자살예방에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 대전 관내 여고생의 잇따른 자살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2012년 2월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2012. 2. 24.)’를 제정하여 자살 위험노출에 대한 자살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서구, 중구, 유성구, 동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살 실태를 조사하고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자살예방상담, 자살자 유가족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김정득 외, 2014b). 그러나 대덕구의 경우에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조속한 조례제정이 요구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예방교육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교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자살예방교육, 흡연·음주·약물예방교육, 인터넷(스마트폰)중독예방교육 등의 경험률은 높은 편이나 인권교육과 다문화교육 등의 경험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아울러 주기적인 교육 경험률은 대부분 낮게 나타나 일회성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회성의 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조사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폭력예방교육 경험은 67.5%이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5.4%로

교육받은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도 경험률은 75.6%로 나타났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3.2%에 불과하다(이종원 외, 2012).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특히 인권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다른 예방교육보다 경험 정도가 낮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나 청소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교육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합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방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학교-지역사회전문기관의 연계 속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방교육의 상당수가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 경험률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적은 만큼 교육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방교육을 학교 이외의 다양한 청소년기관에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교와 청소년 기관 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청소년 기관 간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관련 기관의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가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교육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제행동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은 적용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예방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고, 특정 위험 요인이 평균 이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예방프로그램, 임상적인 징후나 증상을 나타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시적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김영한 외, 2013). 따라서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청소년의 가정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소년의 문제예방과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2014b)의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우선지원학생과 그 학부모의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우선지원학생의 학교폭력과 무단결석의 감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감소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6.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내실화

청소년 3명 중 1명 정도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남학생과 중학생이 여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하여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비율이 높다. 학생청소년의 진로와 직업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등 8가지 유형의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8가지 유형 모두에서 여학생과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교육의 경험률에 비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정도는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별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4가지 유형의 진로체험 경험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체험 유형에 따른 도움 정도도 경험률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형에 따라 도움의 정도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의 하나는 학업 다음으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54.3%)이었다. 청소년 부모 대상 조사(김정득 외, 2014a)에서도 학업·성적·진로 문제 고민(57.7%)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보호자와 우리 사회도 청소년들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은 상당한 수준이며,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진로교육과 체험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도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다양한 기업의 연계를 통해 직장체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 준비 기회 확대와 공동체 의식 강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관계부처합동, 2012)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당수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직업에 대해 배웠으며(66.9%), 특정직업인의 직업관련 강연(59.8%)을 경험하였고, 나머지 프로그램의 경험 비율은 낮은 수준이어서 시청각 자료의 활용 및 특정직업인 강연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체험 경험과 관심 있는 분야와의 관련성에서도 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관심 분야 이외의 진로체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진로체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진로체험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안선영 외, 2013).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교육 경험에 비하여 도움 정도가 낮고, 청소년의 성별 및 학교급에 따라 도움정도의 수준이 다르다는 특성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고 도움이 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진로체험의 경우에는 경험률도 높지 않고, 도움 정도는 낮고,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률과 도움 정도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의 개선사항으로 ‘관심 있는 분야 직업인과의 만남 기회 확대’와 ‘직업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등을 요구(안선영 외, 2013)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한 형태의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은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양육자)와 적극적인 대화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가족과 함께하는 진로 설계와 가족통합 프로그램 확산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직접 체험하는 진로활동의 경우 학교의 자원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체험 활동의 참여 경험과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질적 수준의 향상을 통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도인력의 부족 및 지방의 지도자 확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단체의 조직구성원의 현황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이 9배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도인력 지분이 낮아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김영한·조달현, 2013)는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 조직구성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2015년 대전청소년위캔센터 개설로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욕구와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선행학습금지 등 교육정책의 변화로 청소년 진로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으나 청소년의 진로탐색 등을 위한 인프라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및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내에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를 수용하고 통합적인 정보 제공, 체험개발 및 기관 연계 등을 담당할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7. 청소년 단체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과학적인 청소년 정책 체계 구축

최근 청소년 관련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관련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 및 지역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통해 사업의 중복성 예방과 시너지 효과의 창출 및 상호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 구축으로만 그

치지 않고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함에 있어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교육청)와 소통할 수 있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간 소규모 형태의 지역별 협의체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실태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와 같은 실태조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실태조사와 함께 청소년활동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청소년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사업들이 신규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각각의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청소년 정책의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계속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청소년관련 부처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확보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지표체계를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전광역시 청소년 실태를 확인하여 제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기관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여성가족부.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질병관리본부.
- 권중돈(2014).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 이론과 적용. 학지사.
- 김기현(2013).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성이·조학래·노충래·신효진(2010). 청소년복지학. 양서원.
- 김영지·김경준(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한·조달현(2013).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한·조아미·이승하(2013).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득·윤경아·조중재·주은주·이리나(2014a). 2014년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대전복지재단.
- 김정득·최해경·김정란·김현진·이리나(2014b). 대전광역시 노인정신건강 연구. 대전복지재단.
- 남미애·성환재·오은경·배성아(2013). 2013 학교밖 청소년 실태 및 Care 대책.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대전광역시교육청(2014a). 2014 대전교육통계연보.
- 대전광역시교육청(2014b).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014년도 사업평가 종합보고서.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2014). 2014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대전광역시.
- 모상현·김형주·이선영(20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배주미·김동민·정슬기·강태훈·박현진(2010).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 성은모(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석호(1991).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밝은 사회 건전한 청소년』. 체육청소년부.
- 유성렬·최창욱(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이경상·박선영·조남익(2014).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Ⅱ: 미래 청소년정책

- 비전, 전략, 과제에 대한 전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원·오승근·김은정(2010).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Ⅲ-가족과 가정생활에 관한 의식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원·이유진·김준홍(2012).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이창호·김범구·노성덕·오혜영·이대형·전라래·김한나·정지혜(2014). 청소년 상담복지 모형 개발-청소년 자살개입 정책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임진희·전병수(2012). 대전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임진희·전병수·홍경숙(2010). 대전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임희진·백혜정·김현철·강현철(2012).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안지선(201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임희진·송병국(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은주(2014). 한국 아동·청소년 패넌조사Ⅴ: 기초분석보고서-청소년 생활시간 추이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영철(2013). 현행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자살예방정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통계청(2013). 2013년 사망원인통계.
- 통계청(2014a). 2014년 사회조사.
- 통계청(2014b). 2014년 생활시간조사.
- 홍봉선·남미애(2010).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 황진구·허효주(2014). 한국 아동·청소년 패넌조사Ⅴ: 기초분석보고서Ⅲ-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대들이 우울한 이유’ (EBS NEWS. 2015. 5. 8.).

<http://home.ebs.co.kr/ebsnews/allView/10319793/N>

‘놀 권리 빼앗긴 아이들’ (EBS NEWS. 2015. 7. 22.).

<http://home.ebs.co.kr/ebsnews/allView/10350208/N>

‘학원 압박에 “일요일엔 학원 쉬자” 말 못하는 국회’ (한겨레, 2015. 7. 30.).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02390.html>

○ 부록: 조사표

구	학교명	조사ID	자료입력ID

2015년 대전광역시 학생청소년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복지재단은 대전광역시 출연기관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대전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전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에서는 학생청소년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5년 대전광역시 학생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학생청소년 복지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는 내용은 대전광역시 거주 학생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 복지정책 제언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해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331-8930, 8932

■ 연구수행기관 : **WELFF** 대전복지재단

■ 연구지원기관 : **대전광역시**

■ 연구진 : 책임연구원 - 김기수(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 조학래(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선아(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위촉연구원)

A. 건강

- A1 학생은 평소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니까?(방학 외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괄호 안에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예) 잠자는 시간 약 22시 10분, 일어나는 시간 약 07시 10분

문	항	주중(월~금)	주말(토~일)
1)	잠자는 시간	약 ()시 ()분	약 ()시 ()분
2)	일어나는 시간	약 ()시 ()분	약 ()시 ()분

- A2 학생은 아침 식사(빵, 선식,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 포함)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번호 하나만 V표 해주십시오.

① 전혀 먹지 않음 ② 먹지 않는 편임 ③ 가끔씩 먹는 편임 ④ 항상 먹음

- A3 학생은 지난 1주일 동안 운동(정기적으로 배우는 운동 포함)이나 야외 신체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난 1주일에 총 몇 시간인지 기입해 주세요.(※ 활동 시간에는 학교에서의 운동을 포함합니다).

② 예(있다) → A3-1. 활동시간은? ()시간 예> 1시간 25분은 1시간, 1시간 40분은 2시간으로 작성(사사오입)

- | | |
|----|---|
| A4 | 다음 중 최근 1년(2014. 5. 1. ~ 2015. 4. 30.) 동안 학생이 했던 신체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인라인스케이트 ② 자전거 ③ 구기운동(축구, 농구, 야구 등) ④ 등산, 조깅, 산책
⑤ 줄넘기 ⑥ 수영 ⑦ 기타(구체적으로 :)

- A5 학생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 하나만 V표 해주십시오.

① 매우 건강하지 못함 ② 건강하지 못한 편임 ③ 건강한 편임 ④ 매우 건강함

- A6 학생은 최근 1년(2014. 5. 1. ~ 2015. 4. 30.)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업문제(성적 등)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2) 가정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3) 또래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5) 외모, 신체조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 A7 학생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가장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 하나만 V표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 자매 ⑤ 선생님
⑥ 친구 ⑦ 청소년상담 관련기관 ⑧ 기타(구체적으로 :)

A8 학생은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해당하는 칸에 각각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사회적 규범(법, 규칙 등)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행동하고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9)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2)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문화적 배경(출신 국가, 인종 등)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20) 나와 문화적 배경(출신 국가, 인종 등)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21) 나와 문화적 배경(출신 국가, 인종 등)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B. 사회 · 문화

B1

최근 1년(2014. 5. 1. ~ 2015. 4. 30.) 동안 학생은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V표 해주시고, 경험이 있다면 횟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없다	있다	횟수(연)
1)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감상, 공연참가 등)	①	①	()회
2) 과학/정보 관련 활동(로봇활동, 경진대회, 과학실험 등)	①	①	()회
3) 모험/개척 관련 활동(탐사등반, 야영, 극기 훈련 등)	①	①	()회
4) 자원봉사 활동(일손돕기, 캠페인, 자선-구호활동 등)	①	①	()회
5) 직업/진로 관련 활동(직업체험, 진로탐색 등)	①	①	()회
6) 정책 참여 활동(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등)	①	①	()회
7) 국제 교류 활동(다문화 이해 활동, 세계문화 비교활동 등)	①	①	()회
8) 건강/보건 관련 활동(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활동 등)	①	①	()회
9)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자기표현, 마음수련활동 등)	①	①	()회
10) 환경 보존 관련 활동(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①	①	()회

B1_1 위 활동에 ‘어떤 방법’ 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V표 해주시시오.

- | | |
|-------------------------|-----------------------|
| ① 해당 없음(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 ①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
| ②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 ③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
| ④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 ⑤ 홍보/게시판 공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
| ⑥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 ⑦ 기타() |

B1_2 위와 같은 활동에 어떤 이유로 참여하나요? 가장 큰 이유 하나만 V표 해주시시오.

- | | |
|---------------------------|-----------------------|
| ① 해당 없음(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 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
| ②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 ③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
| ④ 사회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 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
| ⑥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 ⑦ 기타() |

B1_3 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해당하는 번호 하나만 V표 해주시시오.

- | | | |
|----------------------|--------------|-----------|
| ① 해당 없음(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 ② 만족하지 않음 |
| ③ 보통 | ④ 만족함 | ⑤ 매우 만족함 |

B1_4 B1문항의 10가지 참여 활동 중 학생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번, 2순위: ()번

B2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칸에 각각 V표 해주십시오.

구분	필요도				참여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가끔은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가끔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1)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아르바이트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봉사활동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청소년들끼리 여가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함(교칙 제정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B3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아리가 있습니까?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V표 해주시고, 있다면 개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없다	있다	개수
1) 청소년 시설·단체(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등) ※ 학교 등 공식 기관의 단체 포함(종교 단체 제외)	①	①	()개
2)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예, 인터넷 카페 등)	①	①	()개
3) 기타 단체나 동아리(종교 단체 포함)	①	①	()개

B4 최근 1년(2014. 5. 1. ~ 2015. 4. 30.) 동안 아래와 같은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횟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월 1회인 경우 → 연 12회, 주 1회인 경우 → 연 48회로
기입하되 기억이 어려운 경우, 최근 1개월간 횟수에 12를 곱하여 기록함)

구분	없다	있다	횟수(연)
1)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등), 수련원, 문화의 집, 야영장 등	①	①	()회
2) 유스호스텔	①	①	()회
3) 도서관(단, 학교 내 도서관은 제외)	①	①	()회
4) 공연 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①	①	()회
5) 전시 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 공원 등)	①	①	()회
6) 사회복지관	①	①	()회
7) 수목원/수목림/자연 휴양림	①	①	()회

B5 다음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V표 해주십시오.

구분	모른다	알고 있다
1)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①	②
2)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 s Award)	①	②
3) 청소년 참여활동(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등)	①	②
4) 청소년 어울림 마당(청소년 문화존)	①	②
5)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①	②
6)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①	②

B6 최근 1년(2014. 5. 1. ~ 2015. 4. 30.) 동안 다음의 매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몇 시간 몇 분 정도 이용하였는지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경험유무		하루 평균 이용시간(시간, 분)			
	없음	있음	주중(월~금)		주말(토~일)	
1) 인터넷(이메일, 커뮤니티, 메신저, 블로그, 미니홈피 포함)	①	②	약 ()시간 ()분		약 ()시간 ()분	
2) 인터넷 게임(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포함)	①	②	약 ()시간 ()분		약 ()시간 ()분	
3) 전화 통화(문자 포함)	①	②	약 ()시간 ()분		약 ()시간 ()분	

C. 가정생활

C1 주중에 일일 평균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대화 시간 포함)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V표 해주십시오.
(※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거나, 이혼별거 등으로 함께 살지 않은 경우는 '해당 없음'에 V표)

구분	해당 없음	일일 평균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대화 시간 포함)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미만	30분 ~ 1시간미만	1시간 ~ 2시간미만	2시간 이상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C2 학생과 부모님(또는 양육자)은 학생 본인이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V표 해주십시오.

구분	고졸 이하	초대졸 (2~3년제)	대졸 (4년제)	대학원 이상(석·박사)
1) 학생 본인	①	②	③	④
2) 부모님 또는 양육자	①	②	③	④

C3 학생과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나 학원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고열이 나가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4) 내 친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5) 나는 현재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D.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D1 학교에 대한 학생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4) 학급에서 맡은 활동(학급당번 등)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9)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11)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D2 최근 1년(2014. 5. 1.~2015. 4. 30.) 동안 학원, 과외수업, 학습지 과외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인지 기입해 주십시오.

① 아니오(없다) ② 예(있다) → D2-1. 학원 또는 과외 총시간은? 일주일 평균 총 ()시간



D3

평일 방과 후,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일주일에 며칠 정도 됩니까? 해당하는 번호 하나만 V표 해주시시오.

- ① 거의 없다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거의 매일

D4

평일 방과 후,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아래 보기에서 많이 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1순위	2순위
1) 저녁식사 이전		
2) 저녁식사 이후		

보기 ① 텔레비전, 비디오 시청 ③ 라디오나 음악 듣기 ⑤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기 ⑦ 그냥 쉬거나 잠자기 ⑨ 방과 후 학교 ⑪ 학원(피아노, 태권도 등 포함)이나 과외	② 집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및 게임 포함)하기 ④ 잡지나 책(만화책 포함) 읽기 ⑥ 집안일(청소 등) 돕기 ⑧ 집에서 숙제 등 공부 ⑩ 학교에서 자율학습 ⑫ 기타
---	--

D5

최근 1년(2014. 5. 1. ~ 2015. 4. 30.) 동안 학생은 다음과 같은 교육경험이 있습니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V표 해주시시오.

구분	없다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1) 인권교육	○	①	②	③	④	⑤
2) 성교육	○	①	②	③	④	⑤
3) 다문화교육	○	①	②	③	④	⑤
4) 학교폭력예방교육	○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	①	②	③	④	⑤
6) 자살예방교육(생명존중교육)	○	①	②	③	④	⑤
7) 흡연·음주·약물예방교육	○	①	②	③	④	⑤

D6

최근 1년(2014. 5. 1. ~ 2015. 4. 30.) 동안 학생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V표 해주시시오.

구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1) 담배 피우기(일주일에)	○	①	②	③
2) 술 마시기(일주일에)	○	①	②	③
3) 무단결석	○	①	②	③
4)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	①	②	③
5)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훔치기)	○	①	②	③
6) 자살 생각	○	①	②	③
7) 가출(하룻밤 이상 보호자 허락 없이 귀가하지 않음)	○	①	②	③
8) 성관계	○	①	②	③
9) 성폭행이나 성희롱	○	①	②	③

E. 진로

E1

학생의 집에서는 학생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해당하는 번호 하나만 V표 해주십시오.

-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별로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많이 하는 편임 ⑤ 매우 많이 함

E2

학생은 앞으로 5년 이내(2015. 5. 1. ~ 2020. 4. 30.) 진로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 하나만 V표 해주십시오.

-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 ② 상급 학교 진학 ③ 진학하지 않고 취업 ④ 진학하지 않고 창업
⑤ 직업교육훈련 ⑥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을 도울 예정임 ⑦ 기타()

E3

학생은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진로 교육이나 체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V표 해주십시오.

구분	해 본 경험이 없다	해 본 경험이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와 직업' 과목을 통한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2)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3) 상담선생님의 상담 중심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4)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5) 인터넷 또는 동영상상을 통한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6)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7) 저명인사나 선배 초청강연을 통한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8)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9) 진로박람회에 간 경험	○	①	②	③	④
10)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	①	②	③	④
11)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	①	②	③	④
12)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	①	②	③	④

E4

학생은 희망 직업을 정하셨습니다가? 정했다면,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아니오(정하지 않았음)
② 예(정하였음) → E4-1. 장래 희망 직업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

E5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 하나만 V표 해주십시오.

- ① 아니오(없음) ② 예(있음)

F. 인권 및 인생관

F1 학생은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칸에 각각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2)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F2 학생은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칸에 각각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장래 희망직업을 정하였다	①	②	③	④
3)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5)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6)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F3 최근 1년(2014. 5. 1. ~ 2015. 4. 30.) 동안 다음 문항에 대해 학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칸에 각각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없다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4)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G. 응답자의 일반사항

G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G2 학생의 생년 월(양력 기준)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년 □□ 월 출생

G3 학생은 현재 몇 학년입니까? ① 중1 ② 중2 ③ 중3 ④ 고1 ⑤ 고2

G4 학생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 하나만 V표 해 주십시오.

① 없다 ② 개신교(기독교) ③ 천주교(가톨릭) ④ 불교 ⑤ 기타()

G5 학생의 지난 학기(2014년 2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V표 해 주십시오.

매우 미흡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수준	약간 우수	우수	매우 우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G6 학생은 부모님과 현재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 하나만 V표 해 주십시오.

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살고 있음 ② 아버지하고만 함께 살고 있음
③ 어머니하고만 함께 살고 있음 ④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살고 있지 않음

G7 학생은 현재 어느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대덕구 ② 동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중구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 2015-2]

2015년 대전광역시 청소년 실태조사

- 학생청소년을 중심으로 -

발 행 일 : 2015년 7월

발 행 인 : 이 정 순

발 행 처 : 대전복지재단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 (우: 34917)

전 화 : 042-331-8932

팩 스 : 042-331-8924

홈페이지 : <http://www.dwf.kr>

ISBN 978-89-98568-23-8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34917)
TEL : (042) 331-8932 FAX : (042) 331-8924 <http://dwf.kr>

